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역사	오대양 수원천변 고인돌 축조집단의 성격
역사	정규완 정조대 화성 영건과 축성 자료의 성격 - 「성제고(城制考)」와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중심으로 -
역사	장을연 정조의 활쓰기와 화성원행에 관한 연구
미술	이채영 수원 지역 화단(畫壇)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 1970~1990년대를 중심으로 -
정치	장연수 수원시민들의 정치가에 대한 평가와 구(區)별 투표율 변화에 대한 연구
조경	정경민·김은영·송원경 수원의 식물자원 발굴 및 활용방안
환경	이현경·황소하 수원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환경	이창호·김은영·전창우 Landsat 위성영상을 활용한 수원시 토지피복 변화 분석 - 1972~2017년을 중심으로 -

제15호
2019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역사	오대양 수원천변 고인돌 축조집단의 성격	1
역사	정규완 정조대 화성 영건과 축성 자료의 성격 - 『성제고(城制考)』와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중심으로 -	37
역사	장을연 정조의 활쏘기와 화성원행에 관한 연구	63
미술	이채영 수원 지역 화단(畫壇)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 1970~1990년대를 중심으로 -	99
정치	장연수 수원시민들의 정치가에 대한 평가와 구(區)별 투표율 변화에 대한 연구	143
조경	정경민 · 김은영 · 송원경 수원의 식물자원 발굴 및 활용방안	191
환경	이현경 · 황소하 수원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13
환경	이창호 · 김은영 · 전창우 Landsat 위성영상을 활용한 수원시 토지피복 변화 분석 - 1972~2017년을 중심으로 -	243

수원천변 고인돌 축조집단의 성격

오대양*

1. 머리말
2. 유적의 현황
3. 수원천변 고인돌의 특징
4. 수원천변 고인돌 사회의 성격과 고조선
5. 맺음말

1. 머리말

한반도의 고인돌은 해안가에 인접한 서해와 남해안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또한 나지막한 산줄기를 따라 형성된 크고 작은 물줄기를 따라 일정 규모의 밀집군을 이루기도 한다. 아마도 그것은 선사시대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많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수자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하천의 범람으로 위협을 받지 않는 곳, 아울러 산림자원과 동·식물군 식재료의 취득 역시 용이한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적어도 청동기시대 한반도에서 그러한 공간역에는 반드시 고인돌이 자리한 보편성을 보인다.

고인돌을 축조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공간을 선택할 때 크고 작은 물줄기의 흐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전담 조교수(Researching Assistant Professor, Academy of Asian Studies Dankook University), E-mail : uhpss@hanmail.net

름과 그에 대한 영향-환경-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것 같다. 그러한 점에서 고인들의 입지조건 중 수자원과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주지하다시피, 수원시는 물과 관련된 지명임과 동시에 고인들이 여럿 분포한 도시 중 하나이다. 수원 지역의 첫 이름은 ‘모수국(牟水國)’으로 비정된다. ‘모수’란 물이 많은 곳을 뜻하는 듯하다. 모수국은 삼한시대 마한 소국 중 하나로서, 『삼국지』동이전 한(韓)조에 소개된 마한 54개국 중 원양국(爰襄國) 다음 두 번째로 언급되어 있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¹ 수원시는 그 이후에도 ‘매홀(買忽)’, ‘수성(水城)’, ‘수주(水州)’ 등 물과 관련된 지명으로 불려 오다가 고려 원종 때인 1271년 ‘수주’가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로 승격되면서 수원이라는 명칭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²

도시 이름에 얽힌 오랜 역사를 들여다보면 수원시가 마치 바닷가에 접한 해안 도시인 듯 착각마저 든다. 그런데 현재의 수원은 화성과 오산, 안양, 용인시 등에 둘러싸인 내륙지역임이 분명하다. 수자원이라고는 인공적으로 공원화된 몇 개의 호수와 저수지 등이 전부인 듯 보인다. 지도에서나마 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의 물줄기들은 현대화된 도시의 빌딩 숲과 시멘트에 가려져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이처럼 지금의 수원은 예전과 같이 ‘물의 고을’로 부르기 힘든 측면도 있다. 다만 도시 깊숙한 곳에서는 크고 작은 하천들이 여전히 생기를 머금은 채 빌딩 숲 곳곳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현재에도 이러한 물줄기를 따라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그러한 곳은 어김없이 부동산 시장이 성세를 이룬다. 최근 수원에서 그러한 상승세가 가장 돋보이는 곳이 광고산도시이다. 이곳은 해발 582m의 광고산자락 남쪽에 임한 평탄지로서 광고저수지와 신대저수지, 원천저수지 등을 모두 끼고 있으며, 도시 둘레로 수원천과 원천리천 등이 어우러져 지역 내 가장 큰 물줄기인 황구지천

1 관련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三國志』魏書第30 東夷傳 韓條, “馬韓在西。其民土著, 種植, 知蠶桑, 作綿布。各有長帥, 大者自名爲臣智, 其次爲邑借, 散在山海間, 無城郭。有爰襄國、牟水國、桑外國 …… 乾馬國、楚離國, 凡五十餘國。”

2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시의 유래와 역사 - ‘수원의 첫 이름 모수국’ 참조. 2019년 10월 21일자 검색 (<http://www.suwon.go.kr/sw-www/www05/www05-01/www05-01-01.jsp>).

을 이뤄낸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곳에는 고인돌이 자리하는데, 비록 파괴되기는 하였지만 수원시를 포함한 경기지역 내 최대 규모의 것이 확인된 바 있다.³

우리나라 고인돌의 분포양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해안가에 바로 접한 곳이나 하천의 본줄기보다는 그곳에서 조금 떨어져 흐르는 지류천변 곳곳에 밀집군을 이룬다는 점이다.⁴ 밀집군 내에는 간혹 덮개돌의 규모가 4~5m 이상의 대형급 고인돌이 자리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고인돌이 자리한 곳의 입지와 주변의 다른 고인돌과의 배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매우 특별한 배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인돌의 주요 목적이 무덤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그 안에 잠든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를 짐작케 해 준다.

황구지천의 상류와 원천리천을 사이에 두고 그 중심에서 흐르는 수원천은 현재는 물론 청동기시대에도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줬다. 그것은 단순히 생활조건의 유리함을 넘어 주변지역과 원활히 교류·소통할 수 있는 지리·교통적 요충지로서의 이점도 크게 작용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공간역에서 확인되는 초대형 고인돌의 존재는 그것의 조영 목적이 단순히 무덤으로 사용되는 것 그 이상이었음을 보여 준다.

3 아래의 유적현황에서 소개될 수원시 이의동 해령골 1호 고인돌이 이에 해당된다. 물론 경기도 파주시 다율리 1호 고인돌로 소개된 석재의 규모가 813×425×225cm(한국선사문화연구소, 1994, 『다율리, 당하리 지석묘 및 주거지』)로서 경기지역 내 최대 규모를 보이기는 하지만, 해당 석재가 실제 고인돌로 사용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필자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박물관에서 실시한 '경기도 고인돌 종합학술조사'에 참여하였다. 당시의 조사성과는 『경기도 고인돌』(경기도박물관, 2007)이라는 종합보고서 형태로 발간되었으며, 필자는 여기에 수록된 대부분의 고인돌유적을 수차례 답사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지역 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다율리 1호 고인돌은 현재 군부대 내부에 위치하여, 실물 확인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조사 당시 고인돌로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인공적으로 손질된 흔적 및 주변에 고인돌이 군락을 이루는지의 여부 및 추정 고인돌의 외형 및 형식이 동일유적 내 다른 고인돌들과 크게 이질감이 없는가에 중점하였다. 비록 다율리 1호(추정) 고인돌은 고인돌 군락지에 위치한다는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인공적으로 손질된 흔적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었다. 게다가 만약 해당 석재가 고인돌로 사용되었다면, 그 형식은 한반도 남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 바둑판식의 외형에 가장 가깝다. 일반적으로 탁자식이나 개석식의 경우 이처럼 두꺼운 대형 석재를 사용하지 않는 보편성에 근거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기 일원에서는 이처럼 전형적인 형태의 바둑판식 고인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석재는 자연바위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원천변의 이의동 1호 고인돌은 비록 파괴되긴 하였지만 지표상에 드러난 모습에서 인공적으로 손질된 흔적이 뚜렷하다. 또한 하부에 겹쳐져 있는 손질된 판석재는 탁자식 고인돌의 받침돌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만한 규모와 형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큰 규모의 고인돌은 이의동 1호 고인돌로 잠정할 수 있겠다.

4 오대양, 2006, 「한강분류유역의 고인돌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쪽.

이 글은 수원천변에 분포한 고인들의 특징과 그것을 축조한 사람들의 성격을 살피기 위해 작성되었다. 필자는 지난 20여 년 전 경기도박물관에서 실시한 경기지역 고인돌 종합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조사 과정 중 수원시를 비롯한 오산과 화성, 평택, 용인, 의왕, 수원시 등 경기 남부지역 고인돌을 집중조사할 기회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수원시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여 흐르는 수원천변 일대의 고인돌유적은 필자가 고인돌 연구를 평생의 업으로 삼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한 경험에 미루어 추후 이 지역 일대 고인돌유적만을 대상으로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중서부지역 고인돌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확신한다. 비록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데 글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유적의 현황

1) 수원시 교동 팔달산 고인돌유적⁵

수원시립중앙도서관 동쪽, 팔달산 남사면에서 4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었다.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125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유적 주변에서는 덮개돌 크기의 판석재들이 곳곳에 노출되어 있어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수의 고인돌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의 고인돌군에서 정상부 쪽으로 10m가량 떨어진 지점에는 석재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생긴 채석흔이 명확한 커다란 모석이 남겨져 있다. 모석의 서쪽면이 반듯하게 잘려 나갔고, 그 주변으로 크고 작은 석재들이 널려져 있다. 이처럼 고인돌유적과 함께 그 채석장으로 판단되는 모석군이 발견된 사례가 많지가 않아 고

5 수원시, 1997, 『수원시사 中』, 60~61쪽; 기전문화재연구원·수원시, 2002,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96~298쪽; 경기도박물관, 2007, 『경기도고인돌』, 319쪽.



〈그림 1〉 교동 1호 고인돌(경기도박물관, 2006, 320쪽)

인돌 축조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비록 고인돌에 대한 정밀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적 정비과정에서 3조각으로 부러진 일단병식 석검이 수습되었다. 손잡이와 검신 부분은 손상되었고, 봉부는 결실되었다. 손잡이 크기는 길이 9.5cm, 두께 0.8cm, 잔존길이 27cm 정도이다. 간돌검은 우리나라 고인돌에 부장되는 대표적인 유물 중 하나이다. 고인돌에 부장되었던 것이 묘실의 파괴로 인해 지표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기 고인돌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1호 고인돌은 도서관에서 북동쪽으로 30m 정도 떨어져 있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고, 규모는 200×110×60cm 정도이다. 장축방향은 북-동이며, 덮개돌 아래에서 하부구조로 보이는 받침돌 일부가 확인된다. 2호는 1호에서 3m 정도 북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고, 규모는 179×163×50cm 정도이다. 장축방향은 북-동이다.

3호는 2호에서 산능선을 따라 100m가량 지나 길 좌측에 위치한 덮개돌은 유실되고 하부구조만 남아 있다. 매장주체부로 추정되는 크기 30~40cm 정도 석재 13개가 타원형태를 갖추고 있다. 암질은 화강암이다. 4호는 3호에서 북서쪽으로 약 3m 정도 떨어져 있다. 115×100×65cm 정도 크기 화강암질 석재가 동-서향으로 놓여 있다. 파괴된 고인돌의 덮개돌로 추정된다.

2) 수원시 이의동 헤령골 고인돌⁶

원천유원지 서쪽의 헤령골 일대에서 5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었다. 해발 80~100m 사이의 구릉사면과 평지상으로 북서-남동 방향 약 1.2km 범위 내에 일렬로 늘어진 형상이다. 조사 당시 구릉사면 곳곳에서 덮개돌 크기의 판석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래 보다 많은 수의 고인돌이 군집을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

1호 고인돌은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수원시의 광역 지표조사 과정에서 알려졌다.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헤령골마을 내 평탄지 느티나무 아래이다. 조사 당시 덮개돌로 추정되는 판석재 일부구간으로 시멘트를 매워 평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추정 길이는 7.5m 이상, 너비 4.4m 정도이며, 두께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지표상에 노출된 모습에서 두께가 균일하고 매끈하게 가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부구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서쪽과 남쪽의 일부 구간에서 역시 매끈하게 다듬어진 판석재 2개가 노출되어 있었다. 받침돌을 구성하였던 판석재가 무너져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장축은 북-25°-동이며, 암질은 화강편마암이다. 성혈이나 채석흔 등의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둘레 전반에 걸쳐 반듯하게 다듬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림 2〉 이의동 1호 고인돌(경기도박물관, 2007, 316쪽)

6 기전문화재연구원-수원시, 2002,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96~298쪽; 경기도박물관, 2007, 『경기도 고인돌』, 315~316쪽.

2호 고인돌은 1호의 서쪽 40m 지점 앞은 구릉 사이의 계단식 논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규모는 250×180cm 정도이다. 암질은 화강편마암이며, 장축은 1호와 같이 북동-남서향이다. 덮개돌 상면 곳곳에서 2~6cm 크기 성혈 30여 개가 관찰된다. 크기가 큰 1개를 중심으로 작은 것 5~6개씩 짝을 이루고 있다.

3호는 1호의 북서쪽 약 900m 지점에 있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230×150×30cm 정도이다. 장축은 북서-남동향이다. 4호는 1호의 남쪽 30m 지점 논외의 한복판에 자리한다. 덮개돌의 규모는 280×260×70cm 이며 장축은 북동-남서이다. 상면으로 설형 40여 개가 관찰된다. 마지막 5호는 1호의 남동쪽 300m 지점에 있다. 덮개돌의 규모는 250×250×40cm 정도이며, 주변으로 매장주체부의 잔해로 보이는 여러 개의 판석재가 겹쳐져 있다. 역시 덮개돌 상면으로 성혈 5개가 확인된다.

3) 수원시 호매실동 고인돌⁷

호매실동 마을내 야산에 조성된 민묘의 곡장안에서 고인돌 1기가 확인되었다. 조사 당시는 파괴된 상태였으나 덮개돌과 받침돌 일부가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다. 덮개돌의 동쪽 하단부로 채석 당시의 남겨진 흔적과 함께 11개의 성혈이 관찰된다. 성혈의 크기는 평균 지름 4~10cm, 깊이 2~5cm 정도이다. 덮개돌은 화강암질이며,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깝고, 규모는 225×170×43cm 정도이다. 장축은 남-북을 향한다.

4) 수원시 원천동 고인돌유적⁸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해발 113.1m의 능선 정상부이다. 동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원천저수지가 있다. 덮개돌의 규모는 150×130×60cm 정도이며, 장축은 남-

7 경기도박물관, 2007, 『경기도고인돌』, 318쪽.

8 경기도박물관, 2007, 『경기도고인돌』, 318쪽.

북을 향한다. 조사 당시 덮개돌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었으며, 하단부 주변으로 받침돌로 여겨지는 석재들이 겹쳐져 있었다. 2005년 기전문화재연구원과 고려문화재연구원의 조사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당시 고인돌 주변에서 무문토기편과 청동기시대 석부가 수습된 바 있다. 현재 민간신앙 차원에서 의례행위 흔적으로 판단 되는 촛대가 확인된다.

5) 수원시 하동 고인돌유적⁹⁾

원천저수지 제방 동북쪽 구릉에 위치한다. 고인돌은 덮개돌의 상면만 지표상에 노출되었는데 규모는 250×220×100cm 정도이다. 덮개돌 측면으로 채석흔적이 뚜렷하며, 주변부의 조사에서 청동기시대의 갈색 무문토기편이 수습된 바 있다. 위의 원천동 고인돌과 관계된 것으로 여겨진다.

6) 의왕시 이동고인돌 유적¹⁰⁾



〈그림 3〉 이동고인돌 주변 청동기시대 주거지(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5)

모두 2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었다. 유적은 의왕시와 군포시의 경계를 이루는 오봉산(해발 200m) 북서쪽 능선 하단부의 평탄지(해발 80m)에 위치한다. 조사 당시 1호 고인돌 주변으로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정확한 크기와 구조는 확인할 수 없

9 기전문화재연구원·수원시, 2002,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355~356쪽; 우장문, 2006, 『경기지역의 고인돌연구』, 학연문화사, 341쪽.

10 경기도박물관, 2007, 『경기도고인돌』, 312쪽.

었다. 지표상에 노출된 규모는 $640 \times 430 \times 220\text{cm}$ 정도이다. 덮개돌로 사용되기에 다소 두꺼운 면이 있어 자연바위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2호는 오봉산 남쪽 봉우리 정상부 남사면에 있다. 고인돌의 암질은 화강편마암이며, 받침돌 4개가 덮개돌을 받치고 있는 구조이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245 \times 200 \times 50\text{cm}$ 정도이다. 장축은 북서-남동향이며, 성혈과 채석흔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적 주변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이 발굴되어 고인돌과의 연관성이 고려된다.

7) 의왕시 삼동고인돌 유적¹¹

1988년 안양~부곡 간 도로공사 과정 중 3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었다. 이중 2기는 파괴되어, 보존상태가 양호한 나머지 1기만 발굴되었다. 발굴된 고인돌의 위치는 해발 47m의 다소 경사를 이루는 평지상에 해당되며, 주변으로 낮은 구릉들이 연속되는 하천변의 평야지대이다. 덮개돌은 화강암이며, 규모는 $220 \times 160 \times 60\text{cm}$ 이다. 덮개돌의 상면과 옆면에는 채석흔적으로 보이는 타원형의 구멍들이 열을 지어 있다. 덮개돌 하부의 매장주체부는 토광을 그대로 사용한 듯하다.

3. 수원천변 고인돌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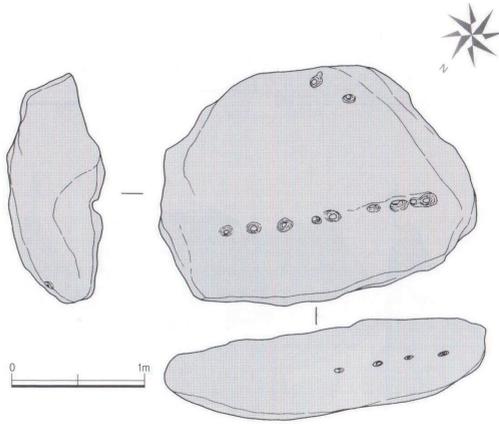
1) 분포와 입지

수원천은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광교저수지를 거쳐 영화동, 북수동, 팔달로, 매산로 등 수원의 구시가지지를 관통한다. 이후 권선구 대황고동에서 황구지천에 합류하는 지방2급의 하천이다. 길이는 2.72km , 유역면적은 25.80km^2 이다.¹²

수원천을 중심으로 그 좌우측에는 황구지천의 상류와 원천리천이 나란히 남북

11 임호재·하문식 외, 1988, 「시흥 삼리지석묘 발굴조사보고」, 『판교~구리-신갈~발원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 충북대학교 박물관, 493~514쪽; 경기도박물관, 2007, 『경기도고인돌』, 314쪽.

12 [네이버 지식백과] 수원천(두산백과), 2019년 10월 18일자 검색(<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1408&cid=40942&categoryId=32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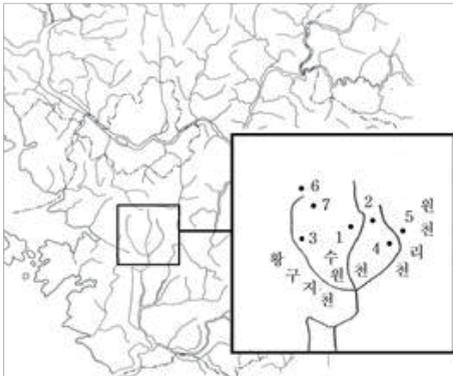


〈그림 4〉 삼동고인돌 실측도(경기도박물관, 2006, 531쪽)

방향으로 흐르다가 수원시 대왕교에서 서로 만나 국가하천급인 황구지천의 본류를 이룬다. 이후 순차적으로 진위천 및 안성천과 어울리면서 아산만을 통해 서해로 유입된다. 현재 황구지천의 상류와 수원천, 원천리천 등 3줄기 하천이 어울리는 곳은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등 수원시내 중심구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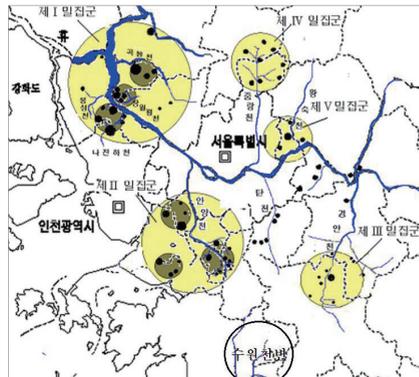
속한다. 이곳은 해발 582m의 광교산 자락 남쪽의 하천변 평야지대로서 여러 하천들의 작용으로 퇴적된 토사층적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수원천변을 중심으로 직경 10km 범위에는 모두 7개의 유적에서 15기 가량의 고인돌이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실제 유적을 답사해 보면 고인돌로 판명된 유적 주변 곳곳에서 덮개돌 규모의 판석재가 다수 노출되어 있어 보다 많은 수의 고인돌이 밀집군을 이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수원천변 고인돌유적 분포도

1. 교동 2. 이의동 3. 호매실동 4. 원천동 5. 허동 6. 이동 7. 삼동



〈그림 6〉 한강본류유역 고인돌 분포 및 밀집군 현황

(오대양, 2006, 18쪽, 지도 1 전제)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처럼 소하천 여러 개가 만나 합수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고인돌이 밀집군을 이루는 현상이 간취된다. 연구에 따르면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 밀집도나 거리의 간격정도에 따라 소밀집지역과 대밀집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직경 3~6km 정도의 범위를 가지는 소밀집지역 5~6개가 모여 하나의 대밀집지역을 이룬다고 한다.¹³

그렇다면 수원천변 인근에서 고인돌이 군락을 이루는 지역군의 구체적인 연구 사례를 검토해 보자. 먼저 서울·경기와 인천을 관통하여 흐르는 한강본류유역에는 모두 5개의 고인돌 밀집군이 분포한 것으로 밝혀졌다.¹⁴ 해당 공간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여러 개의 고인돌 중·소군집유적이 모여 하나의 밀집군을 형성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수원천변의 실질 수계인 안성천유역에서 고인돌이 밀집군을 이루는 현상과 비교해 보자. 안성천유역에는 모두 25곳의 유적에서 60여 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었다. 대부분은 안성천의 상류 지천인 황구지천 본류유역에 분포한 특징을 보이는데, 직경 25km 정도의 범위 내에 40여 기의 고인돌이 밀집군을 이룬다.¹⁵ 이 글의 주요 분석 대상인 수원천변은 그러한 황구지천의 상류역에 해당된다. 수원천변에 분포한 고인돌은 광교신도시 내 이의동유적에서 5기와 원천동유적 1기를 비롯하여 교동 팔달산 4기, 하동 1기, 호매실동 1기, 의왕시 이동 2기, 삼동에서 1기 등 모두 15기가 직경 10km 범위 내에 소밀집군을 이룬다.

이상과 같이 수원천변을 포함하는 안성천 및 한강본류유역의 고인돌유적은 모두 서해안과 가까운 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하천의 본줄기보다는 각각의 지류 하천변에 밀집군을 형성한 공통점을 보인다. 또한 두 하천 모두 하류에서 상류지역으로 올라갈수록 고인돌 수와 밀집 정도가 점차 소략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해당지역 내 고인돌 축조 집단의 사회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를테면, 한강하구와 안양천유역(한강본류수계) 및 황구지천의 본류역(안성천수

13 고인돌의 밀집 분포권에 대해서는 이영문(2002, 『한국 지석묘사회 연구』, 학연, 82-90쪽)과 유태용(2003, 『한국 지석묘연구』, 주류성, 433-449쪽), 우장문(2006, 『경기지역의 고인돌연구』, 393-399쪽)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14 오대양, 2006, 『한강본류유역의 고인돌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20쪽.

15 우장문, 2006, 『경기지역의 고인돌연구』, 학연, 370-374쪽.

계)에는 대군집을 이루는 지역집단이 그리고 수원천변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는 중·소군집을 이루는 소규모 집단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한강하구에 인접한 서해안지역에서는 대군집을 이루는 유적들이 다수 발견되는데 곡릉천유역의 파주 다솔·당하리유적¹⁶과 나진하천유역의 인천 대곡동유적¹⁷에서는 모두 100여 기의 고인돌이 조사된 바 있다. 이는 곧 한강과 안성천수계를 포함하는 서울·경기지역 내 단일유적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밀집된 사례로 꼽힌다.

주목되는 점은 이처럼 고인돌이 대규모로 밀집한 유적들의 입지적인 면에서 한 가지 공통되는 특징이 발견되는 점이다. 그것은 비교적 해발고도가 높은 산줄기를 주변에 두고, 거기에서 발원하는 크고 작은 물줄기가 나지막한 구릉지와 협곡을 따라 여러 갈래로 흐르다가 점차 하나로 어우러지는 하천변의 평야지대로써, 그러한 곳에는 어김없이 고인돌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가깝게는 다울리와 대곡동유적이 있으며, 멀게는 양평의 양수리유적,¹⁸ 춘천의 중도유적¹⁹과 정선의 아우라지유적²⁰ 등이 그러하다. 모두 2~3개가량의 물줄기가 합수부를 이루는 곳이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수원천변 역시 바로 이처럼 고인돌이 자리하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여러 개의 하천과 호수, 저수지 등에 둘러싸인 광교신도시의 이의동 해령골에서는 덮개돌의 장축 규모가 7m가 넘는 초대형 고인돌이 조사되었다. 이곳은 수원천변의 중심구역으로서 여러 대소하천들의 작용으로 형성된 평탄한 충적대지가 광범히 하게 펼쳐진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고인돌이 자리한 곳의 특징은 구릉과 산줄기, 평지 등 3개의 입지상을 보여 준다.²¹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경기지역에서 발견된 초대형 고인돌들은 대부분 이처럼 평지상에 위치한 공통점을 보인다. 먼저 한강본류유역을 예로 들면 평지에 위치한 고인돌이 산줄기나 구릉사면에 위치한 것보다 1.5배가량

16 김재원·윤무병, 1967, 『한국지석묘연구』,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6책.

17 이형구, 2001, 『인천대곡동 고인돌무덤 지표조사 보고서』, 동양고고학연구소.

18 이호관·전유진, 1974, 『양평군 양수리지석묘 발굴보고』, 『팔당·소양댐 수몰지구유적발굴종합 보고』, 문화재관리국.

19 중도선사유적발굴조사단, 1982, 『중도지석묘 발굴보고』; 최복규, 1984, 『중도 고인돌 발굴조사보고』, 강원대학교 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2집, 강원대학교박물관.

20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정선 아우라지유적』.

21 하문식, 1999, 『고조선지역의 고인돌연구』, 학연, 170~178쪽.

큰 수치를 보인다. 그와 함께 고인돌이 평지상에 입지할 경우 대부분 1~2기의 조합만 확인되는 반면, 산줄기나 구릉지에서는 여러 기가 군집을 이루는 보편성을 보인다.²² 그와 유사한 현상이 인접한 강화도²³와 임진강 하류역²⁴에서도 확인된다.

임진강 하류 수계에 속하는 포천 수입리와 자작리, 금현리유적에서 발견된 탁자형 고인돌은 덮개돌의 규모가 4~6m로 대형급에 속하는데 모두 평탄한 한천변 평지에 입지하며 군집을 이루지 않고 단독으로 위치한 공통점을 보인다. 그리고 강화도의 탁자형 고인돌 역시 평지상에 단독으로 위치한 것들이 그 외의 경우와 비교하여 덮개돌 규모가 평균 1.5~2배가량 크다. 무엇보다 부각되는 특징은 이처럼 평지상에 위치한 대형급의 고인돌은 각 밀집군의 중심지에 위치한 보편성을 보이는 점이다. 한강수계의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김포 고정리, 시흥 조남동, 광주 궁평리, 용인 왕산리 고인돌 등이 대표적이며, 수원천변에서는 이의동 1호 고인돌이 여기에 해당된다.²⁵

이처럼 특별한 입지를 가지는 대형급의 고인돌은 무덤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보다 특별한 목적을 가졌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앞서 살핀 포천 수입리와 자작리·금현리 고인돌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흐르는 광주산맥을 따라 일직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광주산맥을 이루는 국망봉, 강씨봉, 명지산, 수덕산, 계관산 등은 해발 800~1,000m에 이르는 고산들로 포천과 가평지역을 일직선으로 가르는 경계가 된다. 수입리·자작리·금현리 고인돌은 포천과 가평을 가르는 경계선을 따라 일렬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 경계선 우측으로는 고인돌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평지상의 대형급 고인돌들은 축조집단의 영역을 표시하는 기념물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²⁶

이 외에 한반도 서북지역의 대동강유역과 중국의 요동반도에서도 그와 유사한 양상의 고인돌 입지상이 관찰되어 보다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황해도 은율 관산리와 오덕리 송신동의 탁자형 고인돌은 덮개돌의 규모가 모두 7~8m 이상

22 오대양, 2006, 「한강분류유역의 고인돌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쪽.

23 이형구, 2006, 『강화도 고인돌무덤 조사연구』, 춘추각.

24 최만정, 2006, 「임진강유역의 고인돌 분포 연구」, 『선사와 고대』 25, 385~407쪽.

25 경기도박물관, 2007, 『경기도고인돌』.

26 오대양, 2006, 「한강분류유역의 고인돌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6쪽.

이다. 두 유적 모두 해당 지역 내 고인돌 밀집군의 중심지에 위치한다. 아울러 이곳은 서북한지역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문화인 팽이형토기문화권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 외에 덧개돌의 규모가 7m 이상인 운정 지석리유적과 배천 용동리유적은 각각 팽이형토기문화의 분포권 남북 경계지점에 자리한 특징을 보인다.²⁷

다음으로 요동반도의 개주(盖州) 석봉산(石棚山)과 장하(庄河) 대황지(大荒地)고인돌의 덧개돌 역시 모두 7m 이상이다. 이들 또한 해당지역 내 고인돌 밀집군의 중심부에 자리한 보편성을 보인다. 그리고 덧개돌의 규모가 6m 정도인 대형급의 보란점 소관둔(小關屯)고인돌은 요동지역 고인돌 분포권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이 유적을 기준으로 남쪽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기의 고인돌도 발견되지 않았다. 해성(海城) 석목성(析木城)고인돌 역시 덧개돌의 규모가 6m가량인 대형급 탁자형 고인돌이다. 이 고인돌은 요동반도 고인돌 분포권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그와 접경하는 태자하유역에는 요동 북부지역 초기 청동기시대문화인 마성자문화가 위치한다. 해당문화의 주요 묘제는 동굴묘와 석관묘로서 고인돌과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²⁸ 그간 덧개돌의 규모가 대형급이면서, 사방의 조망이 좋은 구릉지에 단독으로 배치된 탁자형 고인돌은 집단의 의례나 제사활동을 위한 건축물로 이해되어 왔다.²⁹ 하지만 규모나 성격에서 유사성을 보이지만 평지상에 1~2기씩 배치되는 이러한 초대형 고인돌의 성격은 보다 특수한 의도가 숨겨진 것으로 이해된다. 아마도 집단의 경계나 생활·영역권의 표시, 나아가 집단의 조직력이나 위용, 사회규모를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었을지도 모르겠다.

2) 출토유물과 편년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묘제로 알려져 있다. 분포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한 관계로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경기권에서는

27 해당 단락의 내용은 오대양의 글(2014, 「북한지역 고인돌유적의 특징과 성격」, 『선사와 고대』 40, 80~90쪽)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28 오대양·백종오, 2015, 「마성자문화 동굴묘의 형식과 전개양상」, 『동아시아고대학』 40, 120~125쪽.

29 해당 단락의 내용은 백종오·오대양의 글(2014, 「요동지역 지석묘의 발굴현황과 연구성과」, 『동아시아고대학』 34, 45~50쪽)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둔다.

적어도 기원전 9세기 무렵부터는 고인돌이 축조되기 시작하며, 기원전 3세기 이후 점차 소멸기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³⁰

수원천변의 고인돌에서는 아쉽게도 출토유물이 거의 확인된 바 없어 정확한 축조연대를 알 순 없지만, 고인돌 주변에서 확인되는 유사한 성격의 유적들과 비교하여 그러한 시간성이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예를 들면 원천동과 하동 고인돌의 주변부에서 무문토기편과 청동기시대 석부가 수습된 바 있다. 그리고 교동 팔달산유적에서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중후기의 표지유물인 일단병식의 간돌검이 파손된 채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근의 서둔동 여기산유적, 울전동유적, 이목동유적, 호매실지구 유적, 화성 동학산유적, 화성 천천리유적 등에서도 동시기성을 보이는 청동기시대의 생활 및 제사유적이 대거 조사된 바 있어 고인돌이 조영되는 상대연대를 짐작케 해 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우리나라 전역에는 4만여 기 이상의 고인돌이 분포한다고 보고되었다. 그중 축조연대를 알게 해 주는 부장품이 보고된 것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나 고인돌이 청동기시대 혹은 고조선의 수장묘로 인식되는 점에서 당시의 위세품으로 분류되는 청동기류의 부장이 빈약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한 현상에 대하여 고인돌이 외부에 노출된 관계로 파괴가 쉽고, 부장품이 잘 남아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와 함께 고인돌의 특성을 떠올려 보자.

고인돌은 이것이 무덤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조성 목적이다. 그래서 외부인들에게 보다 잘 인식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크고 웅장하게 조성하려는 특성을 가진다. 보다 크고, 웅장하게 만든 것은 보다 부귀하거나 상위계층의 무덤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상위계층의 무덤에는 보다 많고 진귀한 보물이 부장된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무덤의 조성 당시는 물론 그 후로도 지속적인 도굴의 위협에 처하게 된다. 그러한 사실은 고인돌 축조인들 역시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인지 속에서 과연 당시 사람들이 고인돌 안에 진귀한 보물을 다량 부장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특히 우리나라 청동기시

30 최민정, 2006, 「임진강유역의 고인돌 분포 연구」, 『선사와 고대』 25, 390~395쪽; 오대양, 2006, 「한강본류유역의 고인돌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4~77쪽.

대의 상징적인 유물인 비파형동검은 당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없는 최첨단 무기에 속한다. 그러한 최첨단 무기를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할 뿐만 아니라 도굴의 위험도 큰 고인돌에 아무렇지 않게 부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요동과 한반도의 고인돌에서 적게나마 출토되는 비파형동검류는 대부분 파손품이 많다. 비파형동검을 파손하여 부장하는 이유는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제의적 해석도 가능하겠지만,³¹ 도굴 등으로 불손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비파형동검을 입수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그러한 과정, 예를 들면 단순히 비파형동검을 얻기 위해 고인돌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고인돌은 그 축조 과정상 당시의 상류층 사람들이 잠든 무덤이라는 사실과 그것이 자리한 공간역이 대중들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다. 만약 그 안에 보편적으로 비파형동검이 부장되었다면, 그러한 위세품을 손쉽게 얻기 위하여 고인돌을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을 것이다. 고인돌에 비파형동검을 부장하되 재 활용될 수 없도록 훼손하는 현상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외적으로, 고인돌 내부에서 완형의 비파형동검이 출토되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한다. 요동지역은 보란점 쌍방유적의 6호 고인돌, 한반도에서는 여수 적량동유적이 대표적이다. 필자는 그러한 유적들을 비파형동검문화의 초창기 흔적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비파형동검문화가 본격화되는 기원전 9~8세기 무렵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고인돌문화가 막 정착되기 시작한 단계이다. 아마도 초창기에는 고인돌 내부에 완형의 비파형동검을 부장하기도 하였으나, 추후 도굴의 위험을 인지하게 되면서 차츰 그러한 행위를 그만둔 것이 아닐까 한다. 아울러 다량의 청동기가 부장된 사례가 있었을지라도 고인돌이라는 특성상 그것이 현재까지 잘 보존되리라 쉽지 않은 일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해 보았을 때, 특히 고인돌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그 조성 목적을 상기할 경우, 그 내부에 다량의 청동기가 부장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반면 석관묘과 토광묘(목관묘) 등은 기본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조성 당시 일정 기간 동안만 관리가 잘 이루어졌다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무덤의 원형과 그 안에 부장된 청동기류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다. 따라서 고인돌에 비해 큰 부

31 하문식, 1999, 『고조선지역의 고인돌연구』, 학연, 261쪽.

담 없이 부장품목도 다양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고인돌에 부장품이 적은 현상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단순히 출토유물이 빈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인돌사회의 규모와 발전상을 저평가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약하다. 그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분위기를 환기할 겸, 장을 옮겨 지속하고자 한다.

4. 수원천변 고인돌 사회의 성격과 고조선

여러 가지 정황상 수원천변의 고인돌은 한반도 남부지역 청동기시대 중후기 단계에 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타자의 시선에서 기록된 중국계 문헌의 내용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보아도 대략 기원전 7~4세기로 특정되는 이 시기 고인돌문화의 분포권인 요동과 서북한지역에는 고조선이 성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한 사실은 춘추시대의 사실을 전국시대에 재편집하여 수록한 것으로 파악되는 『관자(管子)』의 경중갑편(輕重甲篇)과 규도편(揆度篇)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³²

1-① 桓公이 管子에게 물어 답하기를, ‘海內玉幣로서 일곱 개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그에 관하여 들을 수 있겠습니까?’ 管子가 답하기를, ‘陰山の 礪磬이 그 하나요, 燕의 紫山白金이 그 하나요, 發朝鮮의 文皮가 그 하나입니다.’(『管子』 券23, 揆道 第78)

1-② 管子가 답하였다. ‘(……) 發朝鮮이 朝貢을 오지 않으면, 文皮와 毳服을 貨幣로 만듭니다. (……) 한 장의 표범 가죽은 金보다 귀합니다. 이를 貨幣로 만든 다음에야 8천 리 밖의 發朝鮮이 朝貢을 할 것입니다.’(『管子』 券23, 輕重甲 第80)

위의 두 기사를 신뢰할 수 있다면 적어도 기원전 7~4세기 무렵에는 고조선이라

32 본절에서 요동~서북한지역의 고인돌 및 고조선에 관한 내용은 필자의 선행논고(오대양, 2019, 「요동~서북한지역 고인돌 축조집단의 성격과 그 주변」, 『호남문화재연구』 27, 2~5쪽)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일부 수정·요약한 것임을 밝혀 둔다.

는 정치체가 성립되어 중국과 교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 중서부지역은 청동기시대 중후기문화인 소위 역삼동유형과 송국리유형의 교체기로 고조선 사회의 주변부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게 볼 때 한반도에서 고인들을 축조한 집단 가운데 문헌상에 등장하는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 된다. 그렇다면 당시 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간에 우리 학계에서는 고조선의 사회상과 성격을 이해하던 자료로서 비파형동검과 미송리형토기 그리고 고인들 등이 활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고인들은 고조선의 지배계층 묘제로 설명되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고조선 사람들이 사용하다 남겨진 유물로서 고인들에 부장된 비파형동검과 미송리형토기 등이 제시되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글의 주안점은 고인들 축조집단의 사회적 성격은 청동기시대 복합화가 덜 진전된 족장사회로서 아직 군장사회로까지는 진입하지 못하였으며, 고조선이라는 정치체를 주도하는 집단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고인들 축조과정에 동원된 대규모의 노동력은 당대 사회조직과 권력에 의해 강제적인 동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동체의 자발적 협업을 통한 것으로 해석하는 점이 주목된다.³³ 그와 함께 고조선 건국의 중심세력으로서 비파형동검문화를 중심으로 발전된 요서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를 지목한다. 이 문화는 기원전 8세기 초엽에 조성된 조양 십이대영자유적의 석곽목관묘와 그 안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과 다뉴경 및 각종의 청동장식품 조합을 표지로 한다.³⁴

그와 유사한 계통의 것이 기원전 6세기 무렵 심양 정가와자유적³⁵에서, 기원전 4세기 무렵부터는 한반도에서도 그와 유사한 문화현상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요컨대, 초기 고조선의 중심지로서 요서의 조양지역을 주목하였고, 그것이 점차 요서-요동-한반도의 순서로 시공간을 달리하며 전개되는 문화적 연속성에 착안하여, 문헌상에 기록된 고조선의 중심지 변화와 그와 상관된 한반도 남부의 진국 및 삼한

33 이창규, 2016, 「청동기 보급의 주체와 지석묘 축조 집단」, 『백산학보』 106, 5-6쪽.

34 朱貴, 1960, 「遼寧朝陽十二台營子青銅短劍墓」, 『考古學報』 1.

3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1989, 「沈陽肇工街和鄭家窪子遺址的發掘」, 『考古』 10;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86, 「조공가와 정가와자」, 『중국 동북지방의 유적 발굴보고(1963-65)』, 사회과학원출판사.

사회에 대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³⁶ 여기에서는 잠시 지면을 빌려 최근의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싶다.

주지하다시피, 고조선 건국의 중심세력을 논의하는 데에 당대 청동기문화의 선진성과 발전 수준이 자주 거론된다. 기원전 1,000년기 무렵의 청동기문화는 확실히 요서지역이 요동과 한반도에 비해 선진적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청동기가 발굴된 대부분의 유적이 무덤이라는 데 있다. 무덤에 부장된 청동기류의 종류와 양적 비교를 통해 청동기문화의 수준을 가늠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인돌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그 조성 목적을 상기할 때 그 내부에 다량의 청동기가 부장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무덤의 조성목적과 사회적 활용도는 고려하지 않고 청동기의 부장성만을 근거로 해당 집단의 발전상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비파형동검문화기 요하를 경계로 구분되는 두 지역의 청동기 제작집단은 크게 4가지계통으로 분별될 수 있다. 첫째는 요서의 십이대영자문화인이며 주요 묘제는 석곽(목관)묘이다. 둘째는 요동반도 남단의 강상유형인이며 주요 묘제는 적석총이다. 셋째는 요동반도권의 쌍방유형인이며, 주요 묘제는 고인돌이다. 넷째는 요동 북부권의 이도하자유형인이며 주요 묘제는 석관묘이다. 모두 관련 유적에서 청동기 거푸집이 출토된 바 있기에 자체적인 청동기제작술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그 인접지역인 길림지역에는 서단산유형인이 석관묘를 주요 묘제로 하였고, 서북한의 미송리유형인들과 한반도 서남부의 송국리유형인들은 고인돌과 석관묘를 묘제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주변 집단의 비파형동검문화는 요서와 요동지역민들을 매개로 공유되었을 것으로 본다.³⁷

묘제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이상의 각 지역민들은 모두 고유한 신앙체계와 관습, 매장풍습 등을 가진 독립집단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파형동검이라는 독특한 무기체계를 공유하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군사적 성격의 동맹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고유한 묘제와 매장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와 동시에 각 묘제들은 시간성을 달리하

36 이청규, 2016, 「청동기 보급의 주체와 지석묘 축조 집단」, 『백산학보』 106, 5~10쪽.

37 吳大洋, 2013, 『朝鮮半島北部地域青銅器時代墓制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105~107쪽.

면서 공유되는 지역적 보편성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비파형동검문화의 전반부에는 석관묘가 가장 넓은 분포상을 보이지만, 후반부에 이르면 요서지역에 기반한 석곽(목관)묘와 토광묘제가 보다 광역적인 분포상을 가진다. 반면 고인돌은 전시기와 형식을 아울러 요하를 경계로 분포의 한계선이 명확하다. 고인돌은 문화 초창기(기원전 10세기 이전) 요동반도에서 서북한으로 동쪽 방향의 확장성을 보이며, 비파형동검문화기에는 다시 요북과 길림지역으로 순차적인 확산과정을 보인다.³⁸

즉 비파형동검문화의 초창기 요하를 경계로 요서의 석곽(목관)묘제와 요동의 고인돌계가 대척점을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동일한 무기체계를 공유하고 있었지만, 집단의 정체성과 각자 자신들의 생활영역은 엄격히 구분된 것이다. 고인돌에 제의와 제단적 요소가 포함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요서계의 목관묘에 부장된 다뉴경 역시 제의나 신앙적 요소에 관계되었음이 잘 알려져 있다. 두 집단은 서로 다른 방식의 신앙체계로서 제의를 주관하였고 그것이 묘제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음이다.

한편 비파형동검문화의 초창기 석관묘가 가지는 광역성은 쉽게 구하여 다듬어 사용할 수 있는 재료(석판재)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후반부에 접어들어 석곽 내부에 목관을 두는 독특한 구조의 묘제(석곽목관묘 혹은 목곽묘)가 요동, 서북한 및 한반도 서남부지역에서도 조성되는 현상은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나 한반도에서는 상당히 이질적이던 요서계의 묘제가 공유되었다는 사실은 집단의 신앙체계나 정체성이 공유되었음은 물론 문화영역의 확장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를 기점으로 요서와 요동 및 한반도 지역민의 결속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시종일관 요하 이서지역으로 분포범위를 넘지 않은 고인돌은 지역적 개성이 명확한 묘제로 이해된다. 단순히 적당한 크기의 덮개돌을 주변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심이대영자문화의 중심 분포권인 대소릉하유역을 답사해 보면 덮개돌로 사용될 만한 암석군이 다수 확인된다. 심지어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산 구릉 곳곳으로 덮개돌 크기의 가공되지 않은 석재들이 자주 눈에 띄기도 한다. 비슷한 현상을 적석총 분포권인 요동반도 남단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부의 적석총 중에는 개별 묘실 상부에 고인돌

38 吳大洋, 2013, 『朝鮮半島北部地域青銅器時代墓制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120~125쪽.



〈그림 7〉 왕보산 적석총(좌)과 묘실개석(우)

에 버금하는 대형 덮개돌이 올려져 있기도 하다(그림 7 참조). 단순히 적당한 재료의 부재만으로 고인돌 조성의 한계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유이다.

석관묘나 석곽묘, 목관묘제의 조성에 드는 노력은 고인돌에 비해 크지가 않다. 특히 초대형의 고인돌은 누구나 원한다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성격의 건축물이 아니다. 단언컨대 이들 중 가장 상위 등급의 묘제는 초대형의 탁자형 고인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조영할 지역사회의 규모와 경제비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노동력을 제공할 당사자들의 합의(일정)를 이끌어낼 창구가 필요하다.

소규모의 한 지역집단이 1,000여 명에 가까운 건장한 노동력을 모두 충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적어도 몇 개 이상의 집단에서 차출될 것인데 그러한 집단들 간에 노동력이 제공되는 일정과 비용문제를 결정하고 합의점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각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할 수 있는 관리기구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성격의 정치기구가 존재하였다는 반증이 된다. 따라서 단순히 부장된 청동기류의 빈약성만을 가지고서 고인돌 사회를 군장사회에 도달하지 못한 단순 족장사회로 파악하거나 석(목)곽묘에 비해 하위등급의 묘제로 규정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상식적 이해와 전략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초대형의 탁자형 고인돌을 축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집단의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체계적으로 잘 정비된 세력의 위세를 과시하기에 충분하다.

기원전 6~4세기 무렵 요동지역에 진출한 요서계의 청동기 부장묘는 심양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그것은 당시 고인돌 중심분포권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이 시기 요동지역에서 명확한 축조연대를 알 수 있는 초대형 고인돌은 확인할 수 없지만, 지

리적 위치와 입지, 규모, 건축기법과 석재의 다듬어진 정도 등에 미루어 개주 석봉산 고인돌이 그 후보로 유력하다. 입지와 건축기술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보란점 석봉구와 해성 석목성 등의 탁자형 고인돌 역시 덮개돌 규모가 5~6m의 초대형이지만 석재의 다듬어진 정도와 묘실의 정교한 교함면에서 석봉산 고인돌에 한참 부족하다.

무엇보다 이처럼 정교하게 다듬어진 덮개돌 7m 이상의 초대형 고인돌이 요동반도 고인돌 분포권의 중심부에 단독으로 배치된 점이 주목된다. 대동강유역에서는 덮개돌 규모가 6~7m 이상 되는 대형급 고인돌이 적어도 기원전 7세기 무렵부터는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⁹ 정황상 요동지역에서 유사한 규모와 입지, 건축기법이 적용된 고인돌들 역시 유사한 연대를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고인돌 분포권 중심부에 단독으로 배치되면서 압도적인 규모와 정교한 석공 기술이 아울러 배풀어진 개주 석봉산류의 것은 고조선의 시공범위 내에서 유일한 사례가 된다. 만약 이러한 초대형의 탁자형 고인돌이 고조선의 왕릉급 무덤으로 사용되어 졌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손색이 없다.

대동강유역에서 유사한 규모와 입지를 보이는 것이 존재하지만 석봉산류와 같이 정교한 석공 기술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가장 근접한 것으로 은을 관산리 1호의 덮개돌이 8m 이상이지만 주변으로 중대형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는 점과 다듬어진 정도에서 석봉산류에 비견될 수 없다. 철제 도구류가 본격화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석봉산급의 석재 가공술을 구현해낸다는 것은 단지 장인의 섬세함과 정성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양질의 청동기가 다량으로 부장된 무덤 이상으로 대중들에게 파급될 위세적 가시효과는 더욱 크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 볼 때 그것은 고대 국가에 버금하는 수준의 사회-적어도 요동과 한반도지역에서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규모 공사가 사회 구성원들 간에 큰 반발 없이 단행될 수 있는 명분과 정치력, 그것이 적어도 무덤이라면 국가 수준의 최고 통수권자의 무덤, 즉 왕릉급임이 자명하다. 만약 개주 석봉산 고인돌을 고조선 시기의 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조성된 시점은

39 하문식, 1999, 『고조선지역의 고인돌연구』, 학연, 270쪽; 오대양, 2014, 『북한지역 고인돌유적의 특징과 성격』, 『선사와 고대』 40, 90-95쪽.

고조선이 고대 왕권국가에 진입한 기원전 4~3세기대의 사건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겠다. 또한 그러한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일종의 대국민 홍보 행사로 선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석봉산의 초대형 고인돌은 고조선의 왕릉급 묘제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황상 고조선 건국의 주도세력은 요동~서북한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세력을 결집한 고인돌문화인일 수 있다는 논리도 다시금 뒷받침된다.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왕권국가에 진입한 기원전 4~3세기대 고조선의 중심지는 왕릉급 묘제가 위치한 요동반도권, 그중에서도 천산산맥의 서남쪽, 발해만에 근접한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에 미루어 수원천변 고인돌 축조집단의 성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수원천변 일대에는 대략 직경 10km 범위 내 7곳의 유적에서 15기가량이 조사되었다. 주변지역 고인돌 밀집군에 비해 다소 소략한 범위와 군집이긴 하지만, 실제 그 안에서 드러난 정황을 보면 상당한 규모의 지역집단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원천동과 하동 및 교동유적의 조사과정에서 이 지역 청동기시대 중후기 단계의 유물이 확인되었음을 논하였다. 그렇다면 수원천변의 고인돌 밀집군은 대략 기원전 7~4세기 무렵에 형성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수원시를 포함하는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이 시기 역삼동유형을 거쳐 송국리유형이 정착되는 단계이다. 수원천변 고인돌 밀집군 주변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의 각종 유적·유물군이 바로 그와 유사한 시기와 성격을 보이는 점도 이 지역 고인돌의 상대편년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의왕시 삼동 고인돌의 발굴과정에서 알려진 몇 가지 사실들은 이 지역 고인돌의 축조과정과 당시 사회의 성격을 추론케 하는 여러 정보를 제공해 준다.

먼저 삼동 고인돌의 석재를 운반해 온 채석장이 유적에서 서쪽으로 1.8km 떨어진 구봉산 기슭임이 밝혀졌다. 또한 덮개돌의 규모를 통해 무게를 산출하여, 이 정도 규모의 석재를 채석장부터 옮겨 와 고인돌을 축조하는 데 200명가량의 건장한 노동력이 참여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묘실 내 남겨진 흔적과 규모에 미루어 시신은 바로 퍼묻기 되었으며, 그 위로 고운 흙을 뿌려 마감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와 함께 묘실에서 채취된 시료들의 P_2O_5 함량을 분석한 결과 두 향은 산출기의 흐

름과 나란히 한 사실도 알려졌다.

다음으로 수원천변에 분포한 많은 수의 고인돌에서 채석 당시의 흔적과 함께 성혈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호매실동과 이의동, 삼동 고인돌에서 그러한 채석흔과 성혈이 함께 확인되었고, 교동 팔단산유적은 고인돌유적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채석이 이루어진 모석군이 함께 조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채석흔적과 성혈 등은 발굴조사 전 지표조사가 이루어질 때, 판석재가 과연 고인돌로 사용된 것인지를 판별해 주는 주요한 지표가 된다. 고인돌로 판명된 대다수의 고인돌은 덮개돌과 받침돌의 측면으로 모양을 만들기 위해 가해진 파손 흔적이 남게 되며, 드물긴 하지만 기암바위에서 떼어낼 때 남겨진 흔적들이 관찰되기도 한다. 삼동 고인돌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데 덮개돌의 상면과 측면으로 여러 개의 채석구멍들이 남겨져 있어 고인돌 축조 당시의 채석방식을 알게 해 주는 상당히 가치 있는 자료가 된다.

고인돌에 사용될 판석재를 모석에서 떼어내는 방식을 간략히 소개하자면,⁴⁰ 먼저 모석의 상면 적당한 위치에 여러 개의 구멍을 판다. 그 안에는 목침을 박아 놓고, 거기에 물을 부었다가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 목침이 물기를 머금어 팽창되었다가 다시 수축되는 여러 차례의 과정을 통해 바위에 금이 가게 되고 마침내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판석재가 떨어져 나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떼어낸 판석재는 고인돌 축조 위치로 이동된 후, 그 자리에서 적당한 손질을 거쳐 고인돌에 사용된다.

그렇다면 당시 경도가 강한 금속도구가 발명되기도 전 어떠한 방식으로 바위에 구멍을 낼 수 있었는지 고민해 보자. 아마도 차돌과 같이 단단한 석재 도구로써 수차례 가격하여 기초홈을 만들고, 그러한 홈에 지속적으로 마찰과 연마를 베풀어 적당한 크기의 구멍을 내었을 것이다. 비록 정황론적 추론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의 구멍내기가 현재 남겨진 많은 수의 고인돌에서 관찰되고 있다. 바로 성혈이라 불리는 구멍들인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상당수의 고인돌에 이러한 성혈이 새겨져 있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 다만 현재 고인돌에서 관찰되는 성혈들이 고인돌 축조당시에 남겨진 흔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할

40 최몽룡, 1973, 「원시채석문제에 대한 소고」, 『고고미술』 119, 18~21쪽.

만하다.

실제 고인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인돌에 그러한 구멍을 새기는 민간신앙과 놀이 등이 전해지고 있었다. 여러 가지 기록을 위한 민간신앙의 차원도 있으며, 산과 들판의 목동들이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고인돌에 구멍을 만들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사용한 방식이 날카로운 도구나 현대적 장비를 통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다. 대부분 단단한 차돌로 반복적으로 쪼거나 갈아 그러한 구멍을 만들어 낸 것이다. 따라서 단단한 금속기가 발명되기 전 단순히 차돌만을 이용하여 단단한 바위에 성혈 정도 깊이의 구멍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논의한 삼동 고인돌에 남겨진 덮개돌의 채석흔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해 보자. 일반적으로 고인돌은 그것을 축조한 집단의 상위계층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고인돌에 사용되는 석재는 상식적으로 상당히 공을 들여 마련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동 고인돌에 사용된 석재는 채석 당시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일견 보기에 다소 흉물스러울 수도 있는 그러한 흔적이 남겨진 석재를 고인돌의 덮개돌로 사용한 의도가 궁금하다. 그와 함께 삼동 고인돌의 매장주체부가 단순 토광형태임을 상기해 보자. 주변지역 대형 고인돌의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략하며, 그러한 과정에 소비되었을 정성과 노력 역시 약소하다. 아마도 삼동 고인돌은 해당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하거나 부유하지 못한 집단의 무덤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동 고인돌이 축조되기에 필요한 노동력은 200여 명이 된다고 한다.

만약 당시의 가족 구성원을 5~6인으로 가정해 보았을 때, 1가구당 2~4인이 투입되었다고 전제하여도 적게는 50가구 많게는 10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집단이 된다. 당시가 청동기시대인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작은 규모의 집단이 아니다. 그렇기에 더욱 주목되는 현상은 수원천변 고인돌 밀집군의 중심부에 자리한 이의동 1호 고인돌의 규모가 길이 7m, 너비 4m 이상의 초대형 고인돌이라는 점이다.

잘 알려진 실험 고고학의 성과에 의하면 덮개돌의 규모가 7m 이상이면, 너비와 두께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게가 대략 40톤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이 정도 규모의 초대형 고인돌 1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장한 노동력

1,000여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⁴¹ 채석과정을 거쳐 고인들이 자리할 위치까지 옮겨와 다시 정교한 석공 기술이 베풀어지기까지의 공정은 물론, 받침돌을 세우고 그 위로 다시 무게 40톤 이상의 덮개돌을 올려놓기까지 전체적인 작업 공정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여기에 1,000명가량의 인력에게 수개월간 제공될 경제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단순히 선사시대 어느 부족집단의 이벤트성 행사 정도로 치부하기엔 지나치게 큰 대규모 토목공사이다.

고인돌 축조에 투입될 건강한 청년 남성들을 제외하고도 이들의 숙식 등에 관여될 보조 인력들까지 추산한다면 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마도 상대적으로 근력이 부족하였을 노인층이나 여성, 아이들이 그러한 부대행사에 투입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처럼 대규모의 토목공사에 수개월간 노동력이 차출된다면 해당 집단의 생존을 위한 제반 시스템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사회유지를 위한 인력은 남겨 두고 여분의 노동력이 차출되는 형식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고려할 때에도 초대형 고인돌 1기를 축조하고자 하는 집단의 최소 구성원 수는 기본 인력 1,000여 명의 최소 3배수는 고려되어야 한다.

청동기시대 적어도 3,000명 이상의 구성원을 보유하고였으며 이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집단의 사회성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그와 함께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부가 될 수도 있는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조직화하고 통솔하여 당시로서는 집단의 존폐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단행하였을까.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사회유지에 그다지 큰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노동력을 장기간 제공할 수 있는 다수의 지역집단이 서로 간의 합의하에 공사 기간과 인력차출을 논의(정치기구)하였을 것이고, 거기에 충당되는 경제적 비용은 공동으로 마련된 제원을 사용(세금)하거나 공사의 총책임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되었을 것이다.

앞서 요동지역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언급하였듯이, 어떠한 방식이든 그것은 고대 국가에 버금하는 수준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⁴² 여러 가지 정황상 덮개돌

41 황해도 은율 관산리 1호 고인돌 덮개돌의 길이가 8m 이상인 초대형 고인돌이며, 무게는 대략 40톤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하문식, 1999, 『고조선지역의 고인돌연구』, 학연, 291쪽). 관산리 고인돌의 규모와 닮아진 정도는 이의동 1호 고인돌과 거의 흡사하여 비교가 가능하다.

42 우리는 불과 10여 명도 채 되지 않는 동창생들 모임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데도 상당한 조율 과정이 필

의 규모가 7m 이상이며, 정교하게 다듬어진 초대형의 고인돌이 축조되기 위해서는 해당사회의 성격이 고대국가의 수준에 버금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한반도에서 그것이 가능한 시대상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고조선 사회가 유력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러한 고조선 사회에서도 이정도 규모의 고인돌이 축조될 수 있는 여건은 고조선이 고대국가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기원전 4세기 이후에나 가능하였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완성도와 건축미가 돋보이는 개주 석봉산급 고인돌이 바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석봉산급에 비견될 수준은 아니지만 한반도에서는 서북한의 관산리 고인돌과 수원천변의 이의동 1호 고인돌이 그에 비견될 정도의 정성과 노력이 기울여졌다.

결국 수원천변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의동 1호 고인돌 역시 고조선 사회가 중국 식의 왕권국가 체제로 접어든 기원전 4세기 이후의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당시의 수원시 일대에는 삼한 소국 중 하나인 모수국과 연관된 정치체이거나 그 선행집단이 존재한 것으로 상정된다. 당시의 시대상을 알게 해 주는 문헌자료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원천변의 고인돌, 그중에서도 이의동의 초대형 고인돌은 그러한 모수국 사회의 성격과 발전상을 추론케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시론적이거나 수원천변 고인돌 축조집단의 성격과 그 주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의동 고인돌 1호와 같이 덮개돌의 규모가 7m 이상인 초대형의 고인돌이 축조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가 이미 고대국가 수준에 버금가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검토하였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고인돌을 축조한 집단은 고조선과 관계되었음이 분명하다. 그간 우리 학계가 추적해 온 고인돌의 분포범위와 고조선의 시공범위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원전 7~4세기 무렵의 요동반도와 서북한지역이

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물며 수천의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며, 그러한 인력이 차출되어야 할 여러 집단들 간의 조율 과정이 그렇게 자발적이며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을 리 만무하다.

다. 고인돌이 확인되는 모든 지역을 고조선의 범위로 단정할 순 없더라도 적어도 그와 관련된 친연성이 강한 사회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

현재 많은 수의 연구자들이 한반도 고인돌문화의 출발점을 요동반도에서 찾고 있다. 아마도 고조선이 처음 성립될 당시에는 해당지역의 정치체-고인돌문화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흔히 초대형의 탁자형 고인돌은 당시 사회 지배계층의 묘제나 제단, 집단 내 공공적인 성격의 기념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탁자형 고인돌은 고조선을 구성하였을 여러 개의 집단 중 요동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표징이 될 수 있다. 그러한 탁자형 고인돌이 유독 대동강유역에 집중된 점은 당시 요동과 대동강지역민 간의 강한 연결성을 반증해 준다. 그렇게 볼 경우 탁자형 고인돌을 중심묘제로 채택한 요동과 대동강유역의 정치체는 고조선 건국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을 고조선 성립과정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요동-서북한지역의 탁자형 고인돌문화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남부지역에도 대형급의 탁자형 고인돌을 묘제로 사용한 집단이 다수 확인된다. 기존에는 이러한 탁자형 고인돌의 분포가 주로 한강이북지역에 집중된다는 이유로 북방식 고인돌로 불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조사결과 탁자형 고인돌의 분포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북방식의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추세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반도의 남부지역에는 탁자형의 숫자에 비해 소위 바둑판형으로 분류되는 것과 뚜렷한 받침돌이 없는 개석형의 것이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바둑판형 고인돌은 한반도 남해안지역에 집중된 독특한 형태의 것으로 해당지역에서 자생한 지역문화로 볼 수 있다.

수원천변에서 확인되는 고인돌의 형식은 대략 탁자형과 개석형으로 나눌 수 있다. 두 형식 모두 요동반도와 서북한에서도 확인된다. 비록 수원천변에서는 비파형 동검류의 위세품이 부장된 사례가 없지만, 간돌검을 부장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한 특징 역시 서북한지역과 닮아 있는 점에서 두 지역 고인돌문화인들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고조선이 중원식의 왕권국가 체제를 갖추게 되는 기원전 4세기 무렵 고인돌문화의 중심지는 여전히 요동반도였다. 서북한과 한반도 중서부지역은 그 주변부로서 동일 형식의 고인돌문화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고조선에 예속된 지역사회로 볼 수

있다. 수원천변에서 초대형 고인돌이 축조될 당시 이 지역은 삼한 소국 중 하나인 모수국이 성립되었거나 그 선조(토착계)들이 기반을 다지던 단계였을 것이다. 당시 고조선의 왕릉급 무덤을 초대형 고인돌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의동 1호 고인돌의 성격은 적어도 고조선과 연관된 토착사회의 수장묘로 볼 여지가 생긴다.

문헌 속의 모수국이 실존하였다면, 이의동유적의 지리적 위치와 입지상에서 볼 때 그 중심지는 수원천변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물론 대부분 정황론적 추론에 불과하지만, 현재 남겨진 고고학적 현상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더욱 더 제한적인 문헌기록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보다 풍부하고 실증 가능한 고고학자료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관련 논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분명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 지면관계상 본고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선에서 마무리하겠지만, 보다 구체적인 논증은 후속 논고에서 한 번 더 다루어질 것임을 기약한다.

투고일 2019년 10월 30일 심사일 2019년 11월 19일~12월 11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6일

참고문헌

1. 국문

-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정선 아우라지유적』.
- 경기도박물관, 2007, 『경기도고인돌』.
- 기전문화재연구원 · 수원시, 2002,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 김재원 · 윤무병, 1967, 『한국지석묘연구』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6책.
- 수원시, 1997, 『수원시사 中』.
- 중도선사유적발굴조사단, 1982, 『중도지석묘 발굴보고』.
-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86, 「조공가와 정가와자」, 『중국 동북지방의 유적 발굴보고(1963-65)』, 사회과학원출판사.
- 오대양, 2006, 「한강분류유역의 고인돌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대양, 2014, 「북한지역 고인돌유적의 특징과 성격」, 『선사와 고대』 40.
- 오대양 · 백중오, 2014, 「요동지역 지석묘의 발굴현황과 연구성과」, 『동아시아고대학』 34.
- 오대양 · 백중오, 2015, 「마성자문화 동굴묘의 형식과 전개양상」, 『동아시아고대학』 40.
- 우장문, 2006, 『경기지역의 고인돌연구』, 학연.
- 이영문, 2002, 『한국 지석묘사회 연구』, 학연.
- 이청규, 2016, 「청동기 보급의 주체와 지석묘 축조 집단」, 『백산학보』 106.
- 이형구, 2001, 『인천대곡동 고인돌무덤 지표조사 보고서』, 동양고고학연구소.
- 이형구, 2006, 『강화도 고인돌무덤 조사연구』, 춘추각.
- 이호관 · 전유진, 1974, 「양평군 양수리지석묘 발굴보고」, 『팔당 · 소양담 수몰지구유적발굴 종합 보고』, 문화재관리국.
- 유태용, 2003, 『한국 지석묘연구』, 주류성.
- 임효재 · 하문식 · 조상기, 1988, 「시흥 삼리지석묘 발굴조사보고」, 『판교~구리 · 신갈~발원 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 충북대학교 박물관.
- 하문식, 1999, 『고조선지역의 고인돌연구』, 학연.
- 최민정, 2006, 「임진강유역의 고인돌 분포 연구」, 『선사와 고대』 25.
- 최복규, 1984, 『중도 고인돌 발굴조사보고』 강원대학교 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2집, 강원대학교박물관.
- 최몽룡, 1973, 「원시채석문제에 대한 소고」, 『고고미술』 119.

2. 중문

朱貴, 1960, 「遼寧朝陽十二台營子青銅短劍墓」, 『考古學報』 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1989, 「沈陽肇工街和鄭家窪子遺址的發掘」, 『考古』 10.

吳大洋, 2013, 『朝鮮半島北部地域青銅器時代墓制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요 약

이 글은 수원천변에 분포한 고인돌의 특징과 그것을 축조한 사람들의 성격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수원천변의 고인돌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내 이의동 헤령골유적에 5기, 원천동유적 1기, 교동 팔달산유적 4기, 이목동유적 1기, 호매실동유적 1기, 의왕시 이동유적 2기, 삼동유적에서 1기 등 모두 15기가 직경 10km 범위 내에 소밀집군을 이룬다. 하지만 실제 유적을 답사해 보면 고인돌로 판명된 유적 주변 곳곳에서 덮개돌 규모의 판석재가 다수 노출되어 있어 보다 많은 수의 고인돌이 밀집군을 이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수원천변의 고인돌 축조연대를 알려 주는 출토유물이 빈약하여 정확한 편년이 불가능하다. 다만 원천동과 하동 고인돌의 주변부에서 무문토기편과 청동기시대 석부가 수습되었고, 교동 팔달산유적에서는 일단병식의 간돌검이 파손된 채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근의 서둔동 여기산유적, 울전동유적, 이목동유적, 호매실지구 유적 등과의 관계에 미루어 대략 청동기시대 중후기에 속하는 기원전 7~4세기 무렵 조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고조선이 중원식의 왕권국가 체제를 갖추게 되는 기원전 4세기 무렵 고인돌문화의 중심지는 여전히 요동반도로 추정된다. 서북한과 한반도 중서부지역은 그 주변부로서 동일 형식의 고인돌문화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고조선에 예속된 지역사회로 볼 수 있다.

넷째, 광교신도시의 이의동 헤령골에서는 덮개돌의 장축 규모가 7m가 넘는 초대형 고인돌이 조사되었다. 이곳은 수원천변의 중심구역으로서 여러 대소하천들의 작용으로 형성된 평탄한 충적대지가 광범히 하게 펼쳐진다. 수원천변에서 초대형 고인돌이 축조될 당시 이 지역은 삼한 소국 중 하나인 모수국이 성립되었거나 그 선조(토착계)들이 기반을 다지던 단계로 추정된다. 당시 고조선의 왕릉급 무덤을 초대형 고인돌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의동 1호 고인돌의 성격은 적어도 고조선과 연관된 토착사회의 수장묘로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문헌속의 모수국이 실존하였다면 중심지는 수원천변이 될 가

능성이 있다. 물론 대부분 정황론적 추론에 불과하지만, 현재 남겨진 고고학적 현상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더욱 더 제한적인 문헌기록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보다 풍부하고 실증 가능한 고고학 자료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제어 : 수원천, 황구지천, 원천리천, 청동기시대, 고인돌, 고조선, 모수국

ABSTRACT

Characteristics of a Cluster of Dolmens around the Streams of Suwon

Oh Daeyang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dolmens around the streams of Suwon and their builders. The summary of the main features is as follows.

First, a total of 15 dolmens around the streams of Suwon forms a small cluster having a diameter of 10 kilometers: five dolmens in Hyeryeonggol relic site in Yieui-dong inside Gwanggyo New Town in Suwon; one in Woncheon-dong relic site; four in Mt. Paldal relic site in Gyo-dong; one in Yimok-dong relic site; one in Homaesil-dong relic site; two in Yidong relic site in Euiywang-si; and one in Samdong relic site. However, many capstone-sized flat stones scattered all over the identified dolmen sites suggest that a larger number of dolmens had been clustered around the sites.

Second, an accurate chronology of the dolmens around the streams of Suwon cannot be established due to a lack of excavated relics indicating when the dolmens were built. However, pieces of pattern-less earthenware and stone axes of the Bronze Age were found around the dolmen sites in Ha-dong and Woncheon-dong while a broken stone sword with a single-guard pommel was discovered in the relic site of Mt. Paldal in Gyo-dong. The adjacent historic sites such as Mt. Yeogi in Seodun-dong, Yuljeon-dong, Imok-dong, and Homaesil district also indicate that the dolmens were built around the 7th -4th centuries B.C., the mid and late times of Bronze Age.

Third, the Liaodong peninsula is presumed to have been at the heart of dolmen culture around the 4th century B.C., which is around the time when Gojoseon

entered the stage of kingdom. In the aspect that the same forms of dolmen culture were shared with western regions of North Korea and the mid-western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the communities in the regions could be part of Gojoseon Kingdom.

Fourth, a giant dolmen with more than 7-meter lid stone was found in Hyeryeonggol, Yieui-dong in Gwanggyo New Town. The area, located at the center of Suwon's streams, has a large alluvial plain created by the sediment from large and small streams. The giant dolmen is estimated to have been built when the Mosul Kingdom, one of the small kingdoms of Three Han States, was created or when the ancestors (aboriginal tribe) started to settle down in the region. If the tomb of Gojoseon, which is as large as a royal tomb, can be acknowledged as a giant dolmen, the dolmen No.1 of Yieui-dong can be regarded as at least a tomb of a head of native community.

Lastly, if the Mosu Kingdom in literature really existed, the center of the Kingdom was likely to have been located in a region around streams of Suwon. Although it is a circumstantial assumption, archeological phenomena with remaining records clearly show the possi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more affluent and empirical archeological data, not just relying on limited literature records.

Key words : streams of Suwon, Hwangguji Stream, Woncheonri Stream, Bronze Age, dolmen, Gojoseon, and Mosu Kingdom

정조대 화성 영건과 축성 자료의 성격

- 『성제고(城制考)』와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중심으로 -

정규완*

1. 머리말
2. 화성 축성의 지침서 『성제고』
3. 『성제고』와 『화성성역의궤』
4. 맺음말

1. 머리말

이 연구는 화성 축성의 지침을 알 수 있는 『성제고(城制考)』를 소개하고, 화성의 성격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는 먼저 『성제고』를 통해, 정조의 화성 축성의 지향점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 나타난 화성의 모습과 비교하여, 화성 축성의 성격을 나타내고자 한다.

화성은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추숭하고 수원으로 천장(遷葬)하여 현릉원을 조성하면서 축성되었다. 현릉원을 수호하기 위해 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조는 화성 축성을 명했다.¹ 화성의 축성은 정조 18년(1794) 2월에 시작하여 2년 6개월 만에 완공되었다. 화성은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거중기를 사

*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Doctoral course,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E-mail : wjdrbdhks123@naver.com

1 『정조실록』 권39, 정조 18년 1월 15일(계묘).

용하여 단기간에 축성할 수 있었다. 또한 화성은 이전에 조선의 성에 적용되지 않았던 공심돈 등을 설치했고 벽돌을 사용하여 지었다는 특징이 있다. 화성은 이전의 조선의 성들과는 다른 성이었던 것이다.

화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정부의 국방문화유산 정비계획에 따라 1975년부터 5년에 걸쳐 화성 성곽이 정비되고, 『화성성역의궤』의 영인 및 국역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났다.² 이후 화성에 대한 연구³와 향촌사회,⁴ 물자운송,⁵ 상업정책,⁶ 장용외영 및 방어체제,⁷ 둔전,⁸ 정조의 수원행차⁹ 등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었다.¹⁰

화성 성곽의 군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는 노영구와 정연식의 연구가 있다. 노영구는 화성이 변화된 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다.¹¹ 화성은 『무비지(武備志)』 등에 나타난 중국의 성제와 조선의 성제를 참고하여 새로운 형태의 성으로 건설되었다. 화성은 15~16세기 이후 공성용 화포가 발달하였던 유럽의 축성 양식 변화와 공통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 화성은 축성의 기준이 되는 모델이 있었고 15~16세기 유럽의 축성 양식 변화와 공통적인 요소가 많았다. 특히 화성은 성곽사적인 측면에서 화포가 보편화되었던 이탈리아식 축성술 단계와

- 2 손정목, 1977, 『조선시대 도시사회연구』, 일지사, 1977; 전구현, 「수원성곽 축성술에 관한 연구」, 『사학지』 11.
- 3 유봉학, 1996, 「정조대 정국 동향과 화성성역의 추이」, 『규장각』, 19; 유봉학, 1998, 「화성(華城)」 『한국사시민강좌』 23; 유봉학, 1998, 「화성 성역과 화성의 문화유산」, 『근대를 향한 꿈』, 경기도박물관; 노영구, 1999, 「조선 후기 성제 변화와 화성의 성곽사적 의미」, 『진단학보』 88.
- 4 최홍규, 1991, 「조선 후기 화성 축조와 향촌사회의 제양상-정조대 수원지방 문제와 「관수만록」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30.
- 5 조병로, 1997, 「18세기 화성 성역의 물자확보와 운송실태-석재 목재 및 철물을 중심으로」, 『경기사학』 1.
- 6 최홍규, 1998, 「18세기말 화성지방의 번영과 산업진흥책-특히 정조의 민생대책과 관련하여」, 『경기사학』 2.
- 7 최홍규, 1997, 「정조대 화성 경영과 장용외영 문제-특히 읍민대책과 관련하여」, 『경기사학』 1; 강문식, 1996, 「정조대 화성의 방어체제」, 『한국학보』 82; 장필기, 1998, 「정조대의 화성건설과 수도방위체제의 재편」, 『조선 후기의 수도방위 체제』 10; 이태진, 1993, 「정조-유교적 계몽 절대군주」, 『한국사시민강좌』 13.
- 8 유봉학, 1995, 「화성성역에서의 치수와 농업진흥책-만석거와 남수문 문제의 재조명」, 『한신논문집』 13; 염정석, 1996, 「정조 후반 수리시설 축조와 둔전경영 - 화성축성을 중심으로 -」, 『한국학보』 82, 일지사; 염정섭, 1999, 「정조 후반 화성의 수리시설 축조와 둔전 경영」, 『한국농업연구 200년-전통과 계승방안-』, 농촌진흥청·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9 한영우, 1998,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한영우, 1998, 「정조와 화성-화성 건설과 능행의 의미」, 경기도박물관; 정승교, 1996, 「정조대 을묘원행의 재정 운영과 정리곡 마련」, 『한국학보』 82.
- 10 수원 화성에 관한 연구서는 다음 연구에 자세하다. 정규완, 2018, 「정조대 화성축성과 웅성의 군사적 기능」, 경기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11 노영구, 1999, 「조선 후기 성제 변화와 화성의 성곽사적 의미」, 『진단학보』 88.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¹²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화성과 유럽의 축성술을 비교하여 간과한 부분이 있다. 화성은 유럽의 축성술과 비교하여 해자가 없다는 큰 차이점을 가진다. 서양의 축성은 공성용 화포를 방어하기 위해 성벽이 낮고 두터웠다. 서양의 성들은 적군이 낮은 성벽을 넘어오지 못하게 수십 미터 넓이의 해자를 설치하여 적군의 접근을 막았다.¹³ 그러나 화성은 해자가 설치되지 않았다. 화성은 15~16세기 유럽의 성들처럼 공성용 화포를 막기 위한 성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정연식의 화성 성곽의 관한 연구는 화성 공심돈에 관한 연구와 화성의 방어시설 및 총포 연구가 있다.¹⁴ 화성 공심돈의 유래와 기능을 밝힌 연구는 화성 축성이 조선시대 성곽 발달을 보여 주는 것이며, 그 이유로 기존 축성에 사용하지 않던 벽돌로 만든 점, 규형(圭形) 성벽이 구상된 점, 포루·오성지(五星池)·현안(懸眼) 등의 방어시설물이 등장한 점, 정조의 정치적인 구상과 연관되어 남인 세력이 깊이 관여한 점 등을 설명했다. 연구는 그 중에서 화성의 방어시설인 공심돈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공심돈은 화성에 최초로 등장했다. 명나라 말기의 성곽양식의 변천이 조선에 수용되는 배경과 과정을 공심돈으로 서술하였다. 공심돈을 통해 화성이 당대 최선의 방어체제와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었음을 주장했다.

화성의 방어시설과 총포 연구는 화성 축조에서 조총과 활의 집중사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것은 여장(女牆)의 경우 타구(垛口) 모양의 변화, 근총안의 설치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성벽에 바짝 다가와 있는 적을 측면에서 협공하기 위해 적대, 치성, 포루, 장루, 각루, 공심돈 등의 치성류가 대량으로 조밀하게 설치했음을 밝혔다. 조선은 홍이포를 비롯한 대구경의 공성포를 직접적으로 겪은 적이 없으며, 대형 화포들도 공성포는 아니었다고 했다. 이 연구들은 화성이 16세기에 새로 등장한 화승총과 활의 총사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지어졌음을 밝혔다.

12 노영구, 1999, 「조선후기 성제 변화와 화성의 성곽사적 의미」, 『진단학보』 88, 319쪽.

13 정연식, 2001, 「화성의 방어시설과 총포」, 『진단학보』 91, 17~26쪽.

14 정연식, 2001, 「화성 공심돈의 유래와 기능」, 『역사학보』 169; 정연식, 2001, 「화성의 방어시설과 총포」, 『진단학보』 91.

다만 화성의 축성 지침을 알 수 있는 『성제고』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¹⁵ 노영구는 『성제고』가 화성 축조의 기본이 되는 자료인 『성제도설』의 편목과 내용이 같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성제고』의 내용과 인용서적 등을 밝혔다.

김성부는 『성제고』의 편찬 과정과 체제를 밝히고, 수원 화성에 적용된 모습을 밝혔다. 연구는 『성제고』에서 밝히는 방어시설물이 화성에 적용되었는지, 적용되지 않았는지, 변형되었는지를 말했다.

화성 축성과 웅성의 군사적 기능에 관한 연구는 『성제고』에 나타난 축성 지침과 웅성의 모습을 화성과 비교했다. 이를 통해 정조대 정립된 성제가 화성 웅성에 적용되었는지, 웅성의 방어능력이 충분했는지에 관해 말했다. 연구는 해자와 양마장 등 웅성과 성문의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방어시설물이 『성제고』에 나타나지만 화성에는 적용되지 않았음을 말했다.

화성은 화성 자체에 대한 연구, 화성행궁, 상업정책, 장용외영과 둔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화성에 대한 연구는 화성에 대한 분석이 기본이 되지만 그 지침서인 『성제고』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화성의 성격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제고』는 화성을 축성하기 전에, 정조가 성제를 정립하기 위해 편찬한 『성제도설(城制圖說)』의 체제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책이다. 연구는 『성제고』에 나타난 화성의 축성 지침을 밝히고, 화성에 그것이 반영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화성성역의궤』의 내용을 『성제고』의 내용과 비교·분석하여 화성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고자 한다. 즉, 화성의 군사적 성격과 의의를 밝히기 위해선 『성제고』와 『화성성역의궤』의 비교 연구가 필요함을 말하고자 한다.

2. 화성 축성의 지침서 『성제고』

화성은 단순히 축성(築城)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만들어진 성 중 하나가 아니었

15 『성제고』의 체제와 내용을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노영구, 1999, 「조선후기 성제 변화와 화성의 성곽사적 의미」, 『진단학보』 88; 김성부, 2016, 「조선후기 『성제고』 편찬과 화성 축조 연구」, 강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정규완, 2018, 「정조대 화성축성과 웅성의 군사적 기능」, 경기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다. 화성은 정조대 이전까지 논의되던 축성법을 정리·체계화해서 만든 성이다. 화성은 축성의 모범과 규칙(規式)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정조대 편찬된 『성제도설』로 나타난다.

『성제도설』은 정조가 기존의 모든 성제(城制)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새로운 형태의 성제를 화성 축성에 도입하고자 만들어진 책이다. 이를 위해 먼저 당시 중국과 조선의 성제를 하나로 모아 그 내용을 확인했다. 『성제도설』은 현존하지 않지만, 『홍재전서』에 그 내용과 실체가 나타난다. 정조대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적 정리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정조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전적 정리 사업의 성과는 서적 간행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이 중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의 「군서표기」에 『성제도설』의 내용이 등장한다.¹⁶

우리나라의 성제는 모두 산언덕에 의지하여, 단지 바깥 면은 돌로 기울여 쌓아서 성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서로 비슷하고 약간 높아 쉽게 무너지고 또한 화공을 견디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나의 완성된 제도로 준행할 법식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각신(閣臣) 서영보 등에게 명하여 두우의 『통전』과 당순지의 『무편』에 실려 있는 성제에 대한 제론(諸論)을 모으고 그림을 나타내어 분명히 하였고, 또 중국 각 성부(省府)의 성제와 우리나라 8도 영부(營府)의 성제를 뒤에 붙였다. 매 한 편이 완성될 때마다 직접 들린 것을 바로잡아 여러 달 만에 비로소 완성되었으니, 「성제론 및 성제도」 1권, 「중국성제」 1권, 「동국성제」 1권이다.¹⁷

『홍재전서』의 기록을 통해, 『성제도설』의 편찬 목적과 체제에 대해 알 수 있다. 먼저 『성제도설』은 기존에 존재하던 조선 성들의 문제점을 밝혔다. 조선의 성들은 주변의 산지에 접하여, 돌로 쌓고, 성의 위와 아래의 높이가 비슷하여 쉽게 무너지고, 화공을 견디지 못하는 점이 지적되었다.

첫째로, 조선의 성들이 모두 산언덕에 의지한다고 밝힌 것은 성을 보호할 방어시

16 노영구, 1999, 「조선후기 성제 변화와 화성의 성곽사적 의미」, 『진단학보』 88, 306-307쪽.

17 『홍재전서』 권180, 「군서표기」, 성제도설조.

설의 필요성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성 주변의 지형이 험하면 적군이 성에 접근하기 어려워, 방어하기에 용이하다. 다만 성의 모든 부분이 산에 접하지 않을 경우, 성은 취약한 지점을 가지게 된다. 산언덕에 의지하지 않은 성의 취약점을 보완할 방어시설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조선의 기존의 성들이 산성 중심인 것을 지적한 것일 수 있다. 조선시대 방어체제에서 산성은 주요하게 다뤄졌다. 조선시대 주요한 방어전략은 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청야입보(淸野入保) 전략이었다.

고려 후기 몽골족의 침입·홍건적의 침입·왜구의 침입에 대한 전국적인 대책의 하나는 산성에 입보하는 전략을 운용하는 것이었다. 산성방어체제가 전국적이고도 대규모로 운영된 고려 후기에는 내륙 각지의 백성들을 산성으로 들어가 농성하게 했다. 이후 지방수령들이 외적의 침입 때 백성들을 거느리고 산성으로 들어가 지키는 입보체제(入保體制)는 조선 초기의 태조-태종의 시기에도 유지되었다. 이후로도 외적의 침입에 대항하는 전략으로 자리했다. 대규모 산성에 인근 여러 고을의 주민들이 청야하고 입보 농성하기 위해 군창(軍倉)을 두고 경영했다. 이러한 방어책에 의존하여 산성의 수축은 지속되었다. 1592년 일본의 조선 침략은 조선왕조의 방어시설 운용에 대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일본의 조선 침략은 조선 전기에 추진된 축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반성을 하게 되었다. 조선은 왜란 발발 직전에 전쟁을 예상하여 영남과 호남의 일부에 방어시설을 수축·보완했다. 다만 이것은 읍성과 영진보성의 일부를 수리하는 것이었다. 왜군의 대규모 침입으로 해안 요충 방어시설이 함락된 후 내륙의 주요 도시인 상주와 충주에는 읍성이 있었으나 지키려 하지 않았다. 왜군이 조령을 넘어 한강 상류의 요충지인 충주에 이르는 연로(沿路)에는 관방시설(關防施設)들이 있었으나 활용되지 못했다. 조선의 도성인 한성마저 지키지 못했으므로 조선의 방어시설은 평지 읍성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방어시설의 취약성 때문에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응급적인 방어시설이 수축·개축되었다. 그것은 산성 내지 관성(關城)의 마련과 수축·재활용이었다. 조선 후기 산성제도 운영의 1차적인 계기는 왜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산성의 효용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산성제도 부활의 2차적인 계기이자, 결정적인 정책 변환의 계기가 된 것은 여진족이 침입한 1627년과 1636년

의 정묘·병자호란에 대비한 준비에서였다.¹⁸

산성 중심의 방어체제는 이후 도성을 중심으로 방어하는 도성 방어체제로 변화하게 된다. 도성은 국왕과 지배층에게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주는 정치적 권력의 상징이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종묘사직(宗廟社稷)과 사민(士民)이 있으며, 군기(軍器)와 양향(量餉)이 저축된 곳이니 충분히 사수할 수 있다는 정치적 견해가 늘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했다. 동시에 도성 내외 인구의 증가와 상공업 발달이라는 수도권의 변화에 따라서 도성방위 전략론이 확고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조선 초기부터 도성은 왕도(王都)로서 행정기능의 증추이면서 국가의 재정이 집결되는 경제 중심지였다. 도성에 근접한 한강은 전국에서 운반되는 물자의 집산지였다. 남한강과 북한강을 통해 강원도와 충청도, 경상도의 재화가 모였으며, 서해를 통해서도 삼남의 세수(稅收)와 물자들이 집결되었다. 더욱이 18세기 전후 한강을 중심으로 한 세곡 운반과 물류유통경제의 발전이 도성의 인구 집중과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¹⁹

이러한 도성 방어체제의 일환으로 축성된 화성은 실제적인 방어능력이 필요했다. 정조대 수원에 화성을 축성함으로써 북쪽의 개성, 서쪽의 강화, 남쪽의 수원, 동남쪽의 남한산성의 4부 유수부(留守府) 도성방어체제가 완성된다. 또한 화성은 주변의 산지와 수원천을 접하고 있지만 평지지형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평지지형을 방어할 방어시설이 필요했고, 그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성을 돌로 쌓은 점이다. 축성 재료는 흙, 돌, 벽돌이 있다. 각각의 재료들은 축성 방법에 따라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흙과 돌은 비교적 구하기 쉬운 점, 벽돌은 불에 구워 만들기 때문에 화공에 강한 점 등이 있다. 『홍재전서』에서 조선의 성들이 돌로만 쌓은 것을 지적한 것은 화공을 견디지 못한 점을 연결할 수 있다. 돌은 화공을 당하면 부서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국의 축성법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의 축성법에서는 화공을 잘 견디는 벽돌을 축성재료로 가장 높게 평가했다.

또한 화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성의 가장 취약한 시설인 성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성문은 원활한 개폐(開廢)를 위해 나무로 만들었고 화공에 취약했다. 성

18 차용길, 2010, 「조선후기 산성방어체제의 운영」, 『중원문화재연구원』 4, 15~18쪽.

19 이왕무, 2014, 「조선후기 수도권 방어체제의 정비와 군사도시화 경향」, 『군사』 90, 86쪽.

문의 중요성과 성문 방어시설의 필요성은 정약용의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에서 언급되었다.

성문을 쇠붙이로 싸는 것은 불에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지금의 쇠붙이는 지극히 얇아서 뜨겁게 달궈지는 것을 막지 못하며, 쇠가 뜨거워지면 속의 나무가 쉽게 타버립니다. 때문에 문 위에 누조를 설치해서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차례로 성문 앞에도 풀을 던져서 언덕처럼 많이 쌓인 뒤에 불을 질러 문을 태울 경우에는 성문이 쉽게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일단 성문이 부서지고 나면 성이 있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곤(呂坤)의 『실정록(實政錄)』에, “성문 위에 벽돌로 오성지(五星池)를 만드는데, 모양은 돼지 구유와 같이 길게 성문의 길이와 맞게 설치하여 적병이 불을 질러 성문을 태우려고 하면 물을 내리 쏟을 수도 있고, 예리한 창을 던질 수도 있고, 화살을 쏠 수도 있고, 돌쇠너로 돌을 쏠 수도 있다.” 하였습니 다. 이제 위의 두 방법을 참고하여 누조를 만들게 하였는데, 그 제도는 곧 오성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문에는 이미 웅성이 있어 적병들이 접근하여 불을 놓을 수가 없으므로 다만 웅성의 문 위에만 설치키로 했습니다.²⁰

정약용은 성문이 화공에 약하여 성문의 불을 끌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을 말했다. 또한 성문이 부서지면 성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방어시설이 오성지이다. 오성지는 성문 위에 뚫린 일종의 누수구이다. 수성군은 성문에 불이 붙으면 오성지를 통해 물을 부어 끄거나 성문 근처의 적에게 창과 화살을 던지기도 했다. 오성지는 화성 축성에 반영되었다.

셋째로, 성의 위와 아래부분의 높이가 비슷한 것이다. 건축물은 높이가 높아질수록 아래의 넓이가 넓고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안정적이다. 건축물이 무게를 안정적

20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0권, 설, 누조도설.

漏槽 所以備賊之焚門也 尹晞堡約曰民堡之破 半咎於陣 半咎於門 何者 鐵裹以禦火也 今鐵葉至薄 不禁薰灼 鐵熱木焚 爲力不難 而門上無漏槽以下水 千人擲草 草且成丘 發火焚門 無不鎔壞 門壞則垣無及矣 呂坤實政錄曰城門之上 以磚砌五星池 狀如豬槽 長通兩扇門面 賊以火焚門 可以下水 可以放快鎗 可以射箭 可以擣石 今參驗二說 令作漏槽 其制則五星也 然正門既有甕城 卽不容賊來縱火 故只於甕城門上作之.

으로 지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까지 조선의 성들은 특별히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아 쉽게 무너졌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가 성제를 정리하기 이전에 나타난 성제의 문제점은 선조대 비변사의 회계(回啓)에서 잘 나타난다.

성을 쌓는 데에는 법도가 있으니 만일 그 법도대로 쌓지 못하면 쌓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일 외방에 왕왕 산성을 수축하는 공사가 있기는 하나, 그 살받이·치첩·누로·성문·옹성의 제도를 다 헤아려 처리하지 않고, 산세의 굴곡만을 따라 성을 만들 뿐 그 요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인력만 허비하고 적을 막는 데에는 도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구차히 책임만 때워서 버팀목을 빼내기도 전에 성이 무너지니, 이와 같은 성을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후략)²¹

화성 축조 이전에는 성을 축조할 때 주변의 지형을 충분히 고려했지만, 명확한 성제는 정리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실제적인 방어능력이 적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요컨대 화성은 도성 방어체제의 입장에서, 평지지형을 포함하는 입장에서 실제적인 방어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정조는 서영보 등에게 명하여 이전까지 논의되던 성제를 종합하여, 『성제도설』을 편찬하게 하였다. 이것은 중국, 조선의 성제들을 종합하고 규식화(規式化)한 것이다. 화성은 규식화된 성제를 바탕으로 축성된 성이다. 화성의 성격은 『성제도설』에서 나타난 성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제도설』은 현존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제고』를 통해 그 내용과 체제를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성제고』는 『성제도설』의 체제와 내용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²² 『성제고』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21 『선조실록』 권66, 선조 28년 8월 6일(병오).

22 『성제고(城制考)』와 『성제도설(城制圖說)』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노영구, 1999, 「『성제고』의 내용과 『성제도설』, 『문헌과해석』 8, 25~28쪽.

『성제고』의 체제는 고려대학교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이 같고 연세대학교 소장본이 다르다. 앞의 소장본의 체제는 『홍재전서』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하다. 각각 『성제고』 천(天), 지(地), 인(人)의 3책(冊)이다. 『성제고』 천에서는 중국의 성제 이론과 도설(圖說)을 다뤘다. 지에서는 중국의 성제들을 다뤘다. 인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제와 성제 이론 등을 다뤘다. 연세대학교 소장본은 앞선 소장본의 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천, 다음으로 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만 이것은 체제의 차이일 뿐 내용의 차이는 없다. 『성제고』의 체제와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성제고』는 다양한 방어시설에 도설을 첨부하여 자세한 양식과 형태를 밝혔다. 중국과 조선의 성지의 연혁과 방어시설의 종류 및 크기 등을 밝혔다. 이를 통해 성지들의 모습과 추이 등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에서 논의되던 성제 이론들을 소개했다.

『홍재전서』에서 정조가 지적한 문제점에 관련한 내용도 『성제고』 천에 나타나 있다. 성이 산언덕에만 의지하는 문제는 「성제도설」의 성제에서 밝히는 모습을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성제도설」의 성제는 중국의 평지 축성의 기본 형태를 밝히고 그에 따른 해자, 양마장, 옹성 등의 양식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접하지 않은 취약한 지점과 평지 지형을 막아낼 수 있었다. 「성제도설」의 성제에서 밝히는 평지 축성의 기본 모습은 다음과 같다.

평지 축성의 아래의 넓이는 위의 두 배이고 높이도 아래의 두 배이다. 성의 높이가 5장이면 아래의 넓이는 2장 5척이고 위의 넓이는 1장 2척 5촌이다. 성밖의 옹성은 지형을 보고 원형이나 방형으로 만든다. 옹성의 높이와 두께는 본성과 같고 옹성문은 오직 좌우 한쪽에만 만드는데 방향은 편의에 따른다. 양마성의 높이는 1장 이하 8척 이상으로 한다. 또한 한쪽에만 문을 만드는데 옹성문과 반대로 만든다. 만약 옹성문이 왼쪽이면 양마성의 문은 오른쪽으로 한다. 여장의 높이는 5척으로 할 수 있다. 해자의 넓이는 각 그 땅을 따라 넓고, 좁게 한다. 대요는 면은 넓고 바닥은 좁은 것에 있는데 그 깊이와 샘물이 화살과 포가 미치기 어렵게 한다.

〈표 1〉 『성제고』의 목차와 인용서²³

목차	내용	인용서	
천	성제도설 (城制圖說)	성제, 양마장(羊馬牆), 호교(濠橋), 웅성(甕城), 노대(弩臺), 조교(釣橋), 기교(機橋), 치(雉), 현안(懸眼), 타구(塚口), 중문대루(重門大樓), 웅성권문(甕城券門), 기성포(騎城舖), 돈후(墩埃), 오성지, 공심돈(空心墩)	『무비지(武備志)』 「성제(城制)」
		보제(堡制), 각대(角臺), 적루(敵臺), 비예(陴倪), 웅성비예(甕城陴倪)	『무비지』 「보약(堡約)」
		타장기(探長旗), 성장기(城長旗)	『기효신서(紀效新書)』 「수초편(守哨篇)」
		곽(郭), 적루(敵樓)	『삼재도회(三才圖會)』 「인사부(人事部)」
	성제제론 (城制諸論)	성제 관련 논설	『두씨통전(杜氏通典)』, 『몽계필담(夢溪筆談)』, 『도서집성(圖書集成)』, 『고공전(考工典)』, 『형천무편(荊川武編)』
지	중국성제 (中國城制)	중국 성지 190여 곳의 연혁 및 시설	
인	동국성제 (東國城制)	조선 성지 270여 곳의 연혁과 시설	『문헌비고(文獻備考)』
	동국성제제론 (東國城制諸論)	포루 설치, 수성법(守城法), 일본군의 수성 전술, 산성 중시, 치성의 효용성	『서애선생집(西厓先生文集)』, 『징비록(懲毖錄)』
		평지 읍성의 중시, 축성 시 인력 동원, 성의 규격, 중국과 일본의 성제	『반계수록(磻溪隨錄)』 「성지(城池)」
	수원도호부 축성의 입지조건	『반계수록보유(磻溪隨錄補遺)』 「군현제(郡縣制)」	

23 정규완, 2018, 「정조대 화성축성과 응성의 군사적 기능」, 경기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6쪽.

해자의 다리는 양마성의 문 방향에 설치하며 성의 급수호가 성 밖에 있으면 웅성이나 양마장의 문의 방향이 그곳을 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본성의 문과 같은 방향이면 안 된다. 만약 산에 의지하고 물이 떠를 두른 지세라 불편하면 대성은 반드시 초승달 형태로 하고 문은 세 개를 두고 나머지는 평륙의 제도를 고치면 안 된다.

웅성 위에는 각각 전봉(戰棚)을 설치하는데 그 제도는 적대와 같다. 성의 크기에 따라 산성이면 또 전후좌우를 선택하여 설치한다. 큰 성 근처는 산세를 따라 별도로 아래에 성을 쌓아 본성과 서로 접하게 한다. 반드시 높은 곳에 구획하여 의지해야 한다. 외부에 또한 양 지역 중에 해자 혹은 봉대를 설치하여 먼 곳을 살피는 곳으로 한다. 적이 이르면 병사로써 오로지 지키게 하고 적보다 앞서서 성 안의 허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거점을 갖지 않게 한다. 지금 권주(秦州) 정주성(鄭州城)은 모두 이와 같다. 일설에 각 아래의 넓이 1장 위에 4척을 더하면 보통 성의 높이는 5장이고 바닥의 넓이 5장 위에 2장을 더하면 더욱 견고하다.²⁴

『성제고』는 평지 축성에 필요한 방어시설들을 밝히고 있어, 산에 의지하지 않은 취약점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다. 이것은 실제 왜구와 오랑캐들을 막아내기 위한 중국의 성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방어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제는 성의 아래가 위의 넓이보다 두 배 정도 넓다. 따라서 정조가 지적했던 위와 아래가 비슷하여 쉽게 무너지는 점을 해결할 수 있다. 정조가 제기한 화공은 방어시설 중 하나인 오성지로 막을 수 있었다. 오성지는 문 위에 달린 구멍으로 물 등을 부어 성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한 시설이었다. 또한 중국의 성제에서 화공에 강한 벽돌로 지은 성들이 다수 나타난다.²⁵ 『성제고』를 통해 화성은 정조가 지적한 조선의 성이 가지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들이 화성 축성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해야 화성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제고』에서 주목되는 점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동국성제론」에서 수원도

24 『성제고』 천, 「성제도설」.

25 『성제고』 지, 「중국성제」.

호부 축성의 입지 조건을 밝힌 것이다. 『성제고』의 다른 내용들이 성의 방어시설 물들의 규격이나 성의 시설, 수성법 등을 밝히는 것과 달리 수원 지역의 축성 입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제고』가 화성 축성을 의도하고 만들어졌음을 분명하게 한다. 「동국성제제론」은 수원도호부에 읍성을 축성할 수 있다고 유형원의 『반계수록보유(磻溪隨錄補遺)』를 인용해 밝힌다. 화성의 입지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계수록보유』의 내용을 보면, 수원도호부는 읍성을 쌓을 수 있으며, 주변 지형이 성을 쌓기에 좋고 결작(結作)이 많아 성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좋다고 했다. 수원도호부에는 큰 성을 쌓을 만하며 땅의 내외는 만호를 수용할 만하다고 밝혔다.²⁶

요컨대, 『성제도설』은 화성 축성 이전에 정조가 성제를 규식화하기 위해 편찬한 책이었다. 『성제도설』의 내용은 『성제고』를 통해 알 수 있다. 정조가 규식화한 성제는 이전까지 조선의 성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제고』에서는 수원도호부의 큰 성을 쌓을 만하다고 밝혀, 수원 화성과의 연관성을 알 수 있다. 수원 화성은 한·중·일 성제의 장점을 종합하여, 실제적인 방어력을 갖추기 위해 축성된 것이다. 이러한 점이 실제 화성에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화성성역의궤』와 비교하여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3. 『성제고』와 『화성성역의궤』

『성제고』 편찬의 배경과 체제 및 내용을 통해, 화성 축성의 지침과 중요점 등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화성성역의궤』와 비교·분석한다면, 화성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성성역의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성의 방어시설은 옹성, 노대, 공심돈, 포루(砲樓)와 포루(鋪樓) 등이 있다. 또한 축성재료로 벽돌을 사용했으며, 성의 아래를 넓힌 점이다.

화성에 적용된 『성제고』의 방어시설과 모습에 대해서는 「조선후기 『성제고』 편

26 정규완, 2018, 「정조대 화성축성과 옹성의 군사적 기능」, 경기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쪽.

찬과 화성 축조 연구」에서 볼 수 있다.²⁷ 이 연구에서는 화성에 적용된 『성제고』의 모든 방어시설을 언급하기보다는, 앞에서 정조가 언급한 조선 성제의 문제점이 보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첫째로, 수원 화성의 지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수원 화성은 서쪽에 산을 접하고 있고 주변에 하천이 흐르고 있다. 다만 화성의 남쪽과 북쪽은 평탄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정조가 말했던 산언덕에 의지한 지형이었다. 『화성성역의궤』에서는 수원 화성 주변의 지형을 <그림 1>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림 1>을 통해 화성의 서쪽 방면은 산지를 접하고 있어 적군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난한 지형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화성의 북쪽과 동쪽, 남쪽은 논답이 있는 평탄한 지형으로 보인다. 『화성성역의궤』에서는 화성전도를 통해 그 모습뿐만 아니라 지형을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성 축성 당시 주변 지형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림 1> 「화성전도」(『화성성역의궤』)

27 김성부, 2016, 「조선후기 『성제고』 편찬과 화성 축조 연구」, 강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화성의 전체 국면

동쪽을 향하여 열리었는데 팔달산이 높이 솟아 후진이 되어 있다. 일자사(一字砂)는 편평하여 가까이 안산이 되었는데 가운데로 큰 내가 남북으로 꿰뚫어 흐르고 있다. 사각은 모두 높고, 여덟 문이 어긋매겨 서 있으니 정말 이것이야말로 만년의 금탕지지(金湯之地)이다.

중국의 성 만드는 제도는 반드시 안팎으로 겹쳐져 쌓는 데 이것은 들판에 성을 쌓게 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성터는 거의가 산등성이와 산기슭을 타고 쌓여 있다. 이런 까닭에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인공으로 쌓는 비용이 들지 않고서도 자연히 안팎 성이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굳이 안팎으로 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성 쌓는 제도가 다른 것은 지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성은 있는데 못을 파지 않는 것을 군사상의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성 자체가 이미 산을 의지하고 있는데, 못을 어떻게 사방에 두를 수 있겠는가? 화성을 처음 쌓으려고 할 때에 주략에 따라, 먼저 성 둘레에 못을 파야 할 곳을 구하고, 그 흙은 성을 쌓는 데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남쪽 성 밖과 북문 옆에는 북문 옆에는 자연적으로 깊은 도랑이 있고, 서산의 뒤와 동성의 아래에도 자연적인 해자가 있었다. 그러므로 비록 성 둘레에 다시 도랑을 파지 않더라도 저절로 지형에 따라서 견고한 성 구실을 하게 되어 있다.²⁸

이를 통해 보면, 중국의 축성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성은 안팎으로 쌓고, 성 주변에 해자(核字)를 쌓는다는 것이다. 다만 화성에 성을 안팎으로 쌓지 않은 것은 성의 서쪽에 산이 있기 때문이고, 해자를 만들지 않은 것은 화성에 접해있는 산지와 도랑 등이 있어서였다. 해자가 없는 화성은 앞에서 『성제고』가 제시한 평지성의 기본 형태를 따르지는 않았다. 해자, 양마장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화성은 산에만 의지하여, 여타의 방어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은 아니다.

28 경기문화재단, 2005, 『화성성역의궤』, 13~14쪽.

먼저 화성의 방어시설로는 공심돈을 들 수 있다. 공심돈은 조선에서 화성에 처음 나타난 방어시설이었다. 화성에서 나타난 공심돈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공심돈은 속이 빈 돈대를 뜻한다. 돈대라 하면 경사면을 절토(切土)하거나 성토(盛土)하여 얻어진 계단 모양의 평탄지를 옹벽(擁壁)으로 받친 부분을 뜻하는 말로 정원 시설로서의 돈대와 방위시설로서의 돈대로 크게 나뉜다. 서북공심돈은 성곽의 일부와 겹쳐 치성의 형태로 내밀어진 부분에 세워진 방형의 공심돈으로 내부에는 목재 사다리를 설치했으며, 동북공심돈은 벽돌로만 구성하여 내부를 빙빙 돌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식으로 구성된 원형의 공심돈이다. 위치도 서북공심돈과는 달리 성곽 안쪽에 별도로 만들어졌다. 남공심돈은 현재에는 전하지 않아 『화성성역의궤』에서만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아마도 중국 공심돈의 원형을 가늠할 수 있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심돈은 기본적으로 사면을 벽돌로 쌓은 벽체로 둘러싸고 내부는 사다리나 계단을 두어 2~3개 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워진 중앙부에는 벽체를 따라 총구를 내어 공격용 총포를 시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상부에는 군사들이 몸을 감추거나 쉴 수 있는 누각을 세우고 총포를 설치했다.²⁹

화성의 공심돈은 두 가지 계통으로 나뉜다. 서북공심돈과 남공심돈은 전투를 담당하는 공심적대였으며, 동북공심돈은 척후를 담당하는 이름 그대로의 공심돈이었다. 화성 공심적대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6세기에 왜구 토벌과 북방 기마족의 침략 방어에 혁혁한 공을 세운 척계광의 전술과 방어체계가 크게 반영되어 있다. 공심돈은 병력과 화력을 성벽의 돌출된 곳에 중층으로 배치하여 전투 시에 일본군과 북방 기마족이 성벽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한편으로는 화약무기의 발달 성과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어시설이었다.³⁰

둘째로, 화성은 모든 성문에 옹성을 설치했다. 화성 이전에도 옹성이 설치되었으나, 성문의 일부에만 설치되거나 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 옹성은 성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성문을 방어하는 시설이다. 옹성은 적군이 성문으로 바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성문에 접근하는 적을 포위 격퇴하는 방어

29 경기문화재단, 2007,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9쪽.

30 정연식, 2001, 「화성 공심돈의 유래와 기능」, 『역사학보』 169, 33-34쪽.

시설이다. 또한 성문 근처의 공간을 제한하여, 성문을 공격하는 공성병기의 사용을 어렵게 한다. 화성 옹성은 동옹성과 서옹성, 북옹성과 남옹성이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화성성역의궤』에서 나타난 옹성의 모습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옹성은 장안문의 외성이며, 크기는 본성의 크기에 따른다고 한다. 옹성의 모양은 옹기를 반으로 쪼갠 것과 같다고 했다. 옹성의 문 위에는 적루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본성의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북옹성은 본성의 정문 좌우 무사에서 각각 7보 되는 곳부터 설치했다. 옹성의 높이는 17척이고 안쪽 둘레는 159척 6촌, 바깥 둘레는 209척이다. 북옹성 아래의 두께는 15척, 위는 줄어들어 12척이라고 했다. 북옹성의 바깥쪽에는 현안을 16개 뚫었다. 현안의 길이는 12척이고 지름은 1척 2촌이다. 북옹성의 안쪽에는 벽돌로 된 흠통 8개를 설치했다고 했다. 흠통의 지름은 5촌이다. 북옹성은 “사방으로 열리고 팔방으로 통한다는 뜻을 부여하여 중앙에 문을 설치하고 본성의 정문과 같은 방향에 설치했다.”고 하였다. 북옹성의 양문 사이는 10보 3척이고 돌로 홍예를 만들었다. 안쪽의 홍예는 너비가 18척이고 높이가 19척이다. 바깥의 홍예는 너비가 16척, 높이가 17척 5촌이라고 했다. 안팎 홍예의 사이는 좌우 높이가 21척이고 양 선문(扇門) 안에는 쇠로 만든 빗장을 설치했다. 홍예의 덮개판 위에는 회삼물(灰三物)로 만들고 다시 여러 장의 벽돌을 쌓았다고 했다. 그 위에는 오성지를 설치했다. 오성지 전체의 길이는 14척이고 너비는 5척, 깊이는 2척, 각 구멍의 지름은 1척이라고 했다. 오성지 위에는 성가퀴 9첩을 설치했는데, 전체 너비는 38척이라고 했다. 오성지 좌우에는 1층을 낮춰 마모양의 성가퀴 7첩을 설치했다. 성가퀴의 너비는 각각 10척 2촌이고 높이는 5척이다. 성과 만나는 지점에凸의 반쪽 모양으로 층을 만들었다. 높이는 9척이고 층안을 1구멍씩 뚫었다. 안쪽에는 평평한 성가퀴를 돌렸다. 성가퀴의 높이는 3척 5촌이고 두께는 2척 6촌이라고 했다. 북옹성의 위에는 모두 네모난 벽돌(甗)을 깔았고 좌우 끝에는 벽돌로 된 홍예(虹霓)에 작은 판문을 설치했다. 판문을 통해 본성과 통할 수 있었다. 판문의 양 옆에도 평평한 성가퀴를 설치하는데 높이는 10척 7촌이라고 했다.³¹

남옹성의 전체적인 양식은 북옹성과 같다. 남옹성은 팔달문의 외성이고, 홍예는 모두 벽돌로 만들었다고 한다. 홍예에는 현안 12개를 설치했다. 옹성 위의 바깥 쪽

31 경기문화재단, 2005, 『화성성역의궤』, 18쪽.

좌우에는凸모양 성가퀴를 9첩씩 만들었다.³²

동옹성의 크기는 성문의 오른쪽 6보 3척에서 시작하여, 문의 왼쪽 6보 3척되는 곳에서 끝난다고 했다. 동옹성의 입구의 길이는 4보 1척이다. 동옹성의 높이는 9척 6촌이고 내면은 돌로 만들었다. 동옹성의 둘레는 57척이고 정문과 지름 거리는 28척이다. 외면은 벽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91척이라고 했다. 아래 두께는 11척 5촌이고 위의 두께는 줄어들어서 10척 5촌이라고 했다. 내면에는 벽돌로 된 누조를 4개 설치했다. 누조는 직경 5촌이다. 평평한 성가퀴를 4첩 설치했다. 높이는 4척 5촌인데 원총안과 근총안 14개 만들었다. 첩마다 구멍을 3개 만들었다. 북쪽 가로 첩에는 구멍을 2개 만들었다고 했다. 옹성 위에는 회다짐을 했고 남쪽 끝에 돌층계를 만들어서 원성과 통할 수 있게 했다고 하였다.³³

서옹성은 화서문의 외성이다. 서옹성의 제도는 동옹성과 같다. 높이는 11척이고 안쪽의 둘레는 76척이다. 서옹성은 화서문의 성문에서 36척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했다. 서옹성의 바깥쪽 둘레는 110척이다. 안과 바깥 면 모두에 평평한 성가퀴를 설치했다. 외면에는 총혈 구멍을 19개 설치했고 활을 쏠 수 있는 구멍을 6개를 설치했다. 다른 양식은 동옹성과 같다고 했다.³⁴

『성제고』에서 말하는 옹성의 표준적인 형태는 동옹성과 서옹성의 모습이다. 옹성문의 방향과 성문의 방향을 다르게 하여 성문으로의 동선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다. 남옹성과 북옹성은 옹성문의 방향과 성문의 방향이 같다. 이것은 성문의 사통팔달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화성 옹성은 모두 벽돌로 만들어졌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벽돌은 돌과 흙보다 비용이 더 들기는 하지만 화공에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앞서 정조 지지한 조선의 성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남옹성과 북옹성에는 성문의 불을 효과적으로 끌 수 있는 시설인 오성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화공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화성에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³⁵

32 경기문화재단, 2005, 『화성성역의궤』, 19쪽.

33 경기문화재단, 2005, 『화성성역의궤』, 20쪽.

34 경기문화재단, 2005, 『화성성역의궤』, 21쪽.

35 화성 옹성의 모습과 그 성격에 관한 것은 다음의 연구에 자세하다. 정규완, 2018, 「정조대 화성축성과 옹성의 군사적 기능」, 경기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셋째로, 『화성성역의궤』에서 화성은 아래의 넓이를 더 넓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화성은 정조가 지적한 위아래가 서로 비슷하여 쉽게 무너지는 점을 보완했다. 화성은 “성의 높이를 3등분하여 성을 쌓을 때 아래의 3분의 2까지는 점점 안으로 좁혀 매층의 차를 1치로 한 비례로 좁힌다. 위의 3분의 1에서부터는 점점 밖으로 넓히는 듯이 하되 매층의 차를 3푼쯤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성의 전체 모양이 가운데쯤이 약간 굽은 듯이 보인다. 이렇게 하면 성이 이미 완축 되었을 때는 그 배는 빈 것처럼 안으로 줄어들고 그 몸은 마치 홀(笏)과 같은 모양이 된다.”고 하였다.³⁶ 화성의 안정성을 위해 성의 아래의 높이는 3분의 2, 위의 높이는 3분의 1로 구분하여, 축성 법을 달리하고 있다.

요컨대 화성은 정조가 축성 전에 언급한 조선의 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했다. 그것은 공심돈을 설치하여 지형이 보호해 주지 않는 곳을 방어한 점, 옹성과 오성지를 설치하고 성을 벽돌로 만들어 화공을 대비한 점, 성이 쉽게 무너지지 않게 성의 아랫부분을 높인 점이 있다.

이 외에도 화성의 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들이 있다. 먼저 치를 말할 수 있다. 『화성성역의궤』에서 나타난 치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화성 축조 이전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성곽 방어 시설물 중에 치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여장을 뜻하는 것이었고, 유성룡에 이르러서 치의 의미를 본디 뜻과 유사하게 해설하였다. 정약용은 기존의 성제에서 지니고 있던 문제점을 치성의 부재로 보기도 했다. 기존의 성들은 여장에 총안만 설치할 뿐 적이 성에 근접하여 기어 올라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50~60보 사이마다 치를 설치하여 성벽에 접근한 적을 양쪽에서 방어하는 수성법을 논하였다. 이는 화성에 적용되었다.³⁷

둘째로, 노대가 있다. 노대는 『성제고』에서 지휘를 위해 중요한 시설로 언급하고

36 경기문화재단, 2005, 『화성성역의궤』, 54쪽; 경기문화재단, 2007,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5쪽.

37 김성부, 2016, 「조선후기 『성제고』 편찬과 화성 축조 연구」, 강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47~48쪽.

있다. 화성의 노대는 화성에서 가장 높은 서장대에 설치되어 있다. 화성에 축성된 노대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동북노대는 치처럼 돌출된 하부의 석축 높이가 13자, 노수가 들어가 쇠뇌를 쏘던 대의 높이는 18자이다. 장방형의 평면을 돌과 벽돌로 쌓아올렸는데 모서리를 깎아 모를 죽인 노대는 몸체의 양면이 전체적으로 둥글게 곡이 져 있다.³⁸

서노대는 서장대 뒤편에 화성의 최정상에 위치해 있다. 노대는 성 밖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며 이를 알리는 일을 하는 곳이다. 화성을 건설할 때, 노대의 제도를 알고 있지만 화성에 맞는 방식의 노대를 지었다고 했다. 전돌(磚石)을 쌓아올려 단을 만들고 누각 같은 여타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거칠 것이 없으므로 성의 전체를 돌아보기에 좋고, 군사들의 집중력이 더해져 전쟁을 치르는 장수가 지휘·통솔하기에 알맞았다고 한다. 서노대의 옆에는 장대가 있어 그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³⁹

화성에 축성된 노대는 동북노대와 서노대의 모습이 다르다. 형태적으로 동북노대는 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동북노대는 좀 더 직접적인 방어시설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서노대는 화성에서 가장 높은 지형인 서편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노대는 『성제고』에서 적을 살피고, 지휘를 하는 역할을 했다. 산 정상에 위치한 점과 서장대를 접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서노대는 『성제고』에서 말하는 군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화성의 방어시설에는 포루(砲樓)도 있었다. 포루는 포를 설치해 적을 격퇴하는 방어시설물이다. 화성에 축성된 포루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포루(砲樓)는 성벽의 일부를 밖으로 돌출시켜 축조한다. 적루라고도 부르는 이 시설물은 치와 함께 성체를 이루는 기본적인 시설이다. 성벽의 몸체에서 시설이 돌출되어, 성의 몸체는 치성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내부의 구조가 비워져 있고, 성가퀴 위에 집을 지어 놓았다는 것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 화성에는 포루 5개소를 두었는데 구조는 모두 동일하나 서포루가 바깥둘레 18보 4자로 가장 작고 북

38 경기문화재단, 2007,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39쪽.

39 경기문화재단, 2007,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52쪽.

서포루가 바깥둘레 22보로 가장 커 조금씩 다른 규모로 건설되었다.⁴⁰

화성에는 다양한 방어시설이 설치되었다. 다만 화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화성에 처음 적용된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그것은 거중기, 공심돈 등이다. 화성이 성곽사적으로 가지는 실제적인 방어능력과 군사적 의의는 이들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건설되었던 방어시설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화성 축성은 『성제도설』이라는 명확한 축성 지침이 있었다. 『성제도설』은 현존하지 않지만, 『성제고』를 통해 화성의 축성 지침을 알 수 있다. 화성은 현릉원을 수호하기 위한 성의 필요성과 정치적인 목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축성되었다. 다만 군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도성 방어체제를 완성하는 성이었다. 따라서 실제적인 방어능력이 필요했고, 화성 축성 이전에 성제를 규식화했다. 이것은 한·중·일의 성제를 종합하여 정립된 것이었다. 따라서 정조대 정립된 성제는 실제적인 방어능력을 가진 성이었다.

정조가 화성 성제를 정립하며 제기한 문제는 크게 3가지이다. 주변에 산만을 의지한 점, 성의 위·아래의 크기 배분이 적절치 않아 쉽게 무너지는 것, 화공에 약한 것 등이다. 화성은 이 점을 공심돈·치·포루 등을 설치하여 방어능력을 높이고, 용성·오성지·벽돌 사용으로 화공을 대비했다. 마지막으로 화성은 축성할 때 아래의 높이를 위보다 크게 하여 건축물의 안정성을 더했다.

『성제고』와 『화성성역의궤』를 통해, 화성의 성격과 모습 등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화성에 『성제고』에서 다루고 있는 방어시설이 모두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화성성역의궤』에서 밝히듯이, 주변의 산지와 깊은 도랑들을 접하고 있어서였다. 이것은 화성에 적용된 방어시설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화성 축성시기 조선은 한·중·일의 성제를 종합한 축성 규범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외적을 막는 데 효과적

40 경기문화재단, 2007,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6쪽.

인 방법이었다. 특히 인용서 중 하나인 『기효신서(紀效新書)』는 명나라의 장수 척계광이 왜구와 오랑캐를 막기 위해 저술한 책이다. 『성제고』에서 논의된 내용은 외부의 적을 막는 데 필요한 시설물이었던 것이다. 또한 화성의 지형은 『화성전도』에서 드러나듯이, 주변에 논답을 끼고 있는 지형이었다. 지형적으로 성 주변과 그 외부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었다. 지형상의 약점이 있던 것이다. 이것은 『성제고』와 『화성성역의궤』의 비교 연구를 통해 명확히 논증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성에 적용된 방어시설물에 대한 연구는 특히 치, 포루, 노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성문 방어시설물에 대한 연구는 화성에 처음으로 나타난 시설물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공심돈, 벽돌 사용 등이었다.

화성 축성 이전에도 사용되었지만 주목되는 방어시설물은 치이다. 치는 다른 방어시설물에 비해 많이 설치되었다. 치와 화성 주변의 지형을 비교하여 화성의 실제적인 방어능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포루(砲樓)와 포루(鋪樓)도 화성에 처음으로 등장한 방어시설은 아니다. 치처럼 일반적이었던 방어시설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의 설치 위치와 주변 지형을 비교하여 실제적인 방어능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각각의 방어시설물의 성격과 실제적인 방어능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화성의 군사적 의의와 그 성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9년 10월 30일 심사일 2019년 11월 21일~12월 4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6일

참고문헌

1. 사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성제고(城制考)』; 『서애선생문집(西厓先生文集)』; 『만계수록(礪溪隨錄)』;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만기요람(萬機要覽)』; 『홍재전서(弘齋全書)』.

2. 저서

경기문화재단, 2007,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손영식, 2009, 『한국의 성곽』, 주류성.
 유봉학, 1996, 『꿈의 문화유산, 화성-정조대 역사·문화 재조명』, 신구문화사.
 최홍규, 2005, 『정조의 화성 경영 연구』, 일지사.
 한영우, 2002,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3. 논문

강문식, 1996, 「정조대 화성의 방어체제」, 『한국학보』 82.
 김성부, 2016, 「조선후기 『성제고』 편찬과 화성 축조 연구」, 강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노영구, 1999, 「조선후기 성제 변화와 화성의 성곽사적 의미」, 『진단학보』 88.
 노영구, 1999, 「『성제고』의 내용과 『성제도설』」, 『문헌과 해석』 8.
 이왕무, 2014, 「조선후기 수도권 방위체제의 정비와 군사도시화 경향」, 『군사』 90.
 유봉학, 1996, 「정조대 정국 동향과 화성성역의 추이」, 『규장각』 19.
 장필기, 1998, 「정조대의 화성건설과 수도방위체제의 재편」, 『서울학연구소 연구총서』 10.
 정규완, 2018, 「정조대 화성축성과 웅성의 군사적 기능」, 경기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정연식, 2001, 「화성 공심돈의 유래와 기능」, 『역사학보』 169.
 차용걸, 2010, 「조선후기 산성방어체제의 운영」, 『중원문화재연구원』 4.

요 약

이 연구는 화성 축성의 지침을 알 수 있는 저서인 『성제고(城制考)』의 체제와 내용을 소개하고 화성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화성 축성 이전에 정조가 성제를 정립하기 위해 편찬한 『성제도설(城制圖說)』의 편찬 목적을 알아볼 것이다. 『성제도설』은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성제도설』의 내용은 『성제고』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성제고』의 내용 분석을 통해 정조가 화성을 축성하기 전에 지적한 조선의 성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분석하여 화성 축성의 규범은 그 목적에 맞게 정립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규범을 통해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 나타난 화성의 모습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화성의 모습이 성제(城制)의 규범을 잘 따르고 있는지, 다른 점이 있는지, 화성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화성 성곽의 군사적 의의를 알아보려고 한다.

화성은 군사적으로, 조선의 도성 방어체제인 4부 유수부(留守府) 체제의 일환으로 축성되었다. 따라서 실제적인 방어능력이 필요했고, 축성에 앞서 축성의 규범을 정립한 것이다. 그것은 크게 산에만 의지하는 점, 화공에 약한 점, 성의 위·아래의 높이가 같아 안정적이지 않은 점이였다. 화성은 이 점들을 방어시설물들을 설치한 것, 벽돌과 소화시설인 오성지(五星池)를 설치한 것, 아래의 높이를 3분의 2로 잡은 것 등으로 해결했다. 화성은 기본적으로 정조가 지적한 이전까지 조선의 성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해결하여 축성된 성이었다.

연구를 통해 화성 축성에서 중점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부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전까지 설치되었던 시설물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치, 포루, 노대 등이다. 이들은 아주 새로운 방어시설물은 아니나,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야 화성 성곽의 군사적인 성격과 의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화성 축성의 규범을 알 수 있는 『성제고』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화성, 성제고, 화성성역의궤, 수원, 공심돈, 웅성, 오성지, 벽돌, 조선후기 축성법

ABSTRACT

Construct Hwaseong Fortress and nature of construction sources in king JeongJo Era — Focusing on *Seongjego* and *Hwaseongseongyeoigwe*

Jeong Gyuwan

This study introduces the system and content of a book titled *Seongjego*, which provided guidelines for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Fortres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Hwaseong Fortress. To this end, it examines the purpose of *Seongjedoseol*, a disappeared book which King Jeongjo published to set guidelines for building fortresses before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Fortress. Even though *Seongjedoseol* does not exist now, we can guess the content of the book from *Seongjego*. The analysis on the content of *Seonjego* helps us understand whether King Jeongjo was able to solve the problems of other fortresses in the Joseon Dynasty before building Hwaseong Fortress. The study also examines whether the standards for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Fortress met its original purpose and analyzes the forms of Hwaseong Fortress based on *Hwaseongseongyeoigwe*. We inspect whether the forms of Hwaseong Fortress followed the guidelines for construction of fortresses, or they somewhat derailed from the guidelines, and examine what factors were mainly considered when building Hwaseong Fortress. The study, thereby, aims to understand the military meaning of Hwaseong Fortress.

Hwaseong Fortress, from a military perspective, was built as part of the system of Yoosobu, the defense system for castle towns. So, the guideline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fortress were to make the Hwaseong fortress to have actual defense capabilities. The previous fortresses relied too much on mountains and

they were not strong enough against attacks by fire, and their structure were unstable as the upper parts and lower parts of the fortresses had the same height. So, defense facilities, bricks, and Oseongji, a facility with five holes to extinguish a fire, were added to Hwaseong Fortress, and the height of its lower part was made to be two thirds of the upper part. As such, King Jeongjo tried to build Hwaseong Fortress to be free of existing problems of other fortresses of the Joseon Dynasty.

This study shed light on the main issues that builders of Hwaseong Fortress tried to address. However, almost no study has been conducted on facilities installed such as chi, poroo, and nodae. They are not new defense facilities, and the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m, along with comparison with/analysis on *Seongjogo*, a book on the standards of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Fortress,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military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Hwaseong Fortress.

Key words : Hwaseong Fortress, *Seongjogo*, *Hwaseongseongyeoguigwe*, Suwon, Gongsimdon, Ongseong, Ohseongji, brick, and construction methods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정조의 활쏘기와 화성원행에 관한 연구

장을연*

1. 서론
2. 정조 활쏘기의 현황과 활숨씨
3. 정조 활쏘기의 특징
4. 화성원행 시의 활쏘기
5. 결론

1.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조선 제22대 국왕 정조의 활쏘기에 대한 애착은 역대 어느 국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량도 신기에 가까울 정도였다. 이는 국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보태지거나, 주몽과 이성계처럼 몇몇 사건을 모티브로 구현해낸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실이다. 정조는 역대 왕들이 의례적으로 행하였던 대사례가 번다하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보다 문무관원들과 간소하게 행할 수 있는 연사례를 자주 행하였다. 그 기록인 ‘어사기(御射記)’는 1787년부터 1798년까지 총 267건이 남아 있는데, 형태도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enior researcher,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E-mail : yi-yan@hanmail.net

다양하다. 종이에 서사하여 날장으로 남은 고풍지(古風紙)와 이를 첩으로 엮은 고풍첩(古風帖), 돌에 새겨진 어사대비(御射臺碑), 현판에 새겨진 어사현판(御射懸板), 종이에 인출된 어사탁본첩(御射拓本帖) 등이 그것이다.

정조의 어사기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매우 상세하여 활을 쏜 일자와 장소, 과녁과 화살의 종류, 발사한 화살의 수량과 과녁에 적중시킨 화살의 수량, 적중한 과녁의 부위, 점수 등이 기록되어 있다.¹ 특히 『정조실록』·『일성록』·『내각일력』·『장용영고사』·『원행을묘정리의궤』·『화성성역의궤』, 한글본 의궤인 『당니의궤』 등의 관찬사료, 정조와 함께 활쏘기를 한 인물들의 개인 문집인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박제가의 『정유각문집(貞蕪閣文集)』, 이만수의 『극원유고(屨園遺稿)』, 윤행임의 『석재고(碩齋稿)』 등의 기록은, 활쏘기의 전후 배경과 함께 때로는 진지하고, 때로는 어수선한 사장(射場)의 분위기도 생동감 있게 전해 준다.

정조가 이처럼 활쏘기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조는 활쏘기를 전후하여 문신에게는 상무정신을, 무신에게는 실전 능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조대의 정치 지형과 정조의 처지를 고려해 보면, 그 이면의 정략적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즉, 정조는 즉위 후부터 줄곧 사도세자를 죽임으로 내몰았던 집권 노론세력에 맞서기 위해 친위세력 강화에 힘썼다. 수원화성 축성, 장용영 설치,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와 『병학통(兵學通)』 등의 무예서 편찬과 같은 과감한 군사정책을 펼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특히 화성원행 때는 직접 군복을 입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지휘하거나 무예를 시범 보이기도 하는 등, 적대세력이 무력시위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정조의 활쏘기는 연사례라는 왕의 활쏘기 전통을 행하는 것이었고, 이때 함께한 신하들에게는 상무와 실전능력 강화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주었다. 그러므로 정적들은 그 행위를 쉽게 공격할 수 없었던 반면, 정조는 활쏘기를 할 때마다 고풍이라는 하사품을 내려 위로와 결집을 다질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활쏘기는 세력 결집을 위한 매우 영리한 정치 행위인 셈이다.

1 장소는 어사기보다는 많은 경우 실록이나 『일성록』의 당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춘당대, 낙남헌, 동장대 등이다. 과녁과 화살의 종류는 실록, 『일성록』, 어사기에서 모두 확인되는데, 과녁은 관혁, 장혁, 소포 등이고, 화살은 유엽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화살의 수량은 순(巡) 또는 시(矢)로 표기되는데, 1순은 5시이다. 과녁에 적중한 화살의 수량은 '중(中)' 또는 '시(矢)'로 표기되며, 적중한 과녁의 부위는 '관(貫)' 또는 '변(邊)'으로 표시된다. 점수는 '분(分)'으로 표시되는데 관에 적중시키면 2분, 변에 적중시키면 1분으로 계산한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조 활쏘기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화성원행이라는 중요 사건 속에서 정조 활쏘기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조 활쏘기 현황은 관찬사료와 문집, 각처 소장 고문서 등을 토대로 일자와 장소, 시수, 점수, 과녁 등을 표로 정리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² 또한 10순 활쏘기에서 49시를 적중시켜 물기한 사례를 분석하여 정조의 활솜씨를 확인해 보았다. 정조 활쏘기의 특징에서는 주로 사용한 화살과 과녁의 종류, 화살을 취하는 순서와 10순 활쏘기에서 마지막 화살을 남기는 규칙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끝으로 1789년부터 1800년까지 총 13차의 원행 가운데 활쏘기를 시행한 일행 차례에 대하여, 활쏘기 전후 배경과 함께 어사기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수원에서의 정조 활쏘기를 특별히 부각시킨 이유는, 첫째, 이때의 활쏘기가 화성원행이라는 특수한 사건과 결부되어 다른 사례에서는 볼 수 없는 극적인 서사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정조를 말할 때 화성원행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 기간에 정조는 부친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불효의 한을 풀고, 동시에 도성에서는 할 수 없었던 군사훈련을 과감하게 행함으로써 왕권 강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행해지는 정조의 활쏘기가 여느 때의 활쏘기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론일 것이다. 둘째, 정조의 활쏘기 가운데 궁궐 밖의 활쏘기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그 가운데 화성행차 때 수원을 비롯한 그 연로에서의 활쏘기가 횡수나 장소 면에서 가장 많다. 따라서 화성행차 때의 정조 활쏘기는 정조와 화성행차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정조 활쏘기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사례를 제시하여 정조 활쏘기 행위의 성격을 규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박남주는 「한국 활쏘기의 체육사적 연구」³에서 한국의 활쏘기를 교육적 활용과 의례적 활용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사례로 영조대의 대사례와 정조대의 연사례를 제시하였다. 정조 활쏘기는 정조 7년(1783)과 정조

2 장을연, 2017, 「정조 활쏘기와 고통」, 『규장각』 51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 박남주, 2003, 「한국 활쏘기의 체육사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6년 춘당대 연사례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이를 통해 정조의 활쏘기가 탁월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강현민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왕의 위락 활동」⁴에서 조선시대 왕의 위락활동을 연희형, 강무형, 유희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정조의 활쏘기를 강무형 위락행위로 규정하면서 다른 왕과는 달리 정조가 직접 활쏘기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홍석기는 「조선시대 왕들의 스포츠」⁵에서 왕들의 스포츠 종목을 격구(擊毬), 봉희(棒戲), 방웅(放鷹), 활쏘기(弓道), 투호(投壺), 수박(手搏), 각저(角抵) 등 7개를 제시하고, 그 동기를 건강, 유희, 교육, 권위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활쏘기는 투호와 함께 교육적 사례가 많이 보이고, 신체와 정신 강화를 위한 활동이라 하였다. 이 글에서는 역대 왕들의 활쏘기 현황을 정리하였는데, 정조 이외의 왕들은 대부분 관람에 그쳤던 반면, 정조의 경우 직접 활쏘기를 한 사례가 유독 많고, 그 실력이 대단했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군사들의 활쏘기를 격려하고 문신의 활쏘기 참여를 유도하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외에 전통 활쏘기에 관한 연구에서 정조는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역대 왕들 가운데 활을 쏜 사례가 가장 많고, 실록이나 일성록, 내각일력 등 관찬사료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실력이 대단했다는 점도 빠짐 없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정조 활쏘기의 성격을 해당분야 연구목적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역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정조 활쏘기의 동기는 내적으로는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상무(尙武)’ 또는 ‘문무겸비’, ‘체력증진’, ‘친목도모’등을 내세웠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형국 「정조의 문무겸전론과 병서 간행」⁶의 주장은 정조 활쏘기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 글에서는 정조가 사대부들에게 문과 무, 성리학과 실용주의의 조화를 강조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정조 이전의 문무겸전론이 주로 무장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었던 반면, 정조대에는 문신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사례로 몇 가지 활쏘기 사례를 들었는데, 이는 이 글의 주제인 정조의 활쏘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즉, 정조

4 강현민, 2016,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왕의 위락 활동」, 우석대학교 조경토목학과 조경토목공학전공 박사학위논문.

5 홍석기, 2005, 「조선시대 왕들의 스포츠」, 국민대학교 체육학과 석사학위논문.

6 최형국, 2012, 「정조의 문무겸전론과 병서 간행」, 『역사민속학』 39집, 한국역사민속학회.

는 무장들보다는 문신들과의 활쏘기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쏘기를 시험하면서 ‘상무’를 강조한 사례가 잦았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정조 활쏘기 기록이 대부분 이때의 기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정조 활쏘기를 사례 중심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조의 활쏘기의 전체적인 규모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필자가 정조의 또 다른 면모인 ‘무인 정조’에 주목하면서, 특히 ‘활쏘기’에 집중한 이유는 단일 인물의 활쏘기 기록, 게다가 국왕(정조라는 대중적 인지도가 어느 왕보다 높은 국왕)의 활쏘기 기록이 어느 인물보다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조 활쏘기 기록에 관심을 가지면서 오랫동안 각처 박물관과 개인 소장 자료를 조사, 정리하였다. 그 결과 앞서 「정조 활쏘기와 고풍」⁷에서 정조 활쏘기의 전모를 밝히고자 시도한 바가 있다. 이로써 정조의 활쏘기 연도별 횟수, 장소, 시수, 점수, 활과 과녁의 종류 등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실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정조 활쏘기의 현황과 활솜씨

1) 활쏘기 현황

정조는 천성적으로 활쏘기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가볍으로 여겨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활쏘기를 연습하였다고 한다.⁸ 그 결과 재위 후반인 41세(1792년)에 실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거의 신기(神技)에 가까운 경지에 도달하였다. 이때는 정조 자신도 놀라 누가 옆에서 돕는 듯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정조의 활쏘기 기록은 1인의 활쏘기 기록 규모에서 우리나라 역대 어느 인물과도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방대하고 구체적이다. 이렇게 기록이 남을 수 있었던

7 장을연, 「정조 활쏘기와 고풍」, 「규장각」 31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8 「弘齋全書」 권176, 「訓語3」, “射藝卽 我家法 猗灑予性喜射 嗚珣剝嫵拊嫵假億加勉焉”; 「정조실록」, 1792년 10월 30일. “予性喜射 韓珣颯瘳僊謀寵擣狩 少時射累獲四十餘矢”

이유는 왕의 언행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자 했던 조선시대 왕실의 기록문화 때문이다. 또 정조대에 유행한 ‘고풍(古風)’이라는 왕의 활쏘기 풍습도 중요한 요인이다. 왕이 활을 쏘아 적중하면 곁에 있던 신하들이 축하하는 뜻으로 사은을 요청하는 풍습을 ‘고풍’이라 한다.⁹ 이때 신하들이 종이에 정조의 활 쏜 내역을 적어서 올리면 여기에 하사품을 적어 수결하여 돌려주는데,¹⁰ 이 기록이 원문 그대로 또는 전사되어 남아 있는 건이 유독 많다. 이 문서와 하사품 역시 ‘고풍’이라 칭하며, 문서는 ‘고풍지(古風紙)’라고도 한다. 정조 이후에는 왕의 활쏘기가 매우 드물게 이루어졌고 자연스럽게 고풍도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정조의 화성원행 시 활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정조 활쏘기의 전체적인 현황과 그 경향성을 살펴보면, 최초로 확인되는 어사기는 1787년 8월 16일의 기록이다. 정조는 숙종의 탄신일을 맞아 고양행궁에 행차하여 숙종묘 명릉(明陵)과 숙빈 최씨(영조 생모)의 묘 소령원(昭寧園)을 참배하고 문무 근신들과 함께 활쏘기를 행하여 2순(10발)을 쏘아 전부 적중시켰다. 이때 경기도관찰사 서유방 등 37명이 시사(侍射)하였다. 정조 어사기는 이로부터 1798년까지 총 267회의 기록이 남아 있다.¹¹

정조의 활쏘기 기록은 1788년과 1794년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한 1787년부터 1798년까지 활쏘기에 대한 연도별 통계는 <표 1>과 같다. 총 267회에서 사용한 시수는 1,175순 5,874시이다. 이 가운데 4,022시를 과녁에 적중시켜 평균 적중률이 68%이다. 빈도로 볼 때, 1791년(33회), 1792년(57회), 1796년(31회), 1797년(91회)이 비교적 잦았다. 사용 시수를 함께 고려하면 이 4개년 중에서도 1792년과 1797년이 특히 많은데, 1792년의 경우 1797년보다 횟수가 34회나 적지만 사용 시수는 139순(695시)이 많다. 횟수가 가장 많은 1797년의 경우 평균 4일에 1회, 매달 7~8회의 활쏘기를 한 셈인데, 무관도 아닌 왕의 신분으로 이렇게 자주 활쏘기를 했다는 사실은 정조가 활쏘기에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보여 준다.

9 『정조실록』, 1792년(정조16) 10월 20일. “凡下之人 請被錫賚於在上 以識其喜幸之心者 謂之古風”

10 『弘齋全書』 권53, 銘 「賜內閣直提學李晚秀木屐 銘 并序(丙辰)». “射的有獲 侍射者進古風之紙 鞞 鈎寵物書其紙尾而與之 射壇故事也”

11 장을연, 2018, 「정조의 활쏘기와 화성원행」, 『무향수원 상무전통을 잇다』.

〈표 1〉 정조 활쏘기의 연도별 추이

시기	횃수	총시수(巡/矢)(1巡=5矢)	적중시수(矢)	적중률(%)
1787	1	2순 10시	10	100
1788	(기록 미확인)			
1789	8	18순 90시	63	70
1790	12	60순 300시	234	75
1791	33	63순 315시	154	85
1792	57	466순 2,329시 ¹²	1,835	79
1793	11	63순 315시	260	83
1794	(기록 미확인)			
1795	9	30순 150시	105	70
1796	31	120순 600시	369	62
1797	91	330순 1,650시	929	58
1798	14	23순 115시	63	55
합계	267회	1,175순 5,874시	4,022시	평균 69

2) 정조의 활숨씨

정조의 활숨씨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기간은 1792년과 1793년이다. 1792년 10월에서 1793년 2월까지, 그중에서도 179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의 성적을 분석하면, 이 기간이 정조의 활숨씨가 최고 정점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그 근거로 10순 활쏘기 사례의 비중을 들 수 있다. 10순 활쏘기는 체력적으로 강도가 높고, 시수가 많을수록 높은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조도 자주 행하지는 못하였다. 정조의 10순 활쏘기 사례는 총 51회가 확인되는데, 연도별로 보면 〈표 2〉 정조 10순 활쏘기 일람과 같다.

〈표 2〉에서 제시한 10순의 활쏘기 추이를 살펴보면, 활쏘기를 행한 10년 가운데 초반에 해당하는 1790년과 1791년에는 각각 3회와 1회에 불과하다. 활쏘기를 하지 않은 1794년을 제외하고, 1793년부터 1798년까지 5년 동안에도 15회에 불과하다. 그러나 1792년에는 32회로 횃수 증가가 뚜렷하다.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32회가

12 1792년 4월 8일 1순에서 1시가 부족한 4시를 쏘았으므로, 총 시수는 1,175순에서 5배수가 아닌 5,874시가 된다.

〈표 2〉 정조 10순 활쏘기 일람

시기	횟수	총시수(巡/矢)	적중시수(矢)	평균 적중시수(矢)	평균 적중률(%)
1790	3	30 / 150	134	44.7	89
1791	1	10 / 50	29	29.0	58
1792	32	320 / 1,600	1,353	42.3	85
1793	2	20 / 100	98	49.0	98
1796	5	50 / 250	151	30.2	60
1797	7	70 / 350	191	27.3	55
1798	1	10 / 50	21	21.0	42
합계	51회	510 / 2,550	1,977	38.8	77.5

10순 활쏘기로 그 비율은 57%에 이른다. 이는 그만큼 체력적으로나 기량면에서 자신감이 충만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때의 나이는 41세였다. 이 기세는 1793년 2월 까지 이어져, 1월과 2월 각각 1회의 10순 활쏘기를 행하여 모두 몰기(沒技)하였다.

몰기는 10순 50시를 쏘아서 49시를 과녁에 적중시키는 것으로, 정조의 활숨씨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정조의 몰기 사례는 총 17회로, 이 또한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기량의 추이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 준다. 다음은

17회 몰기 내역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3〉 정조의 10순 몰기 사례 일람에 자세히 나와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정조의 10순 몰기 사례는 3개년에 분포되어 있다. 즉 1790년 1회, 1792년 14회, 1793년 2회이다. 앞서 보았듯이 1792년에 10월부터 12월 사이에 10순 활쏘기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몰기 역시 이 해에 집중되어 있다. 12월 27일에는 하루 동안 2회의 몰기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정조의 활쏘기는 1792년과 1797년에 가장 활발했으며, 기량은 1792년 10월부터 1793년 2월 사이에 최고조에 달했다.



〈그림 1〉 양주어사대비(楊州御射臺碑, 문화재청 제공)

정조는 쫄 내에 머물 때는 창덕궁의 춘당대(春塘臺)와 단풍정(丹楓亭)에서 주로 활쏘기를 하였고, 군자정(君子亭), 천석정(千石亭), 양화당(映花堂), 모화관(慕華館), 장용내영 등에서의 사례도 있다. 행행 때의 사례는 화성행궁 외에 1789년 고양행궁과 1792년 양주목 어사 사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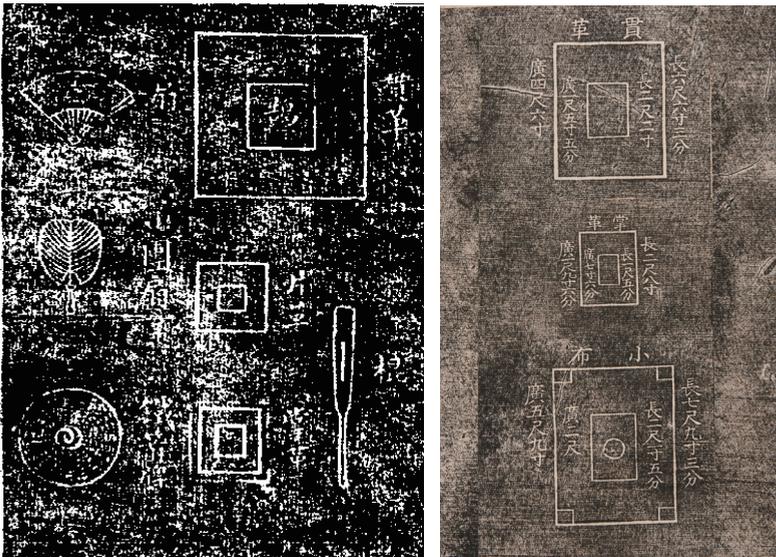
〈표 3〉 정조의 10순 물기 사례 일람

연번	어사일	총시수(巡)	적중시수(矢)	점수(分) [貫1分邊2分]	적중처
1	1790.05.01.	10	49	-	-
2	1792.10.30.	10	49	72	관23, 변26
3	1792.11.21.	10	49	75	관26, 변23
4	1792.11.22.	10	49	78	관29, 변20
5	1792.11.23.	10	49	78	관29, 변20
6	1792.11.25.	10	49	66	관16, 변33
7	1792.12.04.	10	49	70	관21, 변28
8	1792.12.05.	10	49	72	관23, 변26
9	1792.12.09.	10	49	66	관17, 변32
10	1792.12.11.	10	49	80	관31, 변18
11	1792.12.12.	10	49	72	관23, 변26
12	1792.12.16.	10	49	72	관23, 변26
13	1792.12.19.	10	49	74	관25, 변24
14	1792.12.27.	10	49	76	관27, 변22
15	1792.12.27.	10	49	77	관28, 변21
16	1793.01.29.	10	49	83	관34, 변15
17	1793.02.29.	10	49	74	관25, 변24
평균				74.06	관25, 변24

3. 정조 활쏘기의 특징

1) 화살과 과녁

정조가 주로 사용한 화살의 종류는 유엽전 1종이며, 거리는 120보(약 138m)이다. 반면 과녁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그 제도는 1792년 10월 30일 「어사기병도(御射記竝圖)」와 1795년 윤2월 14일 「낙남헌어사기(落南軒御射記)」, 『홍재전서』 등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 정조가 매회 활쏘기에 사용한 과녁은 대부분 관혁(貫革)이다. 관혁은 「어사기병도」에 따르면, 나무로 만들고 외곽(변)은 303cm, 내곽(관)은 101cm인 정방형 과녁이다.¹³ 그러나 「낙남헌어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외곽은 139×209cm, 내곽은 47×67cm인 아래로 긴 직사각형의 과녁으로 크기와 형태에 차이를 보인다.¹⁴



〈그림 2〉 「어사기병도」(좌)와 「낙남헌어사기」(우)의 과녁도

13 朴齊家, 「御射記(并圖)」, “貫革用木版 廣輪一丈 鵠三之一 植之一百二十步”

14 尹行任, 「落南軒御射記」, “貫革 (외곽) 長六尺六寸三分 廣四尺六寸, (내곽) 長二尺二寸 廣一尺五寸五分”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과녁은 장혁(掌革)이다. 『홍재전서』에서는 “작기가 손바닥만하다.”라고 하였고,¹⁵ 「어사기병도」에는 편혁보다 조금 작다고 하였는데,¹⁶ 편혁(片革)의 크기는 101×101cm이다. 「낙남헌어사기」에는 59×85cm이다.¹⁷ 즉 정조의 활쏘기에 사용된 과녁은 같은 명칭이라도 기록에 따라 규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4> 과녁 크기 비교에 자세히 나와 있다.

<표 4> 과녁 크기 비교

과녁종류	「낙남헌어사기」		「어사기병도」	
	변(邊)	관(貫)	변(邊)	관(貫)
관혁(貫革)	139.38×208.8	46.95×66.66	303×303	101×101
장혁(掌革)	59.37×84.84	23.01×45.45	편혁보다 조금 작다.	
편혁(片革)	-		101×101(관혁의 곡(鶻)과 비슷하다)	
소포(小布)	178.77×186.33	60.6×65.13		

비고 : 1尺=30.3cm으로 하여 환산하였고, 과녁의 크기 표기는 가로×세로(cm)로 함.

이 외에 소포(小布), 소소포(小小布), 소소소포(小小小布), 소소편포(小小片布), 편포(片布), 소소관혁(小小貫革), 편혁(片革), 소소편혁(小小片革), 소방혁(小方革), 추혁(莠革), 포혁(砲革), 조총관혁(鳥銃貫革) 등이 있다. 기물을 과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는데, 방패(防牌), 곤[棍, 부관지(付貫紙)], 선(扇), 소단선(小團扇), 철전패[鐵箭牌, 철전방패(鐵箭防牌)] 등이다. 곤은 군인이 사용하는 몽둥이[방(榜)]로 나무를 칼처럼 깎아 만든다. 너비는 6.5cm이고, 여기에 종이를 붙여 과녁으로 사용하였다. 선은 부채이다. 「어사기병도」에는 탑접선(榻疊扇 : 접히는 부채)과 소단선을 사용하였는데, 탑접선의 길이는 21~24cm이다. 소단선(小團扇)은 손잡이가 달린 접하지 않는 부채로 원의 지름이 12cm이다.

정조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과녁을 사용한 이유는 정조의 활쏘기 철학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정조는 활쏘기의 묘미를 삼매(三昧)에 두었다. 즉 활쏘기의 묘미는 정신을 집중하는 데 있고, 표적이 작을수록 정신이 전일해져서 마침내는 작은

15 「弘齋全書」 권176, 「訓語3」, “御後苑觀射 以柳葉箭貫革 猶嫌其大 乃小其的 曰掌革 其小如掌也”

16 朴齊家, 「御射記(並圖)」, “小減於片革”長四寸 廣同

17 尹行任, 「落南軒御射記」, “掌革(외곽)長二尺八寸 廣一尺九寸六分, (내곽)長一尺五分 廣七寸六分”

이[蟲] 한 마리가 수레바퀴와 같이 크게 보이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¹⁸

2) 취시(取矢)와 연시(衍矢)

정조 활쏘기 방식에서 특이한 점은 취시(取矢) 순서와 연시(衍矢)¹⁹이다. 점수를 매기는 방식은 과녁의 중앙 원 또는 방형을 관(貫), 그 둘레를 변(邊)으로 구분하고, 관은 2분, 변은 1분으로 매긴다.²⁰ 취시는 화살을 순별(巡別)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취한다. 그러나 취시 순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회 10순 사례에서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며, 10순 보다 작거나 많은 사례에서는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10순 사례에서도 취시 순서가 일률적이지 못하다. 특히 10순에서 1시를 남기는 연시는, 몰기(沒技)일 때와 몰기가 아닐 때, 몰기일 때라도 순차적으로 득점하여 최종적으로 49시를 득점할 때와 중간에 득중하지 못한 시가 있을 때의 처리 방식이 다르다. 여기서 는 이 문제를 어사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그림 2>의 「어사 기병도」와 「낙남헌어사기」에 자세히 나와 있다.

연시는 활쏘기에서 10순(50시)을 사용할 때 남겨 두는 1개의 화살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정조는 “보통 활쏘기를 하는 자들이 49시를 맞힐 것을 목표로 할 경우”라고 하고, 또 “관례를 따른다.”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연시를 두는 것이 당시 관례였음을 알 수 있다. 연시는 『주역』 「계사상전(繫辭上傳)」의 ‘대연수(大衍數)’에 근거하고 있다.

18 『弘齋全書』 권176, 「訓語3」. “教曰 射之妙以神會之 故의逾小而神逾專 始知一蠱車輪 儘是三昧法”

19 ‘연시(衍矢)’는 10순을 쏠 때 1발을 비워 두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가 임의로 이를 연시라 칭하였다.

20 정조 어사기에서 점수를 계산할 때, 시수와 점수를 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과녁에 적중했으나 꽃치지 않고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792년 10월 29일 어사기에는 “御射柳葉箭 十巡 四十九矢 五十七分內 貫一矢 邊四矢 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10순을 쏘아 45시(관12, 변33) 57분을 득하였으나, 여기에서 관1시와 변4시를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실제 이 어사기의 각순별 점수를 계산해 보면, 40시(관11시 변29시) 51분이 된다.

50에서 하나의 수를 빼는 것은 과한 것도 모자라는 것도 아니요, 도리어 까닭이 있는 것이다. 역(易)의 대전(大傳)에 말하길, “대연지수(大衍之數)가 50이요, 그 쓰임은 49이다.”라는 것은 하나를 비워 나머지에 돌려 조화를 생겨나게 함이니, 이것은 천지자연의 수이다.”라고 하였다.²¹

즉 주역에서는 대연수 50에서 49만 사용하고 1을 비움으로써 조화를 생성해 내는 근원으로 삼는다는 매우 철학적인 논리이다. 이를 근거로 어사에서 10순의 50시가 대연수와 일치하므로 주역의 논리를 적용하여 1시를 비운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0순 사례에서 한결같이 연시를 둔 것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논리는 순차적으로 49시를 적용시켰을 때만 적용되었다. 취시의 순서와 득점에 따른 연시의 유무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① 순차적으로 득중하여 몰기한 경우(그림 3)

이 경우는 쏘는 순서대로 제1시부터 제49시가 과녁에 적중했을 때이다. 이때는 제10순의 제5시를 남겼는데, 이를 1792년 10월 30일 춘당대 어사의 10순 49시 72분 몰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²²

보통 활쏘기를 하는 자들이 49발을 맞힐 것을 목표로 할 경우 제4순부터 이후에는 네 발을 명중시키면 중지하고 매번 남은 그 한 발을 두었다가 제9순을 지나 따로 모아 둔 것으로 1순을 쏘아 모아 둔 바의 숫자를 가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 역시 그 관례에 따라 남은 화살을 모아 두고 쏘지 않았으며 순기(巡旗)도 눕혀 두고 세우지 않았었다. 제6순도 그리 하였고, 제7순도 그

21 「金熾御射古風帖」, “然五十之遺一籌 非有過與不及也 抑有以焉 易之大傳曰 大衍之數五十 其用四十有九 虛一而歸餘 造化生焉 此天地自然之數也”; 尹行恉, 『碩齋稿』 권11, 「序」, ‘龍虎會聯韻序’에서도 “臣於前一日侍射 以五矢爲一巡 巡至于十 連獲四十九矢 而故留其一 有以相符於大衍之數 而留餘不盡之聖意也”와 같이 49시가 대연지수에 부합함을 강조하였다.

22 가장 많은 어사기와 고품이 남아 있는 어사로, 「李堯憲御射古風帖(坤)」, 「李海愚古風帖」, 「金熾御射古風帖」, 「壬子年金熹古風」, 「感戴廳稷帖」, 「御射記(并圖)」, 「壬子年別軍職廳古風帖」, 「徐榮輔御射古風帖」, 「尹行任御射古風帖」, 「朴基豐御射古風帖」, 「金熹古風」, 「趙岐古風帖」, 「(楊州)御史臺帖」 등이다. 『내각일력』, 『일성록』, 『정조실록』 등에도 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리 했으며, 제8순과 9순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9순을 다 쏘고서 따로 1순을 쏘아 모든 화살을 명중시켜 채우고 난 뒤에야 순기 다섯 개를 함께 세웠던 것이다. 제10순에 와서 연거푸 4발을 맞추고 좌우에 이르기를 ‘다 쏘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서 왼쪽 제5시를 쏘아서 명중시켰다. 통틀어 10순을 쏘아 49발을 맞히고 72점을 얻었다.²³

위 기록은 정조가 이날의 물기를 기념하여 고풍을 하사하면서 그 감회를 기록한 것이다. <그림 3>은 이날 활쏘기의 내용을 기록한 고풍 가운데 하나로, 김희에게 하사된 것이다.



<그림 3> 「임자년 김희고풍(壬子年金熹古風)」(1792년 10월 30일)

「임자년 김희고풍」의 내용을 보면, 먼저 제1~3순까지 각 순의 5시를 모두 적중시켰다. 다음으로 제4순부터 제9순까지는 각 순마다 4시를 적중시켰다.²⁴ 다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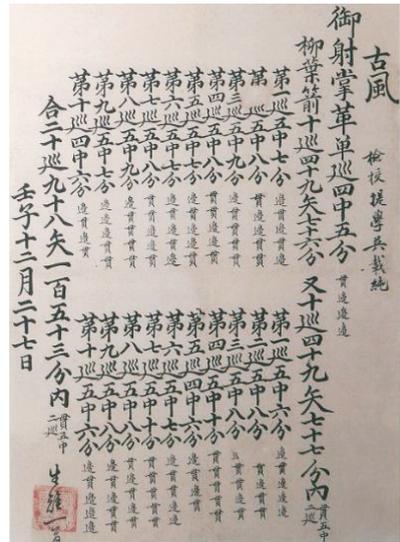
23 『정조실록』, 1792년(정조16) 10월 30일. “凡射者之擬四十九矢者 自第四巡以往 四中則止 而每存其一 過第九巡 另射一巡 以當所存之數 故予亦如其例 餘矢留而不發 巡旗偃而不豎 第六巡如之 第七巡亦如之 第八巡·九巡皆如之 既射九巡 另射一巡 獲全矢以足之 然後竝豎五旗 第十巡連獲至四矢 謂左右曰 ‘不可以盡也’乃發射左第五矢乃中之 通十巡四十九矢七十二分”

24 인용문에 “네 발을 명중시키면 중지하고”라고 한 것이, 각 순마다 4발을 명중시켰을 때만 1발을 남겨 둔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즉 언달이 4발을 명중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5발을 모두 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앞에 남겨 둔 제4~8순의 각 순 제5시(합 1순 5시)를 적중시켰다. 이렇게 하면 남은 것은 제9순의 제5시와 제10순의 5시인데, 제9순의 제5시를 먼저 쏘지 않고, 제10순의 제1~4시를 먼저 쏘아 적중시키고, 제5시는 남겨 두었다. 다음으로 제9순의 제5시를 쏘아 적중시켰다.²⁵ 이렇게 하여 49시를 모두 적중시켜 72분의 점수를 얻음으로써 물기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순차적으로 모두 과녁에 적중한 후에 마지막 1시를 연시로 남겼다.²⁶

② 순차적으로 득중하지 못하였으나 물기한 경우(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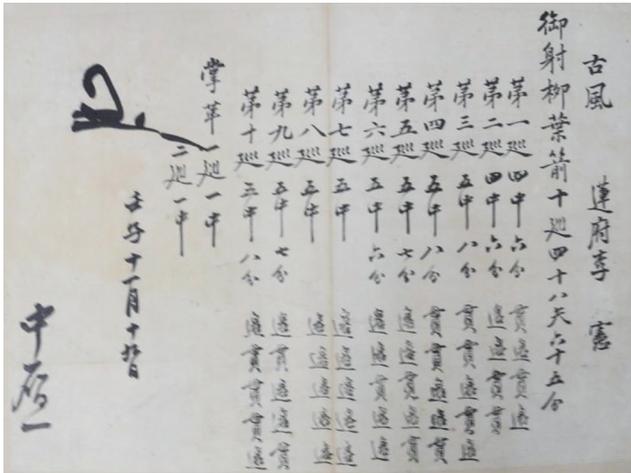
결과적으로 49시를 득중시켜 물기를 하였으나 순차적으로 득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50시 전체를 쏘았다. 1792년 12월 27일 10순 49시 77분의 물기 사례(그림 4의 하단 고풍)가 그러하다. 즉, 이 경우 제5순에서 제5시가 적중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은 제6~10순의 25시를 모두 쏘았으며, 이를 모두 적중시켜 물기하였다.



〈그림 4〉 「오재순어사고풍(吳載純御射古風)」
(1792년 12월 27일) 상: 10순 49시
76분(물기) 하: 10순 49시 77분(물기)

25 김문식, 「정조의 활쏘기 기록」, 『문헌과 해석』 통권21에서는 “4순 20발을 모두 맞추게 되면 5순부터는 4발만 쓰고 1발을 남겨 두었다. 5순에서 9순까지 4발씩 쏘면 5발을 남기게 되는데 이것을 9순 다음에 모아서 한꺼번에 쏘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순 5발을 쏘게 되는데 정조는 4발이 모두 과녁에 명중하자 마지막 한 발을 날려버렸다.”라고 설명하였다. 즉 제5~9순을 각각 4개 시만 쓰고 마지막 시(합 5시)를 남겼다가 제10순을 쓰기 전에 모두 쓰고, 제10순은 4개 시만 쓰고 제5시를 남긴 것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를 남기는 이유를 ‘검손’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26 그러나 이날의 어사에 대하여 그 순서를 달리 기록한 자료가 있는데, 양주의 어사대 비문을 탁본한 「(楊州) 御史臺帖」에서는 제10순의 제5시를 남기지 않고, 제4시를 남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왕이 유엽전을 소적(小的)에 10순을 쏘아, 49시를 맞추어 72분을 얻었다. 마지막 순에서 제4시에 이르러 靚시를 다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맞추지 않고, 제5시를 쏘아 또 관에 적중시켰다.(御射柳葉小的凡十巡 而其中四十九矢 其分七十有二 粵若終巡第四矢 則有教若曰 五十矢皆中不可 乃不中 第五矢又貫中)



〈그림 5〉 『이요헌어사고풍첩(李堯憲御射古風帖)(坤)』(1792년 11월 19일)

③ 몰기하지 못한 경우〈그림 5〉

몰기를 하지 못한 경우, 엄밀히 말하면 몰기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도 ②와 마찬가지로 10순(50시)을 모두 쏜다. 이러한 경우는 제49시를 쏘기 이전에 이미 2시 이상이 과녁을 빗나가 이후 모두 적중시켜도 49시가 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②와 마찬가지로, 활쏘기는 몰기를 목적으로 하므로 몰기를 못한 경우에 굳이 연시를 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792년 11월 19일 어사가 그 예로, 제1순 제4시와 제2순 제49시를 득중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이후 모든 화살을 득중시켜도 48시에 그쳐 몰기가 되지 못하므로 나머지 화살을 모두 쏘아 48시 65분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10순에서 1시를 연시로 남긴다는 의미는 제49시까지 순차적으로 득중한 시수가 49시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모든 10순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4. 화성원행과 활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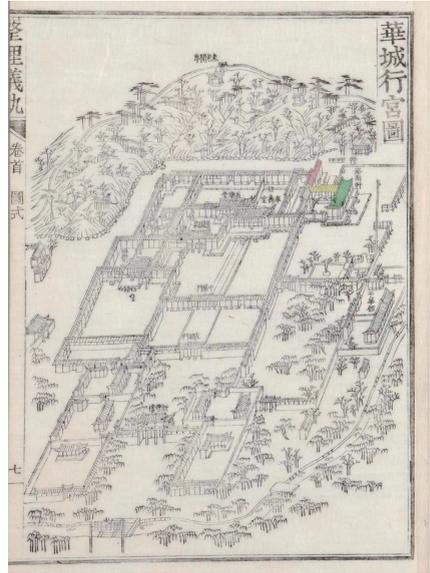
정조의 화성원행은 1789년부터 1800년까지 13차례로, 1797년 1월(9차)과 8월

(10차)을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원행을 행했다. 원행 때는 현릉원을 참배하고, 수원부를 순시하면서 민생을 살피고 위무하는 일이 중요한 일정이었다. 특히 현릉원의 수호와 화성 축성으로 인한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문무시취로 직부회시나 전시의 자격을 주는 등 파격적인 민생과 인재등용 정책을 펼쳤다. 수원부를 다스리는 지방관과 원행에 배중한 중앙관료들에게는 상전을 차등 있게 내려 위로하였다.

화성원행 시 정조의 활쏘기는 평상시와 형식적·내용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배중한 문무관원이 시사하고, 정조가 고품을 하사하는 어사의 관례나 활쏘기의 절차, 과녁과 화살의 종류, 어사기의 작성 방법까지도 다름이 없었다.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차이라면, 원행 시에는 정조나 배사하는 신하들이 보다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쏘기를

즐길 수 있는 순수한 연회에 가까웠다는 점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궁궐에서는 신하들의 점수가 좋지 않으면 일장연설은 물론이고, 문무를 가리지 않고 연습을 시켜 점검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정조는 13회의 화성원행 가운데 2차, 3차, 4차, 7차, 8차, 9차, 10차 등 7차례의 원행에서 10회의 활쏘기를 행했고, 원행별로는 2차, 7차, 8차 원행 때 각 2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각 1회의 활쏘기가 시행되었다. 활을 쏜 장소는 화성행궁 내의 득



〈그림 6〉 「원행을묘정리의궤」 「화성행궁도」의 낙남헌, 노래당, 득중정, 강무당(상)과 현재의 낙남헌(하)

〈표 5〉 화성원행 시 정조의 활쏘기 일람

원행차수	일정	어사일	어사처	과녁 종류	발수 (巡)	적중 (矢)	점수 (分)	적중처 (貫邊)	
1차 (을유)	1789.10.6.~10.9. (3박 4일)	-	-	-	-	-	-	-	
2차 (경술)	1790.2.8.~12. (4박 5일)	1790.2.8.	(수원부내)	貫革	1	2	-	-	
		1790.2.10.	득중정 (이건 전)	貫革	1	4	5	관1·변3	
小小小布	1			4	4	변4			
3차 (신해)	1791.1.16.~18. (2박 3일)	1791.1.16.	득중정 (이건 전)	貫革	2	4	5	관1·변3	
4차 (임자)	1792.1.24.~26. (2박 3일)	1792.1.24.	강무당	貫革	1	2	-	-	
				中布	1	3	-	-	
5차 (계축)	1793.1.12.~14. (2박 3일)	-	-	-	-	-	-	-	
6차 (갑인)	1794.1.12.~15. (3박 4일)	-	-	-	-	-	-	-	
7차 (을묘)	1795.윤2.9.~16. (7박 8일)	1795. 윤2.14.	득중정 (이건 후)	貫革	6	24	28	관4·변20	
				掌革	1	3	4	관1·변2	
				小布	5	24	-	-	
				1795. 윤2.16.	中紅亭 (始興)	貫革	1	3	4
8차 (병진)	1796.1.20.~24. (4박 5일)	1796.1.22.	득중정 (이건 후)	貫革	1	2	2	변2	
				동장대	貫革	1	3	3	변3
					掌革	1	3	3	변3
		1796.1.24.	중홍정 (시흥)	貫革	3	11	15	관4·변7	
9차 (정사1월)	1797.1.29.~2.1. (2박 3일)	1797.1.29.	방화수류정	貫革	3	3	-	-	
10차 (정사8월)	1797.8.15.~19. (4박 5일)	1797.8.18.	득중정 (이건 후)	貫革	5	9	11	관2·변7	
11차 (무오)	1798.2.1.~5. (4박 5일)	-	-	-	-	-	-	-	
12차 (기미)	1799.8.19.~21. (2박 3일)	-	-	-	-	-	-	-	
13차 (경신)	1800.1.16.~18. (2박 3일)	-	-	-	-	-	-	-	
합계					36	109			

중정(得中亭)과 강무당(講武堂), 화성의 장대 중 하나인 동장대(東將臺)와 성내 정자인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 그리고 원행의 연로에 있는 시흥현의 중홍정(中紅亭) 등 5개의 장소이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사용된 장소는 득중정으로 2차, 3차, 7차, 8차, 10차 원행 때 각 1회씩 활쏘기가 있었다.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따르면, 득중정은 원래 화성행궁의 정당(正堂)인 장남헌(壯南軒) 북쪽에 있던 건물로, 1790년 정조가 여기에서 활을 쏘고 직접 편액을 써서 '득중정'이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1794년 가을에 득중정을 노래당(老來堂)의 서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낙남헌을 지었다. 득중정은 이건(移建) 후에도 1790년의 어서(御書) 편액을 그대로 걸었다. 따라서 득중정의 이건 시점을 감안하면, 1790년 2차 원행과 1791년 3차 원행 때는 이건 전의 득중정에서, 1795년 7차 원행과 1796년 8차 원행, 1797년 10차 원행 때는 이건 후의 득중정에서 활쏘기가 행해졌다.

원행 시 정조 활쏘기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 기록이 대부분 상세하게 남아 있다. 특히 7차(1795년), 8차(1796년), 10차(1797년 8월) 원행 시의 활쏘기는 『원행을묘정리의궤』와 『화성성역의궤』에 배사 관원의 사기(射記)까지 남아 있다. 이를 토대로 화성원행 시 정조의 활쏘기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정조의 원행 시 활쏘기는 원행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그 감회가 다른 날과 달랐을 것이다. 13회 화성원행 가운데에서도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활쏘기는 진남루에서 생부 사도세자의 옛일을 물었던 2차(1790년) 경술년 원행과 생모 혜경궁의 회갑연을 겸한 7차(1795년) 을묘년 원행, 그리고 화성 축성이 완성되고 처음으로 찾은 10차(1797년) 정사년 원행이다.

1) 2차(1790년) 경술년 원행

경술년 원행은 2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 동안 행해졌다. 2월 8일 과천행궁과 사근참행궁에 차례로 들러 수원부에 도착한 정조는 경기감사 서유방, 지방관 조심태, 양주목사 이유경, 좌상 체제공 등을 소견하고 사정(射亭)에 나아가 활쏘기를 행하였다. 유엽전 1순을 쏘아 2발을 맞혔다. 정조는 배사한 관원이나 거행관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는 것을 관례로 행하였는데, 이날 교련관 최치기 등 2인의 품계를 올려주고, 군수고자(軍需庫子) 백봉선 등 3인에게 각각 목 2필, 미 5두를 경기감

영에서 지급하게 하였다.

다음 날 동헌의 당호를 ‘장남헌(壯南軒)’, 내아의 편호를 ‘복내당(福內堂)’, 사정의 편호를 ‘득중정(得中亭)’이라 명명하여 친히 쓰고 현룡원을 참배하였다. 이튿날 10일 독성산성(禿城山城)의 진남루를 순시하였는데, 이곳은 1760년(영조 36) 생부 사도세자가 활을 쏘았던 곳이다. 『정조실록』에는 이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어가가 독성산성에 나아가 장대에 올랐다. 운주당(運籌堂)에 이르러 산성의 부모들을 불러 위로하기를, “그대들 중에는 나이 많은 노인이 많으니 경진년에 어가가 머물렀을 때 구경한 사람이 있겠구나.” 하니, 부모들이 아뢰기를, “경진년에 온천에 행차할 때 어가가 운주당에 머물러 숙소로 삼았는데, 신들은 거의 다 의장(儀仗)들을 반갑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때의 일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는가?” 하니, 부모들이 일제히 아뢰기를, “어가가 머무른 날에 친히 백성들의 고충을 물어보고 창고의 곡식을 풀어 내려주었으며, 진남루에 올라 과녁을 쏘아 연거푸 4발을 맞추셨습니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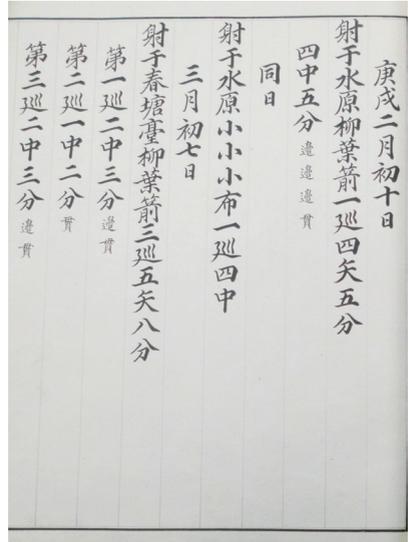
상이 이르기를, “지금 내가 31년 만에 이 산성에 올라 이 집에 앉아서 백성들을 불러 예전 일을 묻노라니, 슬픈 감회를 누를 수 없다. 뜰 안에 들어온 부모 가운데 온천행차 때 은전을 입은 사람은, 승려이건 속인이건 간에 나이를 따지지 말고 특별히 한 자급씩 올려주고, 성 안의 민가에는 매호마다 쌀 한 섬씩을 주어, 이날의 감회가 깃든 뜻을 표시하라.”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득중정에 들러 각신·장신들과 더불어 과녁을 쏘았다. 상이 다섯 발을 쏘아 네 발을 맞히고는,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오늘 활을 쏜 것이 마침 경진년의 옛 일과 똑같으니, 마땅히 뜻을 보이는 일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고, 지방관 조심태에게 금갑(金甲) 한 벌을 내려주었다.(『정조실록』 정조 14년 2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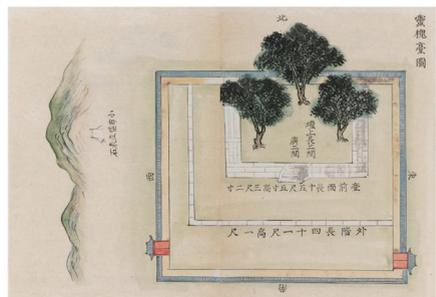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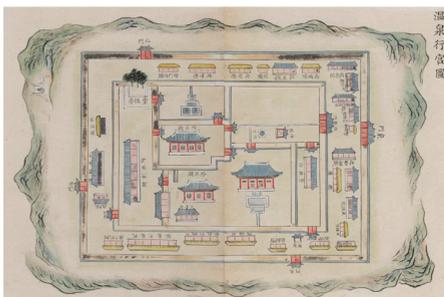
진남루는 독성산성 운주당의 남쪽에 있는 누각으로, 1753년(영조 29)에 중수하고, 1790년(정조 14)에 개건하였다. 1760년(영조 36)에 사도세자가 피부병을 치료하

기 위해 온행(溫幸) 가던 중 다리에 물이 붙어 독성산성에서 하루를 머물렀다. 이때 사도세자는 진남루에 올라 백성들의 고충을 묻고 곡식을 하사하였으며 활쏘기를 하여 5발을 쏘아 4발을 적중시켰다. 31년이 지나 생부의 자취를 찾은 정조는 산성에 사는 노인들에게 그때의 일을 묻고 깊은 감회에 젖어 사도세자의 고사를 따라 성 안 백성들에게 은전을 베풀었다.

진남루에서 돌아오는 길에 득중정에 들러 활쏘기를 했는데, 먼저 유엽전으로 관혁에 1순을 쏘아 4발을 적중시켜 5점을 얻었다. 다음으로 소소소포(小小小布)에 1순을 쏘아 4발을 적중시켰다. 이렇게 매 순에 4발을 적중시킨 것이 진남루에서 사도세자가 활쏘기하여 얻은 점수와 같았다.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와 같은 날 활을 쏘아 같은 점수를 얻었으니, 정조에게 이 일은 예사롭게 여겨지지 않았다. 때문에 이를 기념하여 당시 지방관이었던 조심태에게 금갑 한 벌을 고품으로 하사하였다.²⁷



〈그림 7〉 1790년 2월 10일 어사기 (장서각 소장 『어사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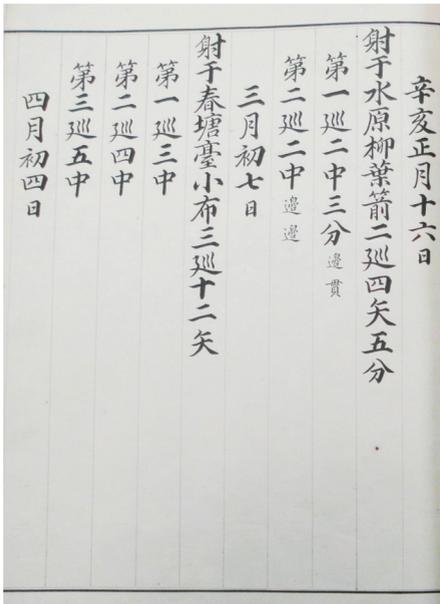


〈그림 8〉 『운궁사실』(1796)²⁷에 수록된 「온천행궁도(溫泉行宮圖)」(좌)와 「영괴대도(靈槐臺圖)」(우)

27 奎貴178-V.1-3

사도세자의 활쏘기 관련 유적은 진남루 외에도 온양행궁의 사대(射臺)가 남아 있다. 사도세자는 이 사대에 그늘이 없는 것이 아쉬워 회나무 3그루를 심었다. 후일 정조는 사대 주변에 대를 쌓고 ‘영괴대(靈槐臺)’라 칭하며 사도세자의 온양사적을 기렸다.

2) 3차(1791년) 신해년 원행



〈그림 9〉 1791년 1월 16일 어사기(장서각 소장 『어사화기』)

“射于水原 柳葉箭 二巡 四矢 五分 / 第一巡 二中三分 邊貫 / 第二巡 二中 邊邊”으로 2순(10발)을 쏘아 4발을 맞추고 5분을 얻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3) 4차(1792년) 임자년 원행

앞서 언급한 대로 임자년은 정조가 가장 많은 활을 쏜 해이고, 이 해 말에는 실력이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 이 원행에서의 활쏘기는 1월 24일 강무당에서 행해졌

신해년 원행의 활쏘기는 1월 16일 원행 첫날 득중정에서 행했다. 이날 정조는 과천 주정소를 거쳐 수원부에 도착하였다. 진남헌에 올랐다가 득중정에 나아가 병조판서와 훈련대장, 수원부사에게 입시하라고 명하고, 정자 동쪽 100보 지점에 과녁을 설치하게 한 후 각지와 팔찌를 차고 유엽전을 쏘아 3발을 맞추었다. 이어서 여러 장신들에게 짝을 지어 쏘라고 명하였다.

위는 『일성록』의 기록으로, 『어사화기』의 어사기와는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는 “射于水原 柳葉箭 二巡 四矢 五分 / 第一巡 二中三分 邊貫 / 第二巡 二中 邊邊”으로 2순(10발)을 쏘아 4발을 맞추고 5분을 얻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수원군읍지』 ‘관해(官廡)’조에 따르면, 강무당은 낙남현의 북쪽에 있다. 서쪽으로 팔달산 왼쪽 기슭에 가까우며 동향이다. 1789년(정조 13)에 세웠고, 1794년(정조 18)에 증축하였다.

원행 첫날인 24일 정조는 군복을 갖추고 궁궐을 나서 주교(舟橋)로 강을 건넜다. 수원부에 이르러 화성행궁에 들어가 용복으로 갈아입고, 본부의 유생과 무사를 시취하였다. 이어서 득중정에 나아갔다가 조금 뒤에 군복으로 갈아입고 강무당에 나아가 활쏘기를 하였다. 유업전으로 관혁에 1순을 쏘아 2발을 맞히고, 과녁을 바꾸어 중포(中布)에 1순을 쏘아 3발을 맞혔다. 훈련대장과 금위대장, 병조판서, 장용영의 병방, 금군별장에게 각각 1순씩을 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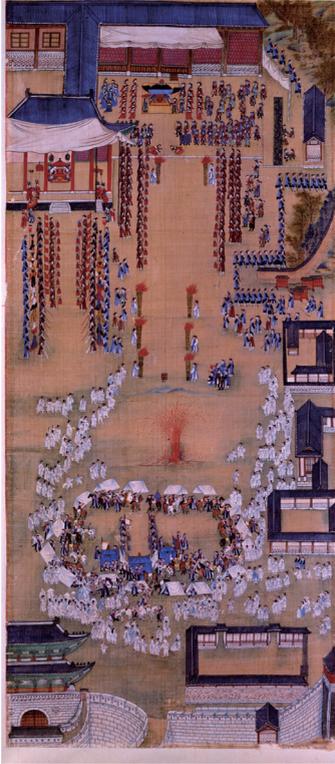
4) 7차(1795년) 을묘년 원행

을묘년 원행 때의 활쏘기는 득중정과 동장대, 환궁길에 시흥현의 중흥정에서 행해졌다. 당시 원행은 어머니 혜경궁의 회갑연을 겸한 7박 8일간의 긴 일정으로, 대규모 행렬이 배종하였고, 윤2월 14일 득중정 활쏘기도 이전보다 큰 규모로 성대하게 행해졌다. 이는 『화성능행도』의 「득중정어사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활쏘기에 참여한 관원의 규모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윤2월 13일 정조는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혜경궁에게 진찬을 올렸다. 다음날 신평루에서 백성들에게 쌀과 죽을 나누어 주어 위무하고, 낙남현으로 돌아와 양로연을 베풀었다. 다시 군복을 갖추고 방화수류정으로 가서 우리나라의 성곽 제도에 대해 논하고 화성성역의 마무리를 당부하였다. 이후 득중정으로 돌아와 활쏘기를 행하였다.

이날 활쏘기에는 영의정 홍낙성, 수어사 심이지, 경기감사 서유방, 호조판서 이시수, 장용외사 조심태, 훈련대장 이경무, 장용내사 서유대, 총용사 서용보, 정리사 윤행임, 검교직각 이만수, 병방승지 이익운, 검교직각 남공철, 초계문신 서준보·조석중, 별수가장관 오의상·이석·이광익·이희·조기 등 19명이 참여하여 활을 쏘았고, 야간까지 이어졌다. 정조는 주사(晝射)에서 관혁에 6순 24시 28분, 장혁에 1순 3시 4분, 소포에 5순 24시를 얻고, 야사(夜射)에서 관혁에 2순 5시 7분을 얻었다.

이날 어사기는 『원행을묘정리의궤』와 『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됨은 물론이고, 어



〈그림 10〉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득중정어사도」(좌)와 「원행을묘정리의궤」 「득중정어사도」(우)

사기에 서문을 붙여 현판에도 새겨졌는데, 어사기 현판에서는 이례적으로 관혁, 장혁, 소포 등 이날 사용한 3종의 과녁도도 함께 새겨져 있다. 또 이 어사기 현판은 인출되어 배사한 관원들에게도 반사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당해 활쏘기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이때 반사된 탁본칩 중 하나가 『낙남헌어사기』이다.



어사기



과녁도

서문 제3면

서문 제1, 2면

〈그림 11〉 1795년 윤2월 14일 활쏘기의 기록을 담은 『낙남헌어사기』(경기도박물관 소장)

乙卯閏二月日 洛南軒
 御射柳葉箭 六巡 二十二矢 二十六分
 第一巡 四中 邊邊邊邊
 第二巡 三中四分 邊貫邊
 第三巡 四中五分 邊貫邊邊
 第四巡 四中五分 邊邊邊貫
 第五巡 三中四分 貫邊邊
 第六巡 四中 邊邊邊邊
 掌革一巡三矢四分 邊貫邊

小布 五巡 二十四矢
 第一巡 五中
 第二巡 五中
 第三巡 五中
 第四巡 五中
 柳葉箭 二巡 六矢 七分
 第五巡 四中
 夜射
 第一巡 三中四分 邊邊貫
 第二巡 三中 邊邊邊

『낙남헌어사기』 중 1795년 윤2월 14일자 정조 특증정 어사기

의궤에는 배사한 관원들의 활쏘기 기록도 상세하게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 정조와 관원들의 활솜씨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6〉 1795년 윤2월 14일 정조와 관원의 활쏘기 기록

과녁 종류	총시수 (1巡=5矢)	정조	1	2	3	4	5
			영의정 홍낙성	수어사 심이지	경기감사 서유방	호조판서 이시수	장용외사 조심태
		적중시수	적중시수	적중시수	적중시수	적중시수	적중시수
관혁	6巡(30矢)	24	3	3	7	3	14
장혁	1순(5시)	3	0(不中)	0	0	0	변1
소포	5순(25시)	24	5	5	14	8	18
관혁 (야사)	2순(10시)	5	(불참)	(불참)	1	(불참)	(불참)
과녁 종류	6	7	8	9	10	11	12
	훈련대장 이경무	장용내사 서유대	총융사 서용보	정리사 윤행임	검교직각 이만수	병방승지 이익운	검교직각 남공철
	적중시수	적중시수	적중시수	적중시수	적중시수	적중시수	적중시수
관혁	10	15	5	14	5	9	4
장혁	변1	변1	0	변1	0	변1	0
소포	(불참)	17	7	17	9	18	8
관혁 (야사)	2	1	(불참)	2	1	(불참)	(불참)
과녁 종류	13	14	15	16	17	18	19
	초계문신 서준보	초계문신 조석중	별수가장관 오의상	별수가장관 이석	별수가장관 이광익	별수가장관 이희	별수가장관 조기
	적중시수	적중시수	적중시수	적중시수	적중시수	적중시수	적중시수
관혁	3	3	17	17	15	14	15
장혁	0	0	변1	0	변1	변1	0
소포	10	9	17	13	16	17	17
관혁 (야사)	0	0	1	1	2	2	1

〈표 6〉에서 보듯이 정조와 관원들의 활솜씨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정조는 모든 종류의 과녁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는데, 주사(晝射)에서는 관혁에 30발 중 24발을 적중시켰고, 크기가 매우 작은 장혁에도 5발 중 3발을 적중시켰다. 관혁보다 약간 큰 소포에는 25발 중 24발을 적중시켰다. 총 60발을 쏘아 56발을 적중시킨 주사의 적중률은 93%나 된다. 관원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오의상의 경우 36발을 적중시켜 60%의 적중률을 보였는데, 이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최하위인 홍낙성이 나 심이지는 적중시수가 8발에 불과해 비교가 거의 무의미하다.

15일 환궁 길에 시흥현 행궁에서 유숙하고 이튿날 중흥정에서 활쏘기를 행하였다. 유엽전 1순을 쏘아 3발(관1, 변2)을 맞춰 4분의 점수를 얻었다. 이때 배사한 경기감사 서유방은 1발을 맞추고, 총융사 서용보와 장용외사 서유대는 한 발도 맞추지 못하였다. 정리사 윤행임은 2발을 맞췄다.

『화성지속편』 ‘득중정’ 조에는 “어필 현판 1좌, 어사유엽전등수(御射柳葉錢等數) 현판 2좌. 고평 수원부사 이경무(李敬懋)”의 기록이 있다. ‘어필 현판’은 1790년 어사 후 제작한 어서 ‘득중정’ 편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사유엽전등수현판 2좌’ 중의 하나는 위 탁본첩 『낙남헌어사기』 인출에 사용된 현판으로 추정된다. 수원부사 이경무 고평은, 수원박물관 소장 『김희어사고풍탁본첩』과 같이 당해 어사를 기념하여 어사기와 고평(수급자와 품목), 서문, 제술자와 서사자를 현판에 새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이런 성격의 고평 현판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경무가 4차 원행 때인 1792년 1월 25일에 수원부사로 임명되었고, 전날인 24일에 강무당에서 활쏘기가 있었으므로, 이 고평 현판은 이날의 어사기를 내용으로 하는 현판일 것으로 추정된다.

5) 8차(1796년) 병진년 원행

병진년 원행 때는 1월 22일 득중정과 동장대, 1월 24일 시흥현 중흥정에서 활쏘기를 행했다. 22일 활쏘기는 득중정에서 먼저 있었는데, 유엽전 1순을 쏘아 2발을 맞추었다. 이후 군복 차림으로 말을 타고 동장대에 나아가 장용내영과 외영의 군사 훈련을 참관하였다. 외사 조심태를 시관(試官)으로 삼아 장용외영 무사들에게 시사(試射)를 행하게 하고, 입격자에게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 이때의 상전(賞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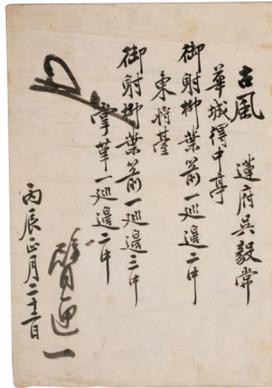
친군위 한량 이문식은 관1·변3(직부전시) / 최춘삼 관1·변2(직부전시) / 김호 관1·변1(직부회시) / 출신 유광엽 관1·변1(목과 포 각 1필) / 권득경 등 7인 변2(각각 목 1필) / 한량 이득홍 등 5인 관1(각각 미 2말) / 가선대부 전윤태 등 38인 변1(각각 전죽 50개) / 별군관 출신 윤은좌 관1·변1(목과 포 각 1필) / 현춘번 변2(목 1필) / 서명인 등 2인 관1(각각 미 2말) / 유재담 등

17인 변1(각각 전죽 5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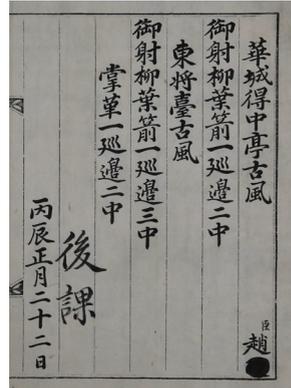
시사의 상전을 행한 후 정조는 유엽전 1순을 쏘아 3발, 장혁에 1순을 쏘아 2발을 맞추고 거행한 군교들에게 고풍을 하사하였다. 이날 배사한 관원은 이때 작성된 고풍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오의상·김희·조기 등 3인의 고풍이 남아 있다.



김희 고풍(국립중앙도서관)



오의상 고풍(경기도박물관)



조기 고풍(수원화성박물관)

〈그림 12〉 1796년 1월 22일자 고풍

『덩니의궤』에는 이날의 어사가 순한글로 기록되었는데, 내용은 동일하다.

화성 득동당의 어사호오실식 뉴엽전 일순 이시 이분 변 변이다.【되읍고 활 쏘니는 장용 너스 김디묵 장용 외스 도심태 병조 판서 니득신 경기 감스 김 문순 덕제혹 니만슈 원임 덕각 윤희임 별군덕 임성열 니석 별슈가 장관 서 영보 니광익 선던관 낭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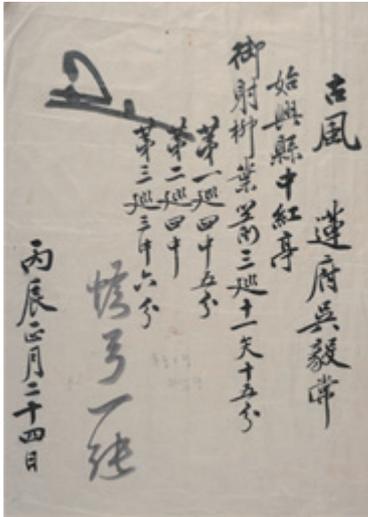
동장당의 어사호오실식 뉴엽전 일순 삼시 삼분 변 변 변이오.

당혁 일순 이시 이분 변 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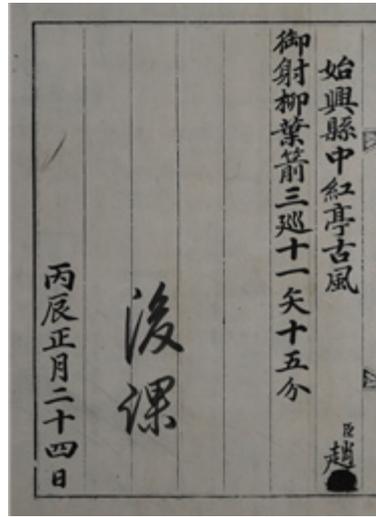
(『덩니의궤』 권30)

병진년 원행의 마지막 날인 1월 24일 활쏘기는 환궁 길에 시흥행궁에 들렀다가 중흥정에서 행해졌다. 이때 유연전 3순을 쏘아 11발을 맞혀 15분을 얻고, 도신과 지방관, 거행군고들에게 고풍을 하사했는데, 고풍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관찰사 김문순[어후궁(御喉弓) 1장] / 지방관 김사희 [승진서용] / 감동관 평안감영 중군 구수한[동개(筒筒) 1부] / 군기감관 천석[첩가帖加] / 감동장교 김수복[첩가(帖加)] / 습전군(拾箭軍) 4명과 군기고직(軍器庫直) 1명 [각각 면포 1필]



오의상 고풍(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조기 고풍(수원화성박물관 소장)

〈그림 13〉 1796년 1월 24일자 고풍

6) 9차(1797년) 정사년 1월 원행

이 해의 원행은 1월과 8월 2차례 행해졌으며, 1월 행차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짧게 이루어졌고, 방화수류정에서 활쏘기가 있었다. 이 행차는 전년 9월에 완공된 화성을 처음으로 순행하는 의미 있는 행차였다. 시흥현을 지나

화성에 도착한 정조는 군복을 갖추고 작은 가마를 타고 유여택(維與宅)에서 남행각(南行閣) 대문을 나가 서장대(西將臺)로 갔다. 화양루(華陽樓) 북쪽에서 순행하여 화서문(華西門)에서 잠시 쉬고, 공심돈(空心墩)을 둘러본 후, 화홍문(華虹門)을 지나 가마에서 내려 방화수류정에 나아가 유엽전 3순을 쏘아 3발을 맞췄다. 이시수, 조심태, 이익운, 이득신, 정민시, 이만수, 홍원섭 등이 활을 쏠 때 배종하였다.

활쏘기를 마치고 방화수류정 위로 돌아와 전교하기를, “정자 아래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활을 쏠 수 있는 자는 시사(試射)에 참가하게 하되 10인으로 한정하라.”고 하였다. 선천(宣薦)인 한량 이승덕이 2발, 장용영 향군 임득재가 1발을 맞췄다. 다시 이르길 “많은 무사 중에 10인으로 한정하였으니 여기에 들어간 자는 충분히 초사에서 2발을 맞힌 것이 된다. 이는 본래 회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규정에 해당하나, 무술을 숭상하는 정사로 볼 때 특례로 시행하는 은전이 있어야 한다.” 하고, 이어서 이승덕은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사악(賜樂)하여 내보내며, 임득재는 외탕고에서 활 1장을 주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신하들에게 음식과 술을 베풀었다.

정조는 이날의 감회를 절구 1수를 지어 소서(小序)를 달아 이만수에게 쓰라고 명하였는데, 이 소서와 절구는 다음과 같다.

“성을 순시하고 방화수류정에 이르러 활을 쏘아서 무(武)를 숭상하는 뜻을 보인다. 내가 마침 세 번 정곡을 맞췄는데, 내사와 외사도 각각 그와 같았으므로, 셋째 구절에서 『주례』 「오사(五射)」의 전주(箋註)를 인용하여 사실을 기록한다.”

歷遍春城日未斜 봄날 성을 두루 보았으나 해 아니 기울었고
小亭雲物轉晴佳 작은 정자의 경치는 한결 맑고 아름답네.
鑾旂慣報參連妙 여기는 신묘한 삼련의 보고에 이력이 났고
萬柳陰中簇似花 만 그루 버들 아래 나는 화살 꽃 같네.

정조는 이 글을 좌의정 채제공에게 전하여 차운하여 화답시를 지어 바치게 하고, 또 자리에 있는 신하들도 화답시를 짓게 하라고 명하였다.

『덩니의궤』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상이 섬 우희 넘어호오샤 어샤호오실시 뉴엽던 삼순의 삼둥호오시고(中略)
 어제서의 왁 순성호야 방화슈류정의 니르러 활 쏘아 상무호는 뜻을
 벨시 내 마춤 삼획호고 니외스도 쏘흔 각각 곳치 호니 제삼구의 주례 녹샤
 전주를 인호야써 스실을 기록호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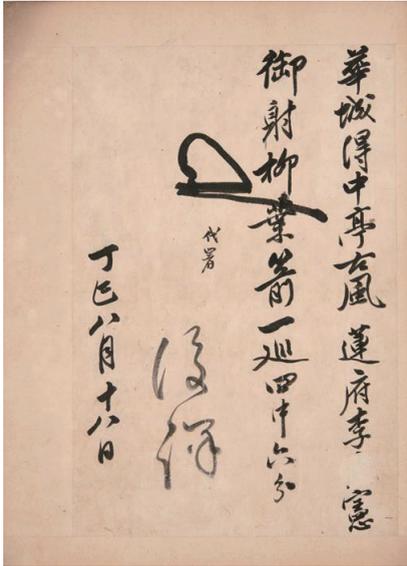
덕편출성일미샤
 쇼정운물던청가
 난기관보삼년묘
 만류음등족스화
 (『덩니의궤』 권34)

동장대를 순시하고, 저녁에는 서장대에 올라 햇불 붙이는 훈련을 참관하였다. 화성 완공의 공로를 치하하고 백성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호조판서 이시수에게 명하여 수원유수 조심태에게 전 3결와 노비 3구를 하사하고, 성 안팎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당년의 향곡과 환곡에 대한 모곡을 특별히 면제해 주라고 명하였다.

7) 10차(1798년) 정사년 8월 원행

정사년 8월 원행은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행해졌다. 당시 행차는 인조의 아버지 원종 무덤인 장릉을 경유하여 현릉원에 행차하였다. 18일 정조는 낙남헌에 나아가 무사를 시사하고 득중정에서 활쏘기를 하였다. 정조가 먼저 5순을 쏘아 관에 2발, 변에 7발을 맞춰 11분을 얻었다. 이어 관원들을 불러 활을 쏘라고 명하였는데, 장용내사 정민시와 어영대장 조심태, 직제학 이만수는 2발, 병방승지 이익운, 원임직각 서영보, 우부승지 이면극 등은 1발을 맞추고 경기감사 이재학과 장용외사 서유린은 한 발도 맞추지 못하였다.

이날 어사기는 『화성성역의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得中亭柳葉箭 五巡 / 御



〈그림 14〉 이요현 고동(1798년 8월, 국립중앙도서관 『이요현일체사자장첩(李堯憲一切射資狀帖)』)

射 九矢十一分 / 第一巡 一中二分 / 第二巡 一中 / 第三巡 二中 / 第四巡 四中五分 / 第五巡 一中”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이요현 고통에는 “御射柳葉箭一巡 四中 六分”으로 기록되어 차이가 있다.

5. 결론

우리나라 역대 왕들 중에서 대중적 인지도나 호감도가 높은 왕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정조를 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정치나 학문적 성과보다는 개인사, 인간적 고뇌에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정

조 이야기는 많은 드라마, 영화, 소설의 소재가 되었고, 수원화성은 이야기의 극적 효과를 살리는 좋은 무대가 되었으며, 정조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은 상품성이 높은 문화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정조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식을 가진 ‘문인군주(文人君主)’로 평가된다. 오히려 이 이미지가 지나치게 공고하여 이면의 모습, 즉 무인군주로서에 대해서는 주목받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정조가 무에서 이룬 성과, 특히 활쏘기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열의는 무사적 기질적 요인을 외면하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젊어서부터 활쏘기를 좋아했고, 이를 가법으로 여겼다.”는 정조의 말은, 그것이 활쏘기에 대한 전통적 사고, 즉 유교적 관점에서 심성수양의 방도로 삼았던 군자의 활쏘기와는 결이 다르게 느껴진다. 이는 정조가 자신의 활숨씨에 대해 “활을 쏠 때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 같았다.”고 말할 정도의 신기에 가까운 숨씨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정조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군사정책과는 별개로 정조 개인의 무예에 대한 연구와 성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 제2장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정조의 활쏘기와 함께 무엇보다 방대하고 구체적인 정조 활쏘기 기록의 존재였다. 그 이유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조의 활숨씨가 국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과장되거나 신격화된 것이 아님을 기록이 증명해주기 때문이다.

제3장의 정조 활쏘기의 특징으로 화살과 과녁을 제시한 것은 정조가 얼마나 다양한 활쏘기를 시도했는지, 얼마나 활쏘기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왕의 신분으로 무과시취나 군사훈련보다 다양한 과녁에 활쏘기를 연습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인다. 왕의 말과 행동은 분분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면, 취향 이상의 의도를 의심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장 화성원행 때의 활쏘기는, 득중정, 강무당, 동장대, 방화수류정, 중홍정(시홍) 등 5개 처에서 10회가 행해졌다. 이때의 활쏘기는 다른 때보다 자유롭고, 연회적인 분위가 연출되었다. 궁궐을 나와 정적들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온 해방감, 부친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 수원 백성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다른 때보다 고품도 풍족하고, 시를 지으면서 연회도 즐겼다. 이때의 풍경은 『화성능행도』의 「득중정어사도」로 남겨졌고, 어사기는 낙남헌에 현판으로 걸렸다.

정조에게 활쏘기는 자신의 무사적 기질을 가장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수원화성은 그 최적의 장소였다. 그러나 정조가 사랑한 도시, 수원을 둘러보는 사람들 중에 정조의 활쏘기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글이 화성원행과 정조, 수원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투고일 2019년 10월 30일 심사일 2019년 11월 21일~12월 4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6일

참고문헌

1. 관찬사료

『成宗實錄』; 『英祖實錄』; 『正祖實錄』; 『日省錄』; 『內閣日曆』; 『國朝五禮儀』; 『大射禮儀軌』; 『華城城役儀軌』; 『園行乙卯整理儀軌』; 『華城誌』.

2. 문집류

정조, 『弘齋全書』; 박제가, 『貞蕤閣文集』; 정약용, 『與猶堂全書』; 이덕무, 『靑莊館全書』; 李晚秀, 『履園遺稿』; 尹行任, 『碩齋稿』; 홍양호, 『耳溪集』; 이중화, 『조선의 궁술』.

3. 정조 활쏘기 관련 소장처별 원문자료

장서각 : 『御射書記』, 『御射記(并圖)』.

규장각 : 『[李堯憲]御射古風帖』, 『感戴廳稷帖』, 『[徐榮輔]御射古風帖』, 『[尹行任]御射古風帖』, 『[楊州]御史臺帖』, 『金熹古風』.

국립중앙도서관 : 『李堯憲一切射資狀帖』, 『[金熹]御射古風帖』.

육군박물관 : 『李海愚古風帖』.

국립중앙도서관 : 『金熹御射古風帖』.

수원박물관 : 『趙岐古風帖』, 『金熹御射古風帖』.

경기도박물관 : 『落南軒御射記』, 『壬子年吳毅常古風』, 『丙辰年吳毅常古風』.

국립고궁박물관 : 『春塘臺御射懸板』, 『御射記懸板』.

부산해양박물관 : 『壬子年吳毅常古風』.

4. 논문

강현민, 2016,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왕의 위락 활동』, 우석대학교 조경토목학과 조경토목공학전공 석사학위논문.

박남주, 2003, 『한국 활쏘기의 체육사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장을연, 2017, 『정조 활쏘기와 고품』, 『규장각』 51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최형국, 2012, 『정조의 문무겸전론과 병서 간행』, 『역사민속학』 39집, 한국역사민속학회.

홍기석, 2005, 『조선시대 왕들의 스포츠』, 국민대학교 체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요 약

본고는 조선 제22대 국왕 정조의 활쏘기에 대한 글이다. 첫째, 정조가 평생 동안 얼마나 자주 활쏘기를 했는지, 전반적인 솜씨와 몇 세 때 최상의 실력이었는지를 밝혔다. 둘째, 정조 활쏘기의 특징으로 정조가 사용한 화살과 과녁의 종류로 설명하였으며, 활을 쏘는 방식의 특징으로 50개의 화살을 사용할 때 화살을 취하는 순서, 그리고 이때 마지막 한 개의 화살을 남겨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50개의 화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한 개의 화살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셋째, 화성원행 때의 정조 활쏘기를 차수에 따라,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어떤 풍경으로 행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정조 활쏘기의 전체 규모를 회차별로 날짜와 장소, 활과 화살의 종류, 득점 등을 표로 제시함으로써, 정조의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가 객관적인 사실임을 증명하였다. 또 정조의 활쏘기에 다양한 화살과 과녁이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마지막 화살을 남김으로써 상생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의 철학적 사유를 활쏘기에 담았음을 확인하였다. 정조 활쏘기에서 화성원행은 가장 극적이고 서사적인 배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특별히 비중 있게 다루었다.

주제어 : 수원(水原), 화성(華城), 원행(園幸), 정조(正祖), 고풍(古風), 활쏘기, 어사(御射)

ABSTRACT

A study on Jeongjo's Archery and Journeys to Hwaseong

Jnag eul-young

The paper examined the archery of King Jeongjo, the 22nd king of Joseon Dynasty. First, it revealed how often the king used archery throughout his life, how was his skill, and at what age he was the best.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ing's archery was described as follows. First the type of arrow and target used by him were explained. Second, his method of archery was inspected, explaining the order in which the arrow was taken when using 50 arrows, and why the last arrow was left, and even in the case of using 50 arrows, it was not necessarily leave one arrow. Third, this paper described at where, how, with whom, and in what background it was done according to his trips to Hwaseong.

This paper presented the entire scale of the king's archery in a table with dates and places, types of bows and arrows, and scores, proving that his archery skill was beyond human was an objective fact. It was also confirmed that various arrows and targets were used and that the left last arrow indicates the philosophical thought in the East, which values harmony of co-prosperity, were included in the archery. In Jeongjo's archery, the trips to Hwaseong provided the most dramatic and epic backgrounds. Therefore, this article was given a special weight on the trips.

Key words: Suweon, Hwaseong, King's Trip, King Jeongjo, Archaism, Archery

수원 지역 화단(畵壇)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 1970~1990년대를 중심으로 -

이채영**

- 1. 서론
- 2. 수원화단의 형성
- 3. 1970~1980년대 미술동인의 생성과 활동
- 4. 1990년대 실험미술 그룹의 창립과 활동
- 5. 결론

1. 서론

한국미술에서 ‘지역미술’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1980년대의 지방문화 육성, 문화 시설의 전국적인 확충 정책과 더불어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대두되었다.¹ 정부 주도의 지방문화 육성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의 문화인프라 확

* 본 논문은 이채영, 「수원지역 화단의 활동과 전개 연구: 1970~1990년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8)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졸업(Graduated fro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rt History), E-mail : brave_cy@naver.com

1 한국에서 지방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군사정부의 민주문화육성을 위한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960~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문화정책은 국학(國學), 전통예술, 문화재 관련 등 민족사관 정립과 연관이 있는 사업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지방문화예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했다. 전두환 정부는 1983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에 "지방문화 육성을 통한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포함했고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인프라 구축을 서둘렀다. 이때부터 지자체별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위한 정책이 활발히 수립되었다. 1993년 최초의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는 '신한국 문화창달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복지의 균점화'를 핵심 사업으로 선택했다. 이에 부응하듯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전시공간과 문화예술행사가 경쟁적으로 지방에 유치되면서 문화인프라 확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김규원·지금중·염신규·양혜원, 2018, 「담론 논쟁의 동학(dynamics)으로 바라본 문화정책 73년」, 『문화정책논총』 제32집 제2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5~16쪽 참고).

충에 기여하였고, 지자체가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방의 문화가 진흥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변화 속에서 한국미술계는 지역미술을 획일화된 중앙문화의 구조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술계가 주목한 지역미술이란 지형,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 지역의 특수성과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상대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미술계의 분위기는 서울이 아닌 지방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미술가들이 자생적으로 미술운동을 전개하는 데 자신감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지역을 근간으로 자생한 미술에 대해 광주, 대구, 부산 등 주요 거점도시에 한하여 주목할 뿐 타지역에는 별 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수원미술을 이슈로 다루는 전시기획에 참여하면서 지역미술에 대해 ‘중앙과 대등한 위치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자생한 미술 문화’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고 한국현대미술사의 기술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원미술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정리하는 데 주목하게 되었다.

먼저 지역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수원은 경기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광교산을 중심으로 하는 한남정맥과 수원천으로 시작하는 안성천 문화원의 발상지이자 조선의 22대 왕 정조의 화성 축성으로 대도회지(大都會地)가 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² 1905년 경부선(京釜線), 1930년 수려선(水驪線), 1937년 수인선(水仁線)의 부설로 철도교통의 요충지가 되었고 1968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대규모 제조업체 공장의 입주로 전국의 경제 성장률 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게다가 높은 고용률로 인해 전입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된 지역이기도 했다.

반면 수원의 미술은 한국전쟁 발발을 전후로 변화를 겪게 된다. 수원 미술계는 근대 화단에서 활동했던 나혜석, 홍득순과 같은 걸출한 서양화가들을 배출하였지만 전쟁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고, 자연스럽게 미술계에는 단절에 가까운 공백 상태가 지속되었다. 결국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수원으로 유입된 미술 교사들을 주축으로 화단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들이 양성한 제자들이 화단을

2 한동민, 2010, 『격동의 세월, 수원! 수원 사람들』, 『근대 수원 100년』, 수원박물관, 416-417쪽 참조.

이끄는 세력으로 등장하며 새로운 지형도를 구축했다. 이러한 전개 속에서 지역화단에는 추상과 구상, 민중미술, 실험미술, 설치미술, 행위미술 같은 장르를 표방한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이들은 지역미술의 독자성, 특수성 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1990년대에 등장한 검아트 그룹과 슈룸은 수원지역의 역사, 풍토, 자연환경과 현대미술이 결합한 예술제와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자신들이 추구한 작품 경향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공간들을 운영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원의 젊은 작가들을 비롯해 서울 또는 다른 지역의 작가들을 수원으로 초대하여 함께 활동하였고 중국, 일본 등 해외작가들과도 교류하며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수원미술은 그간의 자생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앙도, 지방도 아닌 모호한 경계에서 불분명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독해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수원미술이 지역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독립적인 흐름을 형성했다는 전제 아래 수원 지역 화단의 전개 과정을 조사, 연구하여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수원화단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197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지역의 현실적 상황에 조응(照應)하며 결성된 미술운동의 활동을 고찰할 것이며, 아울러 이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수원미술의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2장에서는 수원지역 화단의 형성과 전개에 대해 알아본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시기까지의 화단의 상황을 추적하고, 한국전쟁 이후 새롭게 형성된 화단에 나타난 미술가들의 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더불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거 조성되었던 화랑들의 지향점과 운영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작가들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뒤이어 3장에서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수원지역에서 자생한 미술운동의 궤적을 살펴볼 것이다. 단, 지역 화단에서 짧은 기간 동안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 미술 단체의 경우 이들의 활동상을 모두 다루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 아래 큰 흐름을 구축하기 위한 대표적인 단체만을 다루고자 하였다. 1절에서는 1970년대 중후반 수원 출신으로 미술대학을 졸업한 청년작가들이 새로운 미술 단체들을 결성하면서 기성화단에 던진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1980년 동인활동이 인맥과 동문 등의 친소관계에서 조형이념과 화풍을 중심으로

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양상이 공존하게 된 화단의 전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4장은 1990년대에 결성된 실험미술 그룹에 주목하여 각각 1절과 2절에서 컴아트 그룹과 슈룸의 대표적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두 그룹은 지역적 특수성과 결합한 예술제와 각종 프로젝트를 개최하며 중앙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작품 대부분이 보존이 어려운 유형의 작업이거나 퍼포먼스가 중심이었던 탓에 개별 작품을 통한 조형적 특성을 밝히는 데에 비중을 두기보다 단체가 생산한 각종 출판물을 포함한 기록, 음성, 영상자료를 통해 이들이 추구했던 조형이념과 방향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수원화단의 형성

1)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시기의 상황

일제강점기 수원의 문화예술계는 신학문을 수용한 소수의 지식인층에 의해 발아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고등전문교육을 마쳤거나 일본 유학경험을 가진 젊은 이들이었다. 대표적으로 문학계에서는 홍사용(洪思容, 1900~1947), 박팔양(朴八陽, 1905~1988), 박승극(朴勝極, 1909~미상), 최영주(崔泳柱, 1905~1945)가 활동하였고, 미술계에서는 문학가이자 미술가인 나혜석(羅蕙錫, 1896~1948)³과 홍득순(洪得順, 1907~1946),⁴ 한상돈(韓相敦, 1908~2003),⁵ 김혜일(1912~1994)⁶과 장윤천(張允千, 미상), 한재남(韓在喃, 미상)이 활동하였다. 근대기에는 신미술인 서양화를 접한 화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나혜석, 홍득순, 한상돈이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 그다

3 나혜석은 1896년 수원군 수원면 신흥리에서 태어났다. 수원의 삼일여학교, 서울의 진명여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의 사립여자미술학교 서양화과 선과(選科) 보통과(普通科)에 입학하였다. 유학 기간 동안 잡지『여자계』(도쿄여자자유학생친목회)를 창간하였고, 여권을 주장하는 글들을 발표했다. 1920년 김우영과 결혼하였고 일 년 뒤 경성에서 최초로 유화 개인전을 열었다. 1927년 남편과 함께 세계일주 여행을 떠났고, 프랑스 파리의 아카데미 랑송(Académie Ranson)에서 로저 비시에르(Roger Bissière, 1888~1964)의 가르침을 받았다. 1930년 최린과의 스캔들로 인해, 김우영과 이혼하게 된다. 나혜석의 이혼과정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았고, 수덕사와 해인사 등의 사찰을 순례하며 생활했다. 1948년 서울 시립자재원에서 행려병자로 사망하였다(윤범모, 2005, 『畫家 나혜석』, 현암사, 337~356쪽 참고).

음 세대인 김혜일, 한재남은 전문적인 미술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그림을 익혔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화단에 이름을 내었다.

비록 적은 수의 미술가들의 활동이었지만 당시 지역에서는 전국단위 무대에서 활약하는 이들의 소식이 크게 이목을 끌었고 신문사 지국의 후원을 통해 전람회 개최로 연결되기도 했다. 1929년 수원 남수리 불교포교당에서 나혜석의 <구미사생화전람회>이 열렸는데 이는 동아일보 수원지국과 중외일보 수원지국의 후원을 받아 개최된 전시였다.⁷ 9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열린 이 전시에는 나혜석이 구미여행 중에 그린 이국적인 풍경화, 인물화 소품과 명화 복제본이 함께 소개된 전시였으며 즉석에서 작품 구입이 가능한 자리이기도 했다.⁸ 나혜석의 전람회 이후로도 수원 출신의 미술가를 소개하는 개인전이 이어졌다. 1933년 4월 8일부터 9일까지 수원 공회당에서 동경미술학교 수원동문회와 동아일보사 지국의 후원으로 홍득순의 <양화전람회>가 열렸고,⁹ 1934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수원 공회당에서 동아일보사 수원지국을 포함한 지역의 여러 지국이 후원한 <한상돈 양화전>이 개최되었다.¹⁰ 이처럼 수원지역에서 개최된 서양화 전람회는 서구식 교육을 경험한 지역 출신의 엘리트층을 소개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이었는데, 이들은 공통적

4 홍득순은 수원 출생으로 1928년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여 오카다 사부로스케(岡田三郎助, 1869~1939)에게 사사했다. 김용준, 이종우, 길진섭 등과 함께 동미회(東美會)를 결성하였으며 1936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귀국 후 목시회(牧時會)에서 활동하였고 노수현, 안석주와 함께 신문소설 삽화가로 활약했다. 홍득순의 생몰연도에 대해서는 여러 추정이 있다. 미술평론가 김종길은 「근대 현실주의 미학의 주창자-근대미술가 홍득순 행장(行狀)」이라는 글에서 홍득순이 남긴 에세이를 토대로 1907년을 출생연도로 밝힌 바 있다. 한국미술기록보존연구소의 이구열 기증 자료에 따르면 홍득순 제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황해도 재령(載寧)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 폐병으로 1946년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 한상돈은 1908년 수원에서 출생하였고, 토목기사인 아버지를 따라 원산에서 성장하였다. 1930년부터 1934년까지 일본미술학교 양화과(洋畫科)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원산공립중학교 미술 교사로 생활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산에 정착하게 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홈페이지, 2019.3.10. 접속).

6 김혜일은 1912년 수원군 팔탄면 덕우리에서 출생하였다. 13살 때부터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하였고, 18살 때부터 사립경성공업학교 미술교원으로 재직하였다. 이후 화신인쇄소 도안가, 조서문화사 삽화가, 만선일보사 도안가로 근무하였다. 해방 후 서울에서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였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아내인 배우 김연실과 함께 월북하였으며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영화미술가로 활약했다(리재현, 1999, 『조선력대미술가편람』,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82쪽 참고).

7 「羅蕙錫女史 歐美寫生展覽 其의 故鄉인 水原에서」, 『중외일보』, 1929년 9월 24일, 3면.

8 「羅女史畫展 수원에서 개최」, 『동아일보』, 1929년 9월 23일, 4면.

9 「水原에 洋畫展 同門會主催로」, 『동아일보』, 1933년 4월 6일, 3면.

10 「韓相敦洋畫展」, 『동아일보』, 1934년 10월 23일, 3면.

으로 신문사 지국의 후원을 받아 개최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신문사가 벌이는 문화사업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문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작가를 후원하여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중앙화단에서도 선호되는 방식이었다.¹¹

일제강점기 수원화단은 작가들의 개별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간혹 이들을 소개하는 민전(民展)형식의 전람회가 열리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유일하게 단체가 주도한 전람회가 단 한 차례 개최되었는데, 이는 1930년 3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수원면 남수리 화성학원 강당에서 마련된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였다.¹²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KAPF, 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수원지부는 미술전람회를 수원에서 열기로 결정하면서 좌익, 선전적 색채를 가진 작품을 전국적으로 공모하였고 일본 프롤레타리아 운동가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이 기획한 첫 미술전람회가 수원에서 열린 이유는 일본 경찰이 경성의 어느 곳에서도 전람회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경찰의 감시를 피해 검열이 덜한 지방을 물색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수원지역에서 젊은 지식인들과 일본 유학생층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던 상황과 맞물리면서 카프 수원지부가 의욕적으로 미술전람회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¹³ 이 전람회는 개막 직전 일본 프롤레타리아 운동가들의 작품 12점의 전시가 금지되었고 73건을 경찰에 압수당했다.

수원경찰서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출품 작가는 16명이다. 이 중 수원 출신은 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서울, 해주, 원산, 평양, 부안과 일본의 동경 등에서 참여하였다. 이들이 출품한 작품 중에 경찰이 전시를 허가한 작품은 노동자와 농민을 주제로 한 회화와 포스터, 레닌, 스탈린을 비롯한 사상가들의 초상화, 그림엽서, 사진, 만화, 표지화, 인쇄물을 오려낸 것 등이었다. 대체로 순수 창작물이 적

11 목수현, 2009, 「1930년대 경성의 전시공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제20권, 103쪽 참고.

12 「프롤레타리아 第一回美術展覽 藝術同盟水原支部主催」, 『중외일보』, 1930년 3월 19일, 4면.

13 이동근, 2007, 「일제강점기 수원청년동맹의 활동과 인물」,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1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7쪽 참고.

은 편이었는데, 이는 전람회에 참여한 수원지부의 활동가들 대다수가 전문미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고 공모규정에서 밝혔듯 미술적 가치보다 ‘프로(Proletarian)’라는 목적과 ‘선전적 색채’를 우선하였기 때문이었다.¹⁴

일본의 탄압으로 인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무리된 이 전람회는 카프 중앙위원회회의 실질적인 원조를 받지 않고 카프 수원지부가 수원청년동맹과 신문사 지국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전람회 기간 동안 겨우 127명이 전시회장을 방문하였는데 이마저도 수원의 신간회(新幹會)나 청년동맹의 회원들이 대부분이었다.¹⁵ 이는 전시의 내용이 일반 서양화 전람회처럼 미적 가치를 제공한다고보다 계몽적이고 선동적으로 좌익 계통의 이념을 표현하는 생소한 형식의 작품들을 선보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카프 수원지부는 처음 계획과 다르게 일본 프롤레타리아미술가동맹의 작품들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출품작이 압수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신문 기사를 통해 밝혔고, 이를 다음 미술전람회에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¹⁶ 이들은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소위 관학파적 또는 부르주아적 성격의 <조선미술전람회>에 대한 대응이자 카프 담론을 선전, 실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카프 수원지부는 1931년에 전람회를 한 차례 더 열기 위한 계획을 가졌으나 경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전람회 개최 불허방침을 통보했다.¹⁷ 결국 수원에서 열린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가 국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다.

이후로도 일제강점기 수원화단에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는 화가들의 개별적인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적은 수의 미술가들로 국한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활동이 중앙화단을 거점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미술 단체가 결성되거나 특유의 화맥이 형성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맞이한 조국의

14 「푸로레타리아 第一回美術展覽 藝術同盟水原支部主催 三月廿九, 卅兩日間」, 『중외일보』, 1930년 3월 19일, 4면.

15 「水警高秘 제991호 昭和5年4月1日」, 『사상에 관한 정보철』 제4책(키다 에미코, 2003, 『수원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11권,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80쪽.

16 「푸로美展에 對한 經過顛末을 發表 水原同盟主催側에서」, 『중외일보』, 1930년 4월 10일, 4면.

17 「푸로레타리아 美展을 禁止」, 『동아일보』, 1931년 3월 7일, 7면.

광복과 전쟁은 수원 지역 문화예술계의 단절과 이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지역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던 다재다능한 예술가들은 요절하거나 월북과 월남이라는 두 갈래 길로 나누어졌다.

2) 1950년대 이후 수원화단의 형성

한국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수원은 비행장이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까닭에 점령과 탈취가 반복되는 치열한 격전지였다. 수원은 전쟁의 최전선에서 인적, 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대규모 피난민까지 유입되면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수용소가 설치된 지역이었다. 이는 북한과 인접하고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으로, 피난민들의 주요 이동로이자 집결지가 되었기 때문이었다.¹⁸ 195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며 수원의 도시 재건사업이 점차 안정화되었고 1963년에 이르자 경기도청 이전(移轉)이 확정되면서 다시금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눈여겨볼 점은 이 기간에 수원지역의 학생 수만 1만 명가량 증가하였고, 초중고 교육기관, 대학, 기타 사립학교가 연이어 개교하며 재직교사 수 또한 688명으로 이전에 비해 131명가량이 늘어난 것이다.¹⁹ 이러한 현상은 여타 지역 출신의 미술 교사들이 근무를 위해 수원으로 이주하면서 1950년대 이후 지역 미술계를 조직하는 주역으로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전후(戰後) 수원지역에서 가장 먼저 결성된 ‘수원미술지구회’는 1964년 3월 22일 현직 미술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발족한 단체였다. 모임이 결성된 첫해에는 안찬주와 윤재상이 각각 회장과 간사를 맡았고 1965년부터 김학두가 부회장으로 새롭게 참여하였으나, 안찬주가 미술 교사 일을 그만두고 수원을 떠나면서 1966년 김학두가 회장으로 새롭게 호선되었다.²⁰ 처음 수원미술지구회의 명칭은 ‘미술교육

18 이동현, 2014, 「해방 후 수원의 사회정책과 재할원촌의 형성」, 『수원시사 제7권 - 수원의 사회변동과 주민 생활』, 수원시사편찬위원회, 399~401쪽 참고.

19 장덕삼, 2014, 「해방 후 수원 교육의 성장」, 『수원시사 제10권 - 수원의 종교와 교육』,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64~265쪽.

20 1964년 소규모로 결성된 수원미술지구회는 1965년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부의 수원지부로 인준을 받았고, 1966년 예총경기도지부 수원지구회 내 미술협회 창립, 1969년 한국미술협회 수원지부로 승인되는 과정을 거쳤다.((사)한국미술협회 수원지부, 2019, 「수원미술협회 50년 발자취」, 『수원미술협회 50년사』,

지구회'로도 불렸다. 그 이유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인 만큼 학생들에게 미술교육을 올바르게 가르치자는 의미와 미술문화를 번창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²¹

수원미술지구회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크게 전시부문과 교육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부문은 교사 작품 전시, 학생미술 실기대회, 미술공모전, 학생미술연합전시, 국전입상자축하회 등이었고, 교육부문은 명사 초청 현대미술강연회, 교사연수회, 미술실기 세미나, 미술 감상법 강의 등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²² 이들이 주관한 대부분의 전시는 수원지역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문화행사로서의 성격을 가졌으나 교육부문의 경우, 지역의 유지(有志)들과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교양프로그램과 미술교사 재교육을 위한 연수형 세미나, 학생과 학부모를 초청하여 진행한 강좌 등으로 분류하여 정기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수원미술지구회 활동상이 나타난 이유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현장에 있는 현직 교사들이었고 척박한 지역의 문화적 여건 개선과 미술교육의 저변 확대라는 측면을 고수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전후(戰後) 도시의 재건 과정에서 수원지역으로 유입된 미술 교사들의 활약은 현대미술이 자생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들은 후학 양성과 더불어 미술문화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열의를 보였다. 그러나 미술교육 관련 행사를 계몽적 차원에서 수차례 가진 반면에 작가로서의 창작 활동은 관례적인 회원전을 개최하는 것에 그치면서 수원화단만의 독특한 분위기나 화풍을 형성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44~45쪽 참고).

- 21 대부분의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수원미술지구회'로 표기되어 있으나, 김학두는 이 단체가 '미술교육지구회'로도 불렸음을 밝혔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이다. "미술협회 수원지구회, 명칭이 미술교육지구회였던 것 같아요. 초등의 미술선생도 거기에 다 넣어요. 초등학교에 미술전담자가 있지요. [...] 미술교육회니깐 미술교육을 올바르게 가르치자 하는 의미에서 미술교육회라고 했고, 그 대신 초등학교 미술 교사도 가입 시켰습니다. 미술교육을 번창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사)한국미술협회 수원지부, 2007, 「김학두 녹취자료」, 『수원미술 40년사 녹취자료』).
- 22 '수원미술지구회'가 결성된 이후 10년간의 사업을 살펴보면, 회원들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전시는 연 1회로 그쳤다. 반면에 국전입선축하회, 초중고 사생대회, 중고생미술대회, 교사연수회, 미술공모전 등의 사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었다((사)한국미술협회 수원지부, 2019, 「수원미술협회 50년 발자취」, 『수원미술협회 50년사』, 44~45쪽 참고).

3) 1970년대 이후 수원의 전시공간

1960년대까지 미술가들을 위한 본격적인 전시공간은 거의 전무했다. 수원 지역에서 열린 대부분의 전시는 수원문화원 2층에 마련된 살롱(Salon)과 금강산다방, 명선다방 등을 빌려 활용해야만 했다. 다방의 경우 작은 크기의 작품만을 전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가들은 수원문화원을 선호했다. 그러나 수원문화원은 전시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예진흥사업과 정책 홍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작가들이 개인적으로 작품 발표를 위해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1970년대로 접어들며 34평 규모의 수원시민회관(1971~)이 개관하였지만, 여전히 작가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외에도 크로바백화점(1975~1990), 삼원백화점(1977~1981), 소라백화점(1979~1980), 수원백화점(1982~1985) 등에 전시공간이 새롭게 조성되었는데 수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만 겨우 이용할 수 있었고, 적지 않은 대관료를 지급해야 했다.²³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 전반까지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지역의 미술가들에게 전시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였다. 일부 작가들은 수원역광장과 팔달문거리, 수원화성 주변 등에서 야외 전시를 개최하며 전시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거나, 아예 중앙화단으로 활동 근거지를 옮겼다.

이처럼 작가들이 전시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화랑(畫廊)’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공간들이 등장했다. 가장 먼저 1986년에 일본 문화학원(文化學院)을 졸업한 사진작가 홍의선이 현재 팔달로2가 16-1번지 건물 지하에 선화랑을 열었다. 이곳은 화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작품판매와 같은 상업적인 화랑의 기능과는 거리가 멀었다. 1989년 수원 출신의 사업가 조옹호가 현재 팔달구 광덕빌딩 4층에 정화랑을 개관했지만 선화랑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공간을 대여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길범(한국화), 홍승인(도예), 권대균(서양화), 권용택(서양화), 백일현(서양화) 등 지역미술인 5인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작가 선정과 전시장 운영 전반을 위임하는 방식을 택해 전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선화랑과 정화랑 모두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지역작

23 『수원 시내 전시실들 최근 들어 성황 이류』, 『경인일보』, 1982년 2월 4일, 5면.

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관한 첫 화랑이었다.

1991년에는 남갤러리(4월), 장안미술관(6월), 경기도문화예술회관(6월), 이음갤러리(12월)가 줄지어 개관했다. 가장 먼저 전문상설화랑으로 개관 소식을 알린 남갤러리(대표 : 남용희)는 중동사거리에 위치한 10평 규모의 소규모 화랑이다. 남갤러리는 순수미술 계열의 지역작가들을 초대하여 대중에 소개하고, 이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뒤이어 개관한 장안미술관(대표: 이경근)은 장안구 신흥동 221-8번지에 40평 규모로 조성된 전시장으로 젊은 세대 실험미술가들의 창작거점이 되는 공간이었다. 장안미술관은 당시 지역에서 비인기 장르에 속했던 행위미술, 설치미술, 비디오 아트 등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작가들의 중앙화단 진출과 국제적 교류를 목적으로 기획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음갤러리(대표: 최광천)는 종로 경기은행 옆 건물 2층에 조성된 20평 규모의 화랑이다. 이음갤러리는 수원에서 현대미술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전문 전시공간의 부재, 작품 판매를 위한 활로 부족을 지적하고 침체된 수원화단을 고무시키고자 했다.²⁴

이처럼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갤러리와 사립미술관은 지역 미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돕겠다는 표명 아래 조성된 공간들이었다. 이 시기에 등장한 갤러리는 단순한 대관 공간으로써의 성격을 넘어서서, 주도적으로 지역 미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작품을 유통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의욕적인 출발에 비해 전시공간을 특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방침이나 작가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위의 기관들 다음으로 개관한 갤러리들은 작품판매를 통한 이윤 창출 뿐만 아니라 전문 큐레이터 채용, 작품임대사업, 미술 출판물 제작, 창작지원금 지급 등 저마다 차별화된 운영방식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지역에 새롭게 건설되는 백화점마다 대여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추가로 조성되었고 공예나 판화 등의 특정 장르를 다루는 갤러리와 작가들이 직접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등장하기도 했다.²⁵

24 강신희, 「발전하는 수원의 화랑가」, 『수원사랑』 제47호, 1992년 1월, 수원문화원, 14~15쪽.

25 1992년 하이웨이 동수원백화점(인계동 1114-1)과 1994년 뉴코아백화점이 새롭게 개장하면서 대관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함께 조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공예와 판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갤러리로 새롭게 등장하였는데, 성원갤러리는 석화 공예가인 이치주가 자신의 공예학원 내에서 운영한 20평 규모의 전시공간이었다. 주로 공예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고객들이 찾는 곳이었으나,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

1992년 9월 개관한 갤러리 수원(대표 : 오호영)은 구상계열 화가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판매한 회화 전문화랑이었다. 갤러리 수원은 작품 가격의 2.5~3%를 임대료로 책정하여 작품을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²⁶ 간혹 대규모 전시장을 대여하여 갤러리 소장품을 공개하는 전시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미술작품을 적극적으로 일반에게 소개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1994년 2월 개관한 갤러리 그림시는 의사였던 김주일 원장이 병원 건물 안에 조성한 갤러리였다. 이곳은 전문 큐레이터를 채용하고 소장 작품을 상설 전시하거나 국내 미술계의 주목을 받는 작가와 지역작가를 초대하여 기획전을 열었다. 이 외에도 갤러리 그림시는 다른 갤러리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전속작가제도를 운영하였는데, 이는 작가들에게 일정 금액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대신 작품을 소장하는 방식이었다.²⁷ 이 제도는 지역작가들의 생활 여건을 보장해 주는 지원제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갤러리 그림시와 같은 시기에 개관한 갤러리 울(대표: 김문점)은 매산로3가에 위치했다. 갤러리 울은 서양화가 김철규를 큐레이터로 고용하고 대관 전시보다 상설 전시기획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대체로 대중들이 함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현대미술 작품을 소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구상계열의 회화와 조각을 선보였다.²⁸ 갤러리 울은 다른 갤러리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미술애호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계간지 『갤러리 울』을 발간하여 현대미술의 동향을 발 빠르게 전달했다.

1995년에는 “젊은 작가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작가, 외길 인생을 살고 있는 작가 정신이 강한 작가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설립목적 가지고 진솔갤러리가 문을 열었다.²⁹ 진솔갤러리는 서양화가 박영복의 부인이 운영한 공간으로, 작품

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1995년 개관한 연(淵)화랑은 장육진의 판화 화집출판, 전시기획 등에 관련한 경험을 가진 디자이너 전후연이 운영하는 공간이었다. 이곳에서는 작가들의 판화작품뿐만 아니라 해외 명화 복제품을 함께 판매했다. (『갤러리 울』, 『수원사랑』 제91호, 1995년 9월, 수원문화원, 34~35쪽; 『연(淵)화랑』, 『수원사랑』 제91호, 1995년 10월, 수원문화원, 20~21쪽).

26 「갤러리 수원 그림 임대합니다」, 『수원사랑』 제64호, 1993년 6월, 수원문화원, 30~31쪽.

27 이석기 엮음, 2016, 『수원미술관에 작지만 큰 울림을 준 갤러리 그림시』, 동인문화사, 3~4쪽 참고.

28 「갤러리 울」, 『수원사랑』 제91호, 1995년 9월, 수원문화원, 34~35쪽.

29 「갤러리 울」, 『수원사랑』 제91호, 1995년 9월, 수원문화원, 34~35쪽.

의 판매보다 참신한 신인 작가들을 발굴하여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화단에 창작의욕을 상승시키고자 했다. 갤러리와 더불어 조성된 문화센터에서는 미술애호가층을 형성하기 위해 미술이론 세미나, 실기 강습회 등을 운영하였다.

1996년 팔달구 인계동에 개관한 예술공간 슈룸아트넷은 곽규진(도예), 김성배(설치), 이윤숙(조각), 김정집(미술이론)이 함께 운영한 공간으로, 작가와 작품, 감상자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전시와 강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작가들이 작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예술공간 슈룸아트넷은 1997년에 장안문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갤러리 아트넷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의 경직된 주류 예술과는 다른 실험적 양식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연달아 개관한 화랑과 갤러리들은 장안문과 팔달문으로 이어지는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단순한 대여 공간에서 작품의 유통을 중개하는 화상의 역할과 더불어 특색 있는 운영 전략을 세우면서 나름의 화랑가를 형성했다. 특히 당시 수원지역 미술가들은 전시공간 부족과 작품 제작에 몰두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을 수원미술계가 자생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으로 꼽았기 때문에 화랑과 갤러리의 등장을 누구보다 환영하였다.³⁰ 시내 곳곳에 들어선 화랑과 갤러리 공간은 지역의 작가들에게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비인기 장르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새로운 매체를 실험할 수 있는 장으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화랑과 갤러리의 다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원지역에는 예술작품 구입 계층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관과 폐관의 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30 권용택, 「199008 지역미술의 현재: 지역미술로서의 수원미술」, 『미술세계』 통권 69호, 1990년 8월, 27쪽.

3. 1970~1980년대 미술동인의 생성과 활동

1) 1970년대 미술동인

(1) 경기청년미술인회(京畿靑年美術人會)

1970년대 수원화단에서 가장 중심적인 활동은 미술 교사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한국미술협회 수원지부(이하 미술협회)의 단체전과 현대미술 관련 세미나 등이었다. 미술대학을 갓 졸업하고 수원을 활동 거점으로 삼았던 젊은 세대에게 스승들이 활동하고 있는 미술협회는 전업 화가로서의 시작을 담보하는 등용문이었다. 유일한 미술가 모임이었던 미술협회가 인맥을 중심으로 친목 위주의 활동을 전개하면서 젊은 작가들은 미술협회 중심의 화단에 염증을 느꼈다.³¹ 열악한 창작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젊은 작가들은 새로운 단체를 필요로 했고, 1978년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40세 미만 청년작가들이 참여한 ‘경기청년미술인회’가 결성되었다. 경기청년미술인회는 당시 수원화단을 주도한 흐름이었던 미술협회에 가담하지 않거나 미술협회의 울타리에 들지 않는 작업을 추구하는 작가들, 미술대학을 갓 졸업한 작가들에게 작품 발표의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이었다.

경기청년미술인회는 1974년 중앙화단에서 정관모가 이끌었던 ‘한국미술청년작가회(1974)’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 ‘동인이 아니면서 동인인 그룹’³²이라고 묘사된 한국미술청년작가회는 학연이나 지연 또는 공통된 조형이념과 양식을 바탕으로 두고 형성된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를 다루는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화단을 주도한 미술사조나 운동에 가담하지 않은 청년작가들에게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경기청년미술인회도 이 같은 개방성, 진취성, 자유 창작의 의지를 추구하고자 했다. 경기청년미술인회는 미

31 박영택 외 7인, 2005, 『경기도 근·현대 소집단 미술활동의 흐름 연구』, 『경기문화재단 기초연구 2004-04』, 20쪽.

32 『한국미술청년작가회』, 『중앙일보』, 1979년 7월 18일, 4면.

술 동인의 범위를 수원 출생의 젊은 작가들과 경기도 권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작가들 간의 교류와 더불어 작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발전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다.

경기청년미술인회는 1985년까지 열두 번의 동인전을 개최하며 의욕적으로 젊은 작가들을 초대하고 창작 활동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데 몰두했다. 그러나 동인의 결성 의도와는 다르게 미술대학의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작가들을 준회원으로 차등 구분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또한 인맥 중심의 지역화단 풍토를 변혁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수원을 포함한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청년작가들의 참여를 독려했던 것은 수원지역 기성 화단의 폐쇄적이고 획일화된 분위기를 개선하고 활동 반경을 넓힐 수는 있었지만, 특정 조형이념 아래 작가들이 결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체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경기청년미술인회의 개방적인 인력 구성과 동인의 공통된 지향점의 기여로 동인의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느낀 일부 작가들은 단체를 탈퇴하여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기도 했다. 당시 지역화단에는 경기청년미술인회와 이 단체에서 빠져나간 작가들 간의 대립 관계가 형성되었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갈등과 불신이 고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창립 일원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작가들이 중앙화단으로 진출하거나 그룹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구성원에서 변화가 생겨났다. 경기청년미술인회는 1988년, 9년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2) 포인트 그룹(Point Group), 시점시점(時點視點)

1979년 미술대학 재학생이었던 최춘일, 백종광, 장영국 등은 스승과 선배들의 동인활동이 단순한 친목 모임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보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대응으로써 1979년 '포인트 그룹'을 결성하였다. 일 년 앞서 결성된 경기청년미술인회 구성원들보다 훨씬 더 젊은 20대 작가들이 참여한 포인트 그룹은 안일함을 추구하는 기성 화단의 분위기를 벗어나 작품을 통해 주체적인 의견과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포인트 그룹은 1979년 12월 창립전 <POINT 79-展>을 개최하였다. 한 해 뒤 이역배, 박찬웅이 추가로 영입되었고, 1981년부터 문석배, 강문수, 정길수가 동인으

로 새로 합류하였다. 이들은 한국화를 현대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과 기성 오브제를 사용한 입체 작품 등 새로운 매체와 형식을 이용하여 종래의 미적 전형과 관습을 벗어나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그러나 1981년 세 번째 동인전을 끝으로 멤버들이 모두 군 복무를 위해 흩어지면서 잠정적으로 그룹 활동이 중단되었다.

1983년 군 복무를 마친 동인들은 포인트 그룹으로 재결집하였고 단체의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부터 그룹의 명칭을 ‘시점시점(時點視點)’으로 변경한다. 그룹의 명칭을 변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장악과 5·18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중앙화단에서 미술가들의 사회적 소통과 정치적 참여를 촉구하는 미술운동들이 발아하였고, 포인트 그룹 내부에서도 현실참여적인 미술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³³ 그러나 이들이 처음 동인을 결성한 요인이 기성 화단이 추구한 고답적인 아카데미즘에 반발과 기성세대의 활동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전시 기회를 마련하고 새로운 예술세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에 있었기 때문에 활동의 목표가 사회참여적 미술운동의 추구로 변경되면서 의견대립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의 동인 활동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쪽과 진로 변경을 원하는 쪽으로 나누어졌고, 결국 각자의 길을 걷는 수순을 밟게 된다.³⁴ 이에 1985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수원 크로바백화점 전시실에서 열린 정기 회원전 〈時點視點〉을 끝으로 해체되었다.

2) 1980년대 미술동인

(1) 시작회(始作會), 경기현대작가회, 경기형상회

1983년 창립전을 시작으로 1987년까지 지속된 미술동인 ‘시작회’는 수원 출신이면서 30세 이하인 젊은 작가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들은 항상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시작(始作)’을 동인의 이름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창립전 개최 후 가졌던

33 1984년 5월 ‘포인트(POINT)’에서 ‘시점시점(時點視點)’으로 그룹명이 변경되었다(『時點視點』, 전시도록, 1984).

34 이채영(면담자), 2015, 「수원지역 미술인 인터뷰(이역배 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아카이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인터뷰에서 동인의 결성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지역의 기성 단체 활동에서 소속감 이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고, 이러한 화단의 분위기에서 답답함을 느꼈다고 답했다.³⁵ 또 다른 신문기사에서는 창립 취지에 대해 “회원 각자의 미술 이념은 다르나 하나의 공감대 속에서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자”³⁶라고 밝혔는데, 시작회가 단일한 조형의식이나 이념에 의한 집결이 아니라, 개별 활동에 비중을 둔 단체임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이들은 동인 차원으로 확고한 조형이론이나 양식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성세대에 비해 다채로운 작품 경향들을 선보일 수 있었다.

1988년 경기청년미술인회와 시작회가 해체되고, 비구상을 표방한 ‘경기현대작가회’와 구상 계열작가들이 중심이 된 ‘경기형상회’가 새롭게 결성되었다. 경기현대작가회는 “실험성 강한 조형성의 모색”³⁷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동인들의 입회자격을 25세부터 35세로 제한하여 젊은 작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였다. 이 그룹의 동인 구성은 회화나 조각뿐만 아니라 자연미술이나 전위적인 행위미술을 추구하는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현대미술의 폭넓은 경향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다.³⁸ 경기형상회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는 25세부터 45세까지의 구상작가들이 중심이 된 미술동인으로 경기현대작가회보다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학맥과 인맥, 친목의 범위를 넘어서 구상에 초점을 맞추어 작가 그룹을 형성하고자 했고, “현대적 시각에 의한 형상성을 추구하며 새로운 표현 방법론을 탐구”³⁹하는 것을 활동의 목표로 삼았다. 경기형상회는 주로 사생에 기초한 목가적인 화풍을 다루는 작품들을 발표했다. 경기현대작가회와 경기형상회는 기존 단체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경향적으로 재분류된 모임이라는 의미 외에 뚜렷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양 진영 모두 1980년대 수원미술계의 구조가 다층화 되던 상황 속에서 각자의 진로를 모색하던 젊은 작가들이 참여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 동력을 얻는 것이 불가능했다.

35 「水原 미술동인 始作會」, 『경인일보』, 1985년 8월 27일, 6면.

36 「始作會 만들고 創立展」, 『경인일보』, 1985년 7월 8일, 6면.

37 김남주, 1988, 「경인작가초대전에 부처」, 『京仁作家招待展』, 경인미술관·월간미술세계.

38 「미술 INFORMATION 경기현대작가회 창립전」, 『수원사랑』 창간호, 1988년 3월, 15쪽.

39 정수자·류현희(면담자), 2017, 「수원미술의 뜨거운 응전(應戰), 권웅택」, 『수원근현대사 증언자료집 제9권 - 수원의 문화예술을 기억하다 (미술 연극)』, 수원박물관, 158쪽.

(2) 판모임, 수원민주문화운동연합(시각예술위원회), 새벽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는 군사독재정부에 항거하는 민주화 요구가 곳곳에서 불꽃처럼 터져 나왔다. 수원에서도 독재 타도를 외치는 격렬한 투쟁의 열기가 계속 해서 고조되었다. 수원미술계에 민중미술을 대동시킨 단체는 1986년에 결성된 목판화 동인 ‘판모임’이다. 여기에서 ‘판’은 마당극의 ‘판’을 의미하기보다는 민중미술의 주요 표현매체인 목판화의 ‘판’을 의미한다. 이들의 주요 활동영역은 목판화 작업을 매개로 한 집단창작(공동작업), 걸개그림 제작, 전시, 세미나 개최, 시국선언문과 같은 반정부 유인물 살포 등이었다. 판모임이 활동을 시작한 이 시기는 중앙화단에 “정치 투쟁에 복무하는 문예⁴⁰”를 내세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민중미술 진영이 모노크롬의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미술의 현실참여를 독려하며 전시장 중심의 활동을 한 1세대와 적극적으로 전통을 발굴하고 현장성 있는 공동작업을 추진했던 2세대로 나뉘는 상황이기도 했다. 수원의 작가들은 운동성, 정치성, 현실변혁 등의 새로운 가치를 내세운 2세대 민중미술 그룹의 영향을 받았고 문예운동과 사회운동의 교류라는 측면에 더 관심을 가졌다.

판모임을 비롯해 현장과 연계한 미술운동에 관심을 가진 작가들은 1987년 ‘수원민주문화운동연합(수문연)⁴¹’의 내부조직인 ‘시각예술위원회’에서 새롭게 규합하게 된다. 시각예술위원회는 지역의 야학, 기업노조, 대학교를 방문하여 전문창작집단 지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실기강좌를 개설하는 나눔미술분과와 공장, 집회장 등 투쟁 현장에 필요한 걸개그림과 영정, 벽화 제작을 지원하는 열림미술분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전방위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와 대규모 사업장에서 투쟁적인 노동운동을 일으킬 수 없었던 억압적인 상황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수원화단에서 미술가와 일반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미술을 추구했던 수원민주

40 오광수·서성록, 2003, 『우리미술 100년』, 현암사, 350쪽.

41 ‘수원민주문화운동연합(수문연, 초대회장 김쾌상)’은 시각예술위원회, 공연예술위원회, 민족문학위원회 등 매체별 위원회를 기본조직으로 하여 활동의 초점은 민중예술의 창조와 보급에 있었다(유문종, 2014, 『1960~1990년대 수원의 민주화운동』, 『수원시사 제8권-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수원시사편찬위원회, 329쪽).

문화운동연합의 작가들은 1980년대 후반 국내의 정세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만 했다. 이들은 기존 민중미술의 투쟁방식의 한계와 변화의 필요성을 직감하였고, 다시금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미술동인 '새벽'을 새롭게 결성하였다, 이전의 민중미술운동이 자본주의 비판, 농촌과 도시 근로자들의 현실, 남북의 분단 상황, 민중을 주체로 하는 역사의 재해석 등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투쟁 현장을 지원 하는 활동에 몰두했다면, 새벽은 기존 수원미술계가 "미술의 형식주의적인 면만을 강조해 왔고 정치, 사회적 소용돌이 속에서 주체적 의식 없이 왜곡된 정치 문화에 순종"⁴²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들이 추구하는 동인의 지향점은 미술가의 현실 인식과 민중의 삶을 대변하는 작품 생산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새벽은 민주정 권으로의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다시금 조직을 정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1991년 '민족, 민중미술운동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의 주체인 지역 대중의 삶을 반영하는 예술의 실현'을 선언하며 수원미술인협의회로 재개편되었다.⁴³

(3) 그 밖의 동인 활동

1980년대 수원화단에는 현대미술과 민중미술의 동인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었고 또 다른 갈래로 여성미술가, 한국화가, 공예가 등이 활동을 위한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인을 결성하면서 지역미술계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1982년 창립한 '일구팔이일이회(198212)'는 수원 출신으로 미술대학에 재학 중인 여성 미술가들이 중심이 된 단체였다. 일구팔이일이회(198212)라는 작명에는 1982년에 모인 열두 명의 여성 미술가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⁴⁴ 창립 일원이었던 이숙에 의하면 "수원의 미술 인구 중 여성 작가의 비율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닌데, 그 활동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동인 활동이 시작되었다.⁴⁵

일구팔이일이회(198212)를 인터뷰한 신문 기사를 보면, 동인 활동의 지향점은 여

42 김윤정, 「새로운 발돋움 - 경기지역미술의 어제와 오늘」, 『미술세계』 통권 77호, 1991년 4월, 44쪽.

43 「수원미술인협의회 창립선언문」, 『수원미술인협의회 창립전』, 전시리플렛, 1991.

44 이채영(면담자), 2015, 「수원지역 미술인 인터뷰(이윤숙 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아카이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45 「지역성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좌담회)」, 『미술세계』 통권 69호, 1990년 8월, 31쪽.

성으로서 겪었던 개인적, 성적, 사회적 경험을 작품화하는 데 있다기보다 여성미술가 단체가 전무했던 지역 화단에서 창작 활동을 위한 일종의 연대와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일구팔이일이회(198212)는 여덟 번째 정기전을 개최하고 난 뒤 “자신들의 활동이 지역 화단에서 여성 미술인의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미술을 통해 여성의 문제들을 풀어내고 공유하는 데 미흡함은 사실”이라는 뜻밖의 말을 남겼다.⁴⁶ 이는 일구팔이일이회(198212) 역시 빈약하지만 여성의 문제를 탐구하거나 여성해방을 위한 예술을 실천하는 작업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을 통해 여성문제를 탐구한다는 미술 개념은 일구팔이일이회(198212)의 동인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했던 의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깊이 발전하지 못했다.

1982년에 결성된 또 다른 단체는 한국화를 기반으로 결성된 ‘성묵회(城墨會)’이다.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열세 명이 결성한 단체로, 이당 김은호의 제자인 우당 이길범이 창립회장을 맡았다. 1980년대 초반 중앙화단에서 수묵 계열의 작가들이 주도한 수묵화 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수원을 중심으로 한 성묵회는 한국화의 조형적 가능성이나 실험의식을 기반으로 한 단체는 아니었다. 성묵회 동인들은 특정 경향을 따라 결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통 산수계열과 현실 풍경, 풍물, 인물을 주제로 다루는 작가들이 폭넓게 분포해 있었다. 그러나 성묵회는 창립선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1970년대 후반부터 동양화 붐이 일어나면서 소위 잘 팔리는 화풍의 남발과 저급한 베끼기 작품이 양산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결성된 단체였다. 이들은 “성묵회를 순수미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미술사에 거점을 남길 모임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동인 활동의 목표로 삼았으며, 소수에 불과했던 한국화가들이 지역화단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한국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⁴⁷ 성묵회는 정기적으로 전시를 개최하는 것이 동인들이 작품 활동에 있어 나태해지는 것을 막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편이라고 보았고, 꾸준히 회원전을 열었다. 특히 성묵회는 1982년 결성 이후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46 「지역성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좌담회)」, 『미술세계』 통권 69호, 1990년 8월, 31쪽.

47 성묵회, 「창립취지문」, 1982년 4월 11일.

이밖에도 짧은 활동 기간을 가졌지만 디자인 그룹을 표방하며 등장한 'S.I.D(Suwon Industrial Design)(1982)'가 있다. 'S.I.D'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도예가, 섬유 공예가 등 열세 명으로 활동을 시작한 단체였다. 이들은 다섯 차례의 정기전을 가지며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전업 미술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업을 병행하기에 여러 제약들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소멸되었다.

일부 단체들의 경우, 예술적 성과와 무관하게 친목 도모의 수준에서 지속되거나 지역 화단의 협소함으로 인해 이합집산적 활동을 보였다. 게다가 기성 화단과 판이한 작가층이나 미학적 입장들은 갈등과 반목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와 1980년대로 이어지는 소집단 미술동인의 등장과 전개는 수원 현대미술계의 맥을 잇는 역할은 물론 미술인들을 고취시키고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는 수원지역 미술계가 보수적이고 단일화된 구조에서 다원화된 맥락으로 진입하는 시기였다.

4. 1990년대 이후 실험미술 그룹의 창립과 활동

1) 컴아트(COM-ART) 그룹

1990년 1월 1일, 수원지역의 몇몇의 작가들은 모더니즘과 민중미술이라는 양극화를 벗어나 지역성을 통해 한국미술의 대안을 찾고자 '컴아트 그룹'을 창립했다. 컴아트 그룹은 이경근, 김석환, 황민수, 허중수, 홍오봉 등 다섯 명의 작가와 이론가 최병기가 결성한 단체다. 그룹명인 'COM-ART'는 소통을 의미하는 단어 'Communication'과 예술을 뜻하는 단어 'Art'를 결합한 것으로, 당시 전 지구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벤트였던 백남준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 Good Morning Mr. Orwell>(1984)과 <바이바이 키플링 Bye Bye Kipling>(1986)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⁴⁸

48 윤진섭(인터뷰어), 김석환·홍오봉·황민수(인터뷰이), 2017, 「컴아트 그룹과 윤진섭의 대담」, 『1980-1990년대 수원의 실험미술 그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78쪽.

컴아트 그룹 창립 취지의 핵심은 소통(Communication)이었다. 여기서 소통이 의미하는 바는 예술의 다양한 장르의 접목으로 새로운 창조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모든 세계와의 대화가 가능하고, 그 방법에 따라 의미도 새롭게 되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미적 체험의 문을 열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커뮤니케이션 아트’라는 의미로 그룹명을 ‘컴아트’라고 한 것이다.⁴⁹

컴아트 그룹은 1996년 해체될 때까지 일곱 번에 걸쳐 문학, 연극, 무용, 회화, 입체, 설치, 퍼포먼스 등의 장르를 초월한 대규모 예술제 <국제교감예술제>를 주축하여 큰 성과를 내었다. <국제교감예술제>는 전시뿐 아니라 상영회(시사회), 워크숍을 열며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수원의 전통과 역사를 동시대 예술과 결합함으로써 지역미술의 정체성을 확고히 마련하고 문화예술의 중앙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자 했던 국제적 행사였다.

컴아트 그룹의 결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창립전은 1990년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수원 선화랑에서 열린 <다섯칸>전이였다.⁵⁰ 이 전시에는 이경근, 김석환, 홍오봉, 황민수, 허종수가 참여하였다. 이들은 창립전을 통해 ‘정형화된 미학이 아닌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새로운 미학’을 보수적이었던 수원미술계에 선보이고자 했다.⁵¹ 전시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들은 전시공간을 다섯 개의 영역으로 분리하고, ‘한국의 정서(한국의 情緒)’를 공통주제로 하여 설치, 입체작품과 그 연장선으로서의 퍼포먼스를 시연했다. 개막식 당일 18일 오후 2시부터 다섯 명의 작가가 차례대로 <선에 대해>, <비밀+드로잉>, <新生>, <自轉멀미>라는 부제를 단 퍼포먼스를 선보였다.⁵² 이들은 이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전시가 종료될 때까지 상영하였다.⁵³

49 그룹의 주간(主幹)을 맡았던 이문기 최병기는 아래와 같이 ‘Communication-Art’의 의미를 설명했다. “우리는 예술의 다양한 장르의 접목을 통해서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새로운 창조 원리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세계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그 방법에 따라 의미도 새롭게 되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위한 문을 열어 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Communication-Art라 부르자고 한다.” 최병기, 1994, 『Communication-Art』, 『COM-ART GROUP 1990.1.1.~1994.5.20.』, COM-ART GROUP, 3쪽.

50 윤진섭, 『문화적 게릴라로서의 컴아트 그룹』, 『미술평단』 No. 30, 1993년 가을호, 53쪽.

51 홍오봉, 2016, 『수원 컴아트페스티벌 퍼포먼스 스토리』, 『2015-2016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교육문화행사 학술자료 모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36쪽 참고.

52 『水原 미술가 다섯칸展』, 『경인일보』, 1990년 1월 18일, 10면.

53 『行爲美術 수원에서 “첫선”』, 『경인일보』, 1990년 1월 19일, 8면.

뒤이어 컴아트 그룹은 1990년 5월 1일 최병기의 민속학 워크숍을 시작으로 5월 27일 <제1회 교감예술제-자연과 생명>을 개최했다. 수원화성(화서문과 장안문 일대)을 배경으로 열린 이 예술제는 중앙화단과 동등한 위치에서 현대미술을 전개할 수 있는 지역미술의 자생력을 키우고자 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 예술제는 창립전과는 다르게 야외를 전시장소로 선택하면서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⁵⁴ 이는 ‘소통’을 중요시했던 그룹의 정체성처럼 밀폐된 전시장에서 한정된 인원이 관람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방된 야외에서 물리적 제한 없이 대중들과의 소통을 과감하게 시도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이들이 선택한 장소는 수원화성의 성벽을 따라 조성된 공원이었는데, 이곳은 컴아트 그룹이 추구한 지역성과 역사성, 그리고 동시대 미술의 결합이 가능한 최적의 장소였다.

컴아트 그룹은 첫 번째 예술제를 계기로 다양한 예술 장르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창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또한 시각예술의 전통적인 전시공간을 벗어나 대중과의 적극적인 교감으로 상보적(相補的) 에너지가 생산하는 미적 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술제에 대해 언론은 “수원서 첫 행위예술 … 뜨거운 갈채, 지방예술계에 신선한 충격”(『서울신문』, 1990년 8월 6일), “자연 속에서 생명력 추구, <컴아트>에 의해 실험적 예술형태로 첫 시도”(『수원신문』, 1990년 6월 2일)라는 평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 예술제를 지켜본 대중들은 “이상야릇하지만, 신기하고 재미있다.” 또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등의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⁵⁵

이후 컴아트 그룹은 1992년 중국과 수교 직후 중국문화통사의 초청 형태로 북경에서 전위예술 작가들과 함께 전시를 여는 모험을 감행하였다. 당시 중국은 천안문 사태 이후 반체제적, 전위적 성격의 실험미술이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제도권 미술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석환은 중국에서 전위예술가들과 교류전을 가지게 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54 「총체예술을 펼치는 ‘컴아트 그룹」 장르를 초월해 대중과 호흡, 역사의 현장 부각시킨다」, 『주간조선』제 1110호, 1990, 60쪽.

55 「새로운 발돋움-경기지역미술의 어제와 오늘」, 『미술세계』 통권 77호, 1991년 4월, 44-49쪽.

“우리가 있는 곳 수원이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과 수교가 되기전에 일본의 현대미술이 (중국에) 먼저 상륙하게 되면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중국과 교류하고 일본을 연결한다는 프로젝트였던 거죠. 이러한 의도로 중국을 방문했던 것입니다.”⁵⁶

위의 김석환의 진술처럼 컴아트 그룹은 자신들의 활동 근거지인 수원을 역사의 중심지로 설정하고 북경(중국)과 도쿄(일본)를 선도적으로 연결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들은 수원과 수원화성이라는 지역성과 역사성을 근간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국제 전시로, 1993년 1월 9일부터 18일까지 <장안문에서 천안문까지-북경·한국현대미술의 육성(肉聲)>을 북경의 중국미술관과 중앙미술학원 미술관에서 열었다. 전시와 함께 한국과 중국의 현대미술 현황을 분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컴아트 그룹은 이 전시를 계기로 왕광이(王广义), 왕루엔(王魯參), 송동(宋冬) 등 중국을 대표하는 다수의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1993년 북경에서의 교류를 계기로 <국제교감예술제>는 한국과 중국, 일본 작가와 평론가로 구성된 국제교감예술제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세 나라를 오가는 순회전의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1993년 10월 2일부터 수원에서 열린 <제4회 국제교감예술제-지금 동(東)의 몽(夢)>은 한·중·일의 실험미술 작가 25명이 참여하였고, 퍼포먼스에 앞서 박래경, 윤진섭(한국), 타니오라타(たにおらた, 아시아 컬처 편집장, 일본), 리 시안팅(栗憲庭), 판디안(范迪安), 은진남(尹吉男), 공장안(孔長安)(중국)이 참여한 심포지엄이 열렸다.⁵⁷ 뒤이어 1994년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북경 국립중앙미술학원 미술관에서 열린 <'94 북경·교감예술제-지금 동(東)의 몽(夢)>에 대해 미술평론가 오광수는 “지금 우리의 문화구조에서 절실한 지역적 독자성과 국제적인 보편성 획득”⁵⁸이라고 보았으며,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이었던 박래경은 “서울 중심의 문화예술활동에서 벗어나 지방의 독자적인 문화예술을 개

56 윤진섭(인터뷰어), 김석환·홍오봉·황민수(인터뷰이), 2017, 「컴아트 그룹과 윤진섭의 대담」, 1980-1990년대 수원의 실험미술 그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77쪽.

57 박성태, 「동아시아 전위미술가들의 실험 열기」, 『월간미술』 통권 106호, 1993년 11월, 59쪽 참고.

58 오광수, 1994, 「'국제전 개최환경으로서의 수원' 심포지엄에 즈음하여」, COM-ART GROUP 1990.1.1.~1994.5.20.』, 활동자료집, COM-ART GROUP, 46쪽.

화시키려는 노력⁵⁹으로 평가하였다.

컴아트 그룹의 교감예술제가 본격적으로 국제화를 지향하게 되면서 참여 작가의 구성은 가변적인 형태로 중앙과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인들이 복합적으로 교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형태의 활동은 일본에서 열린 <'95 제5회 국제교감예술제 - 東의 夢>의 작가선정을 앞두고 그룹 내부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한국미술계에서 지명도가 높은 작가들만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작가선정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창립멤버와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다. 결국 김석환과 홍오봉이 컴아트 그룹에서 탈퇴하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창조를 위한 해체'주제로 열린 1996년 <수원국제교감예술제>는 철거를 앞둔 수원 서광학교 건물에서 열렸다. 이 예술제는 "지역미술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자생력을 키워 온 실험정신"⁶⁰으로 중앙화단에서 인정받아 제2회 월간미술대상 전시기획부문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그러나 컴아트 그룹은 이 예술제를 끝으로 멤버들 간의 갈등과 초기 그룹 창립의 목표가 흔들리게 되면서 해체의 길을 걷게 된다. 컴아트 그룹은 구성원들 간에 대중과의 소통, 지역미술의 세계화라는 비교적 뚜렷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대규모 예술제를 기획하기 위해 고액의 참가비와 진행비를 지출해야만 했던 멤버들 간의 재정적 부담이 결속력을 와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컴아트 그룹의 활약은 수원의 미술이 중앙화단에 종속되는 지역미술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지역미술의 잠재적 역량과 실험적 시도를 대외적으로 보여 준 큰 사건이었다.

2) 슈룹(SHUROOP)

설치미술은 한국미술계에서 1990년대에 들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미술 흐름이다. 설치미술의 대표적인 수원의 그룹은 '슈룹'이다. 슈룹은 1992년부터 본격적으

59 박래경, 1993, 「'93 교감예술제에 부쳐」, 『'93 교감예술제』, COM-ART GROUP, 4쪽.

60 「전시기획부문 장려상: 컴아트 그룹(대표 이경근) 기획 <수원국제교감예술제>」, 『제2회 월간미술대상 시상식』, 1997년 10월 10일.

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슈룸의 1990년대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명인 슈룸은 순우리말로 ‘우산’을 뜻하는 동시에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높은 곳에서 전체를 조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슈룸은 안드로메다미술연구소(1982), 수리미술연구소(1989), 소나무갤러리(1990)로 이어지는 전사(前史)를 갖는 단체다. 안드로메다미술연구소, 수리미술연구소, 소나무갤러리는 실험미술을 연구하고 전시하기 위한 공간으로 슈룸 동인뿐만 아니라, 젊은 미술가들이 드나들며 친목을 다지던 곳이었다. 안드로메다미술연구소는 1982년 김성배가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작업실을 지역의 후배들과 현대미술 관련 이론을 연구하기 위해 개소한 공간이었다. 이곳에 모인 젊은 작가들은 주로 일본에서 건너온 예술이론 서적 번역, 세미나와 전시 개최 또는 즉흥적인 실험적 경향들을 시도하며 1990년대 수원 미술계에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경향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뒤이어 수리산 자락인 군포시 산본동의 한 건물 지하에 문을 연 수리미술연구소도 안드로메다미술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실험미술 작가들의 전시와 연구 모임을 지원하는 공간이었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운영된 수리미술연구소는 40평의 전시장과 33평의 공동작업실로 조성되었으며, 1990년대 주요 전략으로 인류의 심성(心性)과 우주로 향(向)한 산전수전(山展水展)을 기획 실행한다는 다소 기행적인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기성 화단의 제도적 미술의 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형식과 내용을 실험하는 대안적인 작업들이 시도되었다.⁶¹ 특히 수리미술연구소에서 1990년에 개최한 <융합·21세기>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곳에서 열린 세 번의 기획전 중에서 유일하게 기획 의도가 반영된 도록의 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미술계의 이분법적 분류나 편 가르기 그리고 공통된 조형이론과 표현방식으로 묶이는 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변방인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세력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예술정신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참여 예술은 자신의 발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⁶² 이로 보아, 수리미술연구소에서 열린 전시들이 중앙화단에서 모더니즘과 민중미술의 한계를 극복

61 김성배, 『융합·세기』, 『융합·21C』, 전시도록, 1990.

62 김성배, 『융합·세기』, 『융합·21C』, 전시도록, 1990.

하고자 결성된 소그룹들의 활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신이 속한 지리적, 사회적 환경을 바탕으로 예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 것은 중앙화단과 뚜렷이 구별된다. 수리미술연구소는 1990년 김성배가 전원길과 동송동에 소나무갤러리를 열면서 폐관하였다.

소나무갤러리는 전원길의 수원 화실로 그림을 배우러 왔던 외과의사 장신유가 동송소극장 앞에 위치한 갤러리를 계약하고 운영을 작가들에게 의뢰하면서 마련된 공간이었다. 김성배를 비롯하여 전원길, 강영순, 이윤숙, 장지성이 갤러리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일반화랑으로부터 외면받기 쉬운 젊은 작가들의 실험성이 강한 신선한 작업을 장르 구별 없이 적극 수용”하고자 했다.⁶³ 소나무갤러리에서는 탈이데올로기, 다원주의를 표방하며 중앙화단에 등장한 신세대 소그룹의 전시가 끊임없이 개최되었다. 이처럼 슈룹이 본격적으로 결성되기 이전부터 함께한 동인들은 실험적인 경향의 작업들이 수용될 수 있는 대안적 성격의 공간을 함께 조성하고, 이곳을 구심점으로 전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며 교류하였다.

슈룹이라는 그룹명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전시는 1992년 소나무갤러리에서 열린 〈슈룹 월드 아트 프로젝트 - 3인〉이었다. 이 전시는 김성배, 장지성, 김진로가 각각의 설치미술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이 시기부터 슈룹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들은 프로젝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구조를 반복하며 느슨한 결합을 지향했기 때문에 명확한 그룹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안정적인 동인을 구성하고 있던 기존 수원미술계의 단체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슈룹에서 뜻을 함께한 동인을 살펴보면 김성배, 전원길, 이윤숙, 도병훈, 강성원, 황은화, 안원찬, 김진로 등을 꼽을 수 있다.⁶⁴

슈룹은 분명 미술가들로 구성된 단체이지만 특정한 조형이념이나 원리를 내세우지 않고 구성원 간의 결속을 도모할 아무런 장치 없이 자유스러운 활동을 지향한 그룹이었다. 이들은 동인 활동을 위한 공통된 컨셉이나, 주제를 강요하기보다 작가 개인의 창작 의지를 더 중요시하였고 시대적인 쟁점이나 이슈가 되는 미학적 화두

63 「젊은 작가들 공동화랑 첫선 동송동에 문 연 소나무갤러리」, 『중앙일보』, 1990년 5월 22일, 11면.

64 위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슈룹의 활동에는 간혹 메타박스, 후기미술작가협회 등의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최근 2017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열린 〈1980-1990년대 수원의 실험미술 그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전에는 슈룹동인으로 김성배, 이윤숙, 전원길, 도병훈이 참여하였다.

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성배는 “슈룹은 미술계의 기존 조직이나 그룹이 표방하는 성격이나 구조와는 사뭇 다른 자유분방한 형식을 취하고, 작가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⁶⁵ 이는 서구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미술사의 맥락에 대한 슈룹만의 대응이자 지역미술계의 정치적 세력화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룹 정체성의 불분명함과 작업의 난해함 등을 끊임없이 지적받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는 슈룹을 이끄는 독특한 특징이자 지속력이 되었고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형식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창작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슈룹은 조직화된 그룹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대하였다가 흩어지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동질성에 기반한 연대 개념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슈룹의 주요 프로젝트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과 자연 환경에 집중하면서 공통적인 지향점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경기도 화성에 개소한 슈룹조형연구소에서 19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린 <아리랑, 이어지는 자서(自叙)-역사와 예술 - 중심과 주변>전은 지나치게 서울을 중심으로 삼고 그 외 지역을 주변부로 분류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문제로 삼았던 프로젝트로, 미술을 통해 지역성이란 화두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자리였다.⁶⁶

점차 슈룹 구성원들이 관심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의 지역성, 지리적 환경을 통한 예술의 정체성 구축에 집중되면서, 이들은 기성 화단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예술적 언어가 동시대의 다양성을 담을 수 없다는 공통된 자각을 가지게 된다. 슈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장소와 자연환경을 보고, 느끼고, 탐구하고 과정에서 미학적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슈룹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장소와 자연환경을 탐구”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이들은 ‘걷기’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걷기’는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작가정신과 자세의 현실 발언이자

65 김성배, 2009, 「슈룹 20년」, 「슈룹 프로젝트 20년 백두대간-히말라야」, 글을 읽다, 6쪽.

66 슈룹조형연구소는 1995년 2월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세곡리 48번지에 문을 열었다. 연구소는 슈룹의 일원인 조각가 이윤숙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실천방안인 동시에, ‘오늘 지금 우리가 현재 딛고 서 있는, 살아가고 있는 여기 이곳의 소중함과 중요성의 깨달음을 실천하고자 행동하고 노력하는 작업’입니다.⁶⁷

슈룹의 걷기는 자신들이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로 인식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들은 가장 보편적인 행위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외부세계를 인식한다. 슈룹의 목적 없이 걷는 행위는 단순히 여가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세계를 탐험하고 해석하는 작업이다. 이는 예술적 의미를 지닌 기호를 생산하고 몸의 언어를 시각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걷기는 서구 미술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형식과 개념으로 작품을 구현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기도 했다. 이들은 끊임없이 도보를 통해 마주한 웅대한 자연으로부터 받은 각성이나 강렬한 인식을 글로 표현하거나 작품으로 구현하고, 걷기의 과정 중에 우연히 발견된 흔적들을 모아 전시를 열었다. 실제로 슈룹은 광교산, 문수봉, 관악산, 인왕산, 치악산, 백운산, 설악산, 지리산을 종주하고 그 체험의 결과를 엮은 〈한반도〉(1998) 전시를 열었고, 지리산에서 진부령까지 백두산 종주를 마치고 답사의 경험을 담은 〈백두대간〉(1999) 전시를 개최하며 일상적 삶과 경계가 모호한 작품들을 발표했다.

백두대간 종주에 참여했던 안원찬은 “평탄하거나 험난한 대간 길을 쉽 없이 걷는 일이야말로 삶 그 자체라 할 수 있겠다. …… 두 발로 내디더 밟고 확인하는 위대한 자연의 품속, 끊어지지 않는 선(線)의 미학이리라.”⁶⁸는 글을 통해 실제로 현장을 걸으며 경험한 예술적 감흥을 표현했고, 이운숙은 삶의 주변이나, 주변 언저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작품의 소재가 되는 개인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⁶⁹

이후로도 지속된 슈룹의 기행적인 행보는 “외부로부터 도입이나 차용이 아닌, 스스로가 세계를 향하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상과 언어창출’이 절실”

67 「슈룹과 김중길의 대담」, 2017, 『1980-1990년대 수원의 실험미술 그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129쪽.

68 「슈룹 프로젝트 20년 백두대간-히말라야」, 글을 읽다, 2009, 184쪽.

69 경기도미술관, 2010, 『2010 경기미술프로젝트: 경기도의 힘 자료집』, 131쪽.

하다는 동인들 간의 판단 아래 중앙화단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활동을 통한 조형적 실험과 실천에 집중되어 있었다.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슈룹은 한국적인 현대미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전시들을 기획했는데, 이는 자신들이 강조했던 한국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과정으로써 주로 자연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동양적 세계관이나 역사, 사회문화적 현상을 주제로 다루는 것이었다. 이러한 슈룹의 전개는 관습적인 미술 제도에 대한 저항이자 해체의 시도이자 지역미술계의 경향적 대립과 패권주의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적 흐름의 발현이기도 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역미술을 중앙에 대립하거나 하위 미술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한 현실과 조응하며 발생한 자생적인 흐름으로 인식하고 수원지역 현대미술 화단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연대기 기준으로 그룹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수원의 지역적 특성과 이곳에서 전개된 미술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찍부터 수원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새로운 문물과 유행을 흡수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도시였다. 동시에 교통의 요충지로 각광받으면서 1960년대부터 섬유, 전자, 전기 등 대규모 공업단지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1990년대까지도 높은 경제 성장률과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여 왔다. 다만 미술계의 경우 한국전쟁의 발발로 화단이 단절되는 상황을 겪었지만, 이후 수원의 현대미술 화단이 형성되는 데에는 위에서 언급한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서 영향을 받았다.

수원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정착한 피난민들과 경기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그중 학생 수가 대거 늘어나면서 이를 지도하기 위한 미술교사들이 꾸준히 유입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현대미술 화단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부터 수원미술계는 미술대학을 졸업한 젊은 작가들의 등장과 대관을 목적으로 한 화랑과 갤러리들이 곳곳에 개관하기 시작하면서 작품 활동을 위한 풍토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당시 대부분의 화랑과 갤러리의 대표는 전문가이기보다 대

부분 지역의 미술가이거나 미술가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업가와 의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공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개관한 화랑들은 작가를 지원하고 작품을 판매하는 일에 전문적일 수는 없었지만, 점차 화랑의 운영을 전문 미술인에게 맡기거나 전문 큐레이터를 고용함으로써 지역화단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화단의 분위기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등장하는 젊은 작가들의 동인 결성의 목표가 열악한 창작여건의 개선에서 중앙으로부터 흡수한 새로운 미술 사조와 미학을 실험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시기 수원화단에는 구상과 추상, 민중미술, 한국화, 여성미술, 공예, 디자인 등 다원화된 동인들의 활동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룹이 친분과 인맥 또는 작품의 장르에 따라 결성되면서 동인들 간의 갈등에 따라 집산(集散)을 거듭하였고 두터운 작가군을 형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며 중앙집중적인 정치체제와 권력이 지역으로 분배되는 지방 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미술계에도 일명 '지역미술시대'가 예고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분위기 속에서 수원의 미술가들은 중앙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생력을 가진 흐름을 형성하고자 했다. 그 결과 수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성을 통한 예술의 정체성 구축에 관심을 가진 그룹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수원화단에 활기를 불어넣는 주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시기에 활동한 킴아트 그룹은 수원의 지역성을 수원 화성과 그곳에 얽힌 역사에서 포착하였고, 슈룹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에서 발견하였다. 두 단체는 자신들이 발견한 지역의 특성과 생동감 넘치는 행위 예술 또는 실험적인 작품들과 결합하면서 기존의 조형어법을 전복시키는 독특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들이 지역을 화두로 펼친 예술적 사건들은 지역미술이 중앙화단의 획일적 흐름에 종속되지 않으며 자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었다. 동시에 주류 미술계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미술가들을 수원으로 초청하여 지역의 젊은 미술가들과 함께 새로운 흐름을 만들며 중앙화단의 비상한 주목을 이끌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성화단의 미술제도로부터 벗어난 실험적인 활동을 선보이기 위한 공간을 운영하며 새로운 형식의 예술을 선보이고자 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수원 미술은 중앙화단의 획일적인 틀에 종속되거나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두 곳을 오가며 지역성과 결합한 현대미술이라는 대안적인 흐름을 형성해 냈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수원지역에서 자생한 실험미술 그룹들의 활동은 수원

미술계에 탈중앙화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중앙화단과의 수평적이고 대등한 위치에서 지역미술의 잠재력을 보여 준 중요한 사건이었다.

1990년대 중후반으로 접어들며 점차 단체 결성을 통한 고정된 정체성이나 활동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젊은 작가들이 등장했고 일부 단체들만이 기존의 명맥을 유지하는 가운데 화단의 지형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등장한 젊은 작가들은 개별 활동에 큰 비중을 두었고 지역을 활동 거점으로 삼거나 지역성을 화두로 삼지 않았다. 수원 미술계를 형성했던 미술그룹은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었고 이외에도 작가들 간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미술그룹들이 결성되고 있으나 대부분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단발적으로 모일 뿐 지속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수원지역에서 자생한 미술에 주목하여 수원미술의 형성배경과 전개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이었다. 주류 미술사학계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수원 지역 미술의 형성과 전개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하기 위해 당시의 전시 리플릿, 신문기사, 미술잡지, 인터뷰 등의 1차 사료를 검토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본 논문은 1차 사료를 중심으로 수원미술의 형성과 전개의 흐름을 복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미술이 지닌 뚜렷한 정체성과 자생적 능력을 갖추었음을 밝히는 데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1970~1990년대 미술동인 내 개별 작가들의 작품경향, 당대 한국현대미술과의 관계 등에 대한 비평적 논의를 생략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본 논문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이 추후의 과제를 통해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19년 10월 30일 심사일 2019년 11월 19일~12월 2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6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경기도미술관, 2018, 『1980년대 소집단 미술운동 희귀자료 모음집』.
- 경기도미술관, 2010, 『2010 경기미술프로젝트:경기도의 힘 자료집』.
- 경기도미술관, 2018,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경기 아카이브_지금』, 아카이브 북.
- 수원문화원, 2018, 『수원문화원 60년사』.
- (사)한국미술협회 수원지부, 2007, 『수원미술 40년사 녹취자료』.
- (사)한국미술협회 수원지부, 2019, 『수원미술협회 50년사』.
- 고성훈 외 13인, 2014, 『수원시사 제7권 : 수원의 사회 변동과 주민생활』, 수원시사편찬위원회.
- 권혁성 외 12인, 2014, 『수원시사 제8권 :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수원시사편찬위원회.
- 김광기 외 19인, 2014, 『수원시사 제9권 : 수원의 문화와 예술』, 수원시사편찬위원회.
- 김권정 외 12인, 2014, 『수원시사제 10권 : 수원의 종교와 교육』, 수원시사편찬위원회.
-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2013, 『한국미술단체 100년』.
- 나혜석학회 엮음, 2016, 『나혜석을 말한다: 나혜석 관련 자료 모음』, 황금알.
- 리재현, 1999, 『조선력대미술가편람』,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박영택 외 7인, 2005, 『경기문화재단 기초연구 2004-04』.
- 슈룹 엮음, 2009, 『슈룹 프로젝트 20년 백두대간-히말라야』, 글을 읽다.
- 오광수, 1988, 『한국미술의 현장』, 조선일보사.
- 오광수 · 서성록, 2003, 『우리미술 100년』, 현암사.
- 오상길 · 이진용 · 김찬동 · 조광석 외, 2007, 『김성배 우연과 필연 사이』, ICAS.
- 윤범모, 2005, 『畫家 나혜석』, 현암사.
- 이동근 해제, 2011, 『일제강점기 조선일보 1920~1940 수원(水原) 관련 기사 자료집』, 수원 박물관.
- 이석기 엮음, 2016, 『수원미술관에 작지만 큰 울림을 준 갤러리 그림시』, 동인문화사.
- 이혁발, 2008, 『한국의 행위미술가들』, 다빈치기프트.
- 전원길 · 박일호 · 정준모 · 김복기 · 김성호 지음, 2007, 『독립아티스트들의 신미술문화 운동』, 독립작가연구회 엮음, 다빈치기프트.
- 정준모 외 9인, 2015, 『진화하는 지역미술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수원시.
- 조성운, 2013,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 최열, 2011,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청년사.

- 한국미술평론가협회, 2014, 『한국현대미술의 형성과 전개』.
한국현대미술사연구회, 2004, 『한국현대미술 197080』, 학연문화사,
한국현대미술사연구회, 2009, 『한국현대미술 198090』, 학연문화사.
홍오봉, 2012, 『경기 퍼포먼스 아트』, 다빈치기프트.

2. 정기 간행물

- 강신희, 1992, 「발전하는 수원의 화랑가」, 『수원사랑』 제47호, 수원문화원, 14~15쪽.
권용택, 「지역화단 소식」, 『미술세계』 통권 62호, 1990년 1월, 98쪽.
권용택 · 이길범 · 김석환 · 박용국 · 주영광 · 이숙 · 최춘일 · 홍오봉, 「지역성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좌담」, 『미술세계』 통권 69호, 1990년, 8월, 28~33쪽.
권용택, 「199008 지역미술의 현재: 지역미술로서의 수원미술」, 『미술세계』 통권 69호, 1990년 8월, 26~28쪽.
권용택, 「지방자치시대에의 기대」, 『미술세계』, 1991년 1월, 40~43쪽.
권용택, 「지역미술의 현재: 미술동인 새벽의 정치, 정치, 정치전과 킴아트 그룹의 교감예술제」, 『미술세계』 통권 68호, 1990년 7월, 34~35쪽.
권용택, 「지역미술의 현재」, 『미술세계』 통권 63호, 1990년 2월, 20~21쪽.
김리천, 「이즘과 그룹: 다각적인 활동을 통한 현대미술의 전개 한국미술청년작가회」, 『미술세계』 통권 49호, 1988년 11월, 66~69쪽.
김소형, 「수원에서 도쿄까지 東의 夢 교감전」, 『미술세계』 통권 108호, 1993년 11월호, 138~141쪽.
김윤정, 「새로운 발돋움: 경기지역미술의 어제와 오늘」, 『미술세계』 통권 77호, 1991년 4월, 44~49쪽.
김종길, 2003, 「근대 현실주의 미학의 주창자: 근대미술가 홍득순 행장(行狀)」, 『수원역사문화연구』 통권 3호, 수원박물관, 83~122쪽.
김종길, 2018, 「지역어로서 '수원미술'은 있다」, 『수원미술연구』 제2집,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13~39쪽.
김중 · 백일현 · 권대균 · 남부희 · 김동원 · 박치성 · 이찬우 · 김상일 · 추연공, 「경인지역 미술문화에 대한 기대」, 『미술세계』 통권 40호, 1988년 1월, 157~159쪽.
김진호 · 김덕길 · 이승우 · 권정찬 · 이현숙 · 권용택 · 오성 · 김진안, 「미술세계 지방리포터 좌담 : 87지방화단 점검 및 중앙과의 격차해소」, 『미술세계』 통권 40호, 1988년 1월, 44~47쪽.
라원식, 「사랑과 투쟁의 변증 속에서 상생한 노동미술 I -80년대 노동(해방)미술운동-」, 『미

- 술세계』 통권 95호, 1992년 9월, 102~108쪽.
- 라원식, 「사랑과 투쟁의 변증 속에서 상생한 노동미술Ⅱ -80년대 노동(해방)미술운동-」, 『미술세계』 통권 96호, 1992년 10월, 90~97쪽.
- 목수현, 「1930년대 경성의 전시공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0권,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97~116쪽.
- 박래경, 「국제 미술제 개최 환경으로서의 수원」, 『미술세계』 통권 116호, 1994년 7월, 182~185쪽.
- 박성태, 「동아시아 전위미술가들의 실험 열기」, 『월간미술』 통권 106호, 1993년 11월, 118~120쪽.
- 박영택, 「지역미술에 대한 자각과 전망」, 『미술세계』 통권 102호, 1993년 5월, 122~123쪽.
- 박일호, 「진시를 마치면서」, 『미술세계』 통권 146호, 1996년 12월호, 78~79쪽.
- 심광현 · 김봉준 · 김환영 · 정지영 · 손문상, 1990, 「특집 노동미술(좌담 - 현 단계 노동미술의 정황과 문제점)」, 『민족미술』 제9호, 민족미술협의회.
- 윤진섭 · 이경근 · 박용국 좌담, 「컴아트 그룹의 야외미술제 열풍」, 『월간미술』 통권 99호, 1992년 7월, 128~133쪽.
- 윤진섭, 「문화적 게릴라로서의 컴아트 그룹」, 『미술평단』 No. 30, 1993년 가을호, 53쪽.
- 이동근, 2007, 「일제강점기 수원청년동맹의 활동과 인물」,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1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89~230쪽.
- 이민수, 2014, 「1980년대 한국화의 상황과 갈등: 미술의 세계화 맥락에서 한국화의 현대성 논의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39권, 한국미술연구소, 107~136쪽.
- 이보연, 「1990년대 중국 아방가르드 미술의 전개와 특징: '후89미술'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사연구』 제34권, 2013년 12월, 현대미술사학회, 209~241쪽.
- 이재언 · 이승우 · 권용택 · 권정찬 · 이종봉 · 김철겸 · 김성식 · 박도성, 「좌담 지역미술의 특수성 발현을 위한 모색」, 『미술세계』 통권 73호, 1990년 12월, 144~155쪽.
- 임재광, 「한국현대미술의 지역적 특성에 관하여 : 80년대 이후의 미술을 중심으로」, 『미술세계』 통권 137호, 1996년 4월, 114~123쪽.
- 장인태, 「해체공간의 게릴라들 '96 수원국제교감예술제」, 『미술세계』 통권 146호, 1996년 12월, 72~79쪽.
- 키다 에미코, 2003, 「수원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11권,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77~108쪽.
- 수원문화원, 「갤러리 수원 그림 임대합니다」, 『수원사랑』 제64호, 1993년 6월, 30~31쪽.
- 수원문화원, 「갤러리 올」, 『수원사랑』 제91호, 1995년 9월, 34~35쪽.

수원문화원, 「문화공간탐방 예술공간 슈룸 아트넷」, 『수원사랑』 제97호, 1996년 3월, 50~51쪽.
수원문화원, 「연(淵)화랑」, 『수원사랑』 제92호, 1995년 10월, 20~21쪽.
수원문화원, 1989, 「정화랑」, 『수원사랑』 제39호, 61~62쪽.
수원문화원, 「문화공간탐방 진솔갤러리」, 『수원사랑』 제89호, 1995년 7월, 33~35쪽.
편집부, 「충체예술을 펼치는 「컴아트 그룹」 장르를 초월해 대중과 호흡, 역사의 현장 부각시킨다」, 『주간조선』 제1110호, 1990, 60~63쪽.

3. 신문기사

「檢定許可한 美한을 中止식이고 檢舉 水原警察의 怪態」, 『중외일보』, 1930년 4월 8일, 3면.
「국제교감예술제 만리장성 간다」, 『경기일보』, 1994년 5월 19일, 10면.
「宮內省 及李王家에서 鮮展作品을 買上 斯道獎勵의 意味로」, 『매일신보』, 1929년 9월 2일, 2면.
「녹음 짚은 야외서 예술가들과 교감음」, 『한겨레』, 1992년 7월 23일, 9면.
「더위 식힐 미술축제 풍성」, 『일간스포츠』, 1992년 7월 31일, 10면.
「同人들 수원 일구팔이일이」, 『경인일보』, 1985년 7월 29일, 6면.
「羅女史畫展 수원에서 개최」, 『동아일보』, 1929년 9월 23일, 4면.
「羅蕙錫女史 歐美寫生展覽 그의 故鄉인 水原에서」, 『중외일보』, 1929년 9월 24일, 3면.
「미술 축제로 무더위 식힌다」, 『동아일보』, 1992년 7월 8일, 12면.
「水原 미술가 다섯간展」, 『경인일보』, 1990년 1월 18일, 10면.
「수원 미술교육자展 열어」, 『경인일보』, 1986년 12월 23일, 6면.
「水原 미술동인 始作會」, 『경인일보』, 1985년 8월 27일, 6면.
「수원 시내 전시실들 최근 들어 성황 이뤄」, 『경인일보』, 1982년 2월 4일, 5면.
「수원 젊은 작가 모임 시맥 창립전」, 『경인일보』, 1990년 6월 5일, 8면.
「水原警察에서 美術寫眞押收」, 『중외일보』, 1930년 4월 4일, 2면.
「수원미술인협의회 창립전」, 『경인일보』, 1991년 4월 2일, 6면.
「수원상업미술작가 SID展」, 『경인일보』, 1986년 12월 22일, 6면.
「수원에 갤러리 '이음'開館」, 『경인일보』, 1991년 12월 4일, 8면.
「수원에 갤러리 「낮은 언덕」 문 열어 미술의 대중화 모색」, 『경인일보』, 1992년 7월 10일, 8~9면.
「수원에 상업화랑 '성원갤러리'개관」, 『경인일보』, 1994년 3월 2일, 8면.
「수원에 상업화랑 갤러리 '울'개관」, 『경인일보』, 1994년 2월 8일, 8면.
「수원에 서양화 전문화랑 '갤러리 수원'개관」, 『경인일보』, 1992년 9월 23일, 8면.

- 「水原에 洋畫展 同門會主催로」, 『동아일보』, 1933년 4월 6일, 3면.
- 「수원의 「더 젊은」 미술인들 8명 始作會 만들고 創立展」, 『경인일보』, 1983년 7월 8일, 11면.
- 「水原지역 전시장 개관·확장 잇따라 서양화가 박영복씨 화랑 열어 올 갤러리·경기서적 “공간 확대”」, 『경인일보』, 1995년 7월 8일, 8면.
- 「水原靑盟 常務執行委員會」, 『중외일보』, 1930년 3월 21일, 4면.
- 「수원화단에 새바람-민중미술 리얼리즘 활동 본격화」, 『경인일보』, 1989년 3월 17일, 6면.
- 「始作會 만들고 創立展」, 『경인일보』, 1985년 7월 8일, 6면.
- 「신예작가 9인 설치미술展」, 『경인일보』, 1990년 4월 20일, 9면.
- 「실험·전위예술가 「바깥미술」 잔치」, 『중앙일보』, 1992년 7월 29일, 18면.
- 「자연과 더불어 펼쳐지는 여름전시회」, 『세계일보』, 1992년 7월 11일, 14면.
- 「젊은 작가들 공동화랑 첫선 동숭동에 문 연 소나무갤러리」, 『중앙일보』, 1990년 5월 22일, 11면.
- 「제10회 경기청년미술작가회전」, 『경인일보』, 1984년 6월 1일, 6면.
- 「검아트 그룹 교감예술제 지상토론」, 『경인일보』, 1992년 7월 23일, 8면.
- 「푸로레타리아 美展을 禁止」, 『동아일보』, 1931년 3월 7일, 7면.
- 「푸로레타리아 第一回美術展覽 藝術同盟水原支部主催」, 『중외일보』, 1930년 3월 19일, 4면.
- 「푸로美展에 對한 經過顛末을 發表 水原同主催側에서」, 『중외일보』, 1930년 4월 10일, 4면.
- 「한국미술청년작가회」, 『중앙일보』, 1979년 7월 18일, 4면.
- 「韓相敦洋畫展」, 『동아일보』, 1934년 10월 23일자, 3면.
- 「行爲美術 수원에서 “첫선”」, 『경기일보』, 1990년 1월 19일, 8면.
- 「화가 박영복씨 전시장 「진솔화랑」개관」, 『경인일보』, 1995년 5월 4일, 8면.
- 「휴가철 잇단 국제미술잔치」, 『조선일보』, 1992년 7월 24일, 20면.
- 남관, 「白榮洙氏의 近作洋畫展」, 『경향신문』, 1948년 6월 27일, 4면.
- 박승극, 「푸로美展을 보내며 主催側으로서의 短想(中)」, 『중외일보』, 1930년 4월 6일, 1면.

4. 전시자료(전시도록, 전시리플릿, 활동자료집 외)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7, 『1980-1990년대 수원의 실험미술 그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
- 경기도미술관, 2010, 『경기도의 힘』.
- 경기도미술관, 2018, 『경기 천년 도큐페스타 경기아카이브_지금』.
- 경인미술관·월간미술세계, 1988, 『京仁作家招待展』.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8, 『권용택, 새벽의 몸짓』.
- 수원박물관, 2010, 『근대 수원 100년』.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7, 『김인겸, 공간과 사유』.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8, 『김학두: 매 순간, 영원히』.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5, 『수원 지금 우리들 NOW US | SU WON』.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6, 『시대의 선각자 나혜석을 만나다』.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6, 『이야기 주머니 이야기: 이억배 그림책 원화전』.
- 조선총독부, 1934, 『第十三回朝鮮美術展覽會圖錄』.
- 조선총독부, 1935, 『第十四回朝鮮美術展覽會圖錄』.
- 조선총독부, 1938, 『第十七回朝鮮美術展覽會圖錄』.
- 조선총독부, 1940, 『第十九回朝鮮美術展覽會圖錄』.
- 성목회, 「창립취지문」, 1982년 4월 11일.
- 『91 交感藝術祭』, 1991.
- 『92 국제교감예술제』, 1992.
- 『93 교감예술제』(자료집), 1993.
- 『2回 京畿青年美術人會展』, 1979.
- 『93 국제교감예술제』, 1993.
- 『94 북경 국제교감예술제』, 1994.
- 『京畿青年美術人會 創立展』, 1979.
- 『권용택 개인전』, 1990.
- 『수원 작업일지전』, 1990.
- 『수원국제교감예술제』, 1996.
- 『수원미술인협의회 창립전』, 1991.
- 『슈룹 기획전 - 경중가인』, 2003.
- 『時點視點』, 1984.
- 슈룹조형연구소, 1995, 『아리랑 이어지는 自紮』.
- 『융합 · 21C』, 1990.
- 『장안문에서 천안문까지: 북경 · 한국현대미술의 육성(肉聲)』, 1993.
- 『제1회 국제교감예술제』, 1990.
- 『제2회 국제교감예술제』, 1991.
- 『제2회 월간미술대상 시상식』, 1997.10.10.
- 『제3회 국제교감예술제』, 1992.
- 『컴아트 그룹 활동 기사 모음』, 1994.
- 『한국현대미술 조망: 중심축(中心軸)』, 1996.

『COM-ART GROUP 1990.1.1.~1994.5.20.』, 1994.

『THE INTERNATIONAL COM-ART SHOW IN SUWON '96』, 1996.

5. 구술자료

김학두 외 5인 구술(채록연구자 김남규 외 6인), 2017, 『수원근현대사 증언자료집 IX 수원의 문화예술을 기억하다(미술·연극)』, 수원박물관.

이길범(채록연구자 신수경), 2007,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이채영(면담자), 2015, 「수원지역 미술인 인터뷰(김성배 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개관 기념전』, 아카이브 영상.

이채영(면담자), 2015, 「수원지역 미술인 인터뷰(김석환 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개관 기념전』, 아카이브 영상.

이채영(면담자), 2015, 「수원지역 미술인 인터뷰(이억배 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개관 기념전』, 아카이브 영상.

이채영(면담자), 2015, 「수원지역 미술인 인터뷰(이윤숙 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개관 기념전』, 아카이브 영상.

이채영(면담자), 「홍승인 작가 인터뷰」, 2017년 11월 30일.

요 약

본 연구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수원 지역에서 자생한 현대미술의 흐름에 관한 것이다. 지리적으로 수원은 서울과 매우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중심부에서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를 잇는 관문으로서 역할 해왔다. 일제강점기 수원화단(畵壇)은 한국의 첫 여성 유화가 나혜석을 비롯하여 신학문인 서양화를 다루는 미술가들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수원은 한국전쟁 당시 비행장이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까닭에 치열한 격전지가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지역 화단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작가들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1950년대 후반 수원은 도시 재건과 구호 사업으로 점차 안정화를 찾기 시작하였다. 1963년 경기도청 이전이 확정되면서 유입되는 인구가 급증하였는데, 특히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교육기관과 재직교사의 수가 함께 늘어났다. 자연스럽게 타지역 출신의 교사들이 근무를 위해 수원으로 전입하였고, 그 가운데 미술 교사들은 수원화단을 새롭게 조직하는 주역이 되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며 점차 수원 출신으로 미술대학을 졸업한 청년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구상과 추상의 형식적 분류에 따라 현대적 표현양식과 조형성을 추구한 집단과 민중미술, 디자인, 한국화, 공예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소그룹들이 조직되었다. 더불어 화랑과 갤러리를 비롯한 전시 공간들이 곳곳에 조성되면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고 새로운 미술경향을 실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었다. 1980년대 지역 화단을 이끌었던 젊은 세대 미술가들의 활력 있는 분위기는 설치미술과 행위미술을 표방한 콤아트 그룹(COM-ART)과 슈룹(SHUROOP)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두 그룹은 1990년대 한국미술계를 향해 지역미술의 잠재적 역량과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들을 기획하며 주류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수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중앙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생력을 가진 현대미술의 흐름을 조직하고자 했고 지역성을 통해 예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1970~1990년대를 중심으로 수원지역 화단의 활동과 전

개에 주목한 연구이다. 지리적으로 수원은 경기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중앙의 문화와 유행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이점을 가졌지만, 오히려 이는 미술계가 지역 특유의 감수성을 형성하기에는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를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었던 수원의 미술가들은 지역의 현실에 조용한 미술동인을 결성하였다. 그 가운데 1990년대에 등장한 실험미술 그룹의 활약은 지역미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착화된 서울 중심의 미술사적 서술에 따라 수원미술은 중앙의 흐름에 일부 편입되거나 생략된 상태로 존재하면서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익명의 미술사로 사장되었던 수원미술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원에서 자생한 미술이 중앙화단을 비롯한 타 지역의 미술과는 다른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 수원미술, 지역미술, 한국현대미술, 컴아트 그룹, 슈룸

ABSTRACT

A Study on Creation and Development of the Local Art Communities from the 1970s to the 1990s in Suwon

Lee Chae-Young

This study is about contemporary art trends which had arisen naturally in Suwon from the 1970s to the 1990s. Suwon is geographically very close to Seoul and located in the central Gyeonggi Province, serving as a gateway to Chungcheong, Jeolla, and Gyeongsang Provinces.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city produced artists of western paintings, new forms of art back then. Na Hyeseok, Korea's first female oil painter, was one of such artists. However, Suwon soon turned into a field of fierce aerial combat during the Korean War because of its strategic location with Suwon airfield. Under the circumstance, it was hard to expect artists in the local art communities to continue their artistic activities.

Suwon started to regain peace in late 1950s, thanks to the efforts put on city's restoration and relief works. Its population has grown rapidly since the decision on the relocation of the Office of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to Suwon was made in 1963. Especially, a surge of incoming students also brought an increasing number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eachers from other regions moved in for work. Art teachers among them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art communities in Suwon. In the 1970s, young painters from Suwon, who graduated from art colleges, started to make their appearance in the field. In the 1980s, following the formal categorization of plastic arts and abstract arts, communities in pursuit of modern artistic expressions and formativeness, as well as smaller groups embracing various genres such as public art, design, Korean art, craft, were organized. In addition, as more exhibition halls and galleries were

created, artists were given more opportunities to show their works and try new art trends. The young painters leading the local art communities created COM-ART GROUP and SHUROOP, pursuing installation art and performance art in the 1980s. Events designed by the two organizations caught the attention of the mainstream art world and showed the potential and competence of local art of Suwon in the 1990s. Especially, Suwon-based artists tried to form a specific stream in the art world, with its own ability to survive and grow. They placed the local art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mainstream and showed a special interest in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artworks by regional characteristics.

To conclude, this paper focuses on the development and activities of the art communities of painters in Suwon from the 1970s to the 1990s. As a city located at the center of Gyeonggi Province, the Suwon-based artists could be easily inspired by other regions' culture or trends, however, its geographical location also made them hard to develop their own unique artistic sense. The artists, who understood this well, organized the local art communities, suited to the reality of the region. Especially, the appearance of the experimental art groups in the 1990s caught the attention of art circles and became a great example of showing the potential and competence of the local art. Nevertheless, the art trends in Suwon have not been studied enough since they have been regarded as part of the mainstream trends that are focused too much on art trends in Seoul.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rt trends of Suwon which have been ignored or only considered as some nameless trends in art history. Through such considerations, it aims to shed light on the development of local arts of Suwon and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compared to other regions as well as the mainstream Korean art.

Key words : Suwon art, Local art, Korean contemporary art, COM-ART, and SHUROOP

수원시민들의 정치가에 대한 평가와 구(區)별 투표율 변화에 대한 연구

장연수*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이론 및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4. 수원시민들의 정치가에 대한 인식
5. 수원시 여·야 정당별 지지율 분석
6.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현대 정부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에 참여하여 지지하는 사람에게 표를 줌으로 대표자를 선출한다. 어떤 사람이 대표자로 선출되는지는 중앙·지방정부의 장래를 이끌어 갈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는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OECD 국가인 호주는 1915년 주 지방선거에서 의무투표제를 실시하였고, 이어 1925년부터는 재판에 회부시켜 20~50달러의 벌금¹을 내도록 하고 있다. 1893년 세계 최초로 의무투표제를 실시한 벨기에는 1회 불참 시 50유로, 2회 불참 시 125유로의 벌금²과 여권발급 및

* 전 경기대학교 대우교수(Former professor of Daewoo, Kyonggi University), E-mail : younjys@naver.com

1 <https://www.ymca.pe.kr/1425>; <http://blog.daum.net/challaok/11784482>(호주의 선거불참과 벌금).

2 룩셈부르크는 99유로에서 최고 991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벨기에는 벌금과 함께 4번 이상 불참 시 10

공직진출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³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통계를 보면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평균 70%를 넘었으나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46.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51.6%로 낮았던 참여율이 제7회에는 60.2%로 높아졌다. 제7회 지방선거 때에 투표에 불참한 사람들은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거나 정치가들에 대한 불신, 투표에 대한 무관심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⁴

선거에서 투표는 의식이나 생각에 의지적 방향감이 더해져 행동으로 나타난다.⁵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 3항에 나타나 있듯이 주민은 지역의 주인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투표결정은 이러한 여러 동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하나의 정당과 후보자에 투표하게 되기 때문에 정당성(propensity of political parties; 당파성(partisanship))이 제1요인이며, 사회경제적 지위나 당선경쟁도 등의 제2요인들이 제1요인과 결합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장연수의 2012년 수원시민 설문결과를 보면 투표에서 지지자를 결정할 때 여당(새누리당)을 보고 결정 14.2%, 야당을 보고 결정 11.6%이었으나,⁶ 2019년 설문에서는 정당을 보고 결정하는 사례가 18.1%, 출마자의 정책 53.2%,⁷ 출마자 인품을 보고 27.0%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수원시의 투표 결정은 정당을 보고 결정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치가들이 의도적으로 보수와 진보성향을 내세워 유권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양상이 점차 심화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도 당파성에 편승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2002년 이후 수원시 4개

년간 참정권이 박탈되며 공공기관에 취업을 못한다. 또한 브라질은 최저임금의 3~10%의 벌금과 함께 공직 진출에 제한(<https://www.ymca.pe.kr/1425>)을 하며, 볼리비아는 투표 불참 시 3개월간 은행에서 월급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https://www.ymca.pe.kr/1425>).

3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40717438250254>(리얼리 타임뉴스, 황국상기자: 벨기에 투표).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율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5 신명희·강소연, 2018, 『교육심리학』, 학지사; 김경미·유희, 2013, 『정치 심리학』, 사람의 무늬(Houghton, David P., 2008, Political Psychology: Situation, Individuals, And Cases, Florida University).

6 장연수, 2014, 「수원시민의 정치의식과 정치참여」, 『수원시사 4 :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7 2015년 김성연의 연구에서는 정책의 선호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구별 투표결과를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선거 득표율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4개 구별로 제16~19대 대통령, 제17~20대 국회의원, 제4~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지사·시장·도·시의원)에 걸쳐 여당과 제1야당에 대한 득표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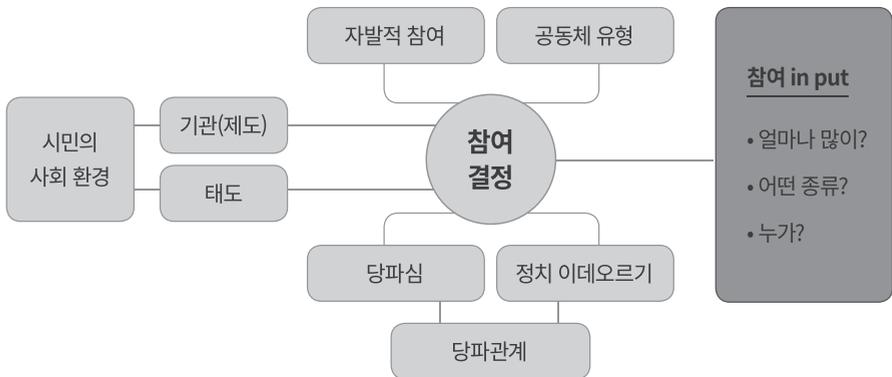
문제1 수원시민들의 정치가에 대한 평가와 투표참여 의식은 무엇인가?

문제2 수원시에서 중앙선거(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선거)에서 구별 정당 지지율은 어떠한가?

문제3 수원시의 중앙선거와 지방선거에 대한 구별 정당 지지율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문제4 수원시의 중앙선거(대선·국선)와 지방선거에서 구별 정당 지지율의 차이에 관련된 다른 요인이 있다면 무엇인가?

2. 이론 및 선행연구



〈그림 1〉 미국의 시민의 투표참여 모형(Verba &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n* 재구성)

1) 선거와 투표참여 이론

(1) 사회경제적 지위이론

투표참여를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연구한 이론이 있는데 소득, 교육, 거주지, 계층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선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지식과 기회 및 관심, 여유와 시간이 많기 때문에 투표참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⁸ Verba와 Nie는 투표참여에 대한 결정요인이 어떻게 작용하여 누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참여로 in put되는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2) 기대효용이론

선거와 투표참여에 대해 시민이나 국민은 선거에서 어떤 정당이나 후보가 당선 되었을 때 투표자에게 돌아올 이익이 선거정보 획득이나 시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보다 클 경우 투표참여율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기대효용이론이라 한다. 이는 단기적 차원에서 선거에서 당선가능자와 그 다음 후보자 간의 득표가 예상하기 어려울 경우 투표참여에 대한 가치가 높다는 점과 복합적 수준에서 투표하려는 의지 내지는 의무감과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의지 등 주관적 관점을 내포한다.⁹

(3) 인구통계학적 관련변인(빈부 차, 보수와 진보, 성별, 종족, 연령 등)이론

선거에서 어떤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가의 의문을 풀고자 미국 인구 조사국의 자료를 토대로 1972년 이후 40년간의 미국 대통령선거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부유층이 빈곤층보다 꾸준히 투표했으며 유권자들이 훨씬 더 보수적이라는 결론을 얻

8 Verba, Sidney &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Harper & ROW, Publishers.

9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었다. 또한 흑인과 백인 간의 투표율 격차가 좁혀졌고, 고령층이 젊은 층에 비해 투표율이 높았다. 결국 누가 투표하고 누가 투표하지 않는나의 지속적인 계급 편견이 정치적 결과를 지속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¹⁰

2) 투표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1) 투표참여 관점의 전개

1970년대 알몬드와 버비¹¹는 미국의 정치체제 전반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정도를 비교하였으며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Easton과 Hess,¹² Verba와 Nie¹³에 의해 진행되었다. Verba와 Nie¹⁴는 투표참여에 대해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여건, 제도적 환경 등 다양한 결정요인들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¹⁵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는 주로 정치체제 면에서 ‘정치의식’, ‘투표행태’ 등을 연구하였다. 1980년대에는 도시빈곤층, 중산층 등 사회계층에 관한 연구가 전개되었다.¹⁶ 선거에서 투표 참여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에 대한 국내·외 연구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념적·당파적 투표율

유권자들은 평소 집권 여당이나 야당을 지지하는 당파성에 입각하여 지지자를

-
- 10 Leighley, Jan E., & Nagler, Jonathan, 2014, *Who Votes Now?: Demographics, Issues, Inequality, and Turnout in the United Stat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1 Almond, Gabriel A. and Verba, Sidney.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2 Easton, David and Hess, R. D., 1962, "The Child's Political World", *Mideast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
- 13 Verba, Sidney &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Harper & ROW, Publishers.
- 14 Verba, Sidney &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Harper & ROW, Publishers.
- 15 김태룡, 1986, 「정치참여: 경향과 조망」, 『상시대 논문집』 7; 신원득, 1990,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요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배성동, 1985, 「공명선거를 위한 의지와 정책방향」, 『국책연구』 1(3), 55~71쪽.
- 16 최충규, 1983, 「한국대학생의 정치정향과 정치참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형기, 1983, 『지방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선택한다. 이를 보기 위해 미국 대통령, 상원의원 및 주지사 선거를 분석한 결과 1928~1964년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 1968~1996년 초기에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전이되었다.¹⁷ 장승진은 한국의 18대 대선에서 정당 편향 유권자들은 특정한 정당에 대한 분명한 선호와 감정을 동시에 내보인다 하였고,¹⁸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념적 정당성향이 강하고, 생활정치를 강조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이념은 영향 없다.’로 보았다.¹⁹ 또 2002년 수원시 지방선거에서 정당성(당파성)이 작용하며,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권유하는데 40~50대에서는 투표참여가, 60대 이상에서는 정치집회 참여가 다른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 하였다.²⁰

② 사회경제적 지위와 투표율

미국의 소득, 교육, 거주지, 계층 등의 연구에서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선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지식과 기회 및 관심, 여가시간이 있기 때문에 투표참여가 가능하다.²¹ 그러나 한국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삶의 질·사회복지 영역의 질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낮았고, 주거환경, 교육문화 영역의 삶의 질이 높으면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리고 본인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과는 관련이 없었다.²²

③ 도시화규모와 당선경쟁도·정책선호 및 처벌동인과 투표율

도시규모와 투표율 관계를 보면 도시화는 투표율과 부적상관을 보였고, 광역시

17 Nagel, Jack H. and McNulty, John E., 1996, "Partisan Effects of Voter Turnout in Senatorial and Gubernatorial Election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0. no. 4, pp.780-793.

18 장승진, 2013,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투표행태: 정당 편향 유권자(partisan leaners)의 특성과 투표 선택을 중심으로」,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연구지원, NRF-2013S1A3A204285.

19 김옥, 2006, 「선거의 유형과 투표참여」, 『한국정치연구』15(1),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99~121쪽.

20 장연수·김익식, 2004, 「지역사회 정치문화 및 주민참여에 관한 경험적 연구(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회보』 16(4), 31~49쪽.

21 Verba, Sidney &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Harper & ROW, Publishers, 56~98쪽.

22 이혁진, 2015, 「지역별 삶의 질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분석 : 투표참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 자치구는 선거인수 규모 및 지역과는 영향이 없고, 정당성향이 투표율을 높인다 하였다. 그리고 단체장의 당선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대효용이론에 근거하여 투표율이 높고, 현 단체장이 재출마 시 처벌동인이 강해 투표율이 높다고 하였다.²³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정치에 대한 환멸이나 불만족에 기인하는데 이는 경제, 인구 통계, 문화 등의 제도적 요인과도 결부되어 있다.²⁴ 2012년 인천시 양대 선거에서 정책 선호는 차이는 없고, 연령·소득·학력 효과가 있었는데,²⁵ 이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관측되어 온 것과 일치한다.²⁶ 이 외에도 선거에 대한 편의성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었다.²⁷

④ 연령과 투표율

인천시 19대 국회의원선거 분석에서 이재철은 시민적 의무감과 연령은 투표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며 젊은 연령층은 무당파형이 높고, 노년층은 당파성이 높았다.²⁸ 2012년 양대 선거에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투표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있다.²⁹

-
- 23 Kernell, Samuel, 1977, "Presidential Popularity and Negative Voting: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the midterm congressional decline of the president's par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pp.44~66; 황아란, 2011, 「기초단체 지방선거 투표율의 결정요인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1), 5~24쪽.
- 24 Bennett Stephen Earl & Resnick David, 1990, "The Implications of Nonvoting for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 pp.771~800.
- 25 이재철, 2016,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인천시 유권자의 투표 참여 : 서울시 및 경기도와 비교 분석」, 『인천학연구』 25, 239~270쪽; 이준한, 2011, 「인천광역시 투표율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 투표참여를 통해 본 인천의 정치문화」, 『인천학연구』 14, 243~274쪽.
- 26 김성연, 2015,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와 사회경제적 배경 : 2012년 양대 선거를 중심으로」,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22(4),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41~67쪽.
- 27 강황선·이명행, 2012, 「유권자의 지방선거 투표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유권자 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14(3), 33~58쪽.
- 28 이재철, 2013, 「유권자의 연령별 투표참여 분석 :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1(2), 121~153쪽.
- 29 조진만, 2010, 「민주시민 의식과 투표참여 : 정치교육에 대한 함의」,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1), 85~104쪽.

3.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자료

연구대상은 수원시와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4개 구의 네 번에 걸친 선거율과 득표율이다.³⁰ 즉, 제16~19대 대통령선거, 제17~20대 국회의원선거, 제4~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에서 구별로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에 대한 득표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선거 자료 16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 선거 간행물 8권이다. 그리고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해 수원시민들의 정치참여 의식과 선거 시 반영할 내용 및 당파성에 대해 수원에 거주하는 20~60대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계통추출을 한 후 역이나 터미널 및 공원 및 길에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여 248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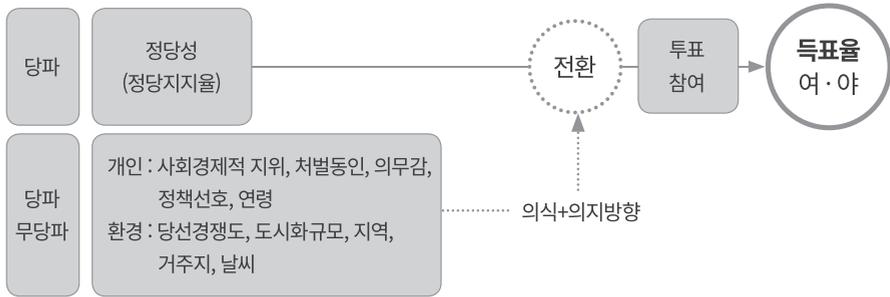
2)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첫째, 대통령선거에서 지방의 시의원선거에 이르기까지 구별로 여·야에 대한 득표율이 어떠한지 정성-정량분석하였다. 둘째, 분석결과 구별로 득표율이 다르게 나타날 경우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해 차이검증과 교차분석(cross-tab analysis)을 하였다.

3) 분석틀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정책과 후보자의 인품 등 다각적 차원에서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지지자에게 투표할 것이 요구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 및 지역성향을 내세워 정당성에 편승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데 투표참여이론과 선행연구

30 분석표에 제시된 전국과 경기도 투표율 자료는 수원시와 구의 자료 값을 해석할 때 전국이나 경기도 전체의 투표율에 비해 투표수준이 어떠한지를 가늠하고자 같이 제시되었다.



〈그림 2〉 연구 분석 틀

를 종합하여 연구에 적용할 분석 틀을 마련하였는데 〈그림 2〉와 같다.

〈그림 2〉와 같이 당파성을 가진 사람은 지지정당에 투표하지만 보편적인 당파성이나 무당파성향의 투표자는 개인과 환경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전환을 통해 투표로 행동화된다. 투표참여 결과는 여당과 야당의 득표율로 종결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여당과 제1야당의 득표율을 주요 분석 자료로 삼았다.

4. 수원시민들의 정치가에 대한 의식

1) 인구학적 분석

선거에 참여하는 수원시민들이 정치참여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투표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시민들이 보는 정치인에 평가와 투표할 때 그들이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248명의 인구학적 내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문결과를 분석한 〈표 1〉을 보면 남자가 45.6%, 여자 54.4%, 연령은 20대 25.0%, 30대 21.0%, 40대 21.8%, 60대 이상 10.9%의 적절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학력 면에서는 중졸이하 1.6%, 고졸 50.8%, 대졸 44.4%, 대학원졸 3.2%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이 선거정보를 얻는 뉴스원은 인터넷 54.0%, TV 35.9%, 신문 8.9% 순이었다. 그리고 설문자의 성향을 보면 남성의 23.9%는 진보성향, 18.6%

는 보수성향이었고, 여성의 경우는 22.1%가 진보, 17.3%가 보수성향인데 진보가 보수성향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연령에서 진보는 20%대로 비슷하나 보수는 20~30대에서 낮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1〉 설문자에 대한 인구학적 분포 비율

구분		응답수	성향(%)			
			진보	보수	중간	무관
성별	남자	113명(45.6%)	23.9	18.6	47.8	9.7
	여자	135명(54.4%)	22.1	17.3	47.3	13.3
연령	20대	62명(25.0%)	19.0	9.5	50.8	20.6
	30대	52명(21.0%)	28.8	5.8	50.0	15.4
	40대	54명(21.8%)	16.7	18.5	53.7	11.1
	50대	53명(21.4%)	22.6	28.3	39.6	9.4
	60대 이상	27명(10.9%)	25.9	33.3	37.0	3.7
학력	중졸이하	4명(1.6%)	0	50.0	50.0	0
	고졸	126명(50.8%)	26.8	16.5	44.9	11.8
	대졸	110명(44.4%)	18.2	17.3	48.2	16.4
	대학원졸	8명(3.2%)	12.5	12.5	5.0	0
선거정보뉴스원	신문	22명(8.9%)	22.7	36.4	36.4	4.5
	TV	89명(35.9%)	17.8	20.0	47.8	14.4
	인터넷	134명(54.0%)	25.4	11.9	50.0	12.7
	기타	3명(1.2%)	0	33.3	0	66.7
평균 비율(%)			18.83	21.95	40.57	13.93

2) 정치가에 대한 평가와 투표참여 의식

시민들이 정치인을 보는 의식은 〈그림 1〉의 Verba & Nie의 모형에서 볼 수 있듯이 의식이 행동화되어 정당(party) 지지로 표현되는데 수원시민의 정치인에 대한 평가와 투표참여 의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수원시 정치인 부패·봉사·신뢰도·태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기득권 및 정치가와 공무원 부패수준에 대한 생각	구 분	부패가 전혀 없다	부패 없다	보통이다	부패가 심하다	부패가 아주 심하다	합계
	응답수 (%)	1명 (0.4)	22명 (8.9)	143명 (57.7)	68명 (27.4)	14명 (5.6)	
정치인의 자기 희생과 봉사 수준에 대한 생각	구 분	아주 많이 봉사	많이 봉사	보통이다	봉사 안 함	전혀 봉사 안 함	합계
	응답수 (%)	1명 (0.4)	9명 (3.6)	83명 (33.5)	127명 (51.2)	28명 (11.3)	
시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생각	구 분	아주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보통이다	믿을 수 없다	전혀 믿을 수 없다	합계
	응답수 (%)	1명 (0.4)	16명 (6.5)	84명 (33.9)	123명 (49.6)	24명 (9.7)	
시장과 시의원 태도에 대한 생각	구 분	친절하다	보통이다	권위적이다	아주 권위적		합계
	응답수 (%)	40명 (16.1)	125명 (50.4)	69명 (27.8)	14명 (5.6)		

수원시민들의 기득권 및 정치가와 공무원 부패수준에 대한 생각을 보면 부패가 없다고 보는 사람은 9.3%(23명)로 낮고, 부패가 심하다고 보는 사람은 33.1%(82명)로 비교적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정치인의 자기희생과 봉사 수준에 대해서는 봉사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4.0%(10명)로 낮고, 봉사 안 한다고 보는 사람은 62.5%(155명)로 부정적 견해가 아주 높다. 시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보면 믿을 수 없다는 불신적 견해가 59.3%(147명)로 높다. 시장과 의회위원들의 시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설문한 결과 친절하다고 평가한 사람은 16.1%(40명), 권위적이라 평가한 사람은 33.4%(83명)로 부정적 태도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치가들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권력을 잡기 위해 서로 상대를 흠집 내는 일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을 다음 선거에 반영하려는 생각이 어떠한지 설문하였다.

〈표 3〉 최근 정치가들의 행동을 선거할 때 반영하려는 의식수준

구분	반영하겠다	보통이다	원래 지지당에 투표	전혀 무관심	계	
성별	남자	87명(77.0)	20명(17.7)	3명(2.7)	3명(2.7)	113명(100)
	여자	109명(80.7)	15명(11.1)	9명(6.7)	2명(1.50)	135명(100)
	소계	196명(79.0)	35명(14.1)	12명(4.8)	5명(2.0)	248(100)
학력	중졸이하	3명(75.0)	1명(25.0)			4명(100)
	고졸	102명(80.9)	18명(14.3)	5명(4.0)	1명(0.8)	126명(100)
	대졸	83명(75.5)	16명(14.5)	7명(6.4)	4명(3.6)	110명(100)
	대학원졸	8명(100)				8명(100)
	소계	196명(79.0)	35명(14.1)	12명(4.8)	5명(2.0)	248명(100)
성향	진보성향	45명(83.3)	2명(3.7)	7명(13.0)		54명(100)
	보수성향	28명(65.1)	9명(20.9)	5명(11.6)	1명(2.3)	43명(100)
	중간	101명(85.6)	15명(12.7)		2명(1.7)	118명(100)
	무관심	22명(66.6)	9명(27.3)		2명(6.1)	33명(100)
	소계	196명(79.0)	35명(14.1)	12명(4.8)	5명(2.0)	248명(100)

성별로 분석한 결과 선거에 반영하겠다는 비율이 80% 수준을 이루며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서 약간 높았다. 학력의 경우 대학원졸업자들에서 100%, 고졸에서 80.9%, 대졸과 중졸이하에서는 75%대로 나타나 고학력일수록 선거 때 반영의지를 높게 보이고 있다. 성향의 경우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은 87%, 보수성향을 가진 사람 86%, 중간성향 98%로 나타나 선거 때에 정치인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행태를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표 4〉 투표에서 지지자 선택 방법

구분	정당을 보고 결정	출마자 인품을 보고 결정	출마자 정책을 보고 결정	지인의 권유에 따라 결정	선후배·인척관계로 결정	계
응답수(%)	45명(18.1)	67명(27.0)	132명(53.2)	1명(0.4)	3명(1.2)	248

수원시민들이 투표에서 지지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보면 정당을 보고 결정한다는 당파성 18.1%, 출마자 인품을 보고 결정 27%, 정책을 보고 결정 53.2%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바람직한 정책 제시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 공약을 살피는 정도와 학력 및 성향 간에 어떠한지 교차분석을 하였다.

〈표 5〉 투표 전 후보자의 공약을 살피는 정도

구분	여-야당 꼭 본다	대부분 살펴본다	보통	지지당만 본다	무관심	비율합	
학 력	중졸이하		1명(25.0)	2명(50.0)	1명(25.0)	100	
	고졸	31명(14.6)	62명(49.2)	20명(15.9)	10명(7.9)	3명(2.4)	100
	대졸	24명(21.8)	53명(48.2)	15명(13.6)	13명(11.8)	5명(4.6)	100
	대학원졸	2명(25.0)	5명(62.5)	1명(12.5)			100
	합계	57명(23.0)	121명(48.8)	38명(15.3)	24명(9.7)	8명(3.2)	100
성 향	진보성향	14명(25.9)	27명(50.0)	8명(14.8)	4명(7.4)	1명(1.9)	100
	보수성향	8명(18.6)	13명(30.2)	10명(23.3)	9명(20.9)	3명(7.0)	100
	중간	28명(23.7)	68명(57.6)	13명(11.0)	7명(5.9)	2명(1.7)	100
	무관심	7명(21.2)	13명(39.4)	7명(21.2)	4명(12.1)	2명(6.1)	100
	합계	57명(23.0)	121명(48.8)	38명(15.3)	24명(9.7)	8명(3.2)	100

투표 전 후보자 공약을 살피는 정도를 학력 및 성향과 교차분석한 결과 여-야당 모두를 살피는 경우는 대졸과 대학원 졸업자에서 높았고, 대부분의 공약을 살피는 경우는 대학원 졸업자에서 제일 높았고, 고졸, 대졸 순이었다. 지지하는 당의 공약만을 보는 경우는 대졸과 고졸에서 10%대 정도였다. 성향별로는 진보·보수 및 중간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공약 대부분을 살펴보는데, 여당-야당 모두 꼭 보는 경우는 보수와 중간층은 25%대에 가까우나, 보수유권자는 20%대 미만이었는데 χ^2 값 21.8, 유의도 .04($p \leq .05$)로서 성향 간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보수층이 진보나 중간계층보다 선거공약에 대한 분석이 낮은 때문으로 해석된다.

5. 수원시 여·야 정당별 지지율 분석

1) 선거 시기와 여야 정당 구분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4번에 걸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가 언제인지 그 시기에 따라 여당과 제1야당의 투표율과 정당득표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교관점을 위해 선거일과 여야 정당 구분을 〈그림 3〉과 같이 작성하였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제16대 2002.12.19. 한나라-새천년민주	제17대 2004.4.15. 한나라-새천년민주	제4회 2006.5.31. 한나라-열린우리
제17대 2007.12.19. 한나라-대통합민주	제18대 2008.4.9. 한나라-통합민주	제5회 2010.6.2. 한나라-민주당
제18대 2012.12.19. 새누리-민주통합	제19대 2012.4.11. 새누리-통합민주	제6회 2014.6.4. 새누리-새정치민주
제19대 2017.5.9. 자유한국-더불어민주	제20대 2016.4.13. 자유한국-더불어민주	제7회 2018.6.13. 자유한국-더불어민주

〈그림 3〉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실시일과 여야 정당 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분야별정보-역대선거정보자료를 연구자가 재정리)

〈그림 3〉과 같이 각 선거는 일자가 다르며 정당 명칭과 여당과 제1야당도 자주 바뀌었다. 따라서 여당과 제1야당을 구분하는 대신 자유한국당은 새누리-자한당, 더불어민주당은 새민-더민주당으로 표기하였다.

2) 대통령선거에 대한 수원시 구별 투표율 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최근부터 4번에 걸친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의 여당과 제1야당의 정당에 대한 득표율 변화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 선거 자료 정리를 통해 제16~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수원시의 구별 투표율과 득

표율을 정리하면 <표 6>와 같다.

<표 6>과 <표 7>, <그림 4>에서 수원시의 제16대,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경기도나 전국 투표율에 비해 1~2포인트 정도 낮으나, 제18대, 제19대에는 1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대통령선거 투표율을 보면 제16대에 69.6%로 비교적 높았는데 이중 45.1%가 새누리-자한당에, 49.5%가 새민-더민주당에 득표되어 새민-더민주당이 여당이 되었다. 제17대 선거에서는 60.9%로 낮아졌는데 이중 49.6%가 새누리-자한당에 득표되어 여당이 되었으며 22.4%가 새민-더민주당에 득표되어 제1야당이 되었다.

<표 6> 제16~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수원시 구별 투표율

(단위 : 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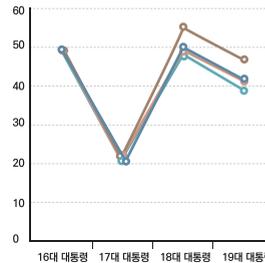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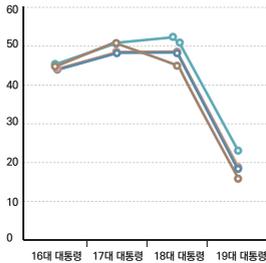
구분	제16대 대통령		제17대 대통령		제18대 대통령		제19대 대통령		
	투표 현황	투표율							
권선구	유권자	227,742	67.4	227,968	59.2	258,753	74.3	290,343	76.5
	투표자	153,485		135,070		192,297		222,078	
영통구	유권자			175,615	63.4	208,298	79.6	264,002	76.8
	투표자			111,290		165,741		220,307	
장안구	유권자	239,093	70.7	210,171	63.7	225,754	77.6	239,609	79.7
	투표자	169,112		133,783		175,095		190,917	
팔달구	유권자	232,724	69.3	169,529	57.3	167,784	72.4	167,122	73.9
	투표자	161,287		97,064		121,476		123,458	
수원시	유권자	699,559	69.2	783,283	60.9	860,589	76.1	961,076	78.7
	투표자	483,884		477,207		654,609		756,760	
경기도	유권자	6,944,934	69.6	8,222,124	61.2	9,364,077	75.0	10,262,309	77.1
	투표자	4,831,412		5,035,641		7,018,577		7,916,009	
전국	유권자	34,991,529	70.8	37,653,518	63.0	40,507,842	75.8	42,479,710	77.2
	투표자	24,784,963		23,732,854		30,721,459		32,807,908	

자료 : 역대선거자료(제16~19대 대통령선거 투표 현황)를 저자가 재정리

〈표 7〉 제16~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구별, 여·야당 후보자별 득표수와 득표율 (단위 : 표, %)

구분	권선구		영동구		장안구		팔달구		합계 평균		
	새누-자한	새민-더민	새누-자한	새민-더민	새누-자한	새민-더민	새누-자한	새민-더민	새누-자한	새민-더민	
제16대 대통령	후보	이회창	노무현			이회창	노무현	이회창	노무현		
	비율	44.6	49.8			45.1	49.2	45.5	49.6	45.1	49.5
	득표수	67,993	75,989			75,858	82,747	72,994	79,600	216,845	238,336
제17대 대통령	후보	이명박	정동영	이명박	정동영	이명박	정동영	이명박	정동영		
	비율	48.5	23.4	50.5	21.2	48.6	23	50.6	22	49.6	22.4
	득표수	65,272	31,545	56,136	23,571	64,832	30,641	48,972	21,255	235,212	107,012
제18대 대통령	후보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문재인		
	비율	49.5	50.1	45.3	54.4	49	50.6	52.4	47.2	49.1	50.6
	득표수	94,970	96,064	74,873	89,927	85,548	88,360	63,522	57,156	318,913	331,507
제19대 대통령	후보	홍준표	문재인	홍준표	문재인	홍준표	문재인	홍준표	문재인		
	비율	19.3	43.5	15.2	47.9	19.5	42.8	22.6	40.5	19.2	43.6
	득표수	42,801	95,263	33,354	105,181	37,143	81,392	27,782	49,814	141,080	331,650

자료 : 역대선거자료(제16~19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를 저자가 재처리



〈그림 4〉 새누리-자한당 구별 대통령선거 득표율 〈그림 5〉 새민-더민주당 구별 대통령선거 득표율

그리고 제18대에는 제17대보다 무려 15.2% 높아진 76.1%의 투표율을 보이는데 이중 49.1%가 새누리-자한당에 득표되었고, 50.6%가 새민-더민주당에 득표되었다. 제19대에는 78.7%로 투표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징벌적 의미에서 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결과는 황아란³¹⁾의 연구에도 나타나 있다. 수원시의 대통령 투표율은 전국 평균

31 Kernell, Samuel, 1977, "Presidential Popularity and Negative Voting: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the midterm congressional decline of the president's par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pp.44-66; 황아란, 2011, 「기초단체 지방선거 투표율의 결정요인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보다 낮은 때가 많았으나 제19대에는 전국 투표율보다 1.5% 높게 나타났다.

제16~19대 대통령선거 득표율을 구별로 보면 4개의 구가 유사하여 크게 다른 점이 없다. 4개 구에서 두드러진 점은 제17대에는 새민-더민주당에서 아주 많은 득표율 저하를 보이고 있고, 제19대에는 새누리-자한당이 큰 저하를 보이고 있는데 제17대에는 기대했던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³²과 제19대에는 국정농단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당이 표적이 되어 득표율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4회에 걸친 대통령선거에 대한 투표참여율은 장안구-영통구-권선구-팔달구 순으로 수원 도심에 위치한 팔달구가 가장 하위이다. <표 7>의 득표율에 대해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 간에 차이가 있는지 t검증하고, 구별 득표율에 대해 정당 간 차이가 있는지 anova검정을 실시하였는데 <표 8>과 같다.

<표 8> 제16~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여·야 정당 간 및 구별 차이검정

대통령정당		새누리-자한당	새민-더민주당
제16대 선거	평균	45	49.5
	t값	11.2	
	유의도	0.00	
제17대 선거	평균	49.6	22.4
	t값	35.1	
	유의도	0.00	
제18대 선거	평균	49.1	50.6
	t값	0.72	
	유의도	0.5	
제19대 선거	평균	19.2	43.6
	t값	11.2	
	유의도	0.00	
차이검증	f값	0.03	
	유의도	0.99	

23(1), 5~24쪽.

32 참여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 아들 비리사건, 당내 내분, 재보궐 선거 참패 등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율도 낮아져 득표지지율이 새누리-자한당으로 몰렸다.(<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5541&cid=43667&categoryId=43667>).

수원시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 간의 득표율은 제18대를 제외하고 모든 선거에서 유의도 .00($p \leq .05$)로서 큰 격차가 났다. 그러나 4개 구의 당별 득표율은 $f > .03$, 유의도 .998($p \geq .05$)로 차이가 없다. 즉, 어느 구나 당 지향적 투표행태는 같은데 투표율도 같을지 <표 9> 이후를 보자.

3)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수원시 구별 투표율 분석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수원시 및 구별 투표율과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의 득표율이 구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9> 제17~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수원시의 구별 투표율

(단위: 표, %)

구분		제17대 국회의원		제18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의원	
권선구	유권자	198,572	57.4	228,869	40.1	220,289	51.2	394,405	58.7
	투표자	113,997		91,865		112,780		231,677	
영통구	유권자	161,126	63.4	176,153	46.7	199,552	56.7	181,983	62.4
	투표자	102,136		82,281		113,187		113,615	
장안구	유권자	199,510	62.0	210,021	43.4	223,682	55.1	202,743	59.9
	투표자	123,667		91,086		123,229		121,491	
팔달구	유권자	161,109	56.6	169,205	38.3	201,664	49.6	166,678	54.0
	투표자	91,129		64,838		100,084		90,005	
수원시	유권자	720,317	59.8	784,248	42.1	845,187	53.2	945,809	58.9
	투표자	430,929		330,070		449,280		556,788	
경기도	유권자	7,316,051	59.7	8,290,855	73.7	9,241,648	52.6	10,034,919	57.5
	투표자	4,368,521		3,626,685		4,860,823		5,768,325	
전국	유권자	42,100,398	58.0	40,205,055	54.2	37,796,035	46.1	35,596,497	60.6
	투표자	24,430,746		21,806,798		17,415,920		21,581,550	

자료: 역대선거자료(제17~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결과)를 저자가 재정리

〈표 10〉 제17~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구별, 여·야당 후보자별 득표수와 득표율 (단위 : 표, %)

구분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합계 평균		
	새누리-자한	새민-더민	새누리-자한	새민-더민	새누리-자한	새민-더민	새누리-자한	새민-더민	새누리-자한	새민-더민	
제17대 국회 의원	후보	신현태	이기우	한현규	김진표	박종희	심재덕	남경필	박공우		
	비율	39.73	43.99	37.32	48.34	38.24	44.43	49.01	43.58	41.08	45.09
	득표수	44,976	49,790	37,952	49,155	46,988	54,602	44,254	39,352	174,170	192,899
제18대 국회 의원	후보	정미경	이기우	박찬숙	김진표	박종희	이찬열	남경필	이대의		
	비율	41.23	38.16	46.18	49.83	58.84	38.2	64.07	32.36	52.58	39.64
	득표수	37,649	34,842	37,797	40,781	52,819	34,296	41,025	20,719	169,290	130,638
제19대 국회 의원	후보	배은희	신장용	임종훈	김진표	김용남	이찬열	남경필	김영진		
	비율	33.23	40.53	38.97	61.03	43.5	51.62	50.34	45.14	41.51	49.58
	득표수	37,230	45,400	43,599	68,274	53,257	63,192	50,011	44,844	184,097	221,710
제20대 국회 의원	후보	김상민 정미경	김진표 백혜련	박수영	박광온	박종희	이찬열	김용남	김영진		
	비율	36.51	49.31	31.37	46.34	37.4	47.42	46.06	53.93	37.84	49.25
	득표수	83,680	113,390	35,342	52,209	44,958	57,005	40,562	47,495	204,542	270,099

자료 : 역대선거자료(제17~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결과)를 저자가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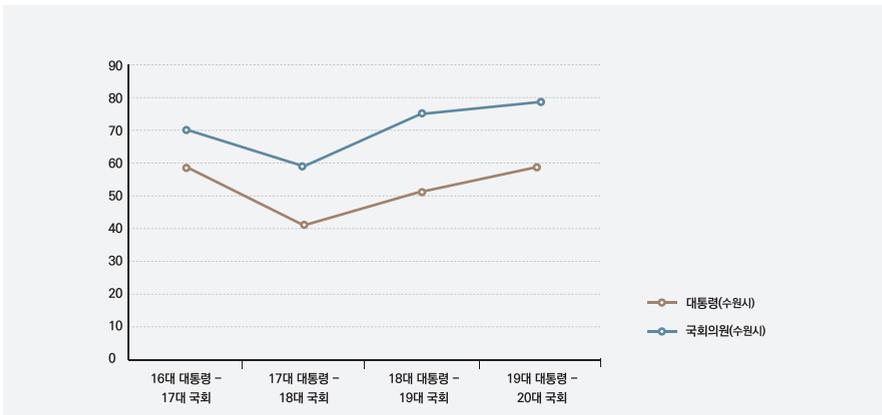
수원시의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을 보면 제17대에 59.8%로 낮은 편인데 이중 41.08%가 새누리-자한당에, 45.09%가 새민-더민주당에 득표되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42.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중 52.58%는 새누리-자한당에 39.64%는 새민-더민주당에 득표되어 당지지율이 새누리-자한당에 쏠림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제19대에는 제18대보다 11.1% 높아져 53.2%의 투표율을 보이는데 이중 41.51%가 새누리-자한당에 득표되었고, 49.58%가 새민-더민주당에 득표되었다. 제19대에는 57.5%로 투표율이 약간 높아졌는데 이중 37.84%가 새누리-자한당에 득표되었고, 49.25%가 새민-더민주당에 득표되어 새누리-자한당 지지율이 낮아졌다. 특히 제19대 전국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새누리-자한당:새민-더민주당의 비율이 154:127석이었으나 제20대에는 122:123석으로 새민-더민주당이 크게 약진하여 국회의 제1당이 되었다. 이는 대통령의 실정에 의한 징벌적 경향이 국회의원선거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지 수원시 전체와 구별 투표율을 대통령 vs 국회의원³³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상관분석을 하였다.

33 제18대 대통령과 제19대 국회의원 간의 상관분석은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2012년 4월로 대통령선거일인 2012년 12월보다 앞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표 11〉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관련성 분석

대통령:국회 상관도·확률	제16대 대통령과 제17대 국회의원	제17대 대통령과 제18대 국회의원	제17대 대통령과 제19대 국회의원	제18대 대통령과 제20대 국회의원
Pearson 상관계수	.663	.916**	.971**	.636
유의확률	.222	.029	.006	.249

분석결과 제16대 대통령과 제17대 국회의원 투표율의 상관성은 .663, 유의도 .222($p \geq .05$)로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제17대 대통령과 제18대 국회의원의 투표율 간 상관은 .916, 유의도 .029($p \leq .05$)로 관련성이 높고, 제17대 대통령과 제19대 국회의원 투표율 상관은 .971, 유의도 .006($p \leq .05$)로 관련성이 높았다. 위의 분석결과 높은 상관성이 그래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율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그림 6〉 수원시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변화

그래프를 통해 곡선의 변화를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 변화 트렌드가 흡사한 것으로 보아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을 구별로 보면 영통구-장안구-권선구-팔달구 순으로 낮아졌다. 권선구의 경우 제17대에서는 새민-더민주당의 득표율이 4.8% 정도 높았으나 제18대에는 3% 정도 낮아졌다가 제19대에는 7.3%, 제20대에는 12.8%로 크게 높아졌다. 영통구는 제17~20대까지 새민-더민주당이 새누리-자한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제19~20대에는 더 높은 지

지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안구는 제17대에 새민-더민주당이 새누리-자한당보다 6% 정도 득표율이 높았으나 제18대에는 20% 이상 떨어졌고, 제19대, 제20대에는 다시 10%대에 가깝게 득표율이 높아졌다. 팔달구는 수원시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편인데 제17~19대까지 새누리-자한당이 새민-더민주당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가 제20대에는 8% 정도 득표율이 낮아졌는데 이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에 대한 여론 악화영향³⁴이 크다고 판단된다. <표 10>에 나타난 투표율이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 간에 차이가 있는지 t검정하고, 구별 득표율에 대해 정당 간 차이가 있는지 anova검정을 실시하였는데 <표 12>와 같다.

<표 12> 제17~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여·야 정당 간 및 구별 차이검정

구분	새누리-자한당	새민-더민주당	
제17대 선거	평균	42	45.1
	t값	0.94	
	유의도	0.39	
제18대 선거	평균	52.6	39.6
	t값	2	
	유의도	0.09	
제19대 선거	평균	41.5	49.6
	t값	1.4	
	유의도	0.21	
제20대 선거	평균	37.8	49.3
	t값	3.3	
	유의도	0.02	
차이검증	f값	1.33	
	유의도	0.28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구별 차이검증 결과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 간의 득표율은 제17~19대에 차이가 없으나 제20대 선거에서는 t값 3.3, 유의도 .02($p \leq .05$)로서 득표율 차이가 크다. 그리고 4개 구별 득표율은 f값 1.33, 유의도 .28(p

34 신한국당에 관련하여 2013년 목회자 부정선거 시국선언, 2014년 세월호사건 등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었다.

≥.05)로 차이가 없으나 Scheffe 검사결과 영통구와 팔달구 간에는 .05(p≤.05)로 차이가 있었다.³⁵

4) 도지사선거에 대한 수원시 구별 투표율 분석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지사의 구별 투표율과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에 대한 득표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하였다.

〈표 13〉 제4~7회 도지사선거에 대한 수원시의 구별 투표율 (단위 : 표, %)

구분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수원시	경기도	전국
제4회 지방선거	유권자	217,455	173,454	206,015	166,662	763,586	7,918,828	37,064,282
	투표자	97,485	82,006	98,094	72,030	349,615	3,695,552	19,118,177
	비율	44.83	47.28	48.61	43.22	45.78	46.7	51.6
제5회 지방선거	유권자	229,747	183,747	218,041	174,518	806,053	8,761,840	38,851,159
	투표자	113,478	101,911	118,498	85,692	419,579	4,534,771	21,162,998
	비율	49.39	55.46	54.35	49.1	52.05	51.8	54.5
제6회 지방선거	유권자	230,904	240,776	236,664	203,541	911,885	9,679,317	41,296,228
	투표자	121,183	142,435	135,841	105,744	505,203	5,156,691	23,462,336
	비율	52.48	59.15	57.4	51.95	55.4	53.3	56.8
제7회 지방선거	유권자	342,897	273,531	202,140	161,673	980,241	10,533,027	42,907,715
	투표자	197,363	174,692	121,951	88,388	582,394	6,084,955	25,832,076
	비율	57.55	63.86	60.33	54.67	59.41	57.77	60.2

자료 : 역대선거자료(제4~7회 지방선거 투표결과)를 저자가 재정리

〈표 14〉 제4~7회 도지사선거에 대한 구별, 여·야 정당별 득표율 (단위 : %)

구분	정당	제4회 득표율	제5회 득표율	제6회 득표율	제7회 득표율
권선구	새누리-자한당	58.22	49.38	49.38	35.61
	새민-더민주당	32.81	50.61	50.61	56.70

35 anova검사로 4집단을 한꺼번에 비교하면 차이가 없지만 Scheffe 검사를 하면 구청 개별비교를 통해 차이를 검사해 준다.

구분	정당	제4회 득표율	제5회 득표율	제6회 득표율	제7회 득표율
영통구	새누리-자한당	55.45	47.03	41.71	34.72
	새민-더민주당	38.29	52.96	58.28	57.27
장안구	새누리-자한당	57.87	49.01	48.52	37.89
	새민-더민주당	32.71	50.98	51.47	54.21
팔달구	새누리-자한당	60.04	52.24	52.5	41.59
	새민-더민주당	31.51	47.75	47.49	51.29
합계 평균	새누리-자한당	57.9	49.42	48.03	37.45
	새민-더민주당	33.83	50.58	51.96	54.87

자료 : 역대선거자료(제4~7회 지방선거 도지사선거 개표결과)를 저자가 재정리

수원시의 도지사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제4회 수원시 지방선거 투표율은 45.78%인데 이중 57.9%가 새누리-자한당에, 33.83%가 새민-더민주당에 득표되었다. 제5회 투표율은 52.05%로 제4회에 비해 5.1% 높아졌는데 이중 49.42%가 새누리-자한당에 50.58%가 새민-더민주당에 득표되었다. 제6회에는 53.3% 투표율 중 48.03%가 새누리-자한당에, 51.96%가 새민-더민주당에 득표되었다. 제7회에는 57.52%로 투표율이 높아졌는데 이중 37.45%가 새누리-자한당에, 54.87%가 새민-더민주당에 득표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4~7회 지방선거에서 구별 투표율은 수원시나 경기도 및 전국의 전체 투표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별 투표율은 영통구-장안구-권선구-팔달구 순으로 낮고, 제4회 선거 때에만 새누리-자한당이 높은 득표율을 보이거나 제5~7회 때는 새민-더민주당의 득표율이 높고, 특히 제7회에는 5선 국회의원인 후보자가 이재명 후보에게 17.42%의 격차로 낙선되었다. 낙선 후보자는 수원시에서 굳건한 지지도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가정문제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문제로 득표율이 크게 떨어졌다 판단된다.

4개 구의 도지사선거 득표율에서 나타난 특징은 영통구는 새민-더민주당에 대한 당파성, 팔달구는 새누리-자한당의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적정수준의 당파성이 확보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5〉 제4~7회 도지사선거에 대한 여·야 정당 간 및 구별 차이검정

구분		새누리-자한당	새민-더민주당
제4회 지방선거	평균	57.9	33.8
	t값	11.4	
	유의도	0.00	
제5회 지방선거	평균	49.4	50.6
	t값	0.76	
	유의도	0.47	
제6회 지방선거	평균	48	52
	t값	1.2	
	유의도	0.27	
제7회 지방선거	평균	37.5	54.9
	t값	8.5	
	유의도	0.00	
차이검증	f값	0.003	
	유의도	1	

도지사선거에 대한 구별 차이검증 결과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 간의 득표율은 제4회와 제7회에 유의도 .00($p \leq .05$)로서 차이가 크나 제5회와 6회 때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4개 구의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에 대해 투표한 득표율은 f값 .003, 유의도 1.0($p \geq .05$)로 차이가 없다.

5) 수원시장선거에 대한 구별 투표율 분석

수원시장 투표율은 도지사선거의 〈표 12〉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여기에서는 수원시 시장선거에 나타난 구청별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의 후보자별 득표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표로 제시하였다.

〈표 16〉 제4~7회 시장선거에 대한 구별, 여·야 정당별 득표율

(단위: %)

구분	정 당	제4회 지방선거	제5회 지방선거	제6회 지방선거	제7회 지방선거
권선구	새누리-자한당	66.2	39.07	40.01	28.48
	새민-더민주당	26.96	50.46	57.01	65.49

구분	정 당	제4회 지방선거	제5회 지방선거	제6회 지방선거	제7회 지방선거
영통구	새누리-자한당	64.76	39.38	33.63	23
	새민-더민주당	29.81	52.42	63.81	70.3
장안구	새누리-자한당	63.73	39.04	37.35	26.8
	새민-더민주당	28.93	53.43	59.98	66.94
팔달구	새누리-자한당	66.97	41.89	41.63	30.34
	새민-더민주당	26.17	48.73	55.55	63.88
수원시	새누리-자한당	65.33	39.72	37.83	26.77
	새민-더민주당	28.02	51.42	59.43	6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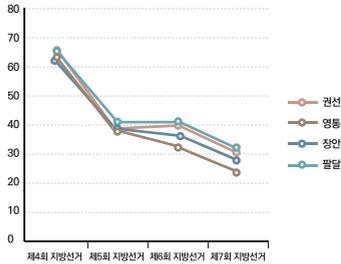
자료 : 역대선거자료(제4~7회 지방선거 시장선거 투표결과)를 저자가 재정리

〈표 17〉 제4~7회 시장선거에 대한 여·야 정당별, 구별, 후보자별 득표수와 득표율 (단위 : 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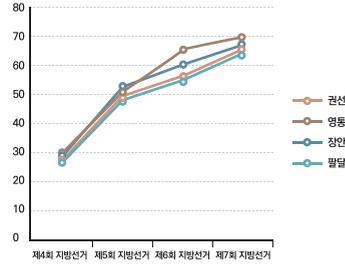
구분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수원시		
	새누-자한	새민-더민	새누-자한	새민-더민	새누-자한	새민-더민	새누-자한	새민-더민	새누-자한	새민-더민	
제4회 지방선거	후보	김용서	염태영	김용서	염태영	김용서	염태영	김용서	염태영	김용서	염태영
	비율	66.2	26.96	64.76	29.81	63.73	28.93	66.97	26.17	65.33	28.02
	득표수	63,848	26,001	52,677	24,254	61,817	28,066	47,681	18,635	226,023	96,956
제5회 지방선거	후보	심재민	염태영	심재민	염태영	심재민	염태영	심재민	염태영	심재민	염태영
	비율	39.07	50.46	39.38	52.42	39.04	53.43	41.89	48.73	39.72	51.42
	득표수	43,900	56,690	39,798	52,970	45,810	62,691	35,449	41,232	164,957	213,583
제6회 지방선거	후보	김용서	염태영	김용서	염태영	김용서	염태영	김용서	염태영	김용서	염태영
	비율	40.01	57.01	33.63	63.81	37.35	59.98	41.63	55.55	37.83	59.43
	득표수	47,952	68,328	47,508	90,140	50,108	80,456	43,430	57,951	188,998	296,875
제7회 지방선거	후보	정미경	염태영	정미경	염태영	정미경	염태영	정미경	염태영	정미경	염태영
	비율	28.48	65.49	23	70.3	26.8	66.94	30.34	63.88	26.77	66.99
	득표수	55,448	127,476	39,710	121,351	32,260	80,561	26,451	55,683	153,869	385,071

자료 : 역대선거자료(제4~7회 지방선거 시장선거 개표결과)를 저자가 재정리

수원시의 시장선거 투표율을 보면 제4회에 45.78%이었는데 이중 65.33%가 새누리-자한당의 김용서에, 28.02%가 새민-더민주당의 염태영에 득표되었다. 제5회 투표율은 52.05% 참여율을 보이는데 이중 39.72%가 새누리-자한당의 심재인에, 51.42%가 새민-더민주당의 염태영에 득표되었다. 그리고 제6회에는 55.4%의 투표율을 보이는데 이중 37.83%가 새누리-자한당의 김용서에 득표되었고, 59.43%가 새민-더민주당의 염태영에 득표되었다. 제7회에는 57.52%가 투표에 참여하였는데 이중 26.77%가 새누리-자한당의 정미경에 득표되었고, 66.99%가 새민-더민주당의



〈그림 7〉 새누리-자한당 구별 시장선거 득표율



〈그림 8〉 새민-더민주당 구별 시장선거 득표율

염태영에 득표되었다. 이상을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7〉, 〈그림 8〉과 같다.

4개 구의 시장선거 득표율은 거의 같은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지방선거인 도지사선거에서 조금 달라졌다가 시장선거에서는 제법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선구의 투표결과를 보면 4개 구 중에서 팔달구 다음으로 새누리-자한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제4회 선거 때에는 새누리-자한당에 66.2%의 높은 득표율을 보이고, 새민-더민주당은 26.96%로 아주 낮으나 제5회부터 지지율이 계속 높아져 제7회에는 65.5%에 이르고 있다. 영통구도 권선구의 경우처럼 제4회 지방선거에서만 새누리-자한당의 지지 득표율이 높았으나 제5~7회에 새민-더민주당의 득표율이 계속 높아져 70.3%로 수원시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장안구는 제4~5회에는 새누리-자한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지만, 제6~7회에는 새민-더민주당이 높은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팔달구는 4개 구에서 새누리-자한당에 대한 당파성이 높은 편이지만 제6회 선거부터는 새민-더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 그 이유는 제4회 때에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수원시장이 ‘부패와 개발사업 비리 및 물질만능의 부패’에 대한 반발³⁶로 염태영 당선자의 득표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선거에 대한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 간의 차이를 검증하고, 구별 득표율 차이는 anova검정을 실시하였다.

36 『경기전자신문』, 2014년 5월 28일, 7면.

〈표 18〉 제4~7회 시장선거에 대한 여·야 정당 간 및 구별 차이검정

구분		새누리-자한당	새민-더민주당
제4회 지방선거	평균	66	27.9
	t값	33.4	
	유의도	0.00	
제5회 지방선거	평균	39.8	51.3
	t값	9.1	
	유의도	0.00	
제6회 지방선거	평균	38.2	59.1
	t값	8.3	
	유의도	0.00	
제7회 지방선거	평균	27.2	66.7
	t값	19	
	유의도	0.00	
차이검증	f값	0.001	
	유의도	1	

시장선거에 대한 구별 차이검증 결과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 간의 득표율은 제4~7회에 걸친 4번의 선거에서 모두 유의도 .00($p \leq .05$)로서 득표율의 차이가 크다. 그리고 4개 구에서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에 대해 투표한 득표율은 f값 .001, 유의도 1.0($p \geq .05$)로 차이가 없다.

6) 수원시 도의원선거에 대한 구별 투표율 분석

제4~7회 도의원선거에 나타난 수원시 구별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의 득표율은 〈표 1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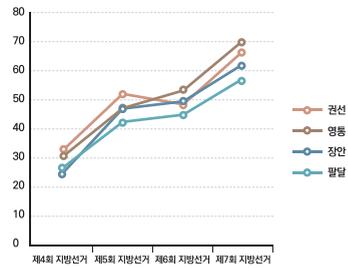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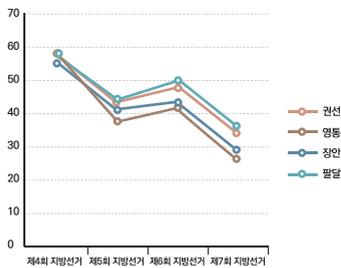
〈표 19〉 제4~7회 도의원선거에 대한 구별, 여·야 정당별 득표율

(단위: %)

구분	정당별	제4회 지방선거	제5회 지방선거	제6회 지방선거	제7회 지방선거
권선구	새누리-자한당	63.73	42.2	47.98	30.45
	새민-더민주당	33.32	51.72	48.74	65.43

구분	정당별	제4회 지방선거	제5회 지방선거	제6회 지방선거	제7회 지방선거
영통구	새누리-자한당	64.3	36.07	42.86	23.94
	새민-더민주당	30.64	47.13	54.14	69.89
장안구	새누리-자한당	59.64	40.95	44.28	27.44
	새민-더민주당	24.65	47.77	48.14	60.9
팔달구	새누리-자한당	62.48	44.01	49.66	33.7
	새민-더민주당	26.17	44.25	46.5	57.69
수원시	새누리-자한당	62.54	40.81	46.2	28.88
	새민-더민주당	28.7	47.71	49.38	63.48

자료 : 역대선거자료(제4~7회 지방선거 도의원선거 개표결과)를 저자가 재정리



〈그림 9〉 새누리-자한당 구별 도의원선거 득표율 〈그림 10〉 새민-더민주당 구별 도의원선거 득표율

수원시의 도의원선거 투표율을 보면 제4회에 45.78%이었는데 이중 62.54%가 새누리-자한당에, 28.7%가 새민-더민주당에 득표되었다. 제5회 투표율은 52.05% 참여율을 보이는데 이중 40.81%가 새누리-자한당에, 47.71%가 새민-더민주당에 득표되었다. 그리고 제6회에는 55.4% 투표율을 보이는데 이중 46.2%가 새누리-자한당에, 49.38%가 새민-더민주당에 득표되었다. 제7회에는 57.52%가 투표에 참여하였는데 이중 28.88%가 새누리-자한당에 득표되었고, 63.48%가 새민-더민주당에 득표되었다.

구의 득표율을 보면 제4회에는 새누리-자한당의 득표율이 60%대로 아주 높았으나 제5회부터는 새민-더민주당의 득표율이 더 높아졌다. 팔달구는 모든 선거에서 새누리-자한당에 대한 당파성이 높은 지역으로 득표율 또한 다른 구에 비해 새누리-자한당이 높다. 투표결과 제4~6회에는 새누리-자한당의 득표율이 높고, 제7

회에만 새민-더민주당의 득표율이 높았다. 4개 구의 도의원선거 득표율 그래프를 보면 대통령·국회의원 득표율과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별 의원들에 대한 보상적 평가에 연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의원선거에 대한 차이를 t검증하고, 구에 대해서는 anova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제4~7회 도의원선거에 대한 여·야 정당 간 및 구별 차이검정

구분		새누리-자한당	새민-더민주당
제4회 지방선거	평균	6.5	28.7
	t값	14.5	
	유의도	0.00	
제5회 지방선거	평균	40.8	47.7
	t값	3	
	유의도	0.02	
제6회 지방선거	평균	46.2	49.4
	t값	1.4	
	유의도	0.21	
제7회 지방선거	평균	28.9	63.5
	t값	10.2	
	유의도	0.00	
차이검증	f값	0.104	
	유의도	0.957	

도의원선거에 대한 구별 차이검증 결과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 간의 득표율은 제6회 지방선거 때를 제외하고, 제4회, 제5회, 제7회 선거에서 유의도 .00~.02($p \leq .05$)로 득표율의 차이가 컸다. 그리고 4개 구의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에 대해 득표율은 f값 .104, 유의도 .957($p \geq .05$)로 차이가 없다.

7) 수원시의회 의원선거에 대한 구별 투표율 분석

제4~7회 시의원선거 득표율을 구에 따라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는데 <표 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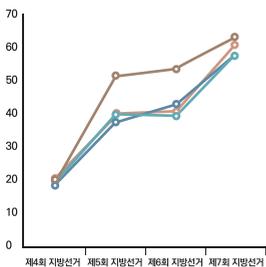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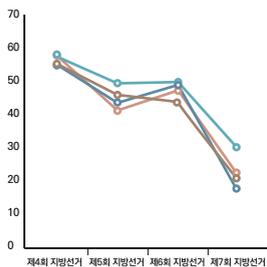
〈표 21〉 제4~7회 시의원선거에 대한 구별, 여·야 정당별 득표율

(단위 : 표, %)

구분		제4회 지방선거		제5회 지방선거		제6회 지방선거		제7회 지방선거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권선구	새누리-자한당	57.59	55,154	42.41	47,180	48.33	56,812	21.99	42,093
	새민-더민주당	21.06	20,172	40.26	44,785	40.67	47,803	61.05	116,873
영동구	새누리-자한당	55.13	44,302	46.11	46,003	42.98	60,405	20.54	34,901
	새민-더민주당	22.36	17,964	51.87	51,750	54.17	76,138	62.67	106,483
장안구	새누리-자한당	54.91	52,910	43.45	50,538	49.43	65,398	16.16	19,143
	새민-더민주당	20.40	19,650	37.87	44,046	43.33	57,329	59.19	70,134
팔달구	새누리-자한당	57.54	40,527	49.13	40,998	50.53	51,382	28.46	24,155
	새민-더민주당	19.74	13,904	40.02	33,390	39.47	40,131	58.83	49,945
수원시	새누리-자한당	56.25	192,893	44.97	184,719	47.94	233,997	21.29	120,292
	새민-더민주당	20.91	71,690	42.35	173,971	45.36	221,401	60.81	343,435

자료 : 역대선거자료(제4~7회 지방선거 시의원선거 개표결과)를 저자가 재정리

수원시의 시의원선거 투표율을 보면 제4회에 45.78%이었는데 이중 56.25%가 새누리-자한당에, 20.91%가 새민-더민주당에 득표되었다. 제5회 투표율은 52.05%인데 이중 44.97%가 새누리-자한당에, 42.35%가 새민-더민주당에 득표되었다. 그리고 제6회에는 55.4% 투표율을 보이는데 이중 47.94%가 새누리-자한당에, 45.36%가 새민-더민주당에 득표되었다. 제7회에는 57.52%가 투표에 참여하였는데 이중 21.29%가 새누리-자한당에 득표되었고, 60.81%가 새민-더민주당에 득표되었다. 이상을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새누리-자한당 구별 시의원선거 득표율 〈그림 12〉 새민-더민주당 구별 시의원선거 득표율

4개 구의 시의원선거 득표율 그래프는 도의원 그래프와 차이가 나는데 권선구와 장안구는 득표율 변화의 패턴이 같다. 반면 영통구는 다른 3개의 구에 비교해 제5회 이후부터 새민-더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새누리-자한당보다 높게 지지하고 있고, 반대로 팔달구는 제4회 이후 6회까지 새누리-자한당을 더 높게 지지하고 있다. 4개 구의 정당지지율을 보면 팔달구의 투표율이 가장 낮으며 새누리-자한당에 대한 정당성향은 높다. 이어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의 득표율의 차이와 구 간에 차이가 있는지 t검증하고, 구별 득표율에 대해 anova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 제4~7회 시의원선거에 대한 여·야 정당 간 및 구별 차이검정

구분		새누리-자한당	새민-더민주당
제4회 지방선거	평균	67	19.4
	t값	26.1	
	유의도	0.00	
제5회 지방선거	평균	49.7	49.4
	t값	0.04	
	유의도	0.97	
제6회 지방선거	평균	50.1	40.7
	t값	2.4	
	유의도	0.05	
제7회 지방선거	평균	25.4	59
	t값	4.85	
	유의도	0.00	
차이검증	f값	0.134	
	유의도	0.939	

시의원선거에 대한 구별 차이검증 결과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 간의 득표율은 제4~7회에 걸친 4번의 선거에서 유의도 .00($p \leq .05$)로서 득표율의 차이가 컸다. 그리고 4개 구에서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에 대해 투표한 득표율은 f값 .134, 유의도 .94($p \geq .05$)로 차이가 없다. 즉, 시장선거에서는 새민-더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게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8) 수원시 광역·기초 비례의원선거에 대한 투표율 분석

광역 및 기초비례의원은 투표할 때 지지하는 의원 1명과 정당에 각각 표기하는 방식으로 5% 이상 득표한 정당의 득표율을 모두 합산한 뒤 각 정당의 득표율을 나눈 후 비례대표 배정수를 곱해 산출한다. 따라서 비례의원 선거는 투표 요인 중 정당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며 여기에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어 득표율로 나타난다 할 수 있다. 구별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의 득표는 <표 23>과 같다.

<표 23> 제4~7회 지방광역비례선거에 대한 구별, 여·야 정당별 득표율 (단위: 표, %)

구분		제4회 지방선거		제5회 지방선거		제6회 지방선거		제7회 지방선거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권선구	새누리-자한당	59.02	56,977	39.32	44,047	47.59	55,249	23.29	45,360
	새민-더민주당	21.87	21,113	38.58	43,226	43.78	53,663	54.06	105,292
영동구	새누리-자한당	58.74	47,824	37.47	37,811	39.93	55,909	20.05	34,651
	새민-더민주당	23.01	18,738	37.84	38,190	50.43	70,605	53.92	93,195
장안구	새누리-자한당	58.38	56,733	38.86	45,447	45.13	59,771	25.08	30,174
	새민-더민주당	21.40	20,800	38.84	45,425	45.79	60,650	51.06	61,433
팔달구	새누리-자한당	61.02	43,445	41.96	35,425	49.46	51,174	28.29	24,637
	새민-더민주당	21.09	15,015	36.87	31,130	42.31	43,784	49.73	43,300
수원시	새누리-자한당	59.29	204,979	39.4	162,730	45.53	222,103	24.18	134,822
	새민-더민주당	21.84	75,666	38.03	157,971	45.58	228,702	52.19	303,220

자료 : 역대선거자료(제4~7회 지방선거 광역비례의원선거 개표결과)를 저자가 재정리

수원시의 광역비례선거 득표율 결과를 구별로 보면 도지사, 도·시의원의 득표율 변화를 적절히 평균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제4회에서는 새누리-자한당이 60% 가까운 득표를 하였고, 제5회와 제6회에는 거의 비슷한 득표를 보였다. 제7회에는 새민-더민주당에 크게 떨어진 득표를 보이고 있다. 구별로는 제4~7회에 이르기까지 투표율이 가장 낮은 팔달구가 다른 구에 비해 새누리-자한당에 지속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새민-더민주당에는 4번의 선거 모두

다른 구에 비교해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영통구는 팔달구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구에 비교해 새민-더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새누리-자한당에는 제일 낮았다. 권선구와 장안구는 중간적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표 24〉 제4~7회 지방기초비례선거에 대한 구별, 여·야 정당별 득표율

(단위 : 표, %)

구분		제4회 지방선거		제5회 지방선거		제6회 지방선거		제7회 지방선거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권선구	새누리-자한당	61.74	59,468	40.10	44,905	46.95	55,282	23.50	45,376
	새민-더민주당	23.24	22,392	39.65	44,401	48.21	56,764	54.27	104,795
영통구	새누리-자한당	60.89	49,480	38.32	38,650	40.30	56,472	20.23	34,721
	새민-더민주당	24.30	19,745	39.01	39,347	54.72	76,671	54.34	93,263
장안구	새누리-자한당	60.62	58,734	39.50	46,124	45.59	60,159	25.38	30,463
	새민-더민주당	23.15	22,437	39.72	46,381	49.63	65,488	51.37	61,644
팔달구	새누리-자한당	63.50	45,067	42.28	35,630	49.69	50,708	28.70	24,895
	새민-더민주당	22.72	16,129	38.64	32,563	45.80	46,732	50.63	43,909
수원시	새누리-자한당	61.59	212,749	39.94	165,309	45.26	222,621	23.70	135,455
	새민-더민주당	23.36	80,703	39.31	162,692	49.94	245,655	53.13	303,611

자료 : 역대선거자료(제4~7회 지방선거 기초비례의원선거 개표결과)를 저자가 재정리

기초비례선거 득표율 결과를 구별로 보면 광역비례의원 득표율과 같이 평균된 모습으로 보인다. 제4회에서는 새누리-자한당이 61% 이상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제5회에는 거의 비슷하였다가 제6회부터는 새민-더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 구별로는 제4~7회에 이르기까지 팔달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 새누리-자한당의 지지율이 높았고, 새민-더민주당에는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영통구는 새민-더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으며 제6회 때에 다른 구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9) 전체적 논의

(1) 선거 결과 득표율과 정당성향

민주주의를 이끌어 갈 주요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는 주권자인 시민의 권리이며 의무인데 유권자 의식이나 생각에 의지적 방향감이 더해져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후보자에 대한 지지는 개인의 당파성에 사회경제적 지위나 당 선경쟁도 및 처벌·신뢰, 연령 등의 제2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수원시의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투표결과를 보면 구별로 득표율 변화가 약간 다르다.

대통령선거는 여당의 행태나 비리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국회의원선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율끼리 관련성을 보면 제16대와 제19대와는 유의성이 없으나 제17대 대통령과 제18대 국회의원, 제17대 대통령과 제19대 국회의원 투표율 상관은 .916, 유의도 .029($p \leq .05$)과 .971, 유의도 .006($p \leq .05$)로 관련성이 높았다. 이를 볼 때 대통령선거의 변화 트렌드는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분석되었다.

지방선거에서는 대선 영향도 작용하지만 지방의 특색과 후보자의 부정과 비리 및 신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특히 시장선거의 변화율은 다른 선거에 비해 크게 다른데 이는 제4회 때 당선된 시장이 많은 부정사건으로 득표율이 반전되었고,³⁷ 제5회부터는 현 시장이 3선에 연속 당선되면서 신뢰도가 구축되고 득표율이 크게 높아졌다. 구별로는 투표율이 가장 낮은 팔달구에서 새누리-자한당에 대한 정당성향이 가장 높았고, 영통구는 대통령선거와 모든 지방선거에서 새민-더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권선구는 국회의원선거와 시의원선거에서 새민-더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편이었다.

대통령선거의 지지율은 선거 전에 집권했던 여당의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의 비리나 비난 등의 사건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고 해석되는데 각 구 주민들의 분위기에

37 제4회에 당선된 김용서 시장의 부정으로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수원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 정당별 지지율의 차이가 있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각 선거에 따라 구별 지지율의 편차를 분석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 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시장·시의원선거 정당지지율에 대한 편차율

선거종류	대상	제16대 대통령선거	제17대 대통령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
	구별 편차		±5.2	±29.4	±7.2
	수원시 편차	±4.48	±27.2	±1.5	±24.4
국회의원선거	대상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구별 편차	±11.69	±31.71	±27.8	±22.56
	수원시 편차	±4.0	±12.94	±8.1	±11.4
도지사선거	대상	제4회 지방선거	제5회 지방선거	제6회 지방선거	제7회 지방선거
	구별 편차	±25.5	±5.9	±16.57	±22.55
	수원시 편차	±24.1	±1.2	±3.9	±17.4
시장선거	구별 편차	±40.8	±14.4	±30.2	±47.3
	수원시 편차	±37.3	±11.7	±21.6	±40.2
시의원선거	구별 편차	±37.9	±14.0	±14.7	±46.5
	수원시 편차	±35.3	±2.6	±2.6	±38.7

비고 : ① 구별 편차는 4개 구 중 높은 득표율 값에서 낮은 득표율 값 간의 차를 구한 값
 ② 수원시 편차는 새누리-자한당, 새민-더민주당의 4개 구 평균값 간의 차를 구한 값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구별 편차 ±29.4%, 제19대에는 ±32.7% 차이를 보인다.³⁸ 그러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통령선거 득표율 편차와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데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구별 편차 ±31.71%, 제19대에는 ±27.8%, 제20대에는 ±22.56%로 대통령선거 편차와는 좀 다르다. 지방선거에서는 대선의 영향도 작용하지만 지방의 특색과 후보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38 구별 편차는 <표 7>, <표 10>, <표 14>, <표 16>, <표 19>, <표 21>에서 구하였다. 제17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16대 대통령인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친인척비리 등으로 정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고, 18대 선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BBK사건, 광우병 소고기 수입, 해외개발투자사업, 4대강 비리, 천안함사건, 도곡동 땅 사건, 형 이상득 뇌물사건, 선거개입 등, 제19대 선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사건, 국정교과서 사건 및 블랙리스트, 최순실 국정농단 등의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시장선거의 경우를 보면 그래프 변화율이 다른 선거에 비교해 크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제4회 시장선거에서 큰 지지율을 얻었던 시장이 많은 부정사건³⁹에 연류됨에 따라 지지 득표율이 새민-더민주당으로 이동하여 제4회에서 떨어진 시장후보가 제5회부터 제7회에 이르기까지 신뢰를 구축해 계속 지지율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성과 징벌적, 신뢰적 투표의 영향이라 판단된다.

(2) 연령, 학력과 투표율

투표율과 연령 간의 연구에서 젊은 연령층은 무당파형이 높고, 노년층은 당파성이 높으며,⁴⁰ 투표참여율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⁴¹ 이를 위해 각 선거의 투표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시장·시의원선거의 연령별 투표율 (단위: %)

구 분		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대통령선거	제19대	56.7	49.45	55.7	66.4	76.6	77.4
	제18대	78.0	71.0	70.5	76.2	82.1	78.7
	제17대	54.8	46.9	53.5	65.1	74.8	73.4
국회선거	제20대	58.0	55.2	53.3	54.7	59.9	63.8
	제19대	49.3	43.4	50.1	52.7	58.8	64.9
	제18대	27.7	23.0	35.2	46.2	55.3	62.1
지방선거	제7회	54.4	53.1	57.3	59.5	59.8	60.9
	제5회	46.9	42.7	48.2	53.8	60.5	64.0

39 당시 시장은 건설업체 하청수주 청탁으로 불구속입건 및 부인의 뇌물수수 구속, 아들의 개발사업 뇌물수수 혐의로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수원시가 최하위 평가를 받아 득표율이 새민-더민주당으로 이동하였다. (『수원매일신문(종합뉴스)』, 2010년 8월 20일)

40 이재철, 2016,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인천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서울시 및 경기도와 비교 분석」, 『인천학연구』 25, 239~270쪽.

41 조진만, 2010, 「민주시민 의식과 투표참여: 정치교육에 대한 함의」,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1), 85~104쪽; 김성연, 2015,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와 사회경제적 배경 : 2012년 양대 선거를 중심으로」,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22(4),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41~67쪽.

구 분		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국선거	제18대선	74.2	68.5	70.6	75.6	81.9	81.5
	제17대선	54.2	46.9	44.2	66.4	76.6	77.3
	제19국선	47.0	41.6	45.5	52.7	52.7	69.6
	제18국선	33.0	28.4	35.3	47.9	60.3	66.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2012, 2013, 2017, 『대통령·국회의원선거 총람』.

수원시의 경우를 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선거 모두 50~60대에서 투표율이 높았고, 20~30대에서 낮은 편이었다. 수원통계 DB자료에서 연령과 학력 및 정당에 대한 투표율이 비율로 조사되었는데,⁴² 이를 토대로 연령과 학력 및 정당 간 투표율에 관련성 여부를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표 27〉 4개의 구민들의 연령별·학력별 구성 비율

(단위 : %)

구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20대	18.1	14.7	18.9	19.5
30대	15.1	20.1	16.7	21.4
40대	20.3	19.6	18.5	22.7
50대	19.7	19.2	19.3	16.6
60대	19.4	17.4	22.3	12
고졸	40.4	40.6	39.3	29.7
대졸	35.6	35.1	37.7	51.4
대학원졸	41.1	37.9	42.5	57.9
새누리-자한당	26.1	21.9	28.7	12.4
새민-더민주당	35	35.1	39.3	31.7

비고 : 연령은 급간을 10(예 20~29세)으로 한 값(19세의 경우에는 19세만 해당되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함)

자료 : 정보공개-수원통계 DB-수원시 2018 사회조사 자료

〈표 28〉 4개의 구민들의 연령별·학력별 구성 비율에 대한 상관분석

구분	40대vs 자한당	40대vs 민주당	50대vs 민주당	60대vs 민주당	50대vs 고졸	50vs대졸	50대vs 대학원
Pearson 상관계수	.95	.998	.911	.92	.986	-.981	-.952

42 수원통계 DB-수원시, 2018, 『사회조사 자료』.

구분	40대vs 자한당	40대vs 민주당	50대vs 민주당	60대vs 민주당	50대vs 고졸	50vs대졸	50대vs 대학원
유의도	.002	.001	.09	.085	.014	.02	.048

비고 : 연령 중 20대, 30대는 상관 값과 유의도가 낮아 제시하지 않았음

연령과 학력 및 정당 간 투표율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20~30대, 50대에서는 낮은 유의도를 보이지만 40~50대에서는 유의성이 높게 나타나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 해석된다. 그리고 연령과 당파성에 대해서는 40대에서 새누리-자한당보다 새민-더민주당에 대해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연령과 학력 간 득표율 상관분석에서는 5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에서 상관성 유의도가 낮은데 50대에서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50대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낮아지고, 낮은 학력인 고졸에서는 투표율이 높았는데 이는 김성연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으며 50대의 대졸과 대학원졸업 유권자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투표와 부정적인 역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종합적 논의를 통해 투표 및 득표율에 대해 정리하면 <표 2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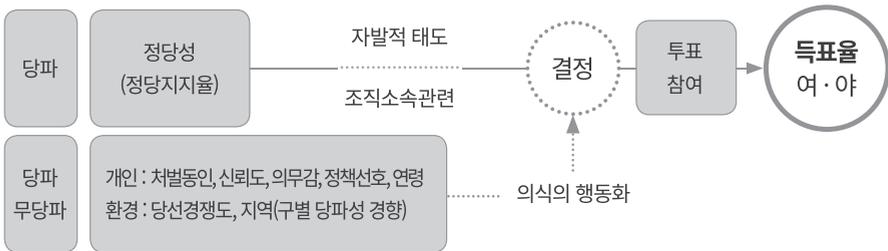
<표 29> 투표 및 득표율에 관련된 요인

구분	대통령과 연관성	당파성	징벌성	신뢰성	연령과 투표율					학력과 투표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고졸	대졸	대학 원졸
권 선 구	□	△	□	○	△	△	민□	한○	한□	□	○	△
영 통 구	□	○	□	○	△	△	민○	한○	한□	□	○	△
장 안 구	□	△	□	○	△	△	민○	한○	한□	□	○	△
팔 달 구	□	○	□	○	△	△	민○	한□	한□	□	○	△

비고 : 연관성의 정도에 따라 □~△로 표시하였다(○표시에서 민○은 민주당, 한○은 자유한국당을 의미함)

〈표 29〉에서 대통령선거의 경우 비리나 비난 사건의 영향이 가장 크며, 이러한 사건이 국회의원선거에도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관련된 영향이 크지 않고 지역정서 측면에서 당파성, 정벌성, 신뢰성을 기반으로 연령이나 학력의 효과가 부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에 적용한 분석모형을 수정하면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수원시민의 투표참여 모형

점선은 각 지역의 상황이나 선거 때마다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영향이 변화되어 영향을 준다.

6. 결론

본 연구는 수원시 주민들의 정치참여 의식과 구별 투표율 변화에 대한 연구로서 2002년 이후 수원시에서 치러진 제16~19대 대통령, 제17~20대 국회의원, 제4~7회 지방선거(도지사·시장·도·시의원)에서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에 대한 득표율이 구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선거에서 투표는 의식이나 생각에 의지적 방향감이 더해져 투표행동으로 나타나는 데 여러 동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즉, 투표는 하나의 정당과 후보자에 투표하게 되기 때문에 당파심이 제1요인이며, 사회경제적 지위나 당선경쟁도 및 처벌동인, 학력, 연령 등의 제2요인들이 제1요인과 결합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의도적으로 보수와 진보 성향의 이념을 내세워 국민들을 정당성향에 편승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걸쳐 수원시 구별로 여당과 제1야당에 대한 득표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밝히고자 4개의 연구

문제를 정하였다.

첫째, 수원시민들의 정치가에 대한 평가와 투표참여 의식 둘째, 수원시 중앙선거(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선거)에서 구별 정당 지지율 수준 셋째, 구별 여당과 제1야당에 대한 득표율은 차이가 있으며 넷째, 정당 지지율의 차이에 관련된 다른 요인은 무엇인지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수원시 주민들의 정치가에 대한 신뢰와 투표참여 의식은 기득권 및 정치가와 공무원의 부패가 심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33.1%) 봉사 수준도 낮고(62.5%), 정치가들을 신뢰할 수 없다 평가(59.3%)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정치인들이 보여 주는 행태를 다음 선거 때 반영하겠다는 유권자가 80% 수준을 이루며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서 약간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았다. 성향 측면에서는 개혁성향을 가진 사람은 87%, 보수성향을 가진 사람 86%, 중간성향을 가진 사람이 98%로 높다. 수원시민들이 지지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보면 정당을 보고 결정하는 당파성이 18.1%, 출마자 인품을 보고 결정 27%, 정책을 보고 결정 53.2%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수원시민은 대통령선거에서 전 정부의 여·야당의 부정이나 실책 등의 사건에 민감한데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의 구별 득표율 편차가 16대 대선에서는 $\pm 5.2\%$, 17대 대선 29.4%, 19대 대선 32.7%로 큰 영향을 주었다. 대통령선거 결과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제16대와 제19대는 유의성이 적으나 제17대 대통령과 제18대 국회의원 투표율 및 제17대 대통령과 제19대 국회의원 투표율 간에는 상관성이 높았다. 제17대 대통령과 제18대 국회의원 투표율 간 상관은(Pearson상관계수) .916, 유의도 .029($p \leq .05$)로 관련성이 높았고, 제17대 대통령과 제19대 국회의원 투표율 간 상관은(Pearson상관계수) .971, 유의도 .006($p \leq .05$)로 관련성이 상당히 높았다. 이를 볼 때 대통령선거 결과는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분석되었다. 지방선거에서는 대선의 영향도 작용하지만 지방의 특색과 후보자의 부정과 비리 및 신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특히 시장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팔달구에서 새누리-자한당에 대한 정당성향이 높았고, 영통구는 새누리-자한당에 대한 정당성향이 가장 낮았다. 넷째, 수원시 구별 당파성 지지율에 관련된 다른 요인을 보면 40대에서 새민-더민주당에 대한 당파성이 높았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보수성향이 강하게 작용하여 새누리-자한

당 편향의 당파성이 높았다. 그리고 학력 면에서는 대졸과 대학원 졸업자들은 투표와 보수층에 대한 역상관을 보이거나 고졸에서는 진보층에 상관이 높았다. 구별 새누리-자한당 득표율과 새민-더민주 득표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선거에서 정당 간 큰 차이를 보였으나 구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 연구는 주민들의 정치참여 의식과 구별 투표율 변화에 대한 연구로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책선호 등에 의한 정당별 지지율은 연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학력이나 연령에 의한 당파심과 그 관련 요인들에 의해 누가(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등), 얼마나 많이 투표참여에 투입(input)되는지 후속연구에서 더 많은 설문대상자를 통해 조사된 자료를 통해 지속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수원시에 한정된 분석연구이므로 다른 지역에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투고일 2019년 10월 30일 심사일 2019년 11월 19일~12월 2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6일

참고문헌

- 강형기, 1983, 『지방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성연, 2015,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와 사회경제적 배경 : 2012년 양대 선거를 중심으로」,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22(4),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41~67쪽.
- 김 욱, 2006, 「선거의 유형과 투표참여: 지방선거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5(1),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99~121쪽.
- 김태룡, 1986, 「정치참여: 경향과 조망」, 『상시대 논문집』, 7쪽.
- 배성동, 1985, 「공명선거를 위한 의지와 정책방향」, 『國策研究』 1(3), 55~71쪽.
- 수원시, 2018, 『사회조사 보고서』.
- 수원시, 2018, 『수원시정백서』.
- 신명희 · 강소연, 2018, 『교육심리학』, 학지사.
- 이재철, 2013, 「유권자의 연령별 투표참여 분석 :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1(2), 121~153쪽.
- 이재철, 2016,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인천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서울시 및 경기도와 비교 분석」, 『인천학연구』 25, 239~270쪽.
- 이준한, 2011, 「인천광역시 투표율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투표참여를 통해 본 인천의 정치문화」, 『인천학연구』 14, 243~274쪽.
- 이혁진, 2015, 「지역별 삶의 질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분석: 투표참여를 중심으로」, 서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승진, 2013,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투표행태: 정당 편향 유권자(partisan leaners)의 특성과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연구지원, NRF-2013S1A3A204285.
- 장연수 · 김익식, 2004, 「지역사회 정치문화 및 주민참여에 관한 경험적 연구(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회보』 16(4), 31~49쪽.
- 조진만, 2010, 「민주시민 의식과 투표참여: 정치교육에 대한 함의」,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1), 85~104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율분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율분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분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분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분석』.
- 최충규, 1983, 「한국대학생의 정치정향과 정치참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 옮김, 2013, 『정치 심리학』, 사람의 무늬(Houghton, David P., 2008, *Political Psychology: Situation, Individuals, And Cases*, Florida University).
- Abramson, Paul R., 1972,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Trust among Black Schoolchildren : Two Explan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34(4).
- Almond, Gabriel A., and Verba, Sidney,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nnett Stephen Earl & Resnick David, 1990, "The Implications of Nonvoting for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 pp.771~800.
- Easton, David and Hess, R. D., 1962, "The Child's Political World, Mideast",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
- Leighley, Jan E., & Nagler, Jonathan, 2014, *Who Votes Now?: Demographics, Issues, Inequality, and Turnout in the United Stat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agel, Jack H., & McNulty, John E., 2014, *Partisan Effects of Voter Turnout in Senatorial and Gubernatorial Elec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gel, Jack H., and McNulty, John E., 1996, "Partisan Effects of Voter Turnout in Senatorial and Gubernatorial Election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0, no. 4, pp.780~793.
- Paige, Jeffery M., 1971, "Political Orientation and Rio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
- Stephen Earl Bennett & David Resnick, 1990, "The Implications of Nonvoting for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4, no. 3, pp.771~800.
- Verba, Sidney &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Harper & Row, Publishers.
- 제16~19대 대통령선거 개표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제17~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제4~7회 지방선거 개표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https://www.ymca.pe.kr/1425>(호주의 선거불참과 벌금).

<http://blog.daum.net/challaok/11784482>.

<https://www.ymca.pe.kr/1425>, (룩셈부르크와 아르헨티나의 투표와 벌금).

<https://www.ymca.pe.kr/1425>; <https://blog.naver.com/jbelection/220979596621>(전북선관위: 투표와 벌금).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40717438250254>, (리얼리 타임뉴스, 황국상기자: 벨기에 투표).

<https://cafe.naver.com/theminju/17>.

요 약

선거는 의식적 투표행동으로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당파심에 사회경제적 지위나 선거경쟁, 신뢰요인, 차별동인, 연령 등 요인들이 작용한다. 본 연구는 수원시의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광역·기초 비례의원) 결과 새누리-자한당과 새민-더민주당에 대한 득표율이 구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또한 투표시기에 지지율에 영향을 준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수원시민들은 기득권 및 정치가들의 부패가 심하며(33.1%), 봉사도 적고(62.5%), 신뢰할 수 없다(59.3%) 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정치인들의 행태를 “다음 선거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성과 고학력자에서 더 높았다. 성향 측면에서는 개혁성향을 가진 사람은 87%, 보수성향을 가진 사람 86%, 중간성향을 가진 사람 98%가 선거에 반영의지를 밝혔다. 수원시민들이 지지자 선택 시 당파성에 의거하여 정당을 보고 결정한다는 유권자가 18.1%, 정책을 보고 결정한다는 유권자가 53.2%를 차지하였다.

둘째, 수원시민은 대통령선거에서 전 정부의 여·야당의 부정이나 실책 등의 사건에 민감하게 득표율 변화가 있었다. 대통령 부정이 국회의원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선거에서는 대선의 영향도 작용하지만 지방의 특색과 후보자의 비리 및 신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시장선거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구별 선거에서 새누리-자한당의 득표율과 새민-더민주당의 득표 간의 t검증 결과 차이가 컸다. 4개 구에서 팔달구의 투표율이 가장 낮으나, 새누리-자한당에 대한 정당성향은 높았고, 영통구는 새누리-자한당에 대한 정당성향이 낮았다.

셋째, 수원시 구별 당파성은 40대에서 새민-더민주당을 높게 지지하였고, 50대 이상은 보수성향이 강해 새누리-자한당 편향의 당파성을 보였다. 학면에서는 대졸과 진보층 간의 상관성이 높았다. 구별 새누리-자한당 득표율과 새민-더민주 득표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선거에서 정당 간 큰 차이를 보였으나 구 간에는 차이 없었다.

주제어 : 투표율(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당파성, 투표행동, 투표참여, 정치가에 대한 평가

Abstract

A Study on Suwon Citizens' Assessment of Politicians & Changes in Voting Shares by District

Jang Yeonsoo

As a conscious voting behavior, election is affected by various factors behind voters' political propensities such as their socioeconomic status and age as well as electoral competition, factors of trust, and punishment in elections. The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results of presidential elections, general elections, and regional elections for governorship, mayorship and provincial/municipal council (regarding councilors elected or chosen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s well as voting shares of the Liberty Korea Party (LKP), formerly the Saenuri Party (SP) vs.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formerly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PAD) by each district of Suw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udy, Suwon citizens tend to believe that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ians are severely corrupted (33.1%), not committed to community service (62.5%) and not reliable (59.3%). The respondents, especially women and highly educated citizens, replied that the recent behaviors of politicians will be considered when they cast a vote in the next election. In terms of political propensities, 87% of reform-minded respondents, 86% of conservative respondents and 98% of the respondents with neutral views expressed their will to reflect the politicians' behaviors on the next elec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18.1% of Suwon citizens cast a ballot based on their favored political parties while 53.2 % make voting decisions based on candidates' pledges.

In presidential elections, noticeable changes were shown in the voting shares of political parties as voters sensitively responded to corruption or political

blunder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Such political corruption cases and mistakes also greatly affected general elections. The results of general and/or local elections were also affected by presidential scandals. Especially,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was closely related to the 18th and 19th general elections. However, the results of regional elections were shown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regions and candidates' corruption cases or reliability, and regional sentiments were clearly revealed in mayoral races.

The results of T-test showed big differences in voting shares of the Liberty Korea Party (LKP), formerly the Saenuri Party (SP) vs.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formerly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PAD). Paldal district, among the studied 4 districts, had the lowest voter turnout and relatively higher preference towards the Liberty Korea Party (LKP) or the former Saenuri Party (SP) while Yeongtong district showed low preference towards the conservative party.

Regarding the voters' preference for political parties, people in their 40s were highly supportive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formerly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PAD), while those in their 50s and older were more conservative and highly supportive of the Liberty Korea Party (LKP), formerly the Saenuri Party (SP). Regarding academic backgrounds,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higher education and progressive tendency. Examining the difference in the voting shares between the Liberty Korea Party (LKP), formerly the Saenuri Party (SP) vs.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formerly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PAD), there were large differences across parties in all elections, while there was no particular difference among districts.

Key words : voting shares (presidential, general, mayoral, and council elections), propensity for political parties, voting behavior, voter turnout, and citizens' assessment of politicians

수원의 식물자원 발굴 및 활용방안*

정경민** / 김은영*** / 송원경****

1. 서론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수원시 연관 식물자원 발굴
4. 결론

1. 서론

1992년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생물다양성협약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 규범이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제3국의 생물자원 보전을 위하여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고,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구도가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¹ 또한 최근 생물자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생물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을 공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

* 본 연구는 수원시정연구원의 2019년 정책과제로 수행한 『수원시 연관 식물자원 스토리텔링 연구』를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SRI-정책-2019-19).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위촉연구원(Researcher, Dep.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Suw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E-mail : eykim@suwon.re.kr)

****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교수(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nkook University)

1 김점수·박상용, 2016, 「강원도 식물자원의 가치 제고 및 활용」, 『정책메모』 12호, 강원발전연구원.

다.² 전통지식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행 등을 의미한다.³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연구 및 보호,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인도 등 식물자원이 풍부하고 오랜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자국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통지식 DB구축을 진행 중에 있으며,⁴ 우리나라는 특허청을 포함해 많은 부처와 연구기관에서 전통지식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DB를 구축하고 있다.⁵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의 식물자원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원 지역의 역사와 함께 자라오면서 풍부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수원시 연관 식물자원을 발굴하고자 한다.

수원은 근대농업의 발상지로 불리고 있으며, 그 단초는 정조가 화성을 건설하면서 마련되었다. 수원화성을 번성시키기 위해 상업 장려책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국가 경제의 근간인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만석거, 축만제(서호) 등의 농업용 저수지 설치와 함께 서둔, 대유둔과 같은 국영농장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농업정책과 식목정책을 추진하였다. 정조는 한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나무를 심은 왕이며,⁶ 수원화성 및 정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식물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06년 권업모범장, 수원농림학교가 설치되면서 수원은 농업 연구에 최적의 장소로 여겨졌다. 권업모범장은 농사시험장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가 1945년 해방 후 국립농사시험장, 중앙농업기술원, 농사원을 거쳐 1962년 농촌진흥청으로 불리게 되었다. 수원농림학교는 수원고농으로 불리다가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명명되었다. 이러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농축산 품종 개량,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한 농법 개선 등 농업을 근대화시키기 위한 노력

2 김현준 정희석·강신호, 2015, 「제주도 지역의 민속식물」, 『한국자연식물학회』, 제28권 2호, 217~234쪽.

3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항.

4 정혜란·최경·박광우, 2012, 「경기남부 지역의 민속식물자원」, 『한국자연식물학회』, 제25권 5호, 523~542쪽.

5 이현우, 2011, 『전통지식 연구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국립생물자원관.

6 김은경, 2017, 『정조, 나무를 심다』, 북촌.

이 수원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수원에 농촌진흥청 및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위치하면서 다양한 국외 연구자들이 수원지역을 방문, 연구하면서 수원에서 최초로 발견하는 생물종이 생겨나고 경우에 따라 수원의 지명이 동·식물명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생물종으로는 칠보치마, 수원고랭이, 수원청개구리, 수원땅거미 등이 있다. 특히 특정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동·식물로서 생태계의 여러 종 가운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종을 의미하는 깃대종⁷인 칠보치마는 생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원의 이름을 갖는 식물자원이 많이 있으며 그 중 멸종위기종이거나 희귀한 식물뿐만 아니라 육종된 식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식물자원에는 수원의 역사, 육종 연구, 지역의 특성 등이 반영되어 있어 수원시 연관 식물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식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시민들이 수원시의 식물과 자연생태계에 대한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기초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수원시와 연관성이 높은 식물자원들은 수원시가 가진 소중한 생태문화유산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가 가진 생태문화 유산 및 식물자원을 목록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에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식물에 대한 관심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조성될 수원시 내 공원 및 수원수목원에 수원시 연관 식물을 식재함으로써 식물자원 및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7 유주한·김미진·안철우, 2012, 「경주국립공원 소나무 깃대종의 건강도 및 군락평가」,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6권 4호, 77~83쪽.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수원의 역사, 생태, 육종 연구와 관련된 식물자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원지역에서 과거 식재된 식물자원, 처음 발견된 식물자원, 연구된 식물자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원은 정조가 만든 계획도시일 뿐만 아니라 축성 당시의 자료가 비교적 상세히 남아 있어 시간적 범위는 조선 정조대부터 권업모범장이 설치·운영된 한말-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 농촌진흥청 시기까지로 설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조선시대의 경우 수원도호부(화성유수부)가 수원시와 화성시 등을 포괄하는 구역이었기 때문에 수원시에 국한되지 않고 화성시도 아우르는 공간을 범위로 하여 조사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수원시 연관 식물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인터뷰 및 자문을 실시하였다. 역사에 기록된 식물자원은 다양한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 수원과 연관성이 깊은 조선후기 정조대의 기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고서와 시문, 시화 등의 문헌에 기록된 식물명을 학명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연구의 제약이 따랐지만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화성성역의궤』, 『비변사등록』 등과 같은 기록을 검토하여 식재된 식물과 장소를 확인하였다. 육종 및 연구된 식물자원을 조사하기 위해 수원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국립산림과학원, 서울대 농과대학 등에서 이루어진 농업 및 산림 관련 품종 연구결과를 검토하였다. 수원시 자연생태 관련 식물 발굴을 위해 『수원시 자연환경조사 및 도시생태현황지도 갱신(2019)』 결과를 토대로 식물상 및 식물 현황을 조사하였다. 인터뷰 및 자문을 통한 조사는 수원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개량연구과·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의 기관과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 등 시민단체를 통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1〉 자문기관 및 내용

일시(횟수)	자문기관	내용
2019.04.16.(2회)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수원시 연관 작물 품종 자문
2019.04.21/ 05.02/10.15.(3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수원시 연관 무궁화 품종 자문 - 품종연구자 관련 내용
2019.05.02.(1회)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수원시 연관 과수 및 원예품종 자문

3. 수원시 연관 식물자원 발굴

1) 역사에 기록된 식물자원

조선 제22대 왕인 정조(1752~1800, 재위 1776~1800)는 박학다식한 인물로 특히 조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식을 바탕으로 경모궁을 비롯한 수원 화성, 현릉원, 만년제 등의 조성하고 도심 곳곳에 숲을 조성하였다. 정조의 식목정책은 이용후생(利用厚生)의 계획적인 식목으로, 실학정신을 바탕으로 자급자족 도시로 수원을 조성하고자 대대적인 식목사업을 전개하였다. 수원 내 정조의 식목사업은 주로 현릉원(顯隆園)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나,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 따르면 식목은 갑인년(1794)부터 정사년(1797)까지 매향동, 팔달산, 대천 양변, 용연, 관길야, 영화이북 등에 총 7차례에 걸쳐 단풍나무, 소나무, 탕자나무, 뽕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정원수와 오얏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등의 과일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⁸

현릉원(顯隆園)에 소나무·회목·오얏나무·유목 16만 6,381그루를 심고, 도토리 29섬, 솔씨 2섬 6말, 호두 4섬을 파종하였다. - 3섬은 작년 10월에 심은 것이다.⁹

8 『화성성역의궤』 권6.

9 『일성록』 정조 23년 기미(1799) 3월 30일(무자).

정조는 현릉원에 대대적인 식목을 하고 그 내용을 식목부(植木簿)에 기록하여 『식목편람(植木便覽)』이라 불렀는데 이는 정조가 다산 정약용에게 식재한 기록을 정리하도록 한 책으로 식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정조가 계획도시인 화성을 건설하면서 다양한 식목을 실시하였는데 화성의 경우 성 내에 팔달산이 위치하였으나 팔달산은 독산(秃山)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수목이 울창하지 못하여 도시 안의 적절한 곳에 녹지를 조성하고 가로수를 심어야 했다.¹⁰ 아울러 성 밖에도 다양한 나무를 심었는데 『비변사등록』을 살펴보면 팔달문 밖으로부터 유천이포(柳川泥浦)에 사이에 이르기까지 울창한 숲을 이루기 위해 식목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팔달문(八達門) 밖으로부터 유천이포(柳川泥浦) 사이에 이르기까지 …… 먼 저 금년부터 수목(樹木)을 심되 버드나무[楊]·위성류[檉]·뽕나무[桑]·개금나무[榛]·밤나무[栗]를 논할 것 없이 널리 심고 숲을 이루어서 울창하게 경관(京官)을 새롭게 하는 성대함이 있게 하는 것도 또한 선무(先務)할 일에 속한 것이고¹¹

정조는 현릉원과 팔달문 부근 외에도 화성을 축성하면서 나무 심기를 통해 수원 곳곳에 숲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화성성역의궤』,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등 정조와 연관된 다양한 고서뿐만 아니라 정조가 그린 「파초도」, 「국화도」 등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조 연관 식물뿐만 아니라 수원의 역사와 연관된 식물은 수원8경, 지명 연관, 시목 및 시화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130건의 문헌에서 역사와 관련된 수원시의 식물자원을 확인하였다. 문헌에 기록된 식물자원은 『화성성역의궤』에서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는 지명과 연관된 식물자원과 조선왕조실록 순으로 출현빈도가 높았다. 역사와 연관된 수원시 식물자원은 <표 2>과 같이 가래나무, 감나무, 개암나무, 개오동나무 등 49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느릅나무와 버드나무가 각 14곳으로 가장 많은 기록에

10 김무진, 2011, 「조선후기 식목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제43집, 249~282쪽.

11 『비변사등록』 정조 24년(1800년) 4월 22일(음).

〈표 2〉 역사와 관련된 수원시 식물자원

식물명	정조 연관										정조								
	화성성역 유계	일성복	조선왕조 실록	비변사 등록	식목일총 대진첩편	계도속근 사목	홍채전서	다산시 문집	정조그림	정조 능행길	13조 시무책	지면 연관	수원 8경	시목 및 시화	성매주변	영화여 주변	수원천 주변	만서거 주변	팔달산 주변
1	가래나무	○													○				○
2	감나무										○								
3	개암나무			○															
4	개오동나무		○															○	
5	계수나무							○											
6	국화													○					○
7	귀룽나무																		
8	녹나무					○													
9	느릅나무										○								○
10	느티나무										○								
11	단풍나무						○												
12	대나무							○				○							○
13	대추나무											○							
14	떡갈나무																		○
15	마														○				
16	매름														○				
17	매화나무																		○
18	밤나무	○					○					○							
19	배나무																		
20	배롱나무																		
21	버드나무	○	○	○	○						○	○	○	○	○	○	○	○	○
22	뽕나무																		
23	벽오동나무																		
24	복숭아나무	○																	○
25	풍나무	○	○																○
26	신자나무																		

식물명	경조 연관										경조									
	화성영역 의계	임성락	조선양조 신타	비번사 등락	시무실총	매전동편	제도승금 시무	홍재전서	다산시 문집	정조그림	경조 능행길	13조 시무책	지명 연관	수원 8경	시목 및 시화	성곽주변	영화면 주변	수원신 주변	만석거 주변	말갈신 주변
27 살구나무	○																			
28 삼나무					○										○	○				○
29 상수나무	○						○													○
30 소나무	○	○			○	○	○	○	○	○	○	○	○	○	○	○	○	○	○	○
31 수양버들													○				○			
32 신나무			○									○								○
33 연꽃	○														○					○
34 오동나무			○				○													○
35 졸나무			○				○													
36 위성류				○																
37 은행나무													○							
38 자두나무	○														○	○				
39 잣나무			○																	○
40 전나무																				
41 진달래														○	○					
42 철쭉																				
43 탕자나무	○																			
44 파초													○							
45 팽나무												○								
46 편백나무													○							
47 향나무																				
48 회화나무																				○
49 히어리																				○

서 확인되었다. 그 외 뽕나무 11곳, 느릅나무·연꽃 6곳, 복숭아나무 5곳을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수원에는 나무와 관련된 마을지명을 사용하는 곳이 많으며, 지명을 통해 과거 그 지역에 많이 심겨졌던 나무를 유추할 수 있다. 그 예로 ‘송죽동(松竹洞), 울전동(栗泉洞)’과 같이 동 이름에 수목명을 넣거나 ‘감나무골, 팽나무고개’ 등과 같이 마을이름에 나무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유래는 대부분 구전되어 온 것을 기록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나무와 관련된 수원의 지명

구	동	지역명	관련 수목
장안구	송죽동(松竹洞)	솔대	소나무, 대나무
	연무동(練武洞)	감나무골	감나무
	울전동(栗田洞)	밤밭(栗田)	밤나무
	조원동(棗園洞)	조원(棗園)말·주안말·주안골·주원말·대추원	대추나무
	파장동(芭長洞)	파장동·파동(芭洞)	파초
	이목동(梨木洞)	배나무골	배나무
권선구	호매실동(好梅實洞)	노림(老林)·노리미마을·장송골	소나무
		느티나무·큰우물 자리	느티나무
	세류동(細柳洞)	버드내	버드나무
		향목동·향나무골·상나무골	향나무
당수동(棠樹洞)	당수리(棠樹里)	산사나무	
팔달구	매교동(梅橋洞)	팽나무고개	팽나무
	팔달로 3가	뽕나무밭·뽕나무밭머리	뽕나무
영통구	매탄동(梅灘洞)	배나무골	배나무
	이의동(二儀洞)	버들치고개	버들
	신동(莘洞)	신동(莘洞)	신나무

자료 : 수원문화원 홈페이지;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2008 재구성

2) 자생 식물자원

수원시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산림 및 농업 분야의 근대적인 연구가 시작된 장소로서 의미 있는 식물자원이 다수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광교산, 칠보산 등

과 같은 자연지역에서 자생하는 히어리, 칠보치마 등 희귀멸종식물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아 환경도시 수원을 상징하는 식물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수원의 이름을 갖는 식물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수원’ 이름이 들어간 자생식물을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수원잔대, 수원고랭이, 수원사초, 이삭귀개(수원땅귀개), 광능골(수원골), 수원사시나무 총 6종이 검색되었으며 이중 수원땅귀개와 수원골은 이명에 수원 이름이 명명되고 있었다.

〈표 4〉 수원 이름을 갖는 자생식물

식물명		학명	분류군	형태	기타
국명(정명)	이명				
수원잔대	좁꽃모시나무	<i>Adenophora polyantha</i> Nakai	초롱꽃과 (Campanulaceae)	여러해살이풀	
수원고랭이	남양골	<i>Schoenoplectus wallichii</i> (Nees) T.Koyama	사초과 (Cyperaceae)	여러해살이풀	
수원사초	-	<i>Carex omiana</i> Franch. & Sav.	사초과 (Cyperaceae)	여러해살이풀	
이삭귀개	수원땅귀개	<i>Utricularia racemosa</i> Wall.	통발과 (Lentibulariaceae)	여러해살이풀/ 벌레잡이식물	습지 생육
광능골	수원골	<i>Scirpus komarovii</i> Roshev.	사초과 (Cyperaceae)	여러해살이풀	습지 생육
수원사시나무	-	<i>Populus glandulosa</i> Uyeki	버드나무과 (Salicaceae)	낙엽활엽교목	

자료 :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http://www.nature.go.kr/>) 국명 검색 ‘수원’

수원의 자생 식물자원은 『수원시 자연환경조사 및 도시생태현황지도 갱신(2019)』의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식재하거나 시민모니터링에 의해 발견된 종은 제외한 자생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연환경조사 결과 수원시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를 보여 줄 수 있는 멸종위기식물종 및 보호종은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식물 3종, 국가적색목록 14종, 한반도특산식물 28종, 식물구계학적 특정종 190종 등이 확인되었다. 이 중 식재종을 제외한 자생종은 〈표 5〉와 같이 총 106종으로 멸종위기야생식물 1종, 국가적색식물목록 5종, 한반도특산식물 10종, 식물구계학적 특정종 101종으로 나타났다.

〈표 5〉 수원시 멸종위기식물종 및 보호종

연번	과명	학명	국명	비고
1	Selaginellaceae 부처손과	<i>Selaginella involvens</i> (Sw.) Spring	바위손	Ⅲ
2	Osmundaceae 고비과	<i>Osmunda cinnamomea</i> L.	꿩고비	Ⅱ
3	Osmundaceae 고비과	<i>Cheilanthes argentea</i> (S. G. Gmel.) Kunze	부싧깃고사리	Ⅰ
4	Onocleaceae 아산고비과	<i>Onoclea sensibilis</i> L.	아산고비	Ⅰ
5	Athyraceae 개고사리과	<i>Athyrium vidalii</i> (Franch. & Sav.) Nakai	산개고사리	Ⅰ
6		<i>Deparia okuboana</i> (Makino) M. Kato	진퍼리개고사리	VU,Ⅳ
7	Magnoliaceae 목련과	<i>Magnolia sieboldii</i> K. Koch	함박꽃나무	Ⅱ
8	Lauraceae 녹나무과	<i>Lindera erythrocarpa</i> Makino	비목나무	Ⅰ
9	Chloranthaceae 홀아비꽃대과	<i>Chloranthus japonicus</i> Siebold	홀아비꽃대	Ⅰ
10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i>Aconitum chiisanense</i> Nakai	지리바꽃	특, Ⅱ
11		<i>Aconitum jaluense</i> Kom.	투구꽃	Ⅰ
12		<i>Clematis patens</i> C. Morren & Decne.	큰꽃오아리	Ⅰ
13		<i>Clematis trichotoma</i> Nakai	할미밀망	특
14		<i>Hepatica asiatica</i> Nakai	노루귀	Ⅰ
15	Berberidaceae 매자나무과	<i>Caulophyllum robustum</i> Maxim.	괘의다리아재비	Ⅱ
16	Papaveraceae 양귀비과	<i>Hylomecon vernalis</i> Maxim.	피나물	Ⅱ
17	Fumariaceae 현호색과	<i>Corydalis incisa</i> (Thunb.) Pers.	자주괴불주머니	Ⅰ
18		<i>Corydalis maculata</i> B. U. Oh & Y. S. Kim	점현호색	특, Ⅲ
19	Ulmaceae 느릅나무과	<i>Hemiptelea davidii</i> (Hance) Planch.	시무나무	Ⅰ
20		<i>Ulmus davidiana</i> Planch. var. <i>japonica</i> (Rehder) Nakai	느릅나무	Ⅰ
21		<i>Ulmus parvifolia</i> Jacq.	참느릅나무	Ⅰ
22	Juglandaceae 가래나무과	<i>Juglans mandshurica</i> Maxim.	가래나무	Ⅰ
23	Betulaceae 자작나무과	<i>Betula schmidtii</i> Regel	박달나무	Ⅲ
24	Caryophyllaceae 석죽과	<i>Cucubalus baccifer</i> L. var. <i>japonicus</i> Miq.	덩굴별꽃	Ⅰ
25	Actinidiaceae 다래나무과	<i>Actinidia kolomikta</i> (Maxim. & Rupr.) Maxim.	취다래	Ⅲ
26	Tiliaceae 피나무과	<i>Corchoropsis psilocarpa</i> Harms & Loes. ex Gilg & Loes.	까치깨	Ⅲ
27		<i>Grewia parviflora</i> Bunge	장구밥나무	Ⅰ
28		<i>Tilia amurensis</i> Rupr.	피나무	Ⅱ
29		<i>Tilia mandshurica</i> Rupr. & Maxim.	찰피나무	Ⅱ
30		<i>Tilia taquetii</i> C. K. Schneid.	봉잎피나무	Ⅱ
31	Droseraceae 끈끈이귀개과	<i>Drosera rotundifolia</i> L.	끈끈이주걱	Ⅲ
32	Violaceae 제비꽃과	<i>Viola orientalis</i> (Maxim.) W. Becker	노랑제비꽃	Ⅱ
33		<i>Viola seoulensis</i> Nakai	서울제비꽃	특
34		<i>Viola tokubuchiana</i> Makino var. <i>takedana</i> (Makino) F. Maek.	민동미제비꽃	Ⅱ

연번	과명	학명	국명	비고
35	Cucurbitaceae 박과	<i>Gynostemma pentaphyllum</i> (Thunb.) Makino	돌외	I
36		<i>Melothria japonica</i> (Thunb.) Maxim. ex Cogn.	새박	I
37		<i>Schizopepon bryoniifolius</i> Maxim.	산외	IV
38		<i>Trichosanthes kirilowii</i> Maxim. var. <i>japonica</i> (Miq.) Kitam.	노랑하늘타리	III
39	Salicaceae 버드나무과	<i>Salix koriyanagi</i> Kimura ex Goerz	키버들	특
40	Brassicaceae 십자화과	<i>Cardamine amaraeformis</i> Nakai	꽃황새냉이	특, III
41	Primulaceae 앵초과	<i>Lysimachia davurica</i> Ledeb.	좁쌀풀	III
42	Hydrangeaceae 수국과	<i>Deutzia glabrata</i> Kom.	물참대	I
43		<i>Deutzia parviflora</i> Bunge	말발도리	I
44		<i>Deutzia uniflora</i> Shirai	매화말발도리	I
45		<i>Philadelphus schrenkii</i> Rupr.	고광나무	III
46	Crassulaceae 돌나물과	<i>Penthorum chinense</i> Pursh	낙지다리	II
47	Saxifragaceae 범의귀과	<i>Chrysosplenium japonicum</i> (Maxim.) Makino	산팽이눈	I
48	Rosaceae 장미과	<i>Filipendula glaberrima</i> Nakai	터리풀	I
49		<i>Potentilla dickinsii</i> Franch. & Sav.	돌양지꽃	II
50		<i>Prunus mandshurica</i> (Maxim.) Koehne var. <i>glabra</i> Nakai	개살구나무	III
51		<i>Rosa maximowicziana</i> Regel	용가시나무	I
52		<i>Rubus corchorifolius</i> L. f.	수리딸기	I
53		<i>Sanguisorba tenuifolia</i> Fisch. ex Link	가는오이풀	I
54		<i>Spiraea blumei</i> G. Don	산조팝나무	I
55		Fabaceae 콩과	<i>Campylotropis macrocarpa</i> (Bunge) Rehder	꽃싸리
56	<i>Rhynchosia acuminatifolia</i> Makino		큰여우콩	I
57	<i>Vicia bungei</i> Ohwi		들완두	IV
58	<i>Vigna vexillata</i> (L.) A. Rich. var. <i>tsusimensis</i> Matsum.		돌동부	I
59	Haloragaceae 개미탑과	<i>Haloragis micrantha</i> (Thunb.) R. Br.	개미탑	I
60	Onagraceae 바늘꽃과	<i>Circaea alpina</i> L.	쥐털이슬	II
61		<i>Circaea lutetiana</i> L. subsp. <i>quadrisulcata</i> (Maxim.) Asch. & Magnus	말털이슬	II
62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i>Euonymus sachalinensis</i> (F. Schmidt) Maxim.	회나무	I
63	Rhamnaceae 갈매나무과	<i>Rhamnus davurica</i> Pall.	갈매나무	IV
64	Balsaminaceae 봉선화과	<i>Impatiens nolitangere</i> L.	노랑물봉선	I
65	Apiaceae 미나리과	<i>Hydrocotyle maritima</i> Honda	선피막이	I
66		<i>Hydrocotyle sibthorpioides</i> Lam.	피막이	IV
67	Gentianaceae 옹충과	<i>Swertia japonica</i> Makino	쓰풀	II
68	Asclepiadaceae 박주가리과	<i>Cynanchum nipponicum</i> Matsum.	덩굴박주가리	III
69		<i>Tylophora floribunda</i> Miq.	왜박주가리	I
70	Convolvulaceae 메꽃과	<i>Calystegia dahurica</i> (Herb.) Choisy	선메꽃	III
71	Verbenaceae 마편초과	<i>Verbena officinalis</i> L.	마편초	III

연번	과명	학명	국명	비고
72	Lamiaceae 꿀풀과	<i>Ajuga decumbens</i> Thunb.	금창초	I
73		<i>Scutellaria insignis</i> Nakai	광릉골무꽃	특, III
74		<i>Fraxinus mandshurica</i> Rupr.	들메나무	I
75	Scrophulariaceae 현삼과	<i>Scrophularia kakudensis</i> Franch.	큰개현삼	II
76		<i>Scrophularia koraiensis</i> Nakai	토현삼	특, IV
77	Lentibulariaceae 통발과	<i>Utricularia bifida</i> L.	땅귀개	IV
78		<i>Utricularia tenuicaulis</i> Miki	참통발	III
79	Campanulaceae 초롱꽃과	<i>Lobelia sessilifolia</i> Lamb.	숫잔대	II
80	Rubiaceae 꼭두선이과	<i>Paederia scandens</i> (Lour.) Merr.	계요등	I
81	Viburnaceae 산분꽃나무과	<i>Adoxa moschatellina</i> L.	연복초	I
82	Asteraceae 국화과	<i>Achillea alpina</i> L.	톱풀	II
83		<i>Artemisia rubripes</i> Nakai	덤불쑥	I
84		<i>Artemisia viridissima</i> Pamp.	외잎쑥	IV
85		<i>Carpesium macrocephalum</i> Franch. & Sav.	여우오줌	I
86		<i>Cirsium pendulum</i> Fisch. ex DC.	큰엉겅퀴	I
87		<i>Hololeion maximowiczii</i> Kitam.	깨묵	NT
88		<i>Leucanthemella linearis</i> (Matsum.) Tzvelev	키큰산국	NT, III
89		<i>Rhaponticum uniflorum</i> (L.) DC.	삐쭍채	I
90		<i>Saussurea seoulensis</i> Nakai	분취	특
91		Alismataceae 택사과	<i>Alisma orientale</i> (Sam.) Juz.	질경이택사
92	Araceae 천남성과	<i>Arisaema heterophyllum</i> Blume	두루미천남성	I
93	Juncaceae 꿀풀과	<i>Luzula multiflora</i> (Ehrh.) Lej.	산평의밥	II
94	Cyperaceae 사초과	<i>Carex dispalata</i> Boott ex A. Gray	삿갓사초	I
95		<i>Carex mitrata</i> Franch. var. <i>aristata</i> Ohwi	까락겨사초	I
96		<i>Carex onoei</i> Franch. & Sav.	바늘사초	II
97	Poaceae 화본과	<i>Festuca rubra</i> L.	왕김의털	IV
98		<i>Pseudoraphis ukishiba</i> Ohwi	물잔디	II
99	Typhaceae 부들과	<i>Typha laxmannii</i> Lepech.	꼬마부들	II
100	Pontederiaceae 물옥잠과	<i>Monochoria korsakowii</i> Regel & Maack	물옥잠	II
101	Liliaceae 백합과	<i>Asparagus oligoclonus</i> Maxim.	방울비짜루	I
102		<i>Heloniopsis koreana</i> Fuse, N. S. Lee & M. N. Tamura	치녀치마	특, II
103		<i>Lilium distichum</i> Nakai	말나리	III
104		<i>Metanartheicum luteo-viride</i> Maxim.	칠보치마	별 II, EN, V, 식
105		<i>Veratrum nigrum</i> L. var. <i>japonicum</i> Baker	여로	III
106	Orchidaceae 난초과	<i>Pogonia japonica</i> Rchb. f.	큰방울새란	NT, II

비고 : 별 II - 멸종위기야생생물 II 급/ 특 - 한반도특산식물/ EN(위기), NT(준위협), VU(취약)-국가적색목록 (환경부)/ II III IV V - 식물구계학적 특정종

자료 : 수원시, 2019, 『수원시 자연환경조사 및 도시생태현황지도 갱신』

3) 육종 및 연구된 식물자원

수원에서는 권업모범장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으로 변천해 오면서 활발한 작물연구의 성과로 다양한 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육성된 작물 품종의 경우 보통 육성지역의 이름을 붙여 계통명을 사용하며, 이는 1930년 이후로 계통명이 체계화된 것으로 육성된 지역을 나타내는 이름 뒤에 연속된 번호를 붙인다. 수원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된 계통들은 ‘수원1호’에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계통명이 그대로 품종명으로 정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수원○○호’로 명명되는 품종들은 씨앗을 수집한 지역명과 몇 번째로 육성한 것인지를 뜻하는 기호를 붙인 것이다. 지금까지 육성된 작물품종의 계통명을 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식량작물 품종(농사로 홈페이지 검색 결과) 총 978건 중 계통명에 ‘수원’이 포함된 품종은 총 180건으로 전체의 약 18.4%를 차지해 수원에서 육성되었거나 수원에서 씨앗이 수집되어 육성된 품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립종자원에 등재된 작물의 국가 품종 목록을 보면, 품종명에 수원 이름이 들어간 작물 품종은 총 8종으로 ‘수원19호’, ‘수원옥’, ‘수원3호’ 등의 식량작물과 특용작물이 있다.

〈표 6〉 수원 이름이 들어간 품종

구분	출원번호	작물분류	작물명	품종명	품종명(영문)
1	생판-1998-1446	특용작물	목화	수원3호	
2	생판-1998-1447	특용작물	목화	수원7호	
3	생판-2011-436	특용작물	병나무	수원병	Suwonppong
4	생판-1997-1298	채소류	수박	수원수박	
5	등재-1997-161	식량작물	옥수수	수원19호	
6	등재-1997-169	식량작물	옥수수	수원옥	Suwonok
7	출원-2001-124	특용작물	참깨	수원	
8	생판-1997-4463	특용작물	참깨	수원	

주 : 품종명칭 현황 검색; 품종명 ‘수원’ 검색

자료 : 국립종자원 홈페이지(<https://www.seed.go.kr/>)

수원에서 육종된 작물 및 산림자원 중 몇 가지 의미 있는 품종들이 있는데 대표

적으로 ‘기적의 볍씨’라 불리는 ‘통일벼’가 있다. 서둔동에 위치한 서울대학교에서 허문회 교수가 개발한 통일벼는 한국 육종의 독립을 알리는 이정표 역할을 했다.¹² 수원에서는 임목육종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해방 후 임목육종 연구는 1953년 수원에 위치한 서울농대 연습림에서 현신규 박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또한 1956년 중앙임업시험장 수원 육종지장이 창설되면서 현대적 개념의 임목육종 연구로 포플러와 소나무 육종이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리기테다소나무는 모양과 재질, 생장이 우수하고 병충해에도 강해 ‘경이로운 소나무(Wonder Pine Tree)’로 미국 의회에 소개되며 한국 임목육종학의 기틀을 마련했다.¹³

〈표 7〉 수원시에서 육종된 의미 있는 작물 및 산림자원

연번	품종명	학명 또는 계통명	교배 및 특성
1	통일벼	IR667	유카라(Yukara)를 원연교잡하고, 생산성이 높은 IR8을(인디카 품종)을 매개교잡
2	현사시나무	<i>Populus alba</i> × <i>P. glandulosa</i> F1, No. 1, 2, 3 & 4	우리나라 자생종 수원사시나무와 도입되어 토착화된 은백양 교잡
3	리기테다소나무	<i>Pinus rigitaeda</i>	리기다소나무와 테다소나무의 교잡종
4	수원포플러	<i>Populus koreana</i> × <i>P. nigra</i> var. <i>italica</i> F1	물항철나무와 양버들 교잡
5	개나리 '수원골드'	<i>F. Koreana</i> 'Suwon Gold'	황금잎 얼룩개나리의 액아배양 중 발생한 변이체

수원에서는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인 무궁화의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었다. 수원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은 1950년대 말부터 200여 종이 넘는 국내의 무궁화 품종과 전국 각지의 재래종 무궁화들을 수집·증식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이들을 재료로 삼아 1990년대 말까지 ‘선덕’, ‘칠보’ 등 20여 가지 신품종들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품종에는 서호향·화홍·칠보 등 수원 관련 명칭을 따라 명명된 품종, 선덕·화랑 등 수원에서 선발되거나 연구 개발된 품종들이 있다. 수원시는 무궁화와 관계가 깊은 지역으로 2012년부터는 매년 무궁화 축제를 개최할 뿐만

12 김태호, 2017, 『근현대 한국 쌀의 사회사』.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대한민국과학기술유공자 공훈록 1』.

아니라 무궁화동산, 명품 무궁화길, 무궁화 양묘장 등을 조성하는 등 무궁화 홍보와 보급에 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주·수성·창룡 등 5종의 수원시 무궁화 품종을 개발하였다.

〈표 8〉 수원시에서 육종되거나 개발된 무궁화

연번	품종명	계통명	의미	육성기관
1	서호향	자단심계 홑꽃	수원 관련 명칭을 따라 명명된 품종	원예시험장(1979년)
2	화홍	자단심계 홑꽃	수원 관련 명칭을 따라 명명된 품종	원예시험장(1979년)
3	칠보	자단심계 홑꽃	수원 관련 명칭을 따라 명명된 품종	임목육종연구소(1990년)
4	칠보아사달	아사달계 홑꽃	수원 관련 명칭을 따라 명명된 품종	임목육종연구소(1990년)
5	넉파	적단심계 홑꽃	수원 관련 명칭을 따라 명명된 품종	임목육종연구소(1990년)
6	선덕	백단심계 홑꽃	수원에서 선발되거나 연구 개발된 품종	임목육종연구소(1975년)
7	화랑	백단심계 반겹꽃	수원에서 선발되거나 연구 개발된 품종	서울대(1972년)
8	영광	자단심계 홑꽃	수원에서 선발되거나 연구 개발된 품종	서울대(1972년)
9	수주	청단심계	수원시 상징 무궁화 (고려시대 수원의 이름)	수원시 개발
10	수성	전단심계	수원시 상징 무궁화 (통일신라시대 수원의 옛 이름)	수원시 개발
11	창룡	백단심계	수원시 상징 무궁화 (수원의 4대문 중 하나)	수원시 개발
12	홍재	백단심계	수원시 상징 무궁화(정조대왕의 호)	수원시 개발
13	효원	자단심계	수원시 상징 무궁화 (효원의 도시, 상징적 표현)	수원시 개발

4. 결론

본 연구는 수원시의 식물과 관련된 역사, 육종 및 연구된 식물, 자생식물 등을 검토하여 수원시와 연관된 식물자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수원시는 정조가 계획도시인 화성을 축성할 당시부터 다양한 식목활동을 펼쳤던 지역으로, 이때 조성된 풍부한 식물자원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나아가 권업모범장의 설치를 시작으로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등이 위치해 품종개발 및 연구의 집결지로서 다양한 작물, 과수, 임목, 화훼 등의 품종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벼, 리기테다소나무, 현사시나무 등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을 알린 품종들이 개발되었다.

‘환경도시 수원’은 광교산, 칠보산, 여기산, 팔달산 등의 산림지역과 수원천, 서호천, 원천리천, 황구지천 등 4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어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시 내에서는 칠보치마, 해오라비난초 등 멸종위기식물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생태자원을 보전 및 복원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와 문화적, 생태적으로 풍부한 식물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원지역의 식물자원 인벤토리 구축해야 한다. 수원과 연관된 역사 관련 식물자원, 육종 및 연구된 식물자원, 자생 식물자원을 대상으로 관련 기록, 연구논문, 표본 등의 정보수집 및 정리를 통해 수원시 식물자원의 종합적인 조사 및 관리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향후 식물자원의 보전 전략과 정책 결정 시 수원시와 관련이 깊은 식물종을 우선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공원 조성, 식재 계획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도시텃밭, 공원, 수목원 조성 시 수원시와 연관된 식물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수원시 연관 식물이 식재된 장소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역사성과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들에게 지역성을 고취시킬 수 있다.

셋째, 수원수목원 조성과 연계하여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수원시 연관 식물자원을 통해 수원수목원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타 수목원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근대농업 발상지로서 수원의 지역 정체성과 ‘환경도시 수원’의 생물다양성

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우수한 수원지역의 식물자원을 발굴함으로써 역사와 문화, 자연이 조화된 도시로서 수원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부여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투고일 2019년 10월 30일 심사일 2019년 11월 19~27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6일

참고문헌

1. 원본

『비변사등록』,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화성성역의궤』, 『식목실총』.

2. 단행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대한민국과학기술유공자 공훈록 1』.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한국지명유래집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중부편』.

김은경, 2017, 『정조, 나무를 심다』, 북촌.

김점수 · 박상용, 2016, 「강원도 식물자원의 가치 제고 및 활용」, 『정책메모』 12호, 강원발전연구원.

김태호, 2017, 『근현대 한국 쌀의 사회사』.

권해연 · 김세현 · 심선정 · 남재익, 2014, 『나라꽃 무궁화 품종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수원시, 2019, 『수원시 자연환경조사 및 도시생태현황지도 갱신』.

이현우, 2011, 『전통지식 연구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국립생물자원관.

3. 논문

김부진, 2011, 「조선후기 식목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제43집, 249~282쪽.

김현준 · 정희석 · 강신호, 2015, 「제주도 지역의 민속식물」, 『한국자원식물학회』 제28권 2호, 217~234쪽.

유주한 · 김미진 · 안철우, 2012, 「경주국립공원 소나무 깃대종의 건강도 및 군락평가」,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6권 4호, 77~83쪽.

정혜란 · 최경 · 박광우, 2012, 「경기남부 지역의 민속식물자원」, 『한국자원식물학회』 제25권 5호, 523~542쪽.

4. 인터넷 매체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http://www.nature.go.kr/>).

국립종자원 홈페이지(<https://www.seed.go.kr/>).

수원문화원 홈페이지(<http://www.suwonsarang.com/>).

요 약

수원시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산림 및 농업 분야의 근대적인 연구가 시작된 장소로서 수원시에서 처음 발견되거나 육종된 식물 등 의미 있는 식물자원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광교산, 칠보산 등과 같은 생태보전지역에서 자생하는 희귀멸종식물은 생태적으로도 보전가치가 높아 환경도시 수원을 상징하는 식물자원으로서도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식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시민들이 수원시의 식물과 자연생태계에 대한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기초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원시의 역사 연관 식물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대규모 식재가 이루어지고, 문헌 기록이 비교적 자세히 남아 있는 조선 정조시대의 식목 기록과 수원지명과 연관된 식물들을 조사하였다. 육종된 식물 자원 발굴을 위해 수원에 위치한 농업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진 품종들을 계통명 조사,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적으로 우수한 수원시 식물자원 발굴을 위해 2019년 이루어진 수원시 자연환경조사를 토대로 수원시 자생식물 현황을 조사하였다. 수원시의 역사와 연관된 식물은 버드나무, 소나무 등 총 49종, 수원의 이름을 갖거나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생식물은 수원잔대, 칠보치마 등 총 107종, 수원에서 육종되거나 연구된 식물은 총 198종을 확인하였다. 수원시와 연관성이 높은 식물들은 수원시가 가진 소중한 생태문화유산으로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수원시 식물자원 리스트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에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식물에 대한 관심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조성될 수원시 내 공원이나 수원수목원 등의 공간에 수원시 연관 식물을 식재, 배치함으로써 식물자원 및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생물다양성협약(CBD), 식물자원, 육종식물, 지역식물, 자생식물

ABSTRACT

Inventory and Utilization of Plant Resources related with Suwon

Jung Kyungmin, Kim Eunyoung, and Song Wonkyong

Suwon is where the modern research of Korea's forestry and agriculture sectors began, and many meaningful plant resources were first discovered or bred in the city. In addition, rare and endangered plants growing in ecological preservation areas such as Mt. Gwanggyo and Mt. Chilbo are important ecological resources and can be highly evaluated as symbols of the eco-friendly city of Suwon. Recently, while Suwon citizens have become more interested in plant resources, they lack basic data to broaden their knowledge of plants and the natural ecosystem.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make the inventory of plant resources related to the history of Suwon by investigating plants related to the name of the city and exploring the records of tree-planting in the reign of King Jeongjo, since large-scale plantation was made during the period and relatively detailed records remain. Surveys on plant names, expert interviews and advices were used to identify plant varieties bred by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s in Suwon. Lastly, the current status of Suwon's indigenous plants was studied based on Suwon Natural Environment Survey in 2019 to develop ecologically significant plant resources. As a result, this study identified 49 plant species related to Suwon's history, 107 species of native plants that have a name related to Suwon or ecological significance, and 198 species of plants bred or studied in Suwon and created a list of plant resources that are highly related to Suwon and would be precious ecological/cultural heritage of Suwon. The list can be used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and contents to respond to citizens' growing interest in plants. In addition, planting and arranging the plants in parks or Suwon Arboretum

would contribute to improving citizen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lant resources and biodiversity.

Key words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plant resources, breeding plants, local plants, and indigenous plants

수원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이현경* / 황소하**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범위 및 방법
4. 수원시 환경교육기관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5. 결론

1. 서론

기술 및 산업 발달을 통해 인류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무분별한 자원 및 환경 개발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및 환경 보전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보전에 대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재정비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및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참여에 초점을 둔 환경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친환경 행동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¹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Researcher, Dep. of Urban management Research,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 of Urban management Research,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시민들 또한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아토피 및 천식 질환 증가 등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며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수원시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친화도시를 만들고자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환경교육 친화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환경교육 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원시는 환경교육 친화도시 수원을 이루기 위해 시민의 건강보호,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와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환경교육에 대한 수원시의 투자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제2차 수원시 환경교육 계획을 살펴보면, ‘누구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환경교육의 보편 일상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교육 기반 강화’, ‘수원 생태·역사 문화가 살아있는 수원형 환경교육 확산’이라는 목표 달성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과 63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5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환경교육에 대한 수원시의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 환경교육기관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환경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환경교육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매년 환경교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긴 하지만 자체평가로 인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주로 재정사용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지며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환경교육 거점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교육기관을 선정하여 환경교육기관 운영 실태에 대해 세부기준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친

Suw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E-mail: hsoha@suwon.re.kr)

1 Mckeown, R. and C. Hopkins, 2003, “EE≠ESD: Defusing the worry”,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9(1).

화도시 수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환경교육 프로그램

환경교육의 목표는 자연과 환경을 존중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소양을 기르는 것이다.² 다양한 관점에서 환경소양에 대한 정의 및 범주에 대해 논의한 결과, 친환경적 태도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인 정의적 측면³과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⁴ 궁극적으로 환경교육의 목적은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실천적 활동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교육의 목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주입식의 인지적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다.⁵ 그러나 현재 학교교과과정의 환경교육은 교과서 중심의 너무 학술적 이론에 치우쳐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내용의 접근도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워 환경교육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⁶ 따라서 환경교육을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영역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현장탐구를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의 모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이르게 되었다. 즉 기존의 교과서 중심 학습 방법에서 벗어나 학습자들

2 Cole, A. G., 2007, "Expanding the field: Revisiting environmental education principles through multidisciplinary frameworks",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38(2), pp.35~45.

3 Davis, G. L., Albright, J. E., Cook, S., and Rosenberg, D., 1998, "Projecting the future healthcare burden from hepatitis C in the United States", *In Hepatology*, 28(4), pp.390.

4 Moseley, C., 2000, "Teaching for environmental literacy", *The Clearing House*, 74(1), pp.23~24.

5 Lim SH and Nam SJ., 2004, "An evaluation of environment educational programs -Focusing on the immediate experience and the environmental sensitivity",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Education*, 12(3), pp.497~507.

6 환경부, 2002,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지침」.

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체험 학습교육의 경우 실내 교육과 비교했을 때 교육 효과가 7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⁷ 즉 추상적인 수업보다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교육이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양성에 더욱 바람직하며 이러한 체험학습이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서의 미흡한 교육효과를 보완해 줄 수 있다.

학습자가 거주하는 지역적 맥락을 중심으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때 교육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기에 프로그램 내용 구성 시 학습자의 주변 환경 활용 및 지역 연계성이 중요하다.⁸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을 통한 환경교육 대상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환경교육은 초등학교와 유아에 대한 집중되어 있기에 생애주기에 맞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⁹ 즉, 각 연령대에 맞는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민들의 환경의식 고취시켜 효과적인 환경실천 활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환경교육 주제가 주로 생태 체험교육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기후변화문제, 에너지문제, 환경변화에 의한 보건교육 등 다양한 환경교육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균형 있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¹⁰ 또한 김인호 연구¹¹에서는 다양한 환경 주제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환경교육의 내용, 장소, 성격, 대상을 다양화하고 확대함으로써 환경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기에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단계에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프로그램의 계획 단계에서 지역적 요구와 환경적 특성

7 최돈형·박태윤·노경임·손연아·손정우·전영석, 2001, 「초등학교 에너지절약교육 현황 조사연구」, 『환경교육』 14(1), 145~165쪽.

8 박태윤·노경임(2004, 「국내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환경복원기술』 7(6),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94~103쪽.

9 (장성진, 박종민 2005)

10 김인호, 201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환경교육 거버넌스 구축: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17~225쪽.

11 김인호, 201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환경교육 거버넌스 구축: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17~225쪽.

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운영 기관의 성격 및 목표에 부합해야 하고, 환경교육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정교하게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¹²

2) 수원시 환경교육기관의 기능

수원시는 환경교육 진흥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보면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사항,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자문 등)에 기능 대행 등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수원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교육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사업 및 기능은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수원권 지역 생태환경 연구 및 보호활동, 환경교육 관련 자원봉사자 양성, 환경교육 동아리 단체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환경교육 정보 제공 및 정책홍보,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들을 수행하는 것이다(「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경우는 「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설치하였다(「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제1조).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기능은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환

12 Simmons, D. and The Guidelines Writing Team of the National Project for Excellence in Environment Education, 2004, "No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Guidelines for Excellence", Washington, DC: North American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Education.

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환자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육성, 그 밖에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수행하여야 한다.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사업 및 기능에 대한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사업 및 기능)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전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기후변화 관련 자원 봉사자 양성, 기후변화 동아리, 단체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기후변화 정보 제공 및 정책홍보, 그 밖에 기후변화체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수원시장이 별도로 정한 사항이다.

조례로 제정 운영되는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자원 봉사자 양성, 네트워크 활성화, 환경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기능으로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환경교육기관 운영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표 1〉 수원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기관	기능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3조(사업 및 기능) 체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수원권 지역 생태환경 연구 및 보호 활동 3. 환경교육 관련 자원봉사자 양성 4. 환경교육 동아리·단체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5. 환경교육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6.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4.03) 1.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개정 2015.04.03) 2. 환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환자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개정 2015.04.03) 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개정 2015.04.03) 4.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 04. 03)

기관	기능
기후변화체험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p>□ 제3조(사업 및 기능) 체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변화 전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2. 기후변화 관련 자원봉사자 양성 3. 기후변화 동아리, 단체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4. 기후변화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5. 그 밖에 기후변화체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3.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그림 1〉 환경-교육 기준에 따른 환경교육시설 유형 구분

(김문옥·이재영, 2016, 「환경교육센터 운영요소 및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환경교육』 29권 1호, 119쪽의 〈그림 1〉 재인용)

정부,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환경교육시설이 있다. 정수정¹³은 환경 측면과 교육 측면으로 나누어 환경교육시설유형을 구분하였다. 환경과 교육 측면을 모두 만족하는 A Type에는 환경교육센터, 자연학습원, 자

13 정수정, 2008, 「국내 환경교육의 장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7~71쪽.

연휴양림, 학교학습원, 자연학교 및 생태학교 등이 포함된다. 반면 B Type의 환경교육장은 교육이 주된 목적이나 환경보전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과학관 등으로 구분하였다.¹⁴

수원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환경교육기관 중 설립목적에 의해 A Type에 해당하는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기후변화체험교육관과 B Type에 해당하는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를 중심으로 환경교육시설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조사 대상인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수원시의 민간위탁시설로서 수원시 조례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에 위 기관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환경교육양성, 연구 및 개발, 지원 및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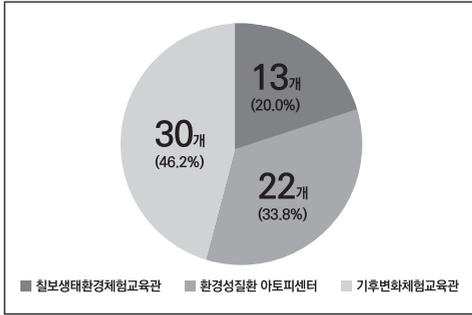
수원시의 환경교육기관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수원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환경교육기관인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2019년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각 기관의 2019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수를 분석한 결과,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13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22개,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30개로 총 6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환경교육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¹⁵ 인증 기준을 살펴보았다.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는 프로그램,

14 김문옥·이재영, 2016, 「환경교육센터 운영요소 및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환경교육』 29권 1호, 119쪽의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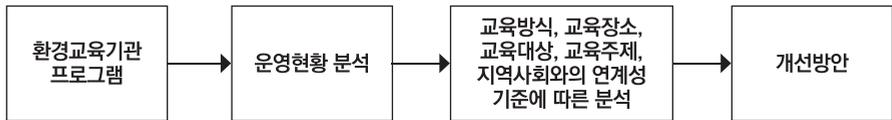
15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란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에 근거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



〈그림 2〉 기관별 프로그램 수

용의 연계성, 프로그램 우수성 등이 세부기준 및 확인사항에 포함된다.¹⁶

이러한 다양한 세부적인 기준 및 확인사항 들 중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각 기관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방식, 교육장소, 교육대상, 교육주제,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고려하여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림 3〉 연구방법

수성, 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에서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 제'로 전환되었다.

16 Ministry of Environment, 2015, Second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Master Plan(2016~2020); 유혜지·송철호·임철희·김세진·이우균, 2016, 「기후변화 관련 수도권 지역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기후변화학회지』 7(2), 169~176쪽; 환경교육포털사이트.

4. 수원시 환경교육기관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1) 교육방식

(1) 운영 현황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방식을 학습의 연속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학습의 연속성은 교육 횟수로 구분하여 단발성 프로그램과 연속성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다. 단발성 프로그램이란 1회 참여를 통해 교육이 끝나는 프로그램이며, 연속성 프로그램이란 주기적으로 1회 이상 참여를 요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다. 2019년 기준 총 65개 프로그램 중 단발성 프로그램 60개, 연속성 프로그램 5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 참조).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연속성 프로그램의 경우는 주로 생태안내자 양성과정,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그림책놀이 활동가 등으로 성인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연속형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 살펴보면,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생태안내자 양성과정의 경우 10월에서 12월(매우 수요일) 약 10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상대적으로 연속형 프로그램 수가 많은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경우는 아토피 제로캠프, 어머니학교, SCEDA 서포터즈단, 그림책놀이 활동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10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단, 아토피 제로캠프는 1박 2일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연속형 교육으로 구분하였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연속형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과정은 1월에서 11월간 진행되며 워크숍, 타 지자체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견학, 보수교육, 환경교육 등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2〉 교육방식-학습의 연속성

구분	합계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단발성 프로그램	59	12	19	29
연속성 프로그램	6	1	3	1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방식을 숙박형식인 캠프형과 일일체험 형으로 구분하였다. 캠프형은 1박 2일 이상의 기간 동안 숙박하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며, 일일 체험 형은 당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6시간까지 다양한 시간대로 운영된다.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2019년 운영(계획) 중인 프로그램의 수는 65개이며 이 중 캠프형이 1개, 일일 체험형이 64개로 분석되었다.

캠프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에서 진행하는 ‘아토피 제로캠프’로 매년 4월과 9월 중 약 8회에 걸쳐 15~17가족을 모집하여 1박 2일로 운영하고 있다. 캠프형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아토피 예방을 위해서는 아토피 질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질환경 개선에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개선방안

분석결과 1회 체험 학습에 해당하는 단발성 프로그램의 수가 59개로 전체 프로그램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1회 이상 참여를 하는 연속성 프로그램은 6개로 전체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환경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태도 및 가치관 변화를 통한 습관형성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학습을 통한 태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¹⁷ 다시 말해 환경교육이란 ‘계속성의 원칙’이 반영되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시민교육을 진행할 경우 문화체험 및 방과 후 학습에 국한되기 때문에 실천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¹⁸ 환경교육기관 운영의 개선사항으로 단발성 프로그램보다는 환경교육학습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연속성 교육 프로그램 확충을 제안할 수 있다.

17 유혜지·송철호·임철하·김세진·이우균, 2016, 「기후변화 관련 수도권 지역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기후변화학회지』 7(2), 169~176쪽.

18 윤현지, 2018,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시민교육프로그램 사례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수원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의 효과가 높은 연속성 프로그램보다 단발성 프로그램의 집중해서 운영되는 이유는 프로그램 실적을 방문횟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조사대상의 해당하는 기관들은 민간위탁시설로서 기관 운영의 평가 시 양적인 측면인 방문객을 중심으로 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 단발성 프로그램 운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수원시 환경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측면의 교육평가 및 기관 평가(예 : 프로그램 만족도, 방문횟수)를 지양하고 정성적 평가를 통한 교육평가 및 기관 평가(예 : 교육 모니터링, 프로그램 우수성, 재방문횟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교육방식을 숙박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아토피 제로캠프’ 외 대다수의 프로그램을 일회성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캠프형 체험활동인 ‘아토피 제로캠프’는 매년 4월과 9월 중 약 8회에 걸쳐 15~17 가족을 모집하여 1박 2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2017년 7회 252명, 2018년 8회 289명으로 운영 빈도가 낮고 나머지 시간의 공간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는 건립 시 숙박형 체험을 목적으로 3층의 공간(2인실 17개, 4인실 4개)을 설계하였으나, 2인실의 경우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숙박시설로서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주로 ‘아토피 제로캠프’ 이외에는 목욕 보습체험 프로그램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숙박형식의 캠프형보다는 일일체험형식이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효성 없는 시설공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제안할 수 있다.

2) 교육장소

(1) 운영 현황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교육장소에 따라 실내체험, 실외체험, 병행으로 프로그램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2019년까지 수원시의 민간위탁을 받은 3기관에서 운영 중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결과, 실내 체험형 44개, 실외체험 5개, 병행 16개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각 기관별로 교육장소에 대해 살펴보면 생태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경우는 총 13개 프로그램 중 실내 프로그램 4개, 실외 프로그램 4개, 병행 프로그램 5개로 나타났다.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경우 실내 프로그램 11개, 실외 프로그램 1개, 병행 프로그램 10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경우는 기후변화전시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운영 중인 프로그램 모두 실내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표 3〉 교육장소

구분	합계	칠보생태환경 체험교육관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실내 체험	44	4	11	30
실외 체험	5	4	1	0
병행(실내+실외)	16	5	10	0

최근 미세먼지로 외부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증가하여 실외체험보다 실내체험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엄마와 숲 나들이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대상이 생후 24개월에서 38개월 미만의 영아와 보호자다 보니 2019년 봄철 미세먼지로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적어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가 확인되었다.

(2) 개선방안

교육장소에 대한 분석결과, 실내체험 44개, 실외체험 5개, 병행 16개로 도출되었다. 박태윤과 노경임의 연구¹⁹에 따르면 학습자의 흥미유발과 동기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프로그램 구성 시 다양한 교육장소의 구성은 학습자의 흥미 및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서 실내·외 프로그램을 학습자 특성에 맞추어 구성할 필요가 있다. Dien

19 박태윤·노경임, 2004, 「국내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환경복원기술)』 7(6), 94~103쪽.

의 연구²⁰에 따르면 실외에서의 탐색을 통한 체험학습은 자기발견, 도전정신, 성취감, 독립성 등을 도울 수 있으며, 자연자원을 이용한 풍부한 놀이는 유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집중력이 다소 약한 영·유아의 경우는 실내·외 체험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의 흥미유발을 위한 학습자 특성에 맞는 실내·외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프로그램 다양성 증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로 인하여 학습자 및 보호자들은 실내체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으나 본 연구대상인 3곳의 기관들의 시설이 협소하여 대강당, 친환경체험관 등과 같이 큰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간이 협소하여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참석인원 저조로 인한 프로그램이 취소되기도 한다. 개방된 공간에서 사람들의 관계(예 : 유아)를 촉진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높여 주고, 친사회적 행동을 학습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²¹ 또한 장소기반 환경교육은 교실 밖 특정 장소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환경문제해결을 추구한다.²²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경우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협소한 공간 때문에 기관 내에서 진행하기보다는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한 환경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날씨 변화로 외부활동이 어려울 때 실외 체험장과 같이 개방된 실내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협소한 공간구조를 변경하여 실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0 권은희·이기현, 2004, 「자연친화적인 실외환경에서의 놀이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5(1), 61~76쪽.

21 권은희·이기현, 2004, 「자연친화적인 실외환경에서의 놀이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5(1), 61~76쪽.

22 윤옥경, 2016, 「초등 예비교사를 위한 교양과목에서 장소기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실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1).

3) 교육대상

(1) 운영 현황

프로그램 교육대상을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영아와 유아 구분 없이 초등학생 이하(만 7세 이하)를 유아로 분류하였다. 중복 되는 교육대상을 포함하여 교육대상별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아 교육대상 프로그램 28개,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38개,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28개, 고등학교 대상 프로그램 25개, 성인 프로그램 35개였다(〈표 4〉 참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38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35개, 유아 대상 프로그램 28개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및 유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구성된 이유는 환경교육이 태도 및 가치관 변화를 통한 습관 형성을 추구하는 행동교육이라 기본생활습관의 형성기인 초등학교 시기에 이루어질수록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²³

한편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의 수는 35개로 두 번째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각 프로그램 교육대상에 대해 살펴보면 환경단체, 보육기관 및 학교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수 있지만, 상당수 프로그램들이 성인을 위한 교육보다는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단위 참가대상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서 성인을 위한 교육과 가족형 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 35개 프로그램 중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10개, 가족형 교육 프로그램 15개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경우 성인 아토피 질환자를 위한 교육보다는 아토피 질환을 가진 아이를 가진 양육자 입장의 교육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이재영·조경준·안정섭, 2018, 「생태탐구대회 개선을 위한 청소년의 배움에 대한 인식조사」, 『환경교육』 31(4), 406~418쪽.

〈표 4〉 교육대상

구분	합계	철보생태환경 체험교육관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유아	28	4	11	13
초등학생	38	7	9	22
중학생	28	6	8	14
고등학생	25	6	8	11
성인	35	6	15	14

비고 : 중복되는 교육대상 포함

(2) 개선방안

유아기에 형성된 환경에 대한 가치관, 생활태도, 감각 등이 이후 환경에 관한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기의 환경교육이 중요하다.²⁴ 이러한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수원시 내 환경교육기관 운영 프로그램을 교육대상별로 분류해 본 결과,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28개,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38개로 전체 운영 프로그램(n=65개)의 4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과반수 이상이 유아 및 초등학생에 집중되어 있다. 환경교육은 특정 교육대상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연령집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²⁵ 즉, 시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연령대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균형을 맞추어야 환경교육의 학습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수원시 내 환경교육기관 프로그램을 교육대상별로 구별하면 성인 프로그램이 35개로 전체 프로그램의 약 2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점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교육

24 Ryu HS, Shin KH., 2010,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using ecological fairy tales on environment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4(4).

25 Park SY, 2007, "Evaluation of Integrated Programs of School and Social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다수의 성인 프로그램은 성인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기보다는 대다수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향후 효과적인 환경교육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성인의 환경교육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인 학습자들이 왜 환경교육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동기적 측면을 고려하여 성인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4) 교육주제

(1) 운영 현황

교육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생태 프로그램 17개, 기후변화 프로그램 23개, 환경보전 프로그램 17개,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4개, 폐기물 관련 프로그램 3개, 공기 관련 프로그램 2개, 기타 프로그램 2개로 나타났다(〈표 5〉 참조).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경우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목적에 걸맞게 전체 프로그램 13개 중 생태 프로그램 12개, 에너지 프로그램 1개로 구성되었다.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는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목적에 부합하게 전체 22개 프로그램 중 환경보전 프로그램 17개, 생태 프로그램 4개, 기타 프로그램 1개로 구성되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경우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전체 30개 프로그램 중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 23개, 공기 관련 프로그램 2개, 에너지 프로그램 2개, 폐기물 프로그램 2개, 생태계 프로그램 1개, 기타 1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들을 살펴보면 생태 관련 프로그램은 주로 생물다양성 교육, 텃밭체험, 숲 체험 등으로 주로 구성되었으며, 생태환경체험교육관뿐 아니라 기후변화체험관,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에서 인지적 교육과 더불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아토피센터의 숲속 놀이터 프로그램의 경우 환경성 아토피 질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중심의 숲길 걷기 및 명상, 자연 및 곤충 관찰 등 생태체험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후변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주로 날씨 및 계절에 대한 설명, 기후변화를 야기

하는 요인(예 : 이산화탄소),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현상(예 :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전염병)에 대해 알아보는 교육으로 구성되며 주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환경보건 프로그램의 경우는 환경변화로 발생하는 아토피 및 천식 예방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들로 주로 구성된 것으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 밖에 폐기물 관련 프로그램은 주로 재활용품을 활용한 만들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며,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는 무동력 에너지에 대한 이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패시브 하우스 등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아토피 환자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과 같은 기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프로그램들이 한 분야의 내용을 다루기도 하지만 한 프로그램이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다룬 것도 있기에 중복되는 분야를 고려하였다.

〈표 5〉 교육주제

구분	합계	철보생태환경 체험교육관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생태계	17	12	4	1
환경보건	17	-	17	-
기후변화	23	-	-	23
물	-	-	-	-
공기	2	-	-	2
토양	-	-	-	-
에너지	4	1	-	2
폐기물	3	-	-	2
기타	2	-	1	1

(2) 개선방안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 중 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경우는 논 체험장을 통한 생물 다양성 및 생태 환경교육을 다른 기관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경우는 아토피 질환자를 위한 1:1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토피 질환자의 질병 개선을

위해 전문가, 간호사, 영양사의 상담을 통한 생활습관 및 식습관 개선을 통한 질병 예방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경우는 환경교육진흥법 제 13조(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에 근거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인증받은 프로그램이 3개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표 6〉 기후변화체험교육관 환경부 프로그램 인증실적

인증(지정)번호	인증(지정)프로그램명	인증(지정)날짜	기타
제2017-17호	꼬마 에티즌	2017.04.20.	
제2018-77호	미래 친환경 건축사	2018.08.31.	
제2019-005호	에티즌 탐험대 '드림이의 하루'	2019.04.22.	인증만료 후 재지정

그러나 교육목적의 극대화보다 친숙한 교육내용 전달을 위하여 생태환경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다 보니 오히려 기관의 특화된 사업 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데 다소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텃밭체험, 숲 체험 등과 같은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모든 기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기관의 전문성과 학습자의 흥미를 저하시킬 수 있다.

향후에는 기관의 설립목적, 시행성에 부합하고, 교육대상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각 기관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들을 개선시키고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기관의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관점의 관리방식과 더불어 수요자 관점의 성과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는 단순히 각 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느냐에 성과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각 기관마다 운영하는 사업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적인 측면의 성과 측정보다는 이용자 또는 시민 입장에서의 성과평가 정보를 추가하여 관리한다면 좀 더 전문화된 환경교육 프로그램 집중을 통한 교육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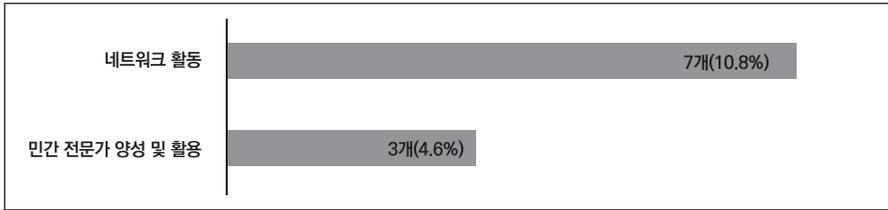
5)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1) 운영 현황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은 민간 전문가 양성 및 활용,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살펴본 결과 민간 전문가 양성 및 활용 프로그램의 경우는 3개,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활동의 경우는 7개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민간 전문가 양성 및 활용에 대해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경우는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생을 기후해설사로 채용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였다.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경우도 생태안내자 양성과정 수료생을 생태환경교실 혹은 방과후 교실의 강사로 채용하여 활용하였다.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경우 두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민간 전문가 양성 및 활용을 하고 있다.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는 SCEDA 서포터즈단과 그림책놀이 활동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이수자들을 찾아가는 예방교육의 인형극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SCEDA 서포터즈단은 교육 이수생이 신규 교육생을 훈련시키는 학습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다.

각 기관별로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연 10회 수원지역의 환경교육 단체 활동가들과 소통 및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태조사기법, 환경 인문학 등 환경 분야별 특별강좌를 진행한다.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는 지역 내 보육환경·보건 관련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활동(주민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연계기관 간담회 진행 및 참석, 지역사회연계 행사 시 체험부스 운영 등)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경우 수원기후행동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수원지역 기후행동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과의 네트워크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그림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2) 개선방안

분석결과 총 65개 프로그램 중 민간 전문가 양성 및 활용 3개(4.6%), 네트워크 활동 7개(10.8%)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은 각 기관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관련 자격자들의 고용과 활용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의 민간전문가에 대한 범위가 교육 강사로 다소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교육 강사가 아니라도 수원시의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함께 진행된다면 지역 내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주요 네트워크 활동은 환경교육 활동가 중심의 전문가 소통 채널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 확대를 통하여 일반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활동의 기능 중 하나인 환경교육정보 구축지원 및 종합관리 역할을 수행하려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가 필요하다.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경우 지역 사회 내 보육시설과 MOU를 체결하여 보육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관련기간 종사자들에게 식품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대처 및 관리법 등 보건교육 정보 제공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봉사활동 참여(또는 기획)를 통해 기관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기에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센터가 되기 위해 친환경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환경보호 관련 봉사활동 내용의 다양화 및 다각화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각 기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기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기관이 속한 지역 내 시민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시민 참여 환경교육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같은 경우는 ‘열지도 그리기’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수원시민 참여를 통해 진행되어 인지도뿐만 아니라 시민 간 소통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성 측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가 위치한 조원동의 경우 주변에 거대한 중산층 밀집 주거단지가 입지하고 있어서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이 강화된다면 지금보다 더 개선된 사업 및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생태환경 축제 등에 센터가 참여하여 홍보 및 교육의 기회를 갖는다면 또 하나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환경교육 거점 역할을 하는 환경교육기관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운영 현황 분석결과, 환경교육방식의 경우 일일체험형식의 단발성 프로그램을 주로 구성된 실정이다. 따라서 반복학습을 통한 교육효과를 고취시킬 수 있는 연속성 교육 프로그램 확충의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다.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연속성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평가 방식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연구대상인 칠보생태환경 체험교육관,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수원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민간위탁시설이다. 민간위탁기관의 경영성적을 정량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다 보니 깊이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연속형 프로그램보다 방문 수요를 증대할 수 있는 단발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원시 환경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평가 및 기관 평가 시 정량적 접근보다 정성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장소의 경우 주로 실내체험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정이다. 프로그램 구성 시 다양한 교육장소의 구성은 학습자의 흥미 및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서 실

내·외 프로그램을 학습자 특성에 맞추어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외부활동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대강당과 같이 실내 체험 학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대상이 많으나 교육시설의 장소가 협소하여 희망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실내체험이 전체 프로그램의 50%를 차지하지만, 실내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1층 교육실밖에 없어 미세먼지가 심해 외부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진행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상의 경우 주로 제2차 환경종합계획에 맞게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 대상에 맞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다만 성인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프로그램 질적인 측면에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가족 구성원으로서 참가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에는 왜 성인들이 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지며, 어떤 것을 학습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동기적 관점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성 질환 아토피센터의 경우 성인 아토피 환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가족형 혹은 아토피 질환자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만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 아토피 환자들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교육대상 확대를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주체의 경우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으나, 각 기관에서 한 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많으며, 수원시 내 기관들끼리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존재하는 실정이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각 기관마다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교육 이후 인식 및 행동의 변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경우 13개 프로그램에 대해 3명의 직원들이 행정업무와 더불어 운영하고 있다. 활동가와 강사들을 채용해서 교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한 전문성이 확보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은 민간 전문가 양성과 네트워크 활동으로 분석하였으나 매우 활동이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각 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을 살펴보면 자원봉사, 환경 활동가 양성, 네트워크 활동 등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기관이 속한 지역 내 시민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시민 참여 환경교육 프로그램 홍보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형식적 특성에 맞춰 교육방식, 교육장소, 교육대상, 교육주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인 프로그램 변화를 통해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각 환경교육기관의 운영예산, 인적 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 등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수원시 내 모든 환경교육센터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요 기관의 현황을 파악한 자료라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기관들이 수원시 내 환경교육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수원시 내 모든 환경교육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본 연구결과를 통해 수원시 환경교육기관 운영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일 2019년 10월 30일 심사일 2019년 11월 19~27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6일

참고문헌

- 김인호, 201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환경교육 거버넌스 구축: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17~225쪽.
- 박태윤 · 정완호 · 최석진 · 최돈형 · 이동엽 · 노경임, 2001, 『환경교육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박태윤 · 노경임, 2004, 「국내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환경복원기술』 7(6),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94~103쪽.
- 유혜지 · 송철호 · 임철희 · 김세진 · 이우균, 2016, 「기후변화 관련 수도권 지역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기후변화학회지』 7(2), 169~176쪽.
- 윤옥경, 2016, 「초등 예비교사를 위한 교양과목에서 장소기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실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1), 139~150쪽.
- 정수정, 2008, 「국내 환경교육의 장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7~71쪽.
- 환경부, 2002,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지침」.
- Cole, A. G., 2007, "Expanding the field: Revisiting environmental education principles through multidisciplinary frameworks",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38(2), pp.35~45.
- Davis, G. L., Albright, J. E., Cook, S., and Rosenberg, D., 1998, "Projecting the future healthcare burden from hepatitis C in the United States", *In Hepatology*, 28(4), pp.390.
- Lim SH and Nam SJ., 2004, "An evaluation of environment educational programs -Focusing on the immediate experience and the environmental sensitivity",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Education*, 12(3), pp.497~507.
- Mckeown, R. and C. Hopkins, 2003, "EE≠ESD: Defusing the worry",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9(1), pp.117~128.
- Ministry of Environment, 2015, *Second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Master Plan(2016~2020)*.
- Moseley, C., 2000, "Teaching for environmental literacy", *The Clearing House*, 74(1), pp.23~24.

- Ryu HS, Shin KH., 2010,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using ecological fairy tales on environment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4(4), pp.189~208.
- Park SY, 2007, "Evaluation of Integrated Programs of School and Social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 Simmons, D. and The Guidelines Writing Team of the National Project for Excellence in Environment Education, 2004, "No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Guidelines for Excellence", Washington, DC: North American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Education.

요약

수원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환경교육 친화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수립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향상 및 개선을 위한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다. 환경교육에 대한 시민 및 수원시의 관심이 증가되면서 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수원시 환경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정확한 운영평가를 통한 효과적인 환경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는 환경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운영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9년 각 기관에서 운영(혹은 계획) 중인 모든 프로그램을 연구범위로 선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방식, 교육장소, 교육대상, 교육주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환경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운영실태 분석 결과, 교육방식은 주로 일일체험 형식의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구성, 교육장소는 주로 실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상의 경우는 성인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주제의 경우는 생태계 및 기후 관련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 민간전문가 양성 및 활용, 지역 네트워크 운영과 같은 지역사회 연계성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향후 효과적인 환경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연속성 프로그램 확대, 학습자 흥미 유발을 위한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장소 확대, 성인교육 프로그램 확대, 각 기관에 맞는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연계성 확대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환경교육, 환경교육기관, 교육방식, 교육장소, 교육대상, 교육주제, 지역사회연계성

ABSTRACT

The Current Status and Plans for Improvement of Educational Programs on Environment in Suwon

Lee Hyunkyung and Hwang Soha

Suwon has initiated the vision “Suwon, a eco-friendly city of environmental education, to create a sustainable society.” The environmental education is centered on improving and enhancing public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With keen attention paid by both the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funding for environmental education institutions.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clearly evaluate their operation, management plans, and performances. In other words, there is an immediate need for a holistic approach that can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education institutions effectively. To this en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main education institutions funded by Suwon. The scope of the study includes all education programs in operation (or planned) in 2019 and investigates educational strategies, locations, targets, topics and connection with local communities. The results suggest that most of the programs are composed of one-day activities and are indoor programs. In addition,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education for adults, and, in terms of topics, ecology and climate-related programs are relatively common. Lastly, although some programs are designed to nurture or utilize local talents and operate local networks, the number of programs related to local communities i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makes suggestions for increasing programs conducted on a continuous basis; providing various place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the learners; offering more programs for adults; developing specialized programs suited to the nature of each

organization; and strengthening connection with local communities.

Key words: environmental education institution, education strategy, education location, education target, education topic, and connection with local community

Landsat 위성영상을 활용한 수원시 토지피복 변화 분석 : 1972~2017년을 중심으로

이창호* / 김은영** / 전창우***

1. 서론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수원시 토지피복 분류결과 분석
4. 수원시 행정동별 토지피복 변화 분석
5. 결론

1. 서론

도시의 성장은 물리적 환경 변화의 관점에서 수평적 확장과 수직적 상승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¹ 이중 도시의 수평적 확장은 도시기능이 입지한 토지이용이 지표면상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변화 중 하나는 토지이용의 변화이다. 도시의 수평적 성장은 산림, 초지, 경작지와 같은 자연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Researcher,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Research Fellow, Suw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eykim@suwon.re.kr)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Ph.D.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 Zhang, W., Li, W., Zhang, C., Ouimet, W. B., 2017, "Detecting horizontal and vertical urban growth from medium resolution imagery and its relationships with major socioeconomic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Remote Sensing*, 38(12), pp.3704~3734.; Shi, L., Shao, G., Cui, S., Li, X., Lin, T., Yin, K., Zhao, J., 2009, "Urban Three-dimensional Expansion and Its Driving Forces —A Case Study of Shanghai, China", *Chinese Geographical Science*, 19(4), pp.291~298.

적인 토지이용에서 시가지 혹은 나지와 같은 인위적인 토지이용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² 그러나 토지이용이 인위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이에 따른 환경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즉, 인간 활동으로 인한 서식지 파편화는 자연지역의 크기와 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적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³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물리적 환경 변화의 관점에서 도시 성장 및 도시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지표의 다중분광 특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보다 정밀한 토지피복 분석이 가능해졌다. 지표의 다중분광 특성이란 지표의 물질의 구성에 따라서 방출하는 전자기파의 파장대 및 양이 달라짐을 이용해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⁴ 이 원리와 항공사진 판독기법을 이용하여 환경부에서는 토지피복도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제작시기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후반으로 10년 간격으로 제작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연차별 사업구역별 피복제작으로 인해 시간간격이 한정되어 있다. 또한 수원시 지역은 사업시기가 2개 시기로 나누어져 서부지역은 2013년 사업 시 2010년 항공사진을 기준으로 한 토지피복도가 작성되고, 동부지역은 2014년 구축 사업 때 2012년 항공사진을 기준으로 작성된 토지피복도가 최신자료다. 이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도시성장이 진행된 현재 수원시의 도시구조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원시의 토지피복 변화를 분석하는 데 환경부 자료를 활용할 경우 넓은 시간간격과 최근 토지피복 상황을 반영이 어려워 연구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수원시의 토지피복환경 변화를 다룬 기존 연구가 수원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구조의 분석⁵ 혹은 『수원시사』⁶의 관점에서 정성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정도

2 Narain, V., 2016, "Peri-urbanization, Land Use Change and Water security: A new Trigger for Water Conflicts?", *IIM Kozhikode Society & Management Review*, 5(1), pp.5~7.

3 김은영·송원경·이동근, 2012, 『산림파편화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제15권 2호, 149~159쪽; 오치영·박소영·김형석·이양원·최철웅, 2010,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토지피복분류와 정확도 비교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13권 1호, 89~100쪽; Smith, D.S., P. C. Hellmund, 1993, "Ecology of greenway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U.S, pp.1~21.

4 Elachi, C., Zyl, J. V., 2006, "Introduction to the Physics and Techniques of Remote Sensing Second Edition", John Wiley & Sons: Hoboken, New Jersey; Ingram, K., Knapp, E., Rominson, J. W., 1981, "Change detection technique development for improved urbanized area delineation, technical memorandum CSC/TIM-81/6067", Computer Sciences Corporation, Silver Springs, Maryland, U.S. pp.1~21.

에 그쳐 특정시점의 수원시 토지피복의 정량적인 분석에 따른 도시구조 해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자료보다 더 조밀한 시간간격으로 수원시 토지피복 변화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공위성영상을 감독분류기법을 이용하여 토지피복도로 변환한 뒤 시가지 면적의 증가와 녹지면적 감소의 관점에서 수원시의 도시지역 성장 양상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토지피복도의 분포 비율을 행정동 단위의 공간에서 정량분석하여 수원시 44개 행정동의 토지피복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과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수원시의 토지피복 면적의 변화를 최소 2년에서 평균 4년의 시간 간격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공간적 범위는 2019년 현재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하며, 1972년에서 2017년 사이에 해당 공간 내에서의 토지피복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시간범위 내의 수원시 행정구역은 지금과는 다르지만,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2019년 10월 현재 44개 행정동으로 구성된 수원시 행정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행정구역 관점에서 각 동별로 과거 약 30년간 토지피복 변화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분석하면서 경작지, 초지 및 산림을 포함하는 녹지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
- 5 윤상복·김가야·김정호, 2008, 「우리나라 대도시의 용도지역 특성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제10권 6호, 3487~3499쪽; 신행우·김영옥, 2007, 「수원시 도시성장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 연구」, 『한국도시계획학회지 도시설계』제8권 2호, 85~98쪽.
 - 6 김백영·김재국·김지석·백종철·이기봉·이창수·정부매·한동수, 2014, 『수원시사 제2권 : 수원시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그림 1〉 연구의 공간적 범위:수원시 행정동 경계(2019. 10. 기준)

2) 인공위성 영상데이터 취득 및 선별방법

분석의 대상이 되는 영상은 가장 오랜 기간 지구를 탐측해 오면서 방대한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해 온 미국의 Landsat 위성의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Landsat Missions는 Landsat 1호기로 1972년 임무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Landsat 8호가 지구상공을 공전하며 임무를 수행 중에 있다.⁷ 그리고 장시간의 임무수행기간 동안 수원시를 촬영한 영상이 1972년 최초로 촬영된 이후 현재는 매 16일을 주기로 수원시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 상공을 지나가면서 영상을 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므로, 방대한 양의 영상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중 일관성 있는 분석결과를 획득하고자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영상들을 취합하고자 한다.

첫째로 영상의 월별 촬영시기는 파종 전 경작지가 나지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

7 USGS, Landsat Collection 1, https://www.usgs.gov/land-resources/nli/landsat/landsat-collection-1?qt-science_support_page_related_con=1#qt-science_support_page_related_con(2019년 10월 28일 검색).

고, 경작지의 원활한 토지피복 검출을 위해 작물들이 충분히 성장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8월 및 9월의 시기로 한정하고자 한다. 둘째 수원시 시가지에 구름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의 영상을 선별하여 분석을 적용한다. 그 결과 제시된 조건에 부합하는 영상은 총 36개 시점의 영상이 존재한다. 이 중 2~4년 간격의 영상을 추려내어 11개 시점의 영상을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다만, 1973~1986년 영상들은 센서의 해상력이 낮고 품질이 낮은 이유로 분석대상 영상으로 채택하지 못하였다. 예외적으로 1972년 영상은 Landsat이 기록한 최초 시기의 수원시 영상이며, 수원시가 본격적인 도심부 개발을 추진하기 전 토지피복 상황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상 자료 목록은 <표 1>과 같다.

<표 1> 취득영상 시기 및 센서종류

순번	인공 위성명	센서명	밴드수	공간 해상도	궤도 (Path/Row)	촬영 날짜	비고
1	Landsat-1	MSS ¹⁾	4	60m	124/034 (WRS1)	1972-09-24	Blue밴드 없음
2	Landsat-5	TM ²⁾	7	30m	116/034	1988-09-27	
3	Landsat-5	TM	7	30m	116/034	1992-09-22	
4	Landsat-5	TM	7	30m	116/034	1996-09-01	
5	Landsat-7	ETM+ ³⁾	8	30m	116/034	2000-09-04	
6	Landsat-7	ETM+	8	30m	116/034	2002-09-10	
7	Landsat-5	TM	7	30m	116/034	2006-09-13	
8	Landsat-5	TM	7	30m	116/034	2008-09-18	
9	Landsat-5	TM	7	30m	116/034	2011-09-27	
10	Landsat-8	OLI ⁴⁾ /TIRS ⁵⁾	11	30m	116/034	2015-09-22	9번 밴드는 대기권 권층을 관측하므로 가용밴드는 10개
11	Landsat-8	OLI/TIRS	11	30m	116/034	2017-08-26	

주 : 1) MSS: Multispectral Scanner, 2) TM: Thematic Mapper, 3) ETM+: Enhanced Thematic Mapper Plus, 4) OLI: Operational Land Imager, 5) TIRS: Thermal Infrared Sensor.

여기서 선별된 11개의 영상은 촬영시기뿐만 아니라 촬영된 내용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촬영된 내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촬영 당시 사용된 센서의 성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센서의 성능을 결정짓는 것은 지표피복환경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의 부분이다. 지표피복환경을 구분하는 능력은 센서

가 감지할 수 있는 파장영역(밴드)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즉, 밴드수가 많을수록 탐지하는 파장영역이 넓어짐을 의미하고 넓은 파장영역을 통해서 지표환경 여러 특성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상들의 촬영하는 센서 및 밴드수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센서들 중 가장 오래된 MSS센서는 가시광선에서 근적외선 영역을 포함하는 4개 밴드를 가지고 있고 이는 가장 적은 수다. 하지만, 가장 최신의 OLI 및 TIR센서는 가시광선에서 원적외선 및 열적외선 파장대를 포함하는 11개의 밴드에서 지표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1972년에 촬영된 영상은 MSS센서는 적은 밴드 수와 60m라는 낮은 공간 해상도로 인해 지표피복 분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 결과 토지피복 분류 시 경작지와 산림 및 초지 간 분별 능력이 다른 센서에 비해 낮아 수치에 대한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3) 토지피복 유형 분류방법

USGS에서 제공하는 Landsat 데이터는 데이터의 가공 수준별로 데이터 유형이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Collection 1의 Tier 1 수준의 데이터다. 이것은 원시자료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로 인공위성으로부터 취득된 데이터를 실제 위치와 일치시킨 기하보정, 지형에 기록에 맞춘 정사보정과 센서 상황에 따른 오차가 보정된 자료다.⁸ Collection 1 수준 데이터는 각 밴드별로 분리된 자료들로 제공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데이터로 합성하여 활용한다.

한편, 밴드들이 하나로 합성된 영상이 가지고 있는 수치를 활용하면 토지피복 분류가 가능하다. 토지피복 분류가 가능한 이유는 지표의 물리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각 밴드별 수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피복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은 감독분류 방법 중 하나인 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MLC)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8 USGS, Landsat Collection 1, https://www.usgs.gov/land-resources/nli/landsat/landsat-collection-1?qt-science_support_page_related_con=1#qt-science_support_page_related_con(2019년 10월 28일 검색).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첫 번째는 다채널 밴드를 가지고 있는 래스터 인공위성 데이터에서 연구자가 직접 일부 지역에 대해 토지피복 분류를 실시하여 샘플모델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 샘플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Bayes' theorem의 원리에 따라 전체 자료에 대한 토지피복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⁹ 구체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

가령 Bayes' theorem을 따르는 래스터 데이터 1개 픽셀이 특정 토지피복 유형으로 분류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각 토지피복 유형으로 분류될 확률이 계산되며 이때 확률은 조건부 확률 <식 1>을 따라 계산된다.

$$L_k = P(k/X) = \frac{P(X/k) \times P(k)}{P(X)} \dots \dots \dots \langle \text{식 1} \rangle^{10}$$

$P(X)$: 샘플 데이터에서 특정 1개 픽셀이 나타내는 밴드특성이 나타날 확률

$P(k)$: 샘플 데이터에서 k라는 토지피복 유형이 선택될 확률

$P(k/X)$: 샘플 데이터에서 특정 1개 픽셀이 선택되었을 때, k라는 토지피복 유형일 확률

$P(X/k)$: 샘플 데이터에서 k라는 토지피복 유형일 때, 특정 1개 픽셀이 선택될 확률

이를 정규분포의 관점에서 전체 래스터 데이터에 <식 1>에서 도출된 조건부 확률을 정규분포를 따름을 가정하고 검증한다면, 확률밀도함수에서 발생할 최대 우도는 다음의 <식 2>를 따르게 된다.

$$L_k(X) = \frac{1}{(2\pi)^{\frac{n}{2}} \left| \sum k \right|^{\frac{1}{2}}} \exp \left\{ -\frac{1}{2} (X - \mu_k) \sum k^{-1} (X - \mu_k)^t \right\} \dots \dots \dots \langle \text{식 2} \rangle^{10}$$

9 ESRI, How 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works, <http://desktop.arcgis.com/en/arcmap/10.3/tools/spatial-analyst-toolbox/how-maximum-likelihood-classification-works.htm>(2019년 10월 28일 검색).

10 JARS, Remote Sensing Note, <http://wtlab.iis.u-tokyo.ac.jp/wataru/lecture/rsgis/rsnote/cp11/cp11-7.htm>(2019년 10월 28일 검색).

n : 밴드의 수

X : 샘플로 선정한 픽셀의 각 밴드별 값 벡터

$L_k(X)$: 벡터 X 가 토지피복 유형 k 에 포함될 우도

μ_k : 샘플 데이터상 토지피복 유형 k 로 분류된 밴드별 값의 평균벡터

$\sum k$: 토지피복 유형 k 의 분산-공분산 행렬

$\left| \sum k \right|$: $\sum k$ 의 행렬식(determinant)

결과적으로 도출된 우도값이 분포할 수 있는 확률밀도함수는 연구자가 설정한 토지피복 유형의 수만큼 도출되게 되고, 해당 함수는 그 수만큼의 차원을 가지는 공간 내에서 전체 데이터의 각 셀별 값 벡터를 각 함수들과 거리를 계산한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확률밀도함수를 찾아 해당 함수가 표현하는 토지피복 유형으로 할당하여 각 셀의 토지피복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토지피복 유형은 시가지 및 나지, 경작지, 산림 및 초지의 4개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분류는 환경부훈령인 토지피복지도 작성지침¹¹의 7대 대분류(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를 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7대 대분류를 자연성을 상실한 인위적 토지피복 분류의 관점에서 시가화건조지역과 나지를 합쳐 시가지 및 나지로 본다. 인위적인 활용이 존재하면서 자연성을 가지는 농업지역을 경작지로 구분하며, 완전한 자연성을 가지는 토지피복의 관점에서 산림지역과 초지를 합쳐 산림 및 초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육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습지와 수역을 합쳐 수면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이 7개 대분류를 묶어 4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수원시의 나지는 일정시간 이후 시가화지역이 되는 점을 반영하여 두 분류를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보고자 함이며, 산림지역과 초지는 수원시 행정차원에서 녹지지역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동질지역으로 구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기 4가지의 유형에 기반하여 수원시의 토지피복이 인위적 지역, 인

11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18612#AJAX>(2019년 10월 29일 검색).

위적이거나 자연성을 가진 지역, 자연성을 가진 지역의 관점에서 각 토지피복분류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방법에 기반한 토지피복도를 생성하기 위해 샘플모형은 수원시의 대표지역인 칠보산 일대, 황구지천 일대, 광고산 일대, 정자동 일대, 인계동 일대, 삼성전자 공업지역 일대를 먼저 토지피복을 분류한 다음 샘플모형화하였다.

4) 토지피복 분류 정확도 검증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작성

토지피복 분류결과는 위성영상의 수치데이터에 의존해서 분류되었기에 분석에 활용하기 이전에 분류결과의 정확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정확도 검증방법은 감독분류에 의해서 도출된 토지피복 분류결과와 대조데이터가 되는 환경부 1:25,000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는지 오차행렬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대조 데이터는 2010년 12월 31일자의 시점을 기준으로 제작한 토지피복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대조 데이터의 시점에 맞추어 정확도 검증에는 2011년 9월 27일자 영상에서 도출된 토지피복 분류자료를 활용한다. 비록 대조 기준이 되는 환경부 토지피복도가 연구에서 다루는 모든 시기에 대해 대응되지 않아 1개 시기에 대해서만 정확도 검증을 하고자 하지만, 동일한 지역의 샘플모형을 활용하여 모든 시기의 토지피복 분류를 실시하였다는 점과 분류 결과 특정시점의 분류 결과물이 수원시의 토지피복 변화 양상과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들어 1개 시기의 정확도 검증이 될 경우 나머지 시기에 대해서도 정확도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자 한다.

정확도를 통해 자료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한 다음 각 시점별 토지피복 분류의 결과물을 벡터데이터화하여 각 영상시기별 토지피복 정보를 하나의 벡터데이터모델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한다. 또한 이 데이터베이스를 2019년 기준 44개 행정동 단위로 구분하여 토지피복 유형별로 면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3. 수원시 토지피복 분류결과 분석

1) 토지피복 분류 및 분류 정확도 검증

위성영상 선별 조건에 따라 11개 시기의 위성영상을 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감독분류기법을 통해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를 검토한 결과 1988년부터 2017년 사이의 10개 시기의 토지피복 분류 결과물은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수원시 1972년 영상의 경우 해상도가 60m로 낮을 뿐만 아니라 과거 1972년 Landsat-1이 Blue 밴드와 원적외선 밴드가 없이 촬영되어 세부적으로 토지피복을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2년 당시 지형도에서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 산림 및 초지로 오분류되어 정량분석에는 직접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으나 수원의 개발 전 모습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는 자료라 판단된다.

보다 정확한 분류 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동일한 규격으로 생산된 10개 시기 토지피복도 중 1개 시기 결과물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토지피복도와 비교를 통해 정확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비교 시점은 2010년 기준의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 자료와 본 연구의 2011년 토지피복도로 선별되었다. 비교 결과 <표 3> 오류행렬과 같이 정분류된 면적과 오분류된 면적이 계산되었다. 그리고 수원시 전체 면적 약 120.9km² 중 2010년 토지피복도와 2011년 영상 간의 시간 차이로 발생한 토지피복 변화 지역을 제외하고, 보안상 군공항지역이 임의의 산림으로 분류되어 있는 대조데이터 지역을 제외하였을 때 분류 정확도 평가가 가능한 면적은 109.2km² 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정분류된 면적을 모두 합하여 비율을 산출하면 85.5%의 정확도가 측정되었다.

인공위성영상 기반 토지피복도를 작성한 선행연구들¹²의 정확도 분포가

12 강남이·박정기·조기성·유연, 2012, 「IKONOS영상을 이용한 토지피복분류 기법 분석」, 『대한공간정보학회지』 제20권 3호, 65~71쪽; 오치영·박소영·김형석·이양원·최철웅, 2010,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토지피복 분류와 정확도 비교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13권 1호, 89~100쪽; 윤성탁·김선오·임상규, 2001, 「Landsat TM 영상자료를 이용한 평택지역의 토지피복 현황 및 분류정확도 평가」, 『한국농림기상학회지』 제3권 3호, 163~170쪽.

85~91%를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여기서 측정된 85.5%의 분류 정확도는 활용가능한 정도의 분류 정확도로 볼 수 있다. 다만, 14.5%의 지역은 오분류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비교데이터 공간해상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오차이다. Landsat 데이터의 1개 픽셀은 가로·세로 30m 지역을 포함한다. 즉, 900m² 내 지표 범위 내 다양한 구성 물질들이 발산하는 에너지 중 양적으로 가장 많은 물질의 특성이 토지피복유형으로 결정된다. 한편 중분류 토지피복도의 경우 5m의 공간해상도를 기반으로 하여 토지피복이 분류된다.¹³ 따라서 Landsat 자료 1개 픽셀이 1개 유형의 토지피복을 표현할 때 동일한 범위 내에서 중분류 피복도는 이론적으로 최대 36개의 다른 토지피복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서 Bhatta¹⁴의 연구에서는 15~20%의 픽셀이 지표 물질의 혼재로 인해 토지피복분류 시 오차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오분류의 이유는 인간의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 토지피복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토지이용을 경작지로 하고 있으나, 추수 혹은 휴경시기에는 토지피복이 나지로 존재하는 경우 혹은 온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온실이 건물과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보여 시가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실제로 윤성탁 등,¹⁵ 오치영 등¹⁶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지피복 유형별로 오분류의 정도를 확인하면 <표 2>와 같이 경작지의 분류 결과가 83.74%로 정확도가 가장 낮았고 수면을 분류하는 경우가 99.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먼저 시가지 및 나지 면적의 14.66%에 해당하는 오분류 지역은 환경부 토지피복도에서는 경작지(6.17%), 산림 및 초지(6.71%), 수면(1.79%)로 표현되는

13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토지피복지도 제작현황, <https://egis.me.go.kr/intro/land.do>(2019년 10월 28일 검색).

14 Bhatta, B., 2007, "Quantification of confusion in LISS-III & LISS-IV data for urban land-cover classification", Proceedings of National Conference on High Resolution Remote Sensing & Thematic Applications Kolkata, December 18-20, Indian Society of Remote Sensing, p.58.

15 윤성탁·김선오·임상규, 2001, 「Landsat TM 영상자료를 이용한 평택지역의 토지피복 현황 및 분류정확도 평가」, 『한국농림기상학회지』 제3권 3호, 163~170쪽.

16 오치영·박소영·김형식·이양원·최철웅, 2010,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토지피복분류와 정확도 비교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13권 1호, 89~100쪽.

지역이었다. 경작지가 시가지 및 나지로 분류된 이유는 휴경지인 상태인 경작지가 나지로 분류 되었거나 온실 및 시설재배지로 존재하는 경작지가 건물의 물리적 특성과 비슷하여 시가지로 분류된 경우로 확인되었다. 산림 및 초지의 경우는 공원지역에 조성된 초지가 주변 공원시설로 인해 시가지로 분류된 경우로 확인되었다. 수면의 경우는 수원시의 4대 하천인 황구지천, 수원천, 서호천, 원천리천의 폭이 위성영상의 공간해상도 단위인 가로 30m×세로 30m보다 작고, 하천 주변이 인공구조물로 제방이 정리되어 있는 경우 시가지 및 나지로 토지피복이 분류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경작지의 경우 16.26%의 지역이 오분류되었고 산림 및 초지가 잘못 분류된 경우가 7.71%로 가장 많았고, 시가지 및 나지가 4.7%, 수면이 3.85%로 나타났다. 오분류된 이유는 초지지역이 경작지와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수면지역은 하천 및 저수지 주변 식생들이 경작지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산림 및 초지의 오분류 비율은 13.69%로 오분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경작지 지역을 오분류 한 경우로 8.15%가 오분류되었다. 그 다음은 시가지 및 나지를 잘못 분류한 경우로 4.79%의 면적이 오분류되었다. 경작지 지역이 산림 및 초지로 분류된 이유는 밭 농작물이 자라는 지역이 초지의 물리적 특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오분류가 발생하였다. 시가지 및 나지 지역이 또한 마찬가지로 나지 지역에 잡초 등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물리적 특성이 초지와 유사한 것이 오분류의 이유였다.

마지막으로 수면지역은 극히 일부 지역(0.07%)의 산림 및 초지 지역이 수면으로 오분류되었다. 이 경우 오분류된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조데이터의 공간단위와 연구결과물의 공간단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 분류도와 비교하였을 때 일정 오차율은 존재하지만, 타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결과물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며, 수원시의 전체적인 토지피복 변화의 경향을 설명하는 데 경향을 잘못 해석할 정도의 오차가 아니므로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표 2〉 수원시 토지피복도 분류결과 오류행렬표

(단위 : m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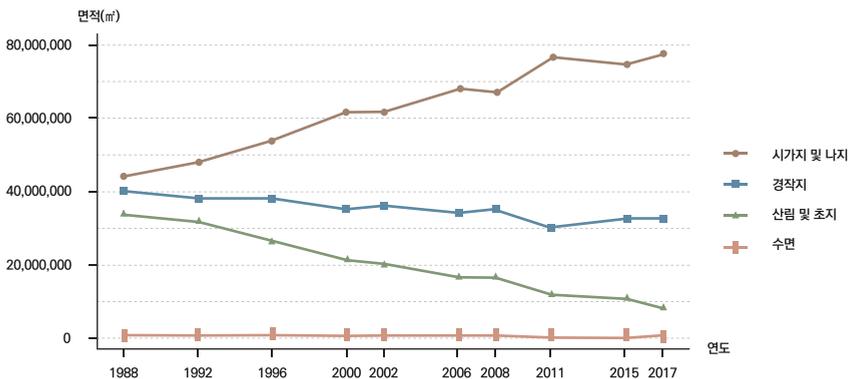
환경부* 연구결과	구분	시가지 및 나지	경작지	산림 및 초지	수면	정확도 평가 대상	정확도 평가 제외	연구결과 합계
시가지 및 나지	면적	58,398,721	4,219,417	4,592,021	1,222,272	68,432,431	9,115,107	77,547,538
	비율	85.34	6.17	6.71	1.79	88.25	11.75	64.13
경작지	면적	531,449	9,466,503	871,408	435,175	11,304,534	1,066,984	12,371,518
	비율	4.70	83.74	7.71	3.85	91.38	8.62	10.23
산림 및 초지	면적	1,391,852	2,366,305	25,057,410	216,429	29,031,996	1,450,013	30,482,009
	비율	4.79	8.15	86.31	0.75	95.24	4.76	25.21
수면	면적	-	-	381	527,919	528,300	-	528,300
	비율	0.00	0.00	0.07	99.93	100.00	0.00	0.44
환경부 합계	면적	60,322,022	16,052,225	30,521,219	2,401,795	109,297,261	11,632,104	120,929,365
	비율	49.88	13.27	25.24	1.99	90.38	9.62	100.00

주 : ① 전체 분류정확도(85.5) = 정분류(93,450,552m²) / 정확도평가 대상면적(109,297,261m²) x100

- ② * 정확도 검증을 위해 사용한 대조데이터로 환경부에서 발행한 2010년 기준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대분류의 수준에서 연구결과물의 토지피복 분류 체계로 변형하여 2011년 기준 인공위성데이터로부터 분류한 토지피복도와 비교함

2) 연도별 수원시 토지피복의 변화 양상

수원시 행정구역 내에서 차지하고 토지피복 유형의 면적을 1972년을 제외한 전 시기에 대해 양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그리고 도시의 확장방향 및 변화량에 따라 3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 연도별 수원시 토지피복 면적 증감양상

시가지 및 나지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1988~2000년은 시가지 및 나지의 급격한 확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다른 토지피복 유형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경작지의 가파른 감소가 나타나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빠른 시가지 확장을 통해 도시구조는 기존 시가지의 동쪽으로 성장하여 1986~1992년 시기에 는 매탄지역이 개발되었고, 1996~2000년에는 영통, 정자 지역이 개발되었다.

2000~2008년에는 비교적 시가지 및 나지 증가가 다소 둔해진 시기였으나, 도시 구조적으로는 망포지역개발이 이 시기에 진행되고 서수원 행정타운과 고색산업단지 가 조성되면서 개발의 축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8~2017년은 호매실택지개발사업과 광교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된 신도시 조성기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작지와 산림 및 초지면적이 다시 한 번 급감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구체적인 시기별로 토지피복의 수치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Landsat Missions가 시작되고 최초로 촬영된 1972년의 수원시 지역을 현재 시점의 행정구역 을 기준으로 토지피복 분류를 하면 <그림 3-a>과 같다. 현재 팔달구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주변 지역은 경작지 혹은 산림 및 초지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낮은 해상력에 기반하여 분류 되면서 황구지천 일대가 시가지 및 나지로 분류된 결과물이지만, 토지피복 분포를 살펴보면 <표 3>와 같이 나타난다.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피복 유형은 산림 및 초지이며 57%를 차지한다. 이어서 경작지가 약 30%, 시가지 및 나지 약 12%, 수면 지역 0.7%의 분포를 보인다. 그리고 수원시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 시기에 급격한 도시 팽창을 보인다.

1988년이 되면 1972년도에 비해서 시가지가 $44.8km^2$ 로 약 3.14배가 증가하였다 (<그림 3-a, b>). 그리고 시가지가 증가한 만큼 경작지와 산림 및 초지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1972년 영상이 경작지와 산림 및 초지의 구분이 정확하지 못하여 정확한 면적감소 비교는 어렵지만 이들 토지피복을 녹지의 측면에서 합하여 비교하면 1972년 $105km^2$ (수원시 면적의 87.49%)에서 1988년 $75km^2$ (62.21%)로 감소하였다.

이후 토지피복 면적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시기는 1996~2000년과 2008~2011년으로 시가지 및 나지 토지피복의 급증이 있었고, 비율로는 각각 6.85%, 8.06% 증가하였다. 경작지의 경우 1992~1996년과 1996~2000년, 즉

1992~2000년에는 경작지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고, 각각 -4.56%, -4.0%의 경작지 비율 감소가 있었다. 산림 및 초지의 경우 2008~2011년에 -4.15%의 비율로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시가지 및 나지의 비율이 감소하고, 산림 및 초지가 증가했던 시기는 2011~2015년이다. 2011년 시가지 및 나지 비율이 64.17%에서 2015년에는 62.55%로 감소하였으며, 산림 및 초지는 25.16%에서 27.51%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3〉 연도별 수원시 토지피복 면적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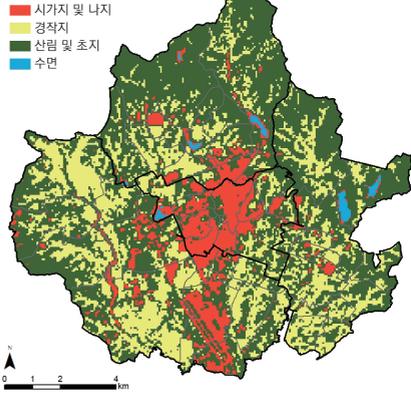
(단위: m², %)

연도	시가지 및 나지		경작지		산림 및 초지		수면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972	14,253,389	11.82	36,454,689	30.24	69,025,984	57.25	828,000	0.69
1988	44,803,372	37.12	34,395,849	28.50	40,690,156	33.71	807,630	0.67
1992	48,475,047	40.16	32,367,121	26.82	38,821,471	32.16	1,033,370	0.86
1996	54,064,477	44.79	26,862,259	22.26	38,862,829	32.20	907,443	0.75
2000	62,330,626	51.64	22,029,306	18.25	35,412,529	29.34	924,547	0.77
2002	62,680,435	51.93	20,423,871	16.92	36,691,537	30.40	901,165	0.75
2006	68,664,088	56.89	16,811,673	13.93	34,357,856	28.47	863,392	0.72
2008	67,716,806	56.10	16,797,753	13.92	35,378,414	29.31	804,036	0.67
2011	77,447,903	64.17	12,353,075	10.23	30,368,105	25.16	527,925	0.44
2015	75,499,933	62.55	11,323,182	9.38	33,207,462	27.51	666,430	0.55
2017	78,587,203	65.11	8,392,153	6.95	32,980,173	27.32	737,480	0.61

주 : 1972년 영상해상도의 한계로 경작지와 산림 및 초지 간 피복분류가 혼동되어 분류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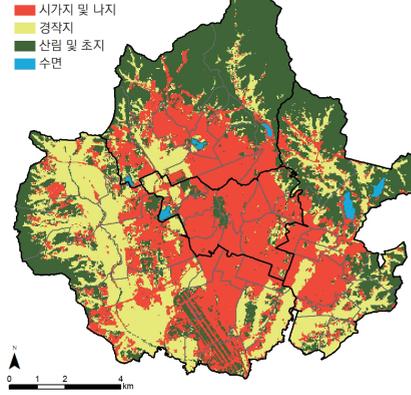
토지피복도 공간 패턴 변화를 살펴보면 1992~1996년의 변화 양상(〈그림 3-c, d〉)은 수원시의 북서지역과 남동지역의 시가지화가 두드러진다. 이때 장안구 정자3동 지역은 경작지가 감소하고 시가지 및 나지 지역이 증가하였다. 영통구 매탄2동, 영통1동, 영통2동, 영통3동 지역은 경작지 감소 및 산림 및 초지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1996~2000년의 변화(〈그림 3-d, e〉)는 다방향으로 시가지 외연의 확장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장안구 정자3동, 정자2동, 권선구 곡선동, 팔달구 화서2동, 우만1동 지역의 경작지가 시가지 및 나지로 토지피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2008~2011년(〈그림 3-h, i〉)의 토지피복 환경은 광고지구와 호매실지구의 신도

1972년 수원시 토지피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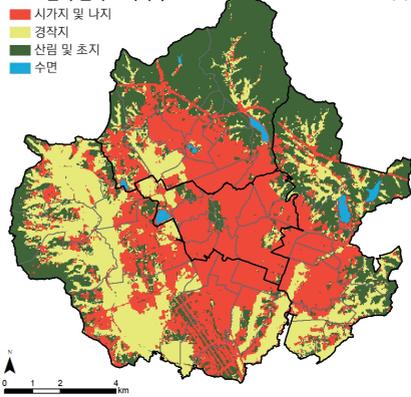
(a)

1988년 수원시 토지피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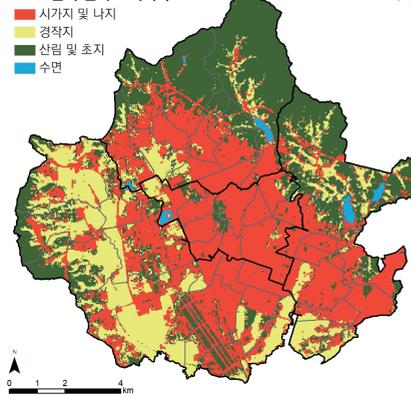
(b)

1992년 수원시 토지피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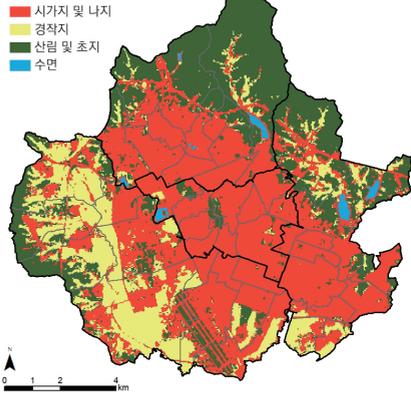
(c)

1996년 수원시 토지피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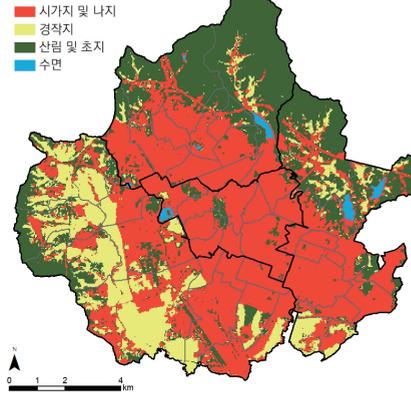
(d)

2000년 수원시 토지피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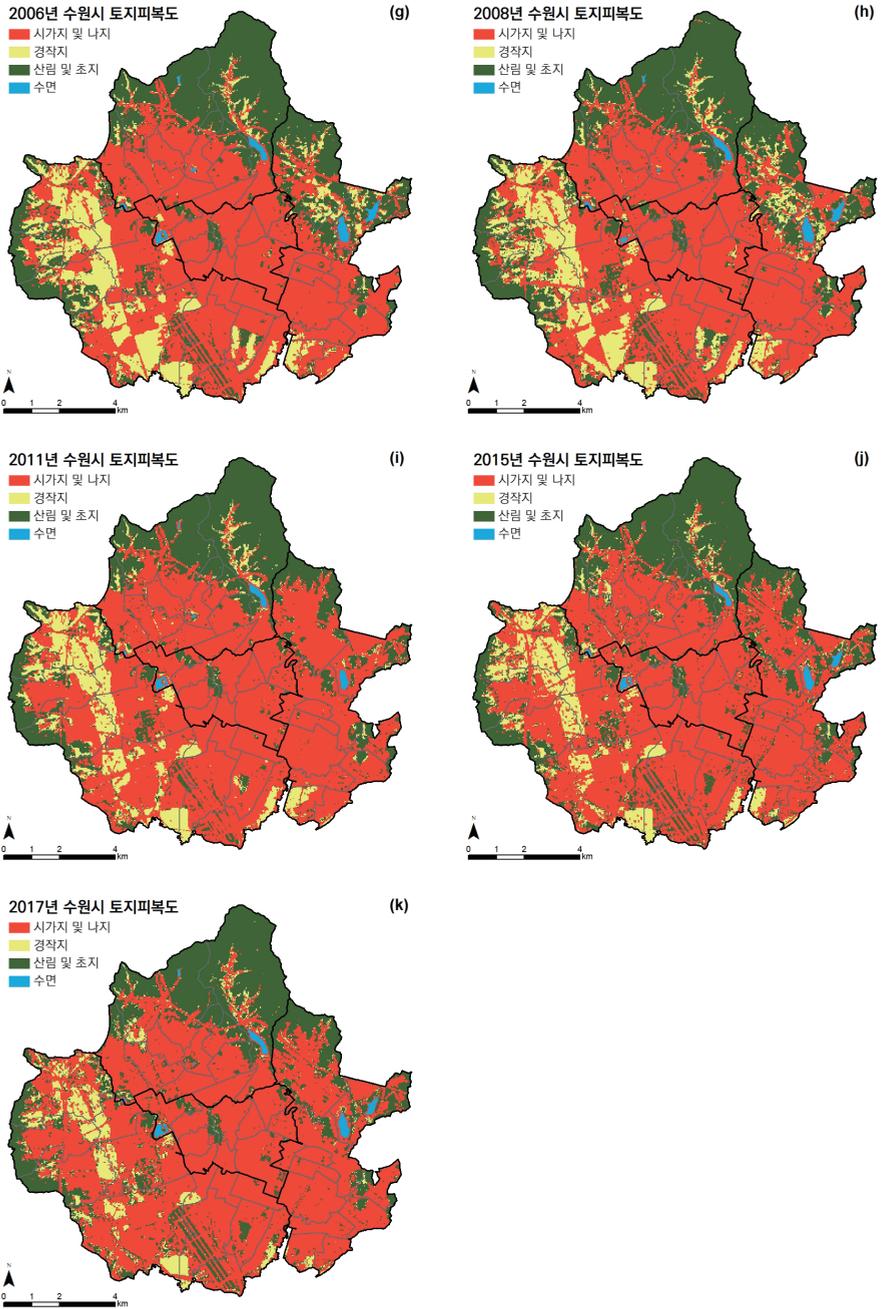


(e)

2002년 수원시 토지피복도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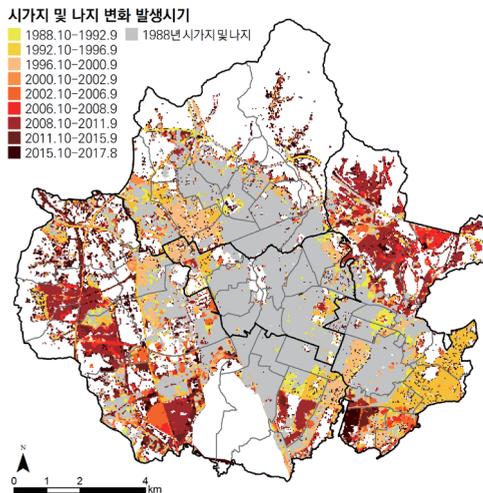
〈그림 3〉 1972~2017년 수원시 토지피복도

시 개발로 대규모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광교지구가 위치한 영통구 광교1동, 광교2동 지역, 호매실지구는 금곡동, 호매실동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권선2동도 시가지화되면서, 이 시기의 수원시는 경작지, 산림 및 초지의 감소가 크게 두드러진다. 2011~2015년(〈그림 3-i, j〉)에는 광교1동과 광교2동에서 시가지 및 나지 면적이 감소하고 산림 및 초지 면적이 증가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의 광교신도시개발이 마무리되고 주거단지 외 지역은 공원화하면서 나지로 변했던 초지가 다시 복구된 것에서 기인한다.

4. 수원시 행정동별 토지피복 변화 분석

1) 시가지 및 나지의 토지피복 변화

수원시의 연도별 토지피복 변화를 시가지 및 나지화는 〈그림 4〉와 같은 공간분포로 나타난다. 여기서 황색계열은 시가지 확장기에 시가지화된 지역을 의미하고, 적색계열은 시가지 유지기, 암적색 계열은 신도시 조성기에 발생한 토지피복 변화지역을 표현한다.



〈그림 4〉 토지피복의 시가지 및 나지 변화 시기 분포도

앞서 공간패턴 변화가 나타났던 행정동별을 중심으로 시가지 및 나지 토지피복 비율의 변화치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장안구의 경우 1988년에서 2017년 사이에 가장 높은 비율로 시가지 및 나지 토지피복으로 변화한 행정동은 정자3동으로 19.9%에서 88.83%로 68.9%가 증가하였다. 그 다음은 울천동과 정자2동으로 각각 28.3%와 21.6%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주로 1996~2000년에 주로 토지피복 변화가 나타났다. 영통구의 경우 영통3동이 시가지 및 나지 면적비율이 74.5%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변화비율을 보인다. 그 다음은 망포1동(72.1%)과 망포2동(70.9%)의 변화를 보인다. 각 동별 주요 증가 시기는 전체 시기에 대해 혼재되어 나타난다. 권선구는 권선2동이 1988년 27.5%에서 2017년 86.5%로 시가지 및 나지 피복 면적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그 다음은 호매실동과 금곡동이 따르며 각각 45.3%, 44.2%의 비율 증가를 보인다. 팔달구는 화서2동, 우만1동, 우만2동의 순으로 1988년과 2017년간 39.5% 30.2% 12.9% 시가지 및 나지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4〉 연도별 수원시 행정동의 시가지 및 나지 토지피복 비율

(단위 : %, m²)

행정구역	1988(A)	1992	1996	2000	2008	2011	2015	2017(B)	(B)-(A)	행정구역면적
장안구	31.35	33.81	35.90	44.00	43.48	44.85	43.13	45.92	14.6	33,266,754
정자3동	19.90	17.42	41.27	95.89	93.02	92.92	83.87	88.83	68.9	1,907,339
울천동	41.61	45.37	53.18	63.36	67.82	71.15	68.63	69.86	28.3	2,988,847
정자2동	71.20	71.98	70.82	97.85	92.32	93.79	91.82	92.77	21.6	1,215,190
송죽동	48.41	60.54	62.31	66.86	67.66	64.45	62.28	65.35	16.9	1,675,129
조원2동	44.00	43.14	38.92	50.73	50.11	51.70	52.46	56.95	13.0	1,253,131
조원1동	66.97	68.38	68.67	77.53	74.45	75.95	74.75	78.49	11.5	1,636,773
파장동	22.12	26.05	26.44	31.81	30.12	32.62	30.89	32.92	10.8	8,615,610
정자1동	89.40	95.13	96.41	98.62	97.68	97.36	95.93	97.07	7.7	1,147,008
연무동	11.10	12.24	12.23	13.62	13.76	14.88	14.28	17.84	6.7	11,546,270
영화동	99.16	98.39	97.76	98.05	98.14	98.67	97.19	98.48	-0.7	1,281,458
영통구	29.57	33.35	44.74	52.98	58.84	75.55	69.56	73.49	43.9	27,554,699
영통3동	10.79	8.52	90.27	86.71	83.49	81.82	80.47	85.25	74.5	1,689,162
망포1동	19.57	25.36	34.75	53.06	92.31	92.07	86.02	91.68	72.1	1,028,637
망포2동	13.12	13.96	17.64	32.66	53.41	56.92	60.81	84.04	70.9	1,452,989
영통1동	6.01	6.04	68.63	66.85	64.44	62.52	60.70	66.51	60.5	1,585,513
영통2동	37.91	38.66	80.33	87.33	88.67	96.24	95.35	97.38	59.5	1,320,869
광교2동	9.56	13.54	14.87	23.72	39.08	67.51	52.71	55.12	45.6	4,117,458

행정구역	1988(A)	1992	1996	2000	2008	2011	2015	2017(B)	(B)-(A)	행정구역면적
광교1동	13.04	14.01	13.40	22.95	26.64	62.53	52.91	55.79	42.7	7,949,993
매탄2동	60.28	99.52	97.34	98.67	98.52	98.60	96.63	96.86	36.6	607,868
원천동	45.94	54.37	56.65	62.79	64.20	78.74	77.02	79.36	33.4	3,273,983
매탄4동	76.25	93.42	93.20	96.62	96.26	97.22	94.47	96.94	20.7	744,993
매탄3동	79.92	83.45	83.48	98.87	99.25	99.61	96.61	97.83	17.9	3,182,368
매탄1동	94.19	94.38	94.21	96.16	96.67	95.82	92.03	96.31	2.1	600,866
권선구	34.77	37.75	40.58	45.82	54.17	64.00	65.15	67.19	32.4	47,016,746
권선2동	27.49	40.76	55.13	59.71	60.03	88.13	87.19	86.52	59.0	2,457,543
호매실동	7.39	10.17	15.98	16.74	25.67	46.96	51.68	52.71	45.3	4,738,638
금곡동	11.56	12.50	20.66	23.61	24.76	49.25	53.65	55.76	44.2	4,088,663
평동	32.30	32.29	33.23	37.88	54.21	67.02	70.39	71.16	38.9	10,832,199
구운동	35.18	39.20	42.37	61.03	67.81	68.09	70.01	73.58	38.4	1,941,000
곡선동	43.35	45.58	42.51	67.65	76.87	81.05	74.79	75.46	32.1	3,561,996
입북동	13.72	16.27	22.19	23.04	30.53	30.76	35.74	44.94	31.2	6,927,102
서둔동	50.94	56.34	58.00	61.66	70.74	72.78	71.22	71.31	20.4	5,441,480
권선1동	86.57	92.31	99.10	99.19	98.31	97.82	96.32	97.73	11.2	1,219,242
세류1동	70.89	71.52	70.88	71.35	72.77	73.28	73.52	78.19	7.3	786,363
세류2동	70.49	75.17	68.84	72.84	77.87	83.95	77.70	76.87	6.4	4,146,381
세류3동	98.67	100.0	99.77	100.0	100.0	100.0	99.69	100.0	1.3	876,139
팔달구	76.82	80.03	83.32	89.85	89.96	90.38	88.30	89.19	12.4	12,858,808
화서2동	33.62	38.78	51.17	73.25	76.98	76.71	71.52	73.08	39.5	1,952,810
우만1동	59.89	67.73	67.42	89.16	88.15	88.86	89.26	90.09	30.2	1,304,418
우만2동	82.56	89.17	89.66	94.07	94.29	93.98	89.41	95.49	12.9	806,374
인계동	82.65	87.18	93.58	94.54	93.42	95.26	92.70	92.51	9.9	2,920,306
화서1동	84.44	87.26	88.69	89.48	91.05	89.73	88.89	89.37	4.9	987,750
매산동	91.69	92.04	90.10	92.56	92.30	92.79	92.17	92.61	0.9	838,365
고등동	91.45	91.84	91.96	93.11	91.96	92.21	91.86	92.35	0.9	979,834
지동	99.09	99.77	99.58	99.89	99.77	99.42	99.44	99.47	0.4	792,690
매교동	92.25	92.19	91.96	92.84	91.89	92.76	91.85	92.19	-0.1	715,457
행궁동	90.74	89.76	89.67	90.47	89.98	90.08	87.69	88.61	-2.1	1,560,805

주 : 진하게 표시한 시기는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시가지 및 나지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

2) 경작지와 산림 및 초지의 토지피복 변화

수원시의 시가지 확대는 더 높은 수준의 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이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생태적 가치 수준을 높여 줄 수 있는 경작지, 산림 및 초지, 즉 녹지의 면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때 수원시의 경작지와 산림 및 초

지의 축소 양상 시가지 확장 시기에 따라서 주요 변화지역이 달랐다. 시가지 확장 기에는 영통구 지역의 경작지가 시가지화되었으며, 시가지 유지기에는 황구지천 인근의 경작지가 변화를 겪었다. 신도시 조성기에는 광교산과 철보산 일대의 산림 및 초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행정동 단위에서의 경작지 변화는 <표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일 행정동이 가장 큰 비율로 경작지 면적이 감소한 곳은 장안구 정자3동으로 1996년 행정구역의 50.15%였던 경작지가 2000년에는 0.92%로 급감하였다. 하지만 영통구 지역은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경작지 감소가 있었다. 인접해 있는 행정동 대부분이 경작지 감소했고 개발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토지피복 비교 시작 시점인 1988년은 이미 매탄1~4동은 60~90% 수준의 시가지화가 진행되어 경작지가 사라진 상태였으며, 1992년에 영통1~3동 지역은 행정구역의 34~53% 지역이 경작지로 이용되었으나 2000년에 되면 0.8~16%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망포1동과 망포2동은 2000년에 각각 42%, 62%의 면적이 경작지로 활용되었으나 2008년이 되면 5%, 4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망포2동의 경우 2015년에 29%로 순차적인 경작지 감소가 있었다가 2017년이 되어 9%의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최근까지도 경작지 감소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산림 및 초지 지역의 감소가 발생한 지역 범위는 경작지보다는 작지만 <표 6>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급격한 감소를 겪었다. 영통구의 영통3동 지역은 구릉지와 경작지가 혼재되어 있었던 환경이 반영되어 경작지가 급감한 한편, 산림 및 초지도 1992년 45%에서 1996년 9%로 급감하였다. 이후 개발지 내 공원 설치 및 산림 및 초지가 정비되면서 다소 증가하였다.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광교1동과 광교2동은 2008년 39%, 57%였던 산림 및 초지 면적비율이 2011년에는 25%, 36%로 감소하였다. 호매실지구가 위치한 권선구 호매실동과 금곡동 또한 2008년 각각 40.87%, 40.81%였다가 2011년 31.31%, 30.5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 외에 권선구 곡선동 지역은 2008~2011년에, 팔달구 우만1동 지역은 1996~2000년에 시가지 확장에 따른 산림 및 초지 면적 감소가 있었다.

〈표 5〉 급격한 시가지화 및 나지화가 진행된 행정동의 연도별 경작지 면적 비율 (단위: %)

행정구역	1988(A)	1992	1996	2000	2008	2011	2015	2017(B)	(B)-(A)
장안구	13.40	11.76	9.45	4.32	4.28	4.21	4.67	3.61	-9.8
정자3동	68.48	72.31	50.15	0.92	0.38	1.91	4.00	2.28	-66.2
정자2동	23.10	25.96	18.36	<u>0.07</u>	1.26	0.37	0.59	0.37	-22.7
영통구	29.37	26.33	18.33	13.55	10.61	3.93	4.08	2.28	-27.1
영통3동	43.34	46.52	0.78	2.16	2.64	2.39	1.54	0.85	-42.5
망포1동	66.10	59.37	49.44	42.48	4.93	5.80	7.55	3.32	-62.8
망포2동	72.44	77.92	70.90	62.16	41.83	38.41	29.00	<u>9.38</u>	-63.1
영통1동	32.62	34.75	5.77	4.23	3.98	4.01	3.98	3.29	-29.3
영통2동	54.31	52.90	15.54	9.47	7.25	0.61	0.34	0.00	-54.3
광교2동	22.39	19.57	20.80	18.62	11.31	3.89	4.85	3.45	-18.9
광교1동	24.95	22.78	20.62	15.66	16.81	<u>1.70</u>	3.37	2.48	-22.5
매탄2동	30.11	0.04	0.00	0.00	0.00	0.15	0.15	0.00	-30.1
권선구	43.73	42.71	38.17	35.48	26.15	20.78	18.11	13.81	-29.9
권선2동	52.07	42.79	<u>28.73</u>	25.44	21.59	<u>4.10</u>	0.11	0.22	-51.8
호매실동	50.78	50.05	45.68	43.78	<u>33.46</u>	<u>21.73</u>	20.06	15.97	-34.8
금곡동	46.78	49.04	40.67	41.79	34.43	<u>20.18</u>	18.46	13.57	-33.2
곡선동	37.87	37.04	36.22	<u>18.44</u>	10.78	10.90	9.14	7.54	-30.3
팔달구	10.01	8.67	5.63	1.39	1.24	0.79	1.02	0.55	-9.5
화서2동	38.16	37.42	<u>25.75</u>	<u>5.99</u>	3.79	2.82	4.03	2.18	-36.0
우만1동	14.60	10.19	9.18	0.72	1.54	0.55	0.87	0.19	-14.4

주 : 진하게 표시한 시기는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경작지 면적비율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
 밑줄 표시한 시기는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경작지 면적비율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

〈표 6〉 급격한 시가지화 행정동 중 산림 및 초지 감소가 큰 지역의 시기별 면적 비율 (단위: %)

행정구역	1988(A)	1992	1996	2000	2008	2011	2015	2017(B)	(B)-(A)
장안구	54.56	53.32	53.78	50.68	51.31	50.21	51.58	49.74	-4.82
영통구	39.43	38.56	35.26	31.86	28.95	19.93	25.15	22.93	-16.5
영통3동	45.87	44.97	<u>8.95</u>	11.13	13.87	15.79	17.99	13.90	-31.97
광교2동	57.22	55.10	53.14	46.89	38.93	<u>24.60</u>	34.31	32.77	-24.45
광교1동	62.01	63.21	65.98	61.39	56.54	<u>35.77</u>	43.72	41.73	-20.28
권선구	21.48	19.52	21.22	18.67	19.66	15.21	16.72	18.98	-2.5
호매실동	41.80	39.78	38.34	39.47	40.87	31.31	28.26	31.32	-10.48
금곡동	41.66	38.46	38.67	34.61	40.81	<u>30.57</u>	27.89	30.67	-10.99

행정구역	1988(A)	1992	1996	2000	2008	2011	2015	2017(B)	(B)-(A)
곡선동	18.78	17.37	21.27	13.91	12.35	8.05	16.07	17.00	-1.78
팔달구	12.24	9.98	9.94	7.74	8.45	7.93	9.78	9.25	-2.99
우만1동	25.51	22.07	23.40	<u>10.12</u>	10.30	10.59	9.88	9.72	-15.79

주 : 밑줄 표시한 시기는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산림 및 초지 지역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

2015년 곡선동 지역의 산림 및 초지 면적 비율의 증가는 수원비행장의 초지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함

1972년의 수원시 도시구조는 동서로는 약 2km, 남북으로는 약 4km 규모의 수원시 시가지가 중심에 있고 주변지역은 경작지와 산림 및 초지가 둘러싸고 있어 상대적으로 현재에 비해 녹지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좋았다. 하지만 시가지 증가 및 산림 감소로 녹지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나빠지게 되었고 인근 화성시, 용인시의 시가지 확장으로 도시 간 연담화현상이 발생하면서 수원시의 동부지역은 제한적인 녹지 환경이 남은 상황이다. 서수원지역은 동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경지 및 산림 면적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 서수원 행정타운, 고색산업단지 개발, 호매실지구 개발 및 당수지구 개발까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추가적인 농경지 감소가 예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다중시기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수원시의 도시구조 변화 및 토지피복 환경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USGS Landsat Data Archives를 통해 1972년에서 2017년 시기에 촬영된 14건의 인공위성영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컬러영상 합성을 통해 각 시기별 수원시 도시구조를 해석하였다. 한편, 수원시 토지피복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공위성영상을 토지피복도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준은 2019년 44개 행정동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하여 피복 유형별 면적 정보를 취합하였다. 그 결과 수원시의 시기별 시가지 확장 분포의 양상을 공간패턴의 관점, 변화 속도의 관점, 양적 규모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원시의 토지피복도를 2~5년의 간격으로 작성한 점이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보다 더 좁은 시간 간격으로 수원시

시가지의 확장, 경작지와 산림 및 초지의 감소 등의 도시의 변화과정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는 수원시 토지피복 유형의 변화양상을 정량분석한 점이다. 수원시의 시가지가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인지는 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면적이 확장되었고 이로 인해 경작지와 산림 및 초지 면적이 얼마나 축소되었는지 수치화하였다. 수원시의 시가지 및 나지 면적 비율은 1972년과 2017년을 비교했을 때 11.82%에서 65.11%로 증가하였고, 경작지는 30.24%에서 6.95%로 감소하였으며, 산림 및 초지의 면적 비율은 57.25%에서 27.32%로 감소하였다.

세 번째는 수원시 시가지 확장의 공간패턴을 4개 행정동의 단위로 확인한 점이다. 그 결과 1990년대에는 정자동, 매탄동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면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은 망포동, 광교동, 호매실동, 금곡동을 중심으로 큰 토지피복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네 번째는 수원시 시가지 확장 속도 패턴이 시기별로 크게 3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1988~2000년은 수원시 시가지 성장 속도가 가장 빨랐던 시기다. 이어진 2000~2008년은 시가지의 확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둔해지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2008~2017년은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의 대규모 개발로 다시 시가지 확장 속도가 빨라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토지피복 유형 변화의 방향성이 현재는 황구지천 인근과 서측지역을 중심으로 옮겨 갔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황구지천 인근과 서측지역이 현재 유일하게 잔존해 있는 대규모 녹지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해당지역들이 큰 규모로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겪고 파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원시의 녹지 관리정책은 잔존해 있는 녹지가 파편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원시 전체 지역을 고려하는 1인당 녹지면적의 관점에서 녹지 관리계획이 현실성 있게 실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원시가 어떠한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지금의 녹지 감소추세가 오히려 증가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 따라서 차후 수원시의 녹지축 설정 및 녹지의 복원 시 과거 환경을 고려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녹지환경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남이 · 박정기 · 조기성 · 유연, 2012, 「IKONOS영상을 이용한 토지피복분류 기법 분석」, 『대한공간정보학회지』 제20권 3호, 65~71쪽.
- 김백영 · 김재국 · 김지석 · 백종철 · 이기봉 · 이창수 · 정부매 · 한동수, 2014, 『수원시사2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수원시사편찬위원회.
- 김은영 · 송원경 · 이동근, 2012, 「산림과편화에 대한 국내 · 외 연구동향」,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제15권 2호, 149~159쪽.
- 신행우 · 김영옥, 2007, 「수원시 도시성장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 연구」, 『한국도시계획학회지 도시설계』 제8권 2호, 85~98쪽.
- 오치영 · 박소영 · 김형석 · 이양원 · 최철웅, 2010,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토지피복분류와 정확도 비교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13권 1호, 89~100쪽.
- 윤성탁 · 김선오 · 임상규, 2001, 「Landsat TM 영상자료를 이용한 평택지역의 토지피복 현황 및 분류정확도 평가」, 『한국농림기상학회지』 제3권 3호, 163~170쪽.
- 윤상복 · 김가야 · 김정호, 2008, 「우리나라 대도시의 용도지역 특성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0권 6호, 3487~3499쪽.
- Bhatta, B., 2007, "Quantification of confusion in LISS-III & LISS-IV data for urban land-cover classification", Proceedings of National Conference on High Resolution Remote Sensing & Thematic Applications Kolkata, December 18-20, Indian Society of Remote Sensing, p.58.
- Elachi, C., Zyl, J. V., 2006, "Introduction to the Physics and Techniques of Remote Sensing Second Edition", John Wiley & Sons: Hoboken, New Jersey.
- Narain, V., 2016, "Peri-urbanization, Land Use Change and Water security: A new Trigger for Water Conflicts?", *IIM Kozhikode Society & Management Review*, 5(1), pp.5~7.
- Shi, L., Shao, G., Cui, S., Li, X., Lin, T., Yin, K., Zhao, J., 2009, "Urban Three-dimensional Expansion and Its Driving Forces -A Case Study of Shanghai, China", *Chinese Geographical Science*, 19(4), pp.291-298.
- Smith, D.S., P. C. Hellmund, 1993, "Ecology of greenway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U.S, pp.1~21.
- Ingram, K., Knapp, E., Rominson, J. W., 1981, "Change detection technique development for improved urbanized area delineation, technical memorandum CSC/TM-81/6067",

Computer Sciences Corporation, Silver Springs, Maryland, U.S.

Zhang, W., Li, W., Zhang, C., Ouimet, W. B., 2017, "Detecting horizontal and vertical urban growth from medium resolution imagery and its relationships with major socioeconomic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Remote Sensing*, 38(12), pp.3704-3734.

USGS, Landsat Missions, <https://www.usgs.gov/land-resources/nli/landsat>(2019년 10월 28일 검색).

ESRI, How 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works, <http://desktop.arcgis.com/en/arcmap/10.3/tools/spatial-analyst-toolbox/how-maximum-likelihood-classification-works.htm>(2019년 10월 28일 검색).

JARS, Remote Sensing Note, <http://wtlab.iis.u-tokyo.ac.jp/wataru/lecture/rsgis/rsnote/cp11/cp11-7.htm>(2019년 10월 28일 검색).

USGS, Landsat Collection 1, https://www.usgs.gov/land-resources/nli/landsat/landsat-collection-1?qt-science_support_page_related_con=1#qt-science_support_page_related_con(2019년 10월 28일 검색).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토지피복지도 제작현황, <https://egis.me.go.kr/intro/land.do>(2019년 10월 28일 검색).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18612#AJAX>(2019년 10월 29일 검색).

요약

본 연구는 수원의 도시구조 변화, 도시 확장의 방향 및 규모, 변화 속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972년에서 2017년 사이의 지난 46년간 수원시에서 일어난 토지피복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USGS에서 제공하는 11개 시점의 인공 위성영상을 원격탐사 기법을 사용하여 토지피복을 분류하고 시기별 변화상을 분석하였다. 토지피복 분류는 Landsat 인공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시가지 및 나지, 경작지, 산림 및 초지, 수면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분석결과 수원시는 1972년과 비교했을 때 시가지 및 나지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동시에 경작지와 산림 및 초지는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1988년 수원시의 시가지 및 나지 면적은 현재 수원시 행정구역 면적 기준 37.12%(44.8km²)였던 것이 2017년에는 65.11%(78.6km²)로 약 1.75배 증가하였다. 경작지는 34.4km²로 28.5%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8.39km²의 6.95%로 급감하였다. 산림 및 초지는 1988년에는 40.7km²(33.71%)에서 32.98km²(27.32%)로 감소하였다. 토지피복 변화 속도는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1988~2000년 시기는 수원시의 시가지 확장이 가장 빨랐던 시기였다. 2000~2008년은 시가지의 증가 속도가 비교적 둔화되었던 시기였으나 2008~2017년은 수원 내 호매실 및 광고 신도시들이 들어서면서 다시 가파른 시가지 증가 속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행정동을 단위로 토지피복 변화 양상을 확인하면 주로 영통구의 행정동이 경작지와 산림 및 초지에서 시가지로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기별로는 1990년대에는 정자동과 매탄동을 중심으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은 망포동·광고동·호매실동·금곡동을 중심으로 큰 토지피복 변화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수원시를 보다 조밀한 간격의 토지피복을 분류하여 도시의 변화 과정을 분석한 데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수원시의 녹지축 설정 및 도시환경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주제어 : 토지피복 분류, 인공위성영상, 도시 확장, 토지피복 변화

Abstract

Analysis of Land Cover Changes using Landsat Satellite Imagery of Suwon, South Korea: from 1972 to 2017

Lee Changho, Kim Eunyoung, and Jeon Changwo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rection, magnitude, and speed of urban expansion of Suwon with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land cover changes of the city for the past 46 years from 1972 to 2017. Remote sensing methods are used to analyze satellite images from USGS repository, taken at 11 different timings, to classify the land cover and study changes over time. The land cover a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by using Landsat satellite imagery: built-up and bare land, cultivated land, forests and grassland, and open wat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e steady increase in built-up and bare land since 1972 and the decrease in arable land and forests and grassland. Specifically, the built-up and bare land areas of Suwon in 2017 account for 65.11%(78.6km²), recording a 1.75-fold increase from 37.12%(44.8km²) in 1988. However, the share of cultivated land dropped from 28.5%(34.4km²) to 6.95%(8.39km²) in 2017. Forests and grassland also decreased from 33.71%(40.7km²) in 1988 to 27.32%(32.98km²). How fast land cover changes varied depending on the period. The pace of urban expansion was the fastest in 1988-2000. The period between 2000 and 2009 was the slowest. However, the urban expansion quickly picked up its speed in 2008-2017 with creation of Homaesil and Gwanggyo New Town in Suw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land cover changes by dong, an administrative unit or the primary division of districts, dongs in the Yeongtong district experienced a rapid change in cultivated land and forests and grassland. The analysis on land cover changes by each period suggests that the land cover ratio greatly changed in Jeongja-dong and Maetan-

dong in the 1990s, and Mangpo-dong, Gwanggyo-dong, Homaesil-dong, and Geumgok-dong saw significant changes from late 2000s to early 2010s. This study produces meaningful results by classifying the land cover of areas located at close time intervals and analyzing the process of changes in the city, and the outcomes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ment of green axis and environmental plans of Suwon.

Key words: land cover classification, satellite imagery, urban expansion, and land cover change

편집위원장

이세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실장

편집위원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용 원광대학교 교수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송화성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이성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연식 영남대학교 교수
정현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조영태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금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한동수 한양대학교 교수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
Rainer Dormels 비엔나대학 교수

편집간사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 15

발행인 | 최병대

편집인 | 이세구

발행일 | 2019년 12월 30일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주소 1642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홈페이지 www.suwon.re.kr

전화 031-220-8058

팩스 031-220-8060

E-mail suwonstudy@suwon.re.kr

인쇄 | ㈜아이콘커뮤니케이션(031-245-5500)

ISSN | 2508-6677

Suwon Studies

No. 15, 2019

Suwon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Suwon Studies

- | | |
|-------------|---|
| History | Oh Daeyang
Characteristics of a Cluster of Dolmens around the Streams of Suwon |
| History | Jeong Gyuwan
The Guidelines for the Construction of Fortresses in the Reign of King Jeongjo and Hwaseong Fortress – Focusing on <i>Seongjogo</i> and <i>Hwaseongseongyeoguigwe</i> |
| History | Jnag eul-youn
A Study on Jeongjo's Archery and Journeys to Hwaseong |
| Fine arts | Lee Chae-Young
A Study on Creation and Development of the Local Art Communities from the 1970s to the 1990s in Suwon |
| Politics | Jang Yeonsoo
A Study on Suwon Citizens' Assessment of Politicians & Changes in Voting Shares by District |
| Landscape | Jeong Kyungmin, Kim Eunyoung, and Song Wonkyong
A Study of Discovery and Utilization for Plant Resources in Suwon |
| Environment | Lee Hyunkyung and Hwang Soha
The Current Status and Plans for Improvement of Educational Programs on Environment in Suwon |
| Environment | Lee Changho, Kim Eunyoung, and Jeon Changwoo
Analysis of Land Cover Changes using Landsat Satellite Imagery of Suwon, South Korea: from 1972 to 2017 |